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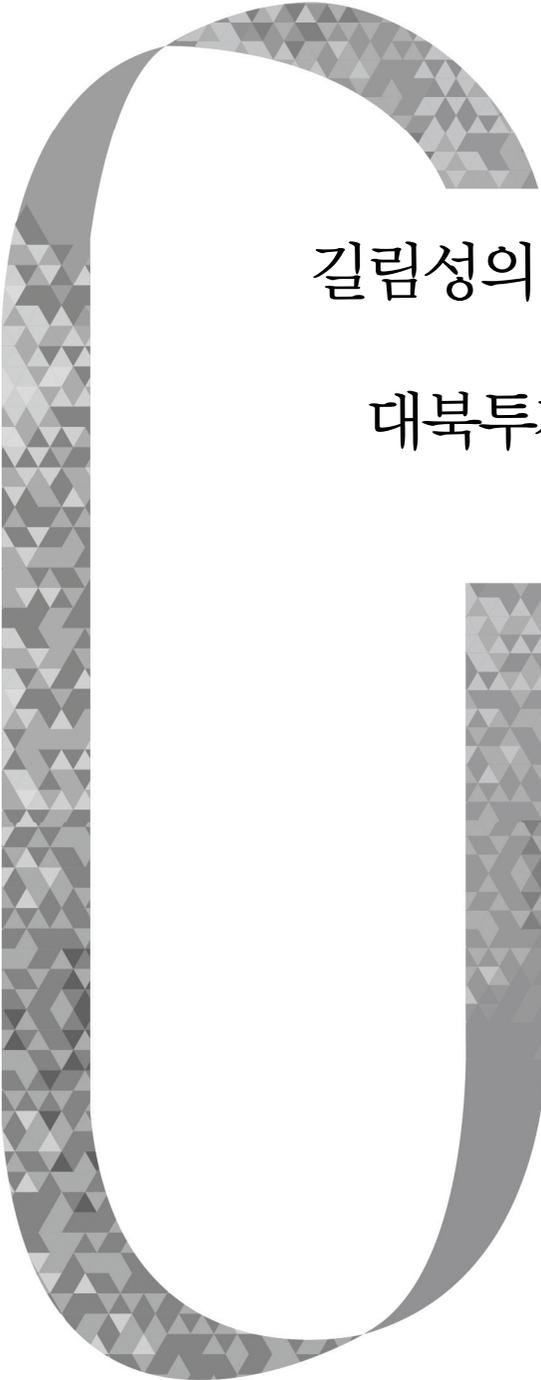
#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 윤승현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 협력방안



#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 윤승현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 김립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 협력방안)

---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978-89-8479-830-4 93340  
대북 경제 협력, 대북 투자  
322.8311-KDC6 / 337.519-DDC23 CIP2016002301  
가 격 13,000원

---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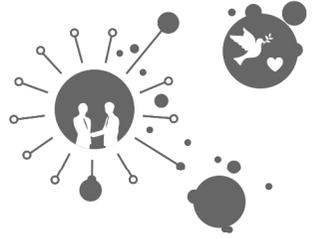
#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Contents

요 약 / xi

<b>I. 서론</b> .....	<b>1</b>
1. 문제의 제기 .....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5
<b>II. 경제협력의 전반적 특성</b> .....	<b>7</b>
1. 길림성과 북한 간의 무역 .....	9
2. 길림성의 대북투자 .....	20
3. 기타 경제협력: 주요 투자인프라 구축 .....	26
<b>III. 대북투자 유형별 실태와 주요 투자사례</b> .....	<b>35</b>
1. 출해구확보형 투자 .....	37
2.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	65
3. 자원개발형 투자 .....	89
4. 분업기지구축형 투자 .....	141
5. 노동력확보형 투자 .....	160
6. 내수시장진출형 투자 .....	173
7. 전문지식활용형 투자 .....	202



<b>IV. 종합평가와 시사점</b> .....	<b>227</b>
1. 종합평가 .....	229
2.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	233

부록 / 235

참고문헌 / 2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89

# 표 차례

표 II- 1	중국의 대북무역과 길림성 .....	11
표 II- 2	동북삼성의 위상 하락과 석탄(HS2701) 수입 .....	13
표 II- 3	길림성의 10대 수출국 .....	14
표 II- 4	길림성의 대북한 10대 수입품 순위와 그 비중 .....	16
표 II- 5	길림성의 대북한 10대 수출품 순위와 그 비중 .....	18
표 II- 6	주요 우회투자기업(2003~2015.8.) .....	22
표 II- 7	길림성의 연도별 지역별 대북투자(2003~2015.8.) .....	24
표 III- 1	중국의 출해구 확보 관련 주요국 움직임 (1989.2.~1997.1.) .....	38
표 III- 2	출해구 관련 주요 외국인투자 동향 (1996년 8월 말 기준) .....	45
표 III- 3	로항구일체화 동림그룹시대(2003.10.~2008.4.) .....	47
표 III- 4	로항구일체화 창력그룹시대(2008.4.~2010.3.) .....	56
표 III- 5-1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와 창력(2010.3.~현재) .....	58
표 III- 5-2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와 창력(2010.3.~현재) .....	60
표 III- 6	주요 출해구확보형 투자 .....	65
표 III- 7	주요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	69
표 III- 8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의 투자기업(2015년 6월 기준) .....	76
표 III- 9-1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건설분야) .....	79
표 III- 9-2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건설 이외 분야) .....	81
표 III-10	아태집단의 라선건설공업구 건설 동향 .....	86
표 III-11	자원개발형 투자 .....	91
표 III-12	무산광산의 잔존매장량과 철품위 (2004년 1월 1일 기준) .....	101
표 III-13	무산광산의 철광석 생산실태(1996~2000) .....	102
표 III-14	'통강'의 조강생산 및 소요 철광석 공급계획 .....	104
표 III-15	길림성의 철광석(HS2601) 국가별 수입액과 단가 동향 (2002~2006) .....	105
표 III-16	주요국별 철광석 매장량과 Fe품위 변화(1995~2003) .....	106



표 Ⅲ-17	북한 철광석의 5대 수출 성(省)과 길림성 비중 (2003~2014) .....	111
표 Ⅲ-18-1	중광국제의 해산동광개발 대사기(2007.6.~2008.12.) ...	119
표 Ⅲ-18-2	중광국제의 해산동광개발 대사기(2009.1.~2012.6.) ...	121
표 Ⅲ-19	만항자원유한공사의 대사기(1996~2014) .....	128
표 Ⅲ-20	만항자원의 투자회사 .....	132
표 Ⅲ-21	길림호웅집단의 대북투자 .....	139
표 Ⅲ-22	중국의 북한 금광(HS261690)수입에서 요녕성과 길림성 비중 .....	140
표 Ⅲ-23	분업기지구축형 대북투자 .....	142
표 Ⅲ-24	수산분야의 대북투자 .....	147
표 Ⅲ-25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입주한 주요 수산분야 기업 .....	148
표 Ⅲ-26	북한의 어패류(HS03) 대일수출과 수입(2001~2014) ...	156
표 Ⅲ-27	노동력확보형 대북투자(2003~2015.8.) .....	162
표 Ⅲ-28-1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플라스틱·건축자재 분야 (2003~2015.8.) .....	174
표 Ⅲ-28-2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물자유통·숙박 분야 (2003~2015.8.) .....	176
표 Ⅲ-28-3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소비재 분야 (2003~2015.8.) .....	178
표 Ⅲ-29	플라스틱(HS39)의 대북수출에서 길림성의 비중 (2003~2014) .....	180
표 Ⅲ-30	HS 4단위 기준 길림성의 대북 플라스틱수출 (2003~2014) .....	181
표 Ⅲ-31	라선시인민위원회의 토지리용증 주요 내용 .....	193
표 Ⅲ-32	라선시인민위원회의 기업등록증 주요 내용 .....	194
표 Ⅲ-33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국토개발승인서 내용 .....	195

표 Ⅲ-34		길림성의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가구품목 (2003~2014) .....	198
표 Ⅲ-35		Foreign Trade(貿易)와 영광가구합영회사 (1995~2014) .....	201
표 Ⅲ-36		북한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길림성기업 (2003~2015.8.) .....	203
표 Ⅲ-37-1		전문지식활용형 대북투자: 해화무역집단 (2003~2015.8.) .....	203
표 Ⅲ-37-2		전문지식활용형 대북투자: 기타기업 (2003~2015.8.) .....	204
표 Ⅲ-38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대북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	216
표 Ⅲ-39		담배(HS24)의 대북수출에서 길림성의 비중 (2003~2014) .....	219
표 Ⅲ-40		HS 6단위 기준 길림성의 대북 담배수출 (2003~2014) .....	220



그림 I-1		북한무역(반출입 포함)에서 주요국의 비중(1990~2014) ....	4
그림 II-1		길림성의 대북수출입(1998~2014) .....	10
그림 II-2		동북삼성과 비동북삼성지역의 대북 석탄(HS2701) 수입 ...	12
그림 II-3		길림성의 대남북한 수출입 .....	15
그림 II-4		중국 동북삼성의 연도별 대북투자(2003~2015.8.) .....	21
그림 II-5		길림성 대북투자자과 훈춘(2003~2015.8.) .....	24
그림 II-6		길림성의 대라선지역투자(2003~2015.8.) .....	26
그림 III-1		중조 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	77
그림 III-2		아태집단의 100만 톤 시멘트공장 건재공업구 착공식 .....	83
그림 III-3		중국의 북한 철광석 수입(2005~2008) .....	99
그림 III-4		중국의 전체철광석 수입과 길림성과 북한 .....	105
그림 III-5		무산 철광석 수입을 위한 중국의 인프라정비 .....	108
그림 III-6		중국 주요 성(省)의 북한 철광석 수입(1998~2008) .....	109
그림 III-7		북한 철광석의 월별 길림성과 기타 성(省) 수출 (2007.1.~2014.12.) .....	110
그림 III-8		중국의 북한 동광석(HS2603) 수입(1998~2015.8.) .....	114
그림 III-9		중국의 북한 몰리브덴(HS2613) 수입(1998~2015.8.) ...	124
그림 III-10		길림성의 북한 동광석(HS2603) 월별수입 (2007.1.~2015.8.) .....	127
그림 III-11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현판식과 선광장 .....	135
그림 III-12		장백서광개선휘광업유한공사의 철정광분 선광공장 기공식 ..	143
그림 III-13		요녕성과 길림성의 대북 어류(HS03) 수입 (1998~2015.8.) .....	146
그림 III-14		대련동양의 신규가공기지: 훈춘과 라선 .....	151
그림 III-15		북한의 대일수출에서 차지하는 어류(HS03)의 비중 (1994~2007) .....	156
그림 III-16		중국의 대북 편물의류(HS61)와 편물외의류(HS62) 수입 ..	161
그림 III-17		플라스틱(HS39)의 대북수출입(1995~2014) .....	180

그림 Ⅲ-18   라선강덕산업회사의 대형슈퍼마켓 조감도 .....	190
그림 Ⅲ-19   라선왕복특상업원 조감도 .....	192
그림 Ⅲ-20   가구(HS94)의 대북수출입과 길림성(1995~2014) .....	196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인 2003년 1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동북삼성의 대북투자는 151개사(길림성 79개사, 요녕성 66개사, 흑룡강성 6개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길림성이 요녕성을 제치고 대북투자의 주도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훈춘, 연길, 장춘, 도문 4개 지역이 길림성 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라선특별시에 대한 길림성투자가 증가하면서 길림성투자의 약 54%가 라선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2009년 10월 초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 김정일의 동북삼성 방증을 계기로 길림성 장춘-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북한 라선특별시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축이 가동되면서 북한지역의 투자여건 개선과 길림성 수출입에서 북한의 지위도 상승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라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1)중국-북한 간 인민폐 계좌정산시스템 구축, 100%투자기업인 중화상업은행의 설립 등 금융시스템의 정비, (2)훈춘-라선 간 변경우편물 직통교환시스템의 개통, (3)훈춘 전력의 라선송전의 가시화, (4)연길-라선, 삼합-회령, 연길-삼지연 관광노선에서 중국버스의 북한 진입 등 투자인프라 구축의 진일보였다.

주요 투자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길림성 대북투자는 (1)라진항, 청진항 진출 등을 목표로 하는 출해구확보형 투자, (2)라선경제특구 안의 소특구인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재공업단지 등 여러 산업구를 건설하는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3)철광, 동광, 금광 등 지하자원 채굴권 획득에 초점을 맞춘 자원개발형 투자, (4)자원개발과 관련된 선광장, 수산분야의 주요 가공공정 등을 북한접경지역

중국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분업기지구축형 투자, (5)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라선지역 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력확보형 투자, (6)플라스틱제품, 건축자재, 물자유통, 가구, 소비재 등 북한시장 선점에 나선 내수시장진출형 투자, (7)오랜 대북무역·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북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지식활용형 투자의 7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또한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규모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외투자에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이 세 갈래 방향에서 길림성의 대북투자에 참여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아태집단, 길림호흥집단 등 길림성의 대기업, 둘째는 흑룡강성의 북대황집단, 절강성의 만향집단, 북경의 건재집단 등 여타 성의 대기업, 셋째는 미국의 독자투자기업인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이탈리아·도미니카·미국의 독자기업인 홍콩왕복특유한공사 등 외국계 투자기업 등인데, 예를 들어 만향집단의 경우 북한이 계약을 파기하자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가 김정일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준수를 관철했고, 김정은 시대인 2014년에는 북한투자회사인 혜중광업합영회사의 (1)생산제품 마케팅, (2)원자재구매, (3)결산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회사를 길림성 장백현에 설립하였다. 달리 말해 대북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새로운 변화의 잉태였다. 그렇지만, 아직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길림성의 대북투자, 대북투자유형, 주요 투자사례, 출해구확보형 투자, 자원개발형 투자

# **Analysis of the Jilin Province'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cusing on Investment in North Korea**

*Bae, Chong Ryel et al.*

The number of firms that obtained the Chinese government's approval on the investment in North Korea from January 2003 to August 2015—after the July 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is estimated to be more than 151 (79 from Jilin Province, 66 from Liaoning Province, and 6 from Heilongjiang Province). It is noticeable that Jilin Province has emerged as the leading region in investing in North Korea, surpassing Liaoning Province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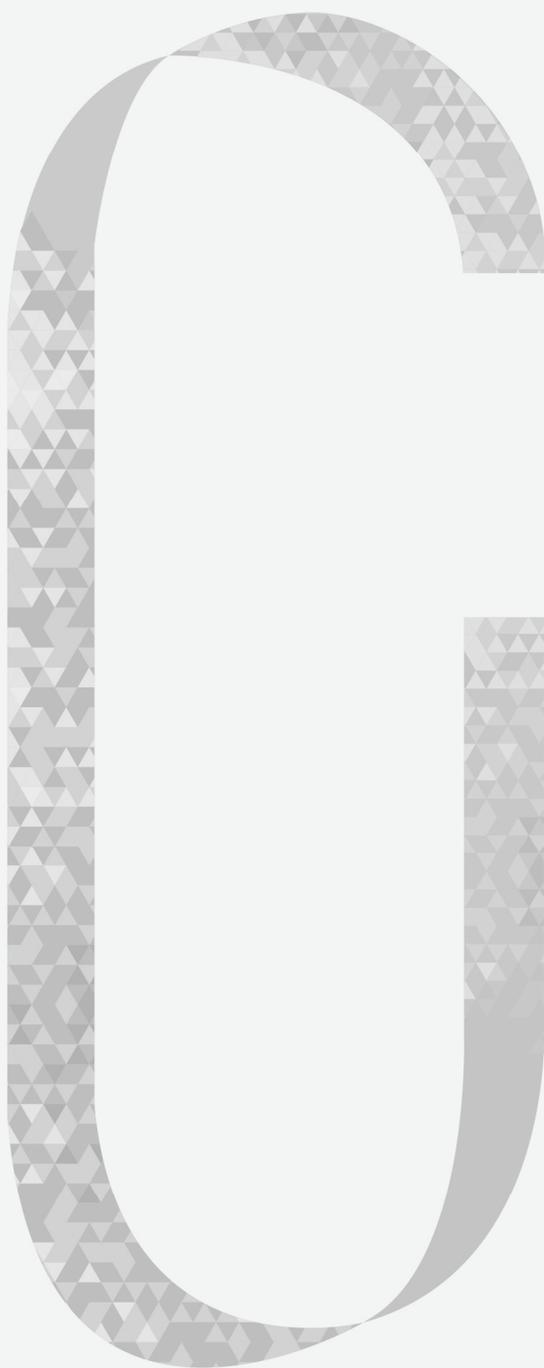
Seventy percent of Jilin Province's investment in North Korea originates from Hunchun, Yanji, Changchun, and Tumen region, and fifty-four percent of Jilin Province's investment is concentrated in Rason region as the province's investment in Rason Special City has increased since 2010. This is because investment conditions of North Korea have improved and North Korea's standing in trade of Jilin Province elevated as the axis of economic cooperation—that connects Changchun-Hunchun-Rason—began operation by Chinese Premier Wen Jiabao's visit in October 2009 and Kim Jong-il's visit to China'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May 2010.

Analyzing the major investment cases of Jilin Province in North Korea, the following seven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were observed: (1) port-securing investment aiming to advance towards the sea such as Rajin port and Chongjin port; (2) economic trade zone-building investment constructing various industrial zones in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uch as highly-efficient agricultural zone and construction material industrial complex; (3) resource-developing investment focused on obtaining mining concessions of resources such as iron ore, cooper, and gold; (4) labor

---

division-establishing investment that chooses to base major processing facilities such as the concentrator related to resource development and fish product processing plant in Chinese territory close to the North Korean border; (5) labor force-acquiring investment utilizing the labor force in the Rason region, focusing on apparel industry; (6) domestic market-entering investment advancing to be the first mover in the field of plastic goods, construction materials, large supermarkets, furniture, etc.; (7) expertise-utilizing investment stretching investment in various sectors based on extensive experience in trade and investment in North Korea.

**Keywords:** Jilin Province's Investment in North Korea, Type of Investments in North Korea, Major Investment Cases, Port-Securing Investment, Resource-Developing Investment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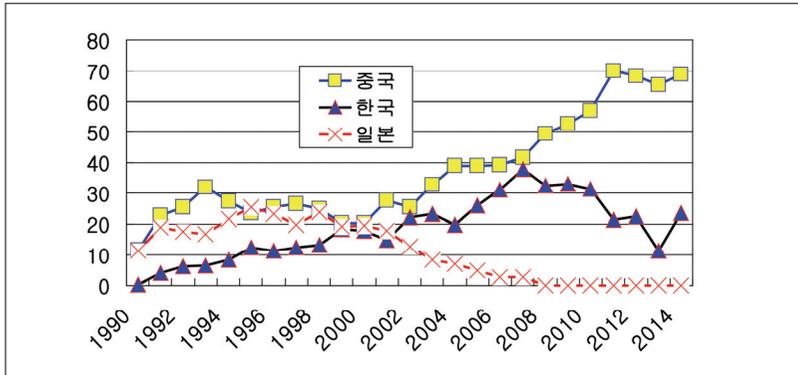
## 1. 문제의 제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후 북중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투자에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다음 두 가지 환경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첫째, 2002년 7·1조치가 경제개혁을 확대하라는 김정일의 2001년 10·3담화<sup>1)</sup>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중국의 기업들 사이에 증폭되었다. 둘째, 중국정부의 동북진흥계획이 실시되면서 동북삼성과 인접한 북한경제가 재평가된 점이었다. 동북삼성개발의 시작은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에서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담긴 보고서의 채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2)</sup>

1)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 중앙당과 내각간부들을 모아놓고 ‘6·3그루뎀’의 경제개혁안을 기초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10·3담화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계획사업을 웃기관과 아랫단위 사이에 분담하라, ②생산관리를 원가·번수입에 의거 통제하라, ③노동규율에서 남는 노력·건달풍을 없애라, ④노동보수에서 평균주의·공짜를 없애라로 요약된다.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 117에서 재인용.

2)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6), pp. 45~72; 윤승현, 『두만강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9), pp. 39~49 참조.

● 그림 I-1 북한무역(반출입 포함)에서 주요국의 비중(1990~2014)  
(단위: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청 자료로 저자 작성.

그런데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중 무역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천안함사건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정체되면서 동북사성론(東北四省論) 등 북중 경협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의 일각에서 증대되었다.<sup>3)</sup> 그러나 그 논거가 될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는 추적이 어려움 등으로 많이 부족했다. 미국의 오픈소스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톰슨(Drew Thompson), 창신, 임금숙, 배종렬 등<sup>4)</sup> 중국의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유익한 선행

3) 동북4성론 등 중국 위협론과 관련하여 쟁점이 잘 정리된 초기의 논문으로는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을 중심으로,” 『최근 조·중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2006.4.20.), pp. 12~39 참조.

4)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Report, March 1, 2012),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OSC-NorthKorea-ForeignJointVentures.pdf>>. (검색일: 2015. 11.16.); 박기원 외, “북한 비즈니스, 어떤 외국회사가 하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자료, 2012); Drew Thomp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at SAIS Report, February 2011), <[http://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1/02/USKI\\_Report\\_SilentP](http://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1/02/USKI_Report_SilentP)

연구들이 일부 있지만, ①투자회사에 대한 중국식, 한국식, 북한식, 영어식 표기의 혼선 등으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②일부 투자회사에 국한되거나, ③전반적 분석에 치중해 중국 성(省)별로 특성을 분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중국 대북투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보다 심층적 연구를 목적으로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최대 투자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길림성을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길림성은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주요 대상지역이며,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고, 유럽 등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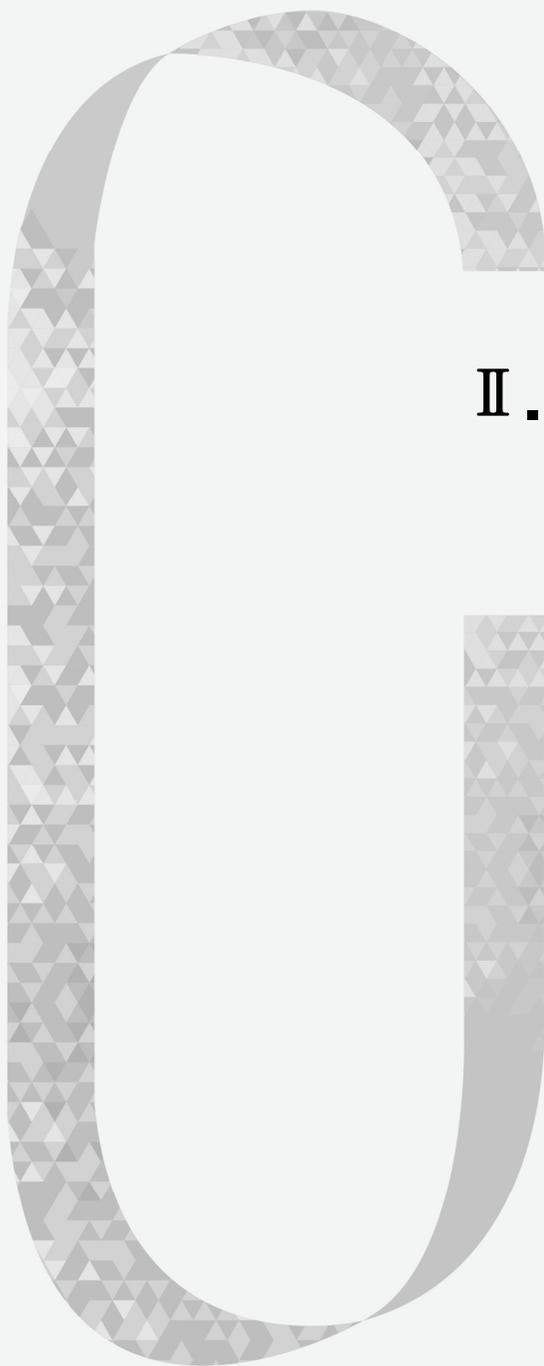
중국의 대북투자 실상에 대한 접근은 ①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②투자회사에 대한 중국식, 한국식, 북한식 표기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국 표기로 된 투자회사와 투자모기업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③투자회사와 투자모기업의 확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가)Foreign Trade of DPRK, 조선신보, 북한 홈페이지 등 북한의 자료, (나)중국 상무부 등 중앙정부와 길림성 등 지방정부의 자료, 투자기업과 관련된

---

artners\_DrewThompson\_020311.pdf>. (검색일: 2015.11.16.); 唱新(ちゃん),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世界經濟研究協會, 2006. 5.), pp. 28~39;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pp. 245~270;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8), pp. 43~70.

중국어 인터넷문헌, 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 중국자료, (다)연변일보,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요녕신문 등 중국의 한국어 자료, (라)투자 관계자 인터뷰 및 비공개자료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추적·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성은 4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I장은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기술한 서론이고, II장은 경제협력의 전반적 특성으로 ①길림성과 북한 간의 무역 특성, ②길림성의 대북투자 특성, ③투자와 관련되는 기타 경제협력 특성 등을 분석했다. III장은 대북투자 유형별 실태와 주요 투자사례로 길림성의 투자를 ①출해구확보형 투자, ②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③자원개발형 투자, ④분업기지구축형 투자, ⑤노동력확보형 투자, ⑥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⑦전문지식활용형 투자 등으로 나누고, 대표사례를 보다 더 심층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IV장은 종합평가와 그 시사점을 도출한 결론에 해당되고, 부록에서는 모회사와 투자기업의 간략한 정보를 축약한 「길림성 대북투자기업리스트」와 대북투자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주요 문건들을 첨부하였다.



## Ⅱ. 경제협력의 전반적 특성



## 1. 길림성과 북한 간의 무역

2014년 길림성의 대북수출은 7억 5,560만 달러, 대북수입은 4억 3,295만 달러, 수출입 합계 11억 8,855만 달러로 연 12억 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7·1조치가 시행되었던 2002년 길림성의 대북수출이 8,155만 달러, 대북수입이 3,350만 달러, 수출입 합계가 1억 1,506만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수출은 9.2배, 수입은 12.9배, 수출입은 10.3배 성장하였다. <그림 II-1>에서 보듯이 길림성의 대북무역은 2004년 2억 달러대로, 2008년 6억 달러대로, 2013년 8억 달러대로 진입하였다.

### 가. 동북삼성의 위상 변화와 길림성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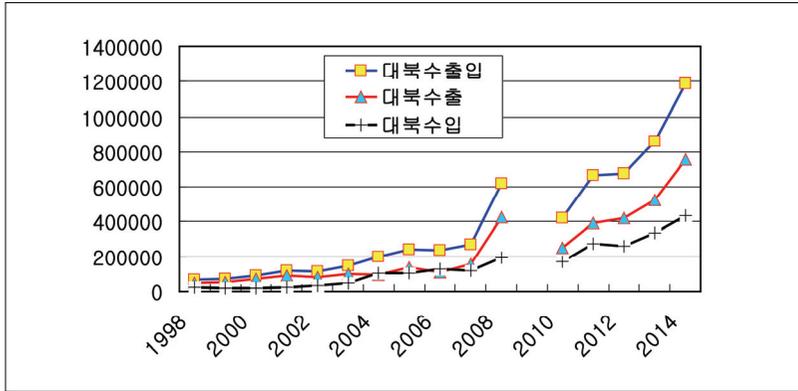
길림성의 대북무역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특징은 7·1조치 이후 중국의 전체 대북무역에서 동북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림성의 약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북삼성의 위상 하락을 견인했던 것은 대북수입이었다(<표 II-1> 참조).

동북삼성의 대북무역비중은 2002년 78.67%를 정점으로 2005년 67.11%, 2010년 64.99%, 2014년 62.02%로 70%대에서 60%대로 점차 하락하였다. 이는 대북수출비중은 2002년 70.05%에서 2010년 69.99%, 2014년 67.20%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대북수입비중이 2002년 93.52%에서 2010년 55.41%, 2011년 47.96%로 크게 떨어지면서 비롯되었다. 반면, 길림성의 대북무역비중은 2002년 15.59%에서 2005년 15.28%, 2010년 12.12%로 동북삼성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2012년 11.44%를 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3년 13.19%, 2014년 18.66%로 2002년 수준을 오히려 증가하였다.

I
II
III
IV

● 그림 II-1 길림성의 대북수출입(1998~2014)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그런데 동북삼성지역의 대북수입비중의 하락은 광물연료(HS27), 광·슬랙(HS26) 등 지하자원이 주도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 광물성생산물(HS25+HS26+HS27) 무역은 동북삼성이 전체무역의 80~90%를 차지하며, 원유 등 광물연료의 대북수출창구는 흑룡강성으로 전체 광물성무역의 50~60%를 점유하고 있었다.<sup>5)</sup> 상황의 변화는 산동성이 2001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입에, 강소성이 2002년부터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입에 나서면서 비롯되었다.

5) 배종렬, “北·中間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2009년 신년사설의 금속공업강조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09), p. 41.

표 II-1 중국의 대북무역과 길림성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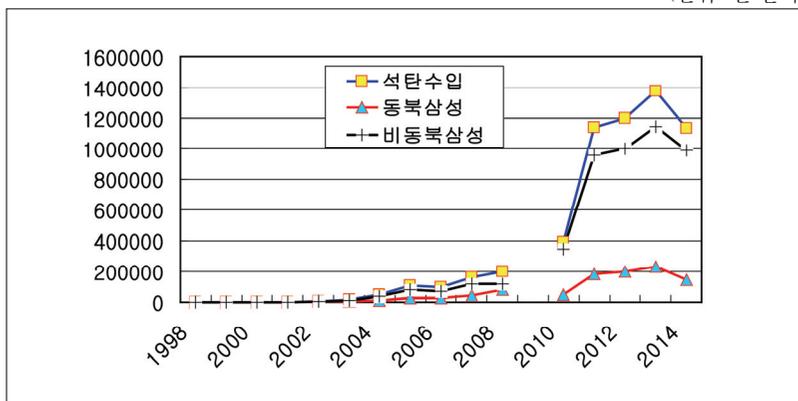
구분 / 년도	전체 대북무역(A)			동북삼성무역(B)			길림성무역(C)		
	수출 (비중: A/A)	수입 (비중: A/A)	무역 (비중: A/A)	수출 (비중: B/A)	수입 (비중: B/A)	무역 (비중: B/A)	수출 (비중: C/A)	수입 (비중: C/A)	무역 (비중: C/A)
1998	356,716 (100.00)	51,089 (100.00)	407,805 (100.00)	249,237 (69.87)	45,375 (88.82)	294,612 (72.24)	46,180 (12.95)	21,365 (41.82)	67,545 (16.56)
1999	328,634 (100.00)	41,722 (100.00)	370,356 (100.00)	224,695 (68.37)	38,383 (92.00)	263,078 (71.03)	49,680 (15.12)	19,952 (47.82)	69,632 (18.80)
2000	450,839 (100.00)	37,214 (100.00)	488,053 (100.00)	310,883 (68.96)	33,444 (89.87)	344,327 (70.55)	72,456 (16.07)	18,301 (49.18)	90,757 (18.60)
2001	570,660 (100.00)	166,797 (100.00)	737,457 (100.00)	402,683 (70.56)	138,745 (83.18)	541,428 (73.42)	91,652 (16.06)	24,622 (14.76)	116,274 (15.77)
2002	467,309 (100.00)	270,863 (100.00)	738,172 (100.00)	327,373 (70.05)	253,314 (93.52)	580,687 (78.67)	81,554 (17.45)	33,502 (12.37)	115,056 (15.59)
2003	627,995 (100.00)	395,546 (100.00)	1,023,541 (100.00)	412,729 (65.72)	372,803 (94.25)	785,532 (76.75)	98,365 (15.66)	49,382 (12.48)	147,747 (14.43)
2004	794,525 (100.00)	582,193 (100.00)	1,376,718 (100.00)	507,066 (63.82)	497,136 (85.39)	1,004,202 (72.94)	95,282 (11.99)	105,204 (18.08)	200,486 (14.56)
2005	1,084,723 (100.00)	496,511 (100.00)	1,581,234 (100.00)	707,199 (65.20)	354,038 (71.31)	1,061,237 (67.11)	138,182 (12.74)	103,212 (20.79)	241,394 (15.26)
2006	1,231,886 (100.00)	467,718 (100.00)	1,699,604 (100.00)	777,646 (63.13)	334,686 (71.56)	1,005,146 (59.14)	109,933 (8.92)	126,361 (27.02)	236,294 (13.90)
2007	1,392,453 (100.00)	581,521 (100.00)	1,973,974 (100.00)	982,835 (70.58)	377,482 (64.91)	1,360,317 (68.91)	153,972 (11.06)	116,675 (20.06)	270,647 (13.71)
2008	2,033,233 (100.00)	754,046 (100.00)	2,787,279 (100.00)	1,567,778 (77.11)	538,549 (71.42)	2,106,327 (75.57)	<b>425,154</b> <b>(20.91)</b>	194,207 (25.76)	619,361 (22.22)
2010	2,277,816 (100.00)	1,187,862 (100.00)	3,465,678 (100.00)	1,594,357 (69.99)	658,142 (55.41)	2,252,499 (64.99)	250,703 (11.01)	169,195 (14.24)	419,898 (12.12)
2011	3,165,006 (100.00)	2,464,186 (100.00)	5,629,192 (100.00)	2,169,453 (68.54)	1,181,914 (47.96)	3,351,367 (59.54)	392,886 (12.41)	275,706 (11.19)	668,592 (11.88)
2012	3,445,843 (100.00)	2,484,699 (100.00)	5,930,542 (100.00)	2,350,593 (68.22)	1,213,620 (48.84)	3,564,213 (60.10)	419,617 (12.18)	259,025 (10.42)	678,642 (11.44)
2013	3,633,150 (100.00)	2,911,544 (100.00)	6,544,694 (100.00)	2,580,011 (71.01)	1,440,976 (49.49)	4,020,987 (61.44)	526,451 (14.49)	336,621 (11.56)	863,072 (13.19)
2014	3,522,515 (100.00)	2,841,476 (100.00)	6,363,991 (100.00)	2,367,036 (67.20)	1,579,878 (55.56)	3,946,914 (62.02)	<b>755,598</b> <b>(21.45)</b>	432,954 (15.24)	1,188,552 (18.66)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I  
II  
III  
IV

<그림 II-2>는 비동북삼성지역의 위상 증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석탄(HS2701)의 대북수입 추이이다. 석탄의 대북수입은 7·1조치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전후하여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2>는 동북삼성과 비동북삼성지역의 대북수입비중을 비교하면서 석탄(HS2701)을 제외한 수치이다. 7·1조치 이후 10%대의 영향력이 2010년에는 20%대로, 그리고 2014년에는 20%대를 넘어 30%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석탄 등 지하자원을 제외할 경우 대북수입에서 동북삼성의 위상 하락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그림 II-2** 동북삼성과 비동북삼성지역의 대북 석탄(HS2701) 수입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표 II-2 동북삼성의 위상 하락과 석탄(HS2701) 수입  
(단위: 천 달러, %)

구분 / 년도	전체 대북수입(A)			동북삼성수입			동북삼성의 비중	
	수입 (A)	석탄 수입 (B)	석탄 제외 수입 (A-B)	수입 (C)	석탄 수입 (D)	석탄 제외 수입 (C-D)	수입 (석탄포함) (C/A)	수입 (석탄제외) (C-D/A-B)
1998	51,089	344	50,745	45,375	340	45,035	88.82	88.75
1999	41,722	151	41,571	38,383	151	38,232	92.00	91.97
2000	37,214	90	37,124	33,444	90	33,354	89.87	89.84
2001	166,797	1,706	165,091	138,745	208	138,537	83.18	83.92
2002	270,863	7,388	263,475	253,314	3,777	249,537	93.52	94.71
2003	395,546	15,428	380,118	372,803	6,126	366,677	94.25	96.46
2004	582,193	49,085	533,108	497,136	11,653	485,483	85.39	91.07
2005	496,511	108,273	388,238	354,038	26,463	327,575	<b>71.31</b>	<b>84.37</b>
2006	467,718	96,651	371,067	334,686	24,784	309,902	<b>71.56</b>	<b>83.52</b>
2007	581,521	162,619	418,902	377,482	43,219	334,263	<b>64.91</b>	<b>79.80</b>
2008	754,046	201,273	552,773	538,549	80,713	457,836	<b>71.42</b>	<b>82.83</b>
2010	1,187,862	390,405	797,457	658,142	47,348	610,794	<b>55.41</b>	<b>76.59</b>
2011	2,464,186	1,140,909	1,323,277	1,181,914	181,793	1,000,121	<b>47.96</b>	<b>75.58</b>
2012	2,484,699	1,198,492	1,286,207	1,213,620	199,583	1,014,037	<b>48.84</b>	<b>78.84</b>
2013	2,911,544	1,379,790	1,531,754	1,440,976	231,460	1,209,516	<b>49.49</b>	<b>78.96</b>
2014	2,841,476	1,135,702	1,705,774	1,579,878	144,787	1,435,091	<b>55.56</b>	<b>84.13</b>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요컨대 동북삼성에 의지하던 북한의 대중수출이 다변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 비동북삼성지역의 관심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 관심이 지하자원에 국한되고 있어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즉 국제화의 진전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 나. 길림성 대외무역에서 북한의 지위 상승

길림성의 대북무역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특징은 길림성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점이었다. 2002년 6위(전체 길림성수출의 4.36%)에 있던 대북수출은 2014년 1위(전체 길림성수출의 12.09%)를, 2002년 9위(전체 길림성수입의 1.51%)에 있던 대북수입은 8위(전체 길림성수입의 2.08%)를 기록

표 II-3 길림성의 10대 수출국

(단위: 천 달러)

순위	1998년	2002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일본 272,006	<b>한국</b> <b>600,732</b>	<b>한국</b> <b>708,872</b>	러시아 607,192	러시아 712,934	일본 637,036	<b>북한</b> <b>755,598</b>
2	<b>한국</b> <b>247,830</b>	일본 301,240	일본 626,353	일본 605,224	일본 667,926	러시아 540,702	일본 659,636
3	미국 106,085	말레이시아 881,185	러시아 471,197	이란 592,145	<b>한국</b> <b>420,508</b>	<b>북한</b> <b>526,451</b>	러시아 540,942
4	<b>북한</b> <b>46,180</b>	인도네시아 96,880	미국 377,640	<b>한국</b> <b>524,098</b>	<b>북한</b> <b>419,617</b>	미국 449,235	미국 486,221
5	홍콩 45,465	미국 94,577	<b>북한</b> <b>153,972</b>	<b>북한</b> <b>392,886</b>	미국 379,603	호주 392,564	<b>한국</b> <b>483,508</b>
6	네덜란드 40,647	<b>북한</b> <b>81,554</b>	독일 120,922	미국 345,891	호주 373,798	<b>한국</b> <b>392,313</b>	이란 255,080
7	말레이시아 40,269	홍콩 40,295	네덜란드 119,706	인도 212,211	브라질 327,950	아르헨티나 230,296	독일 254,583
8	독일 40,214	베트남 40,111	말레이시아 107,156	홍콩 194,010	홍콩 254,160	홍콩 203,001	말레이시아 211,682
9	대만 21,797	네덜란드 29,846	벨기에 78,671	독일 184,385	인도 191,068	독일 193,897	브라질 196,452
10	러시아 19,200	이라크 26,369	홍콩 74,410	호주 157,461	이란 189,735	이란 166,029	홍콩 185,036
전체	1,107,608	1,868,466	4,032,263	5,394,608	5,981,499	5,707,201	6,248,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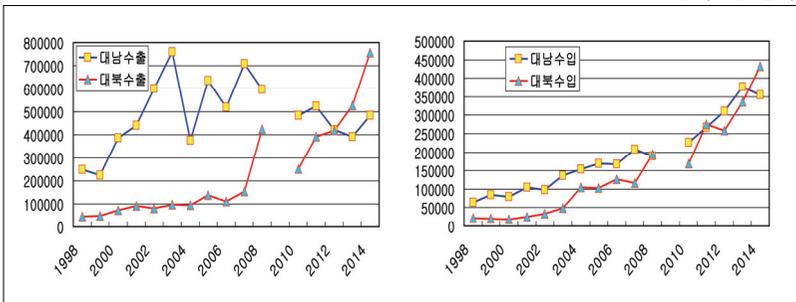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해 그 위상의 변화가 대부분 대북수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 참조).

이에 따라 길림성의 경제파트너로서 남북한의 지위가 역전되었는데, <그림 II-3>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02년 6위(8,155만 달러)에서 점차 수출이 늘면서 2007년 5위(1억 5,397만 달러)로, 2012년 4위(4억 1,962만 달러)로, 2013년에는 일본, 러시아에 이어 3위(5억 2,645만 달러)로, 그리고 2014년에는 대만의 1위(7억 5,560만 달러)로 부상하였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위(6억 73만 달러), 2007년 1위(7억 887만 달러)였으나 점차 수출이 줄어 2011년 4위(5억 2,410만 달러), 2012년 3위(4억 2,051만 달러), 2013년 북한보다 뒤진 6위(3억 9,231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에는 5위(4억 8,351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록 그 격차는 좁지만 수입도 상황이 비슷했다. 1998년 이후 줄곧 우위를 유지하던 길림성의 대남한수입이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대북한수입에 뒤질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 그림 II-3 길림성의 대남북한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I  
II  
III  
IV

## 다. 수출 품목 증대와 편중도 완화

길림성의 대북무역에서 제기되는 세 번째 특징은 수출 품목 증대와 품목 편중도 완화였다. 2014년 길림성의 대북수입 10대 품목은 ①어류(HS03) 1억 2,058만 달러, ②광석(HS26) 1억 526만 달러, ③과일(HS08) 5,049만 달러, ④편물의류(HS61) 4,361만 달러, ⑤의류(HS61) 3,101만 달러, ⑥철강(HS72) 2,195만 달러, ⑦목재(HS44) 1,696만 달러, ⑧동(HS74) 1,598만 달러, ⑨식용채소(HS07) 894만 달러, ⑩한약재·대두(HS12) 437만 달러로,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94.05%에서 2014년 81.06%로,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99.44%에서 2014년 96.81%로,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002년 5개 품목에서 2014년 12개 품목으로 나타나 길림성의 대북수입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편물의류, 동(구리)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표 II-4> 참조).

표 II-4 길림성의 대북한 10대 수입품 순위와 그 비중

(단위: 천 달러, %)

순위	1998년	2002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목재 (44)	철강 (72)	광석 (26)	광석 (26)	어류 (03)	광석 (26)	어류 (03)
2	철강 (72)	목재 (44)	철강 (72)	어류 (03)	광석 (26)	어류 (03)	광석 (26)
3	광석 (26)	어류 (03)	어류 (03)	철강 (72)	철강 (72)	철강 (72)	과일 (08)
4	식용채소 (07)	광석 (26)	목재 (44)	편물의류 (61)	편물의류 (61)	과일 (08)	편물의류 (61)
5	한약재·대두 (12)	식용채소 (07)	과일 (08)	과일 (08)	과일 (08)	동(구리) (74)	의류 (62)

순위	1998년	2002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	견직물 (50)	과일 (08)	식용채소 (07)	의류 (62)	동(구리) (74)	편물의류 (61)	철강 (72)
7	어류 (03)	한약재·대두 (12)	플라스틱 (39)	목재 (44)	의류 (62)	의류 (62)	목재 (44)
8	기계컴퓨터 (84)	견직물 (50)	광물연료 (27)	한약재·대두 (12)	목재 (44)	목재 (44)	동(구리) (74)
9	광물연료 (27)	의류 (62)	동(구리) (74)	동(구리) (74)	식용채소 (07)	광물연료 (27)	식용채소 (07)
10	연(납) (78)	소금·토석 (25)	무기화합물 (28)	무기화합물 (28)	한약재·대두 (12)	식용채소 (07)	한약재·대두 (12)
100만불 이상 수출품목수	3개 품목	5개 품목	9개 품목	10개 품목	11개 품목	12개 품목	12개 품목
상위 5개 품목 수출액(비중)	19,573 (91.61)	31,507 (94.05)	107,140 (91.83)	236,981 (85.95)	223,192 (86.17)	272,586 (80.98)	350,933 (81.06)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비중)	21,088 (98.70)	33,313 (99.44)	113,550 (97.32)	270,984 (98.29)	251,002 (96.90)	325,703 (96.76)	419,126 (96.81)
전체수출액 (비중)	21,365 (100.00)	33,502 (100.00)	116,675 (100.00)	275,706 (100.00)	259,025 (100.00)	336,621 (100.00)	432,954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소수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길림성의 이와 같은 수입특성은 대러시아와 일본수입에서도 관측되었다. 2014년 길림성의 대러시아수입 5대 품목은 ①광물연료(HS27) 5,071만 달러, ②목재(HS44) 3,798만 달러, ③과일(HS08) 3,031만 달러, ④어류(HS03) 2,431만 달러, ⑤광석(HS26) 37만 달러로, 그 비중은 99.26%였으며 100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도 HS 2단위 기준 4개에 불과했다. 2014년 길림성의 대일본수입 5대 품목은 ①자동차(HS87) 11억 8,901만 달러, ②기계·컴퓨터(HS84) 5억 2,913만 달러, ③전기제품(HS85) 2억 1,955만 달러, ④광학기기(HS90) 1억 6,235만 달러, ⑤철강제품(HS73)

표 II-5 길림성의 대북한 10대 수출품 순위와 그 비중

(단위: 천 달러, %)

순위	1998	2002	2007	2011	2012	2013	2014
1	곡물 (10)	곡물 (10)	곡물 (10)	곡물 (10)	곡물 (10)	편물의류 (61)	편물의류 (61)
2	제분품 (11)	어류 (03)	차량 (87)	편물의류 (61)	편물의류 (61)	신발 (64)	신발 (64)
3	종자과실 (12)	플라스틱 (39)	어류 (03)	기계 (84)	담배 (24)	담배 (24)	기계 (84)
4	광물연료 (27)	전기 (85)	기계 (84)	담배 (24)	기계 (84)	곡물 (10)	플라스틱 (39)
5	차량 (87)	담배 (24)	필라멘트섬유 (54)	차량 (87)	신발 (64)	어류 (03)	어류 (03)
6	담배 (24)	차량 (87)	광물연료 (27)	신발 (64)	차량 (87)	의료용품 (30)	전기 (85)
7	철강 (72)	필라멘트섬유 (54)	편물의류 (61)	편물 (60)	부직포 (56)	플라스틱 (39)	담배 (24)
8	비료 (31)	철강 (72)	식용채소 (07)	부직포 (56)	전기 (85)	부직포 (56)	곡물 (10)
9	플라스틱 (39)	편물의류 (61)	유지 (15)	어류 (03)	플라스틱 (39)	기계 (84)	편물 (60)
10	전기 (85)	스테이블섬유 (55)	플라스틱 (39)	플라스틱 (39)	어류 (03)	차량 (87)	음료 (22)
100만불 이상 수출품목수	8개 품목	19개 품목	29개 품목	46개 품목	51개 품목	56개 품목	55개 품목
상위 5개 품목 수출액(비중)	32,856 (71.15)	43,999 (53.95)	58,136 (37.76)	159,525 (40.60)	141,051 (33.72)	165,586 (31.45)	231,291 (30.61)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비중)	39,105 (84.68)	56,491 (69.27)	91,934 (59.71)	232,937 (59.29)	227,841 (54.30)	253,448 (48.14)	357,495 (47.31)
전체수출액 (비중)	46,180 (100.00)	81,554 (100.00)	153,972 (100.00)	392,886 (100.00)	419,617 (100.00)	526,451 (100.00)	755,598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4,985만 달러로, 그 비중은 93.71%였으며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2개였다.<sup>6)</sup>

그러나 길림성의 대북수출은 대북수입과 상황이 달랐다. 또한 길림성의 대일본과 대러시아수출보다 2002년 대비 소수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었으며 수출품목의 다변화 수준도 높았다. 2014년 길림성의 대북수출 10대 품목은 ①편물의류(HS61) 7,556만 달러, ②신발류(HS64) 4,702만 달러, ③기계·컴퓨터(HS84) 3,797만 달러, ④플라스틱(HS39) 3,696만 달러, ⑤어류(HS03) 3,485만 달러, ⑥전기제품(HS85) 3,219만 달러, ⑦담배(HS24) 2,912만 달러, ⑧곡물(HS10) 2,208만 달러, ⑨편물(HS60) 2,205만 달러, ⑩음료(HS22) 2,077만 달러였는데,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53.95%에서 2014년 30.61%로,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69.27%에서 2014년 47.31%로, 상위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었으며 1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HS 2단위 기준 2002년 19개 품목에서 2014년 55개 품목으로 증가했다(<표 II-5> 참조).

그런데 일본의 경우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56.78%에서 2014년 53.58%로, 1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002년 26개 품목에서 2014년 34개 품목으로, 러시아의 경우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002년 77.33%에서 2014년 68.23%로, 10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002년 5개 품목에서 2014년 28개 품목으로 바뀌었으며, 2014년 길림성의 대일본수출 상위 5개 품목은 ①목재(HS44) 8,593만 달러, ②한약재·대두(HS12) 8,580만

6) 2002년 길림성의 대러시아수입 5대 품목의 비중은 91.80%,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은 HS 2단위 기준 8개였고, 길림성의 대일본수입 5대 품목의 비중은 75.95%,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은 HS 2단위 기준 15개였다.

달러, ③조제사료(HS23) 7,415만 달러, ④식용채소(HS07) 6,240만 달러, ⑤동물성제품(HS16) 4,512만 달러였고, 2014년 길림성의 대 러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①의류(HS62) 1억 1,621만 달러, ②편물 의류(HS61) 1억 1,621만 달러, ③기타섬유(HS63) 5,690만 달러, ④자동차(HS87) 4,234만 달러, ⑤신발류(HS64) 4,051만 달러였다.

## 2. 길림성의 대북투자

### 가. 동북삼성의 대북투자과 길림성의 부상

7·1조치 이후인 2003년 1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동북삼성의 대북투자는 길림성 79개사(연변조선족자치주 54개사), 요녕성 66개사(대련 4개사 포함), 흑룡강성 6개사 도합 151개사로 추정되었다.<sup>7)</sup> 여기서 주목되는 흐름은 동북삼성 대북투자의 주도지역 교체였다. <그림 II-4>에서 보듯이 동북삼성의 대북투자는 요녕성이 강세였는데, 2010년 이후 길림성이 대북투자의 주도지역으로 부상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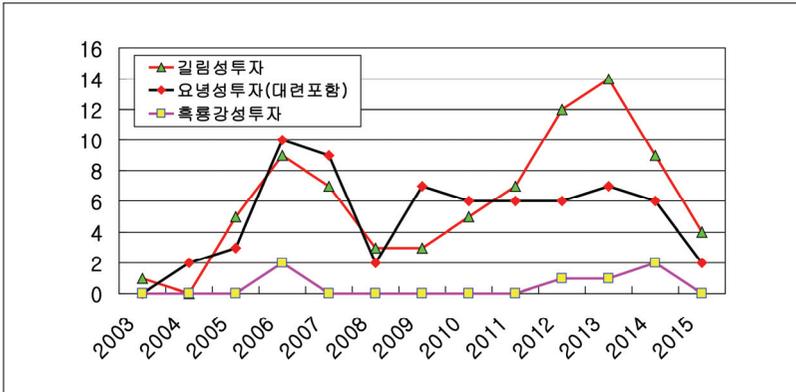
첫째, 중국의 동북삼성과 북한경제 연계개발체제의 심화였다. 북한은 김정일 외병(2008.8.)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시도하면서 선군사상 강화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북한문제(후계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하는 대북정책 기조하에<sup>8)</sup> 경제제재정책보다는 대북경제협력 확대를 선

7) 배종렬, “동북삼성의 대북투자,”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2014.7.2.)의 동북삼성의 대북 투자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택함에 따라 길림성의 전략적 위치가 제고된 것이 촉발제였다. 즉, 중국 온가보(溫家寶,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예방하고 신의주, 라진항 북중(北中) 공동개발을 협의한 것은 2009년 10월 초이며, 김정일의 동북삼성 방중의 시작은 2010년 5월이었다.<sup>9)</sup>

● 그림 II-4 중국 동북삼성의 연도별 대북투자(2003~2015.8.)

(단위: 개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둘째, 길림성 훈춘 등을 창구로 한 중국 동북삼성과 여타지역의 우회투자 증대였다. 예를 들어, ①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는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朝鮮羅先創力國際物流有限公司)를 설립해 북한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2008년 12월에 설립된 훈춘창력의 모회사는 요녕성

8)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2011년 겨울호, pp. 61~62.

9) 김정일은 천안함사건 발생(2010.3.) 이후 3차례 방중(2010.5., 2010.8., 2011.5.)을 통해 동북삼성지역을 시찰했다.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力經濟貿易有限公司)이며, ②산동성 산동초금집단유한공사(山東招金集團有限公司)는 길림성 장백경제개발구에 초금광업유한공사(招金礦業有限公司)를 설립하고 동회사를 매개로 북한과 헤산동광개발을 위한 헤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를 설립했고, ③흑룡강성의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고효율농업시범구를 건설하기 위해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와 훈춘시북대

표 II-6 주요 우회투자기업(2003~2015.8.)

비준 일자	투자 원기업 지역과 기업명	우회투자지역과 투자모회사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05.2.	산동성 초원시: 산동초금집단유한공사(山東招金集團有限公司)	장백경제개발구: 초 금 광 업 유 한 공 사 (招金礦業有限公司)	헤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	동광개채
2012.8.	요녕성 대련시: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	수산물
2012.11.	요녕성 대련시: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力經濟貿易有限公司)	훈춘시: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朝鮮羅先創力國際物流有限公司)	리진항 1호 부두 경영, 물류창고, 해상·도로 운수
2013.1.	흑룡강성 하얼빈시: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	훈춘시: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와 훈춘시북대황경무유한공사(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	라선북대황우의농업회사(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벼, 옥수수, 채소, 종자, 가축, 식용버섯 등 재배

출처: 저자 작성.

황경무유한공사(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를 통해 라선북대황우의농업회사(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를 설립했으며, ④미국의 독자투자기업인 요녕성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는 라선 지역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훈춘변경경제합작구에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를 세우고 그를 통해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를 설립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표 II-6> 참조).

#### 나. 길림성 대북투자의 중심지역: 훈춘-연길-장춘-도문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투자모기업의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표 II-7> 참조), 훈춘 20개사, 연길 16개사, 장춘 11개사, 도문 8개사 순이며 훈춘-연길-장춘-도문 4개 지역이 55개사로 길림성투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는 온가보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 라선지역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훈춘-장춘지역의 투자유치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 대북투자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 훈춘, 도문, 용정, 왕청, 돈화, 화룡 등)가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이외의 길림성지역(장춘, 백산, 집안, 요원, 반석, 부여 등)의 대북투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즉, <그림 II-5>에서 보듯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북투자는 길림성 대북투자와 같은 유형을 그리고 있지만, 훈춘을 연변조선족자치주 이외 지역에 포함할 경우 길림성의 대북투자의 주도지역이 2009년 이후 장춘-훈춘지역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표 II-7 길림성의 연도별 지역별 대북투자(2003~2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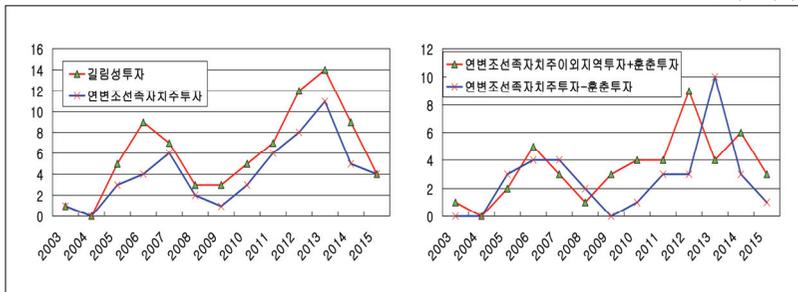
(단위: 개사)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장춘시			1	1	1			1	1	3	2	1		11
연길시				1	1	1			2	2	5	3	1	16
도문시			2	2	1						3			8
화룡시					1						1			2
돈화시				1		1								2
훈춘시	1				2		1	2	3	5	1	2	3	20
용정시			1		1				1	1	1			5
왕청현								1						1
부여시											1	2		3
요원시				1			1							2
백산시			1	1			1	1		1				5
집안시				1										1
반석시				1		1						1		3
길림성전체 (연변자치주)	1 (1)	0 (0)	5 (3)	9 (4)	7 (6)	3 (2)	3 (1)	5 (3)	7 (6)	12 (8)	14 (11)	9 (5)	4 (4)	79 (54)

출처: 저자 작성(연도는 상무부 비준 기준).

그림 II-5 길림성 대북투자자와 훈춘(2003~2015.8.)

(단위: 개사)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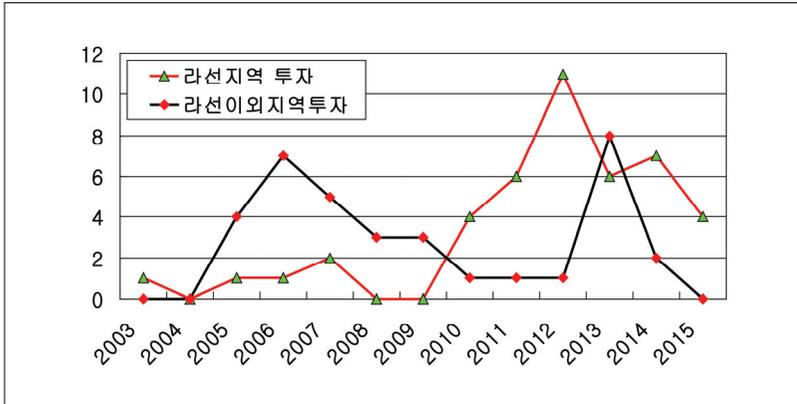
## 다. 길림성 대북투자자과 라선지역 부상

그런데 길림성의 대라선투자자는 <그림 II-6>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증가하면서 라선지역에 대한 투자가 비라선지역에 대한 투자를 능가했는데, 길림성투자(79개사)의 54.44%(43개사)가 라선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북한의 라선지역 투자여건의 개선이었다. 김정일의 라선시 현지도(2009.12.16.) 이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0호(2010.1.4.)로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여 중국의 성급으로 격상시켰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대폭개정(2011.12.3.)을 통해 개성특구형의 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중국기업에게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했다. 둘째, 경제특구를 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북중 공동개발운영체제의 탄생이었다. 즉, 북한과 중국 간의 접경지대 공동개발논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체결(2010.12.)과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발표(2011.5.23.)<sup>10)</sup>로 이어졌다는 점이였다.

10) 북한법연구회·한국법제연구원,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 세미나자료집, 2012.4.27.) 참조.

●그림 II-6 길림성의 대라선지역투자(2003~2015.8.)

(단위: 개사)



출처: 저자 작성.

### 3. 기타 경제협력: 주요 투자인프라 구축

#### 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의 금융협력

기업의 대외무역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는 금융시스템의 정비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국화폐의 국제화와 자국은행의 설립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길림성의 상황은 열악했다. 길림성의 주요 경제파트너인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통상거점인 훈춘에서도 중러 간에 인민폐·루블의 계좌정산이 진행되지 못했다. 훈춘의 59개 대러시아무역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결산통화는 90% 이상이 달러였고, 인민폐·루블 결산 평균비중은 4%미만이었다.<sup>11)</sup> 그런데

11) 중국길림, “훈춘시는 국제적 금융통로를 구축,” 2015.4.27., <<http://korean.jl.gov>>.

북중 간에 두 경제지대의 건설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는 2010년 12월에 합의된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금융정책>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두 경제지대내에서는 기업이 인민폐와 조선원, 또는 두 경제지대법에서 규정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투자가가 두 경제지대내에서 단독은행, 합영은행, 기타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두 경제지대법에 따라 공동개발관리위원회의 비준 범위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두 경제지대에 설립한 은행과 기타 대부능력을 가진 금융기구가 조선의 현행 대부리자율 집행기준상에서 차이부동을 실시하는 권한을 허용한다.”

둘째는 2012년 8월에 체결된 훈춘농촌상업은행(琿春農村商業銀行)과 조선라선개발금융회사 간의 결산협력관계였다. 같은 해 인민은행 총행은 훈춘농촌상업은행이 북중 양국은행 사이의 인민폐 현금 국제운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2014년 9월에는 훈춘농촌상업은행에 외화처리 업무자격을 부여하였다.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조선라선개발금융회사는 모두 344개 계정을 개설했고, 현금수입은 60,786만 위안, 현금지불은 7,764만 위안에 이르렀는데, 길림성정부가 전하는 2014년 상황은 다음과 같다.<sup>12)</sup>

cn/xw/201504/t20150430\_1981026.html>. (검색일: 2015.11.8).

12) 위의 글.

“2014년 연말까지 대조선 국제현금 운송횟수는 84회, 운송한 총액은 54,019만 위안에 이르렀다. 현재 훈춘농촌상업은행에 계정을 개설해 훈춘농촌상업은행을 통해 중조결산업무를 처리하는 성내의 기업은 이미 83개에 달한다. 새로운 중조은행결산경로를 구축한 후 무역기업은 새로운 단맛을 보았다. 기업은 결산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결산증빙을 통해 수출퇴세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기업의 지출 비용을 줄였고 경제수입을 제고했다. 2014년 연말까지 국제인민폐업무결산 총량은 994회에 달하고 금액은 47,438위안, 전년도 동기대비 96.41% 증가했다.”

셋째는 2013년 1월 18일 북한 중앙정부의 비준에 의해 북한의 첫 번째 독자은행인 중화상업은행(中華商業銀行)의 설립이었다. 훈춘시 정무부시장인 임박옥(任璞玉)은 개소식에서 “중화상업은행의 설립은 북중 간에 체결된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공동관리 협의에 관하여(關於共同開發共同管理羅先經濟互貿區協議)>로 합의상 중요한 조치를 실현하고 양국 간 무역거래 확대와 경제번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중화상업은행의 설립은 길림성이 아니라 요녕성의 중국금무역화교역소(대련) 유한공사(中國金貿易貨交易所[大連]有限公司)가 하였는데, 은행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sup>13)</sup> 그리고 2013년 8월 23일 중국 북경의 민영기업인 군령지주집단(君領控股集團)이 1억 달러를 투자, 동 은행 지분 60%를 매입하였는데, 향후 라선지구 업무 외에도 평양에 분점을 개설한다는 것이었다.<sup>14)</sup>

13) 羅先港, “朝鮮首家獨資銀行中華商業銀行正式建立,” 2013.2.1., <[www.luoxiangang.com](http://www.luoxiangang.com)>. (검색일: 2015.11.16.).

14) 中金在線網, “君領控股收購中華商業銀行 進軍海外銀行業,” 2013.8.23., <<http://money.cnfol.com/130823/160,1538,15833547,00.shtml>>. (검색일: 2015.11.8.).

“이 은행은 인민폐를 이용한 결산업무와 인민폐 해외송금을 위한 신용장, 환어음, 보증서, 담보처리를 담당하며, 예금 및 대출 업무와 금융재정관리업무도 취급한다.”

## 나. 전력송전과 체신 협력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2011.6.9.) 이후 중국과 북한이 합의한 1차 개발면적 30km<sup>2</sup>와 관련하여 중국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주요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전력송전이였다. 2011년 12월, 라선특별시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가는 “현재 라선시의 전기공급이 1일 2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자체발전기 3대로 교대 운전하여 냉동공장 및 근로자숙소 등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라선지역의 전력 사정이 일과성이 아니라 만성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였다.

중국의 전력송전 프로젝트의 구체화는 길림성전력유한공사(吉林省電力有限公司)의 위탁으로 길림성전력감측설계원(吉林省電力勘測設計院)의 전문가들이 수차례 연변지역과 북한 동북부 라선지역의 현장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장상황의 점검과 북한 전력실태의 조사를 통해 라선경제무역구전력공급방안연구(羅先經濟貿易區供電方案研究)와 라선지구전력공업장기발전계획(羅先地區電力工業長期發展規劃) 등을 완료한 것은 2011년 12월 무렵이었다.<sup>15)</sup>

그리고 ①2013년 1월 31일, 훈춘-라선 동해 66kV 송전선로 건설 항목에 대한 타당성연구보고에 대한 심사의견(吉林對朝供電羅先東海66kV輸變電工程可行性研究報告評審意見)에서 프로젝트의 명

15) 中國電力建設集團有限公司, “吉林院開展對朝供電設計,” 2011.12.5., <<http://www.powerchina.cn/g407/s1228/t3996.aspx>>. (검색일: 2015.11.8.)

칭과 투자액(2.88억 위안)을 확정했으며,<sup>16)</sup> ② 2013년 2월 21일부터는 길림성전력감측설계원 소속의 선로, 측량, 지질, 수문 기술자들이 공동작업에 나서 대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중국 측 구간 측량·지질조사를 4월 초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선로(66kV)의 총 길이는 92.5km(중국구간 52km, 북한구간 40.5km)로 2013년 말 완공예정이었으나<sup>17)</sup> 장성택 숙청파동(2013.12.)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체신분야에서 주목되는 것은 훈춘-라선우정국 간의 변경우편물 교환업무의 정식개통이었다. 과거 중국 훈춘에서 북한 라선으로의 우편물 배송은 훈춘→북경→평양→라선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4년 3월 3일부터는 훈춘에서 바로 라선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훈춘시범구망이 전하는 훈춘-라선의 변경우편물 교환업무는 다음과 같다.<sup>18)</sup>

“훈춘-라선 변경우편송달은 전기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발차하며 앞으로 업무량의 증가와 더불어 우편차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당면 라선시로 송달되는 우편물 종류는 주로 편지와 소포이며 그중 소포의 내용물은 일상생활용품이 위주로서 국가에서 우편형식으로 수출을 허락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 포함됩니다.”

16) 羅先港, “琿春對朝鮮66kV輸變電工程項目進展順利,” 2013.3.12., <[www.luoxiangang.com](http://www.luoxiangang.com)>. (검색일: 2015.11.16.).

17) 中國電力建設集團有限公司, “吉林院開展對朝供電線路中國側選線勘測,” 2013.2.26., <<http://www.powerchina.cn/g407/s1228/t16760.aspx>>. (검색일: 2015.11.16.); 자유아시아방송, “중 라선특구 송전사업 ‘진척,’” 2013.4.15.,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electricity-0415201316212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electricity-04152013162125.html)>. (검색일: 2015.11.8.).

18) 훈춘시범구망, “훈춘-라선우정국 변경우편물교환업무 정식 개통,” 2014.3.12., <<http://www.hunchunnet.com/archives/267/>>. (검색일: 2015.11.8.).

## 다. 경제개발구 건설협력과 북한 노동력 수입

중국 길림성과 접경지대에 있는 김정은의 경제개발구는 ①혜산 경제개발구(랴강도 헤산시 신장리 일부지역: 2013.11.21.), ②무봉 관광개발구(랴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지구 일부지역: 2015.4.22.), ③온성섬관광개발구(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일부지역: 2013.11.21.), ④경원경제개발구(함경북도 경원군 유다섬리 일부지역: 2015.10.8.) 등 4개였다. 제일 먼저 북중 경제협력의 대상이 된 것은 온성 섬관광개발구로 장성택 숙청 다음날(2013.12.9.) 중국과 북한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었다.<sup>19)</sup>

북한의 온성섬관광개발구는 중국도문-조선온성 다국적 문화관광합작구 건설항목(中國圖們朝鮮穩城跨境文化旅游合作區建設項目)으로 정식화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중국과 북한지역을 하나로 묶어 중국이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즉, 총 투자액 50억 위안에 총 계획면적은 5.38km<sup>2</sup>인데 그 중 중국 하동상도가 45만 m<sup>2</sup>, 중국 측 확장구역이 324만 m<sup>2</sup>, 북한 온성도가 169만 m<sup>2</sup>였다. 그리고 도문시 정부가 전하는 항목건설배경은 아래와 같다.<sup>20)</sup>

“2013년 12월 25일, 중국 도문시 정부와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온성도합작개발협약(合作開發穩城島框架協議)’을 체결하여 양국이 정식으로 연합 개발하는 서막을 열었다. 중·북 쌍방은 문화관광합작을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기초상에서 중국

19) 정용수, “장성택 숙청 다음날 북중 특구 계약,” 『중앙일보』, 2013.12.13., <<http://news.joins.com/article/13374684>>. (검색일: 2015.11.9.).

20) 圖們政府網, “中國圖們朝鮮穩城跨境文化旅游合作區建設項目,” 2015.1.21., <<http://www.tumen.gov.cn/news.asp?id=1341&bigclassname=招商引資&smallclassname=>>>. (검색일: 2015.11.9.).

도문시 양수진 하동의 여러 섬(하동상도, 양수하도, 하동상사주, 하동하사주, 하동하도 등으로 구성됨), 중국 측 확장구역, 북한 온성군 온성도구역을 다국적 문화관광합작구로 하고 중국 조선족문화와 북한문화를 테마로 최고의 계획 설계이념과 선진적인 관광서비스이념을 인입하여 여행관광, 문화연예, 운동오락, 민족요식업, 양생휴가, 면세쇼핑 및 관광제품집산 등을 일체로 한 다국적 특색합작구로 건설한다. 현재 전 세계 경제발전의 전략적 각도로 분석하면 관광업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촉망받는 업종으로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기동산업으로 세계적 범위 내에서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지점인 중국 하동상도와 북한 온성도는 마침 두만강에 위치하여 만약 이 곳에 다국적 문화관광항목을 건설할 경우 온성도의 중·북 양국 문화합류지에 위치한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조선족의 유구한 역사 문화의 전승과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천혜적이고 비할 바 없는 우세를 가지고 있다.”

상기모델에 이어 또 하나 주목되는 경제협력모형은 도문경제개발구의 조선공업원이었다. 대조선수출무역가공기지 및 조선노무합작기지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조선공업원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2011년 8월인데, 그 설립배경 중의 하나는 도문시경제개발구가 중조 합자기업인 연변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延邊金秋電子科技有限公司)를 중국 측 위탁대표로 하여 조선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평양백호상사, 선봉무역회사 등과 탄탄한 노무합작관계를 이미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sup>21)</sup>

조선공업원의 ①총 투자액은 20억 위안, ②계획면적은 1km<sup>2</sup>로,

21) 연변인터넷방송, “도문 조선공업단지건설 순조롭게 진척,” 2010.10.14., <[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19153&page=87&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19153&page=87&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 (검색일: 2015.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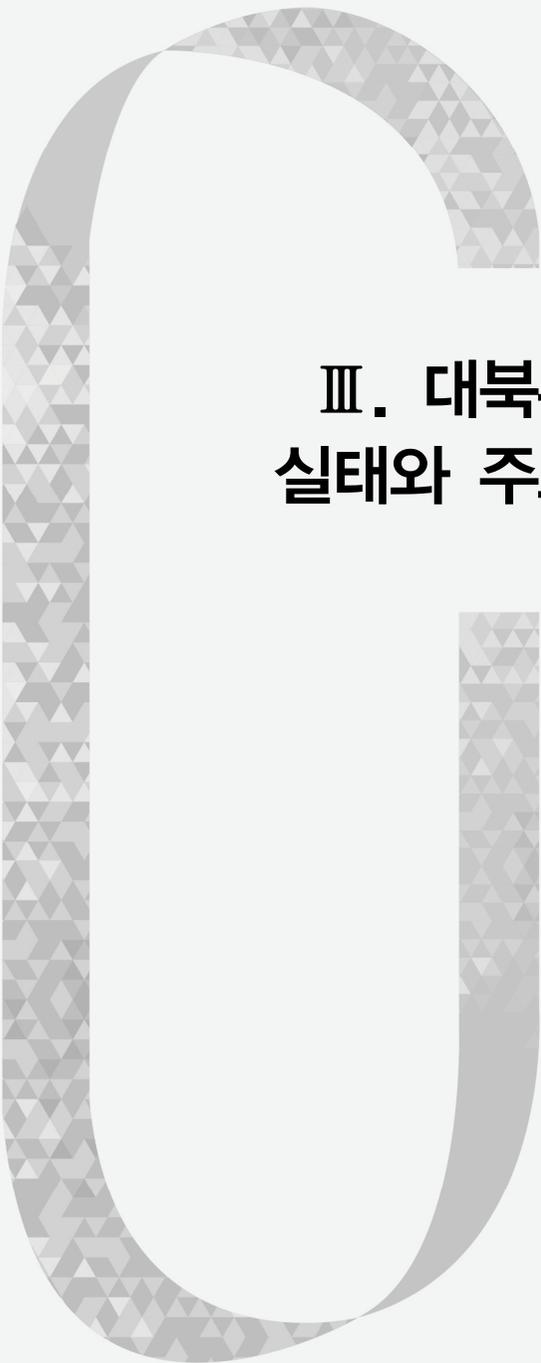
③그 중 1기 공정에서 이미 개발한 면적은 0.4km<sup>2</sup>인데, 중점사업은 북한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류, 신발, 모자, 일용품 등 경공업제품이 그 대상이고, ④2기 공정의 개발계획면적은 0.6km<sup>2</sup>인데, 중점사업은 북한시장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전신, 가전제품, 농기계 등 단말기과학기술제품(終端科技產品)이었다. 도문시 정부가 전하는 항목건설배경은 다음과 같다.<sup>22)</sup>

“도문시는 북중변경선에 위치하고 있고, 변경선의 길이는 60.6km이며,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도문도로와 철도 2개의 국가급 대북통상구가 있다. 또한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 철도로 북한과 연결된 변경통상구도시(철도는 직접 북한 라선 및 청진 등 지역에 도달함)이고 길림성의 중요한 대북무역창구이기도 하다. 도문시는 다년간 지역적 우위와 교통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대북무역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라선지역이 개발·개방된 후, 도문시에서는 업무강도를 높여 대북 경제 및 무역협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북한 측 인원과의 왕래를 강화하였다. 중국(도문)조선공업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기술인원을 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북중 양국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 상호보완성이 강해 전세기 90년대로부터 중국은 이미 북한 최대의 무역파트너였다. 특별히 2010년 라선지역 개발·개방 이후, 북중 경제무역협력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이미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고(互惠互利), 공동으로 발전하며 윈윈협력을 하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였다. 현재 북한의 라선, 청진 등지에는 생활용품 및 경공업제품이 부족하다. 누가 이런 기회를 잡아 북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는 미래 경쟁에서 주동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공업원 안에 기업을 설립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22) 圖們政府網, “中國(圖們)朝鮮工業園項目,” 2015.1.21., <<http://www.tumen.gov.cn/news.asp?id=1340&bigclassname=招商引資&smallclassname=>>. (검색일: 2015.11.9.).

그런데 중국(도문)조선공업원에서 시작된 북한 노동력고용사업은 훈춘변경경제협력구로, 연길첨단산업개발구로, 용정공업집중구로, 그리고 조선유다도가공구항목(북한의 경원경제개발구 포함)으로 파급되면서 북한 노동력은 최근 중국의 두만강(훈춘)지역 초국경경제협력구의 중요한 기반구조로 정착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길림성 대북접경지역 경제개발구들의 북한 노동력(기능인재) 고용인원은 중국(도문)조선공업원 2,600명, 훈춘변경경제협력구 2,000명, 연길첨단산업개발구 200명, 용정공업집중구 200명, 도합 5,000명으로 그중 IT인재는 5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인재는 ①20세 전후의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주로 수산물, 섬유 의류, 식품, 전자제품가공업,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기업에서 일하며, ②3년 계약에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0위안 정도(중국의 60%)인데, 이는 2012년 1월 <2만 명의 북한기능인재를 도문과 훈춘일대에 취업을 허가>라는 협정이 중국 길림성과 북한 함영투자위원회 간에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

23) 서철준, “두만강(훈춘)지역의 북한인적자원 협력과 개발,” 『동북아시아 북한기업 경영조명』 (연세대학교·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공동주최 제1회 북한기업 경영심포지엄, 2015.11.2.).



## Ⅲ. 대북투자 유형별 실태와 주요 투자사례



## 1. 출해구확보형 투자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이라는 국제세미나에서 중국은 “두만지역을 통한 내륙 수송루트개발”과 “중국·러시아·북한 3국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특구건설방안”을 제시했다.<sup>24)</sup> 이후 중국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구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다자간 접근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남북한, 러시아, 몽고 등과 함께 동북아 5개국 정부 간 두만강지역개발 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을 추진하고 그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 즉 출해구의 확보를 지원했다. 다른 하나는 쌍무적 접근법으로 길림성이 직접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출해구 문제를 협상했다. 라진항을 두고 일본, 러시아, 중국 간 탐색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가세하면서 중국의 초기 출해구 확보전략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됐다 (<표 III-1> 참조).

첫째, 연변조선족자치주 차원의 접근이었다. 목표 방향은 삼합-회령-청진루트였고 도로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연변선호기업집단공사(延邊鮮虎企業集團公司) 이철호 총경리가 협상전선에 투입되었다. 1993년 4월 6일 중국연길시공교물자무역회사(中國延吉市公物資貿易商社)에 ‘삼합-훈춘-라진 청진항을 연결하는 연합수송문제’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사무’를 맡긴다는 연길시 정부(시장 박동규)의 지원<sup>25)</sup>에 1993년 4월 28일 북한 함경북도

24)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 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3), p. 174.

25) 1993년 4월 6일 작성된 연길시인민정부의 확인서는 “연길시 정부는 중국 연길시 공교물자무역회사와 조선흥은무역회사와의 삼합-훈춘-라진 청진항을 연결하는

표 III-1 중국의 출해구 확보 관련 주요국 움직임(1989.2.~1997.1.)

연도	국가	내용
1991.12.13.	일본	일본 실업계 대표단 북한 북부항만과 국경역 참관(단장: 일중 동북개발협회 부회장, 일본유선회사·마루베니·닛쇼이와이·마루이찌상사·동경은행 등으로 구성)
1992.2.8.	일본	닛쇼이와이 대표단 청진, 라진, 선봉지구의 철도투자대상 현지이해
1992.3.10.	일본	일본조사대표단 북부항만과 두만강친선교 참관
1992.11.18.	러시아	북한 러시아 달쓰회사와 라진항 4호 부두 건설을 계약하고 건설시작
1993.6.11.	중국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간 <철도, 항만수리 확장공사 및 호텔 등 건설에 관한 각서> 체결
1993.7.21.	러시아	평양과 라진에 로조무역사무소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 승인
1993.9.3.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선호그룹과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 간 청진·회령 도로확장공사 착공식 진행
1993.9.9.	중국	길림성동북아시아(철도항구)집단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항, 도로, 철도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를 체결
1993.10.	중국	길림성과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 간 <두만강하류지역의 철도·항만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 체결
1994.1.21.	중국	라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와 도문시 간 라진항 전용컨테이너 부두건설과 투자문제 합의
1994.2.14.	중국	러시아 항·철도 전문가대표단 북한 방문하여 항·철도의 능력 조사
1994.3.5.	중국	도문시철도국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사무소설치, 관광합영에 대한 문제 토의
1994.3.5.	중국	연변항운공사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항, 호텔, 관광 등에 대한 문제 토의
1994.3.29.	중국	길림성정부와 북한간 훈용-훈춘 철다리 공동설계·건설에 대한 의정서 체결
1994.5.7.	중국	연변항운공사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투자계약서 체결
1994.5.28.	중국	북한 경제실무대표단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연변항운공사와 투자문제 토의

련합수송문제를 토의하고 이에 해당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연길시공교물자무역 회사에 맡기고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연길시공교물자무역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연길시 정부에서는 적극 도와주며 추진할 것이다.”이고, 위탁서는 “연길시 정부는 연길시공교물자무역회사 리철호 총경리에게 선봉라진 자유경제 개발구를 개발할 데 대한 사무를 맡아볼 것을 위탁 위임한다.”였다.

연도	국가	내용
1994.6.5.	러시아	북한 경제실무대표단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라진항 이용 및 투자계약서 체결
1994.8.11.	일본 (조총련)	총련 조선산업주식회사의 투자로 건설된 라진항 1호 부두 비료중계장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
1994.9.17.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선호기업집단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관련사업 토의
1994.9.17.	일본	일본 신화물산대표단, 라진선봉지대에 대한 현지답사 진행
1995.1.21.	러시아	러시아 로조무역사무소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항 이용문제 토의
1995.2.15.	중국	연변항공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항투자, 현금기금, 농업투자에 대해 토의, 합의서 체결
1995.5.21.	일본	일본 신화물산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외국투자가능성조사 보고서 작성사업 진행
1995.6.3.	중국	길림성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원정·권하교두 개통, 여객선운영 등 문제 토의
1995.6.13.	중국	연변항공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항 투자문제 협의
1995.6.19.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선호기업집단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선봉 지대의 도로, 물, 전기 문제를 토의, 일반합의서 체결
1995.5.24.	중국	길림성동북아시아집단공사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직승기 운행, 라진항 투자, 고속도로로 건설투자, 물류센터 운영, 농업 합병 등 토의, 비망록 체결
1995.8.2.	중국	연변항공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항 투자문제 토의
1995.8.19.	중국	연변항공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항 투자계약서 체결
1995.9.29.	일본	일본 도요엔지니어링(주) 대표단 라진선봉지대를 방문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의견교환 진행
1995.12.4.	일본	일본 도요엔지니어링(주)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지대안의 투자가능성 조사
1996.4.4.	일본	북한 경제실무대표단 북경에서 일본 도요엔지니어링(주)와 <라진-선봉지대 투자안내서> 출판문제 토의
1996.8.10.	중국	연변 동북아시아집단공사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여 라진선봉시와 일본 후쿠오카현 간 회물 및 여객선 보장, 여객부두 건설문제 토의
1996.12.4.	중국	북한 경제실무대표단 심양·연길 방문 컨테이너중계수송, 라진항 설비투자문제 토의

출처: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편람』 (평양: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1998.5.), pp. 71~96으로부터 가공.

I  
II  
III  
IV

행정경제위원회는 선호기업집단 총재 이철호에게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행, 무역센터, 통신센터, 백화점, 호텔 등 투자 및 동북삼성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업무’와 ‘라진항과 청진항 중계화물관계 대리업무’를 위임<sup>26)</sup>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 함경북도경제위원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간 <철도, 항만수리 확장공사 및 호텔 등 건설에 관한 각서>의 체결(1993.6.11.), 선호기업집단과 조선경제개발총회사 간 <회령-청진 사이의 도로와 청진동항 확장 및 호텔건설에 관한 계약서>의 수표(1993.6.29.), 길림성 연길시 선호그룹과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 간 청진-회령 도로확장공사 착공식(1993.9.3.)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선호기업집단과 북한 간 주요 합의사항은 ①청진동항 능력의 확장(연 80만 톤에서 연 250만 톤, 1994년까지 완공), ②회령-청진 도로의 개진확장(폭 12m 중심 9m 철근콘크리트, 35톤급 이상 화물차 운행), ③250~300석 규모의 호텔건설(청진시), ④창고부지 20년간 임대(6만 평방미터, 평방 당 0.9달러/연), ⑤투자금액 회수 후 50년 사용권 담보, ⑥청연합작회사 존속기간 50년(중국 측 투자액 6,280.8만 달러: 항 4,500만 달러, 도로 1,780.8만 달러) 등이었다.

둘째, 길림성차원의 접근이었다. 길림성은 연길시와 출해구 전략이 달랐다.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북한의 라진항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 훈춘(渾春)을 중시했고, 도로건설보다는 철로건설에 초점

26) 1993년 4월 28일 작성된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의 위임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는 선호기업총재 리철호에게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행, 무역센터, 통신센터 그리고 백화점, 호텔, 식당 등 상업편의봉사 시설들에 대한 직접투자와 동북3성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업무를 위임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는 선호기업총재 리철호에게 라진항과 청진항 중계화물관계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을 맞추었다. 즉, 중국 훈춘과 러시아 마하리노 간 철로연결을 통해 자루비노항으로 나가는 물류루트를 확보하면서도 북한 라진항으로 나가는 전략이며, 이는 러시아-북한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리고 그 소임은 길림성동북아철도항구집단주식유한공사(길림성동북아시아집단공사) 류백송 총재에게 부여되었다.

길림성동북아시아집단공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항, 도로, 철도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1993년 9월 9일이었고, 길림성과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 간 <두만강하류지역의 철도, 항만의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93년 10월, 그리고 길림성정부와 북한 간 훈흥-훈춘 철다리 공동설계·건설에 대한 의정서가 체결된 것은 1994년 3월 29일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흐름은 1994년 4월 3일 류희림 길림성 부성장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간에 체결된 의정서였다.<sup>27)</sup> 그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라진항 4호 부두를 합영건설하고 50년간 운영(①발화량곡부두, 짐함부두, 도항선부두, 통신, 항구조차장 및 기타 필요한 시설 포함, ②북중 혼합공작조를 구성, 연구보고와 설계진행, ③국제 금융기구 자금 이용, ④화물취급료 등 모든 가격은 합영회사가 자체 결정, ⑤합영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독자경영하며, 주식수로 책임지고 이윤분배, ⑥합영기한 만료 시 연장가능 등)

27) 중국은 류희림 길림성 부성장, 정사성 길림성정부 두만강지역개발영도소조 사무실 주임, 류백송 길림성동북아철도항구집단주식유한공사 이사장 겸 총재가, 북한은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관 해운부 항만총국 총국장, 강치정 철도부 건설지도국 부국장이 수표했다.

2. 선봉항 원유부두의 공동이용과 승리화학공장에서의 합영·합작하는 문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해 조사연구사업 진행
3. 라진항 4호 부두 완공 이전 중국 측 화물 중계시 대련항보다 15% 낮은 특혜가격으로 화물취급료, 창고비 등 비용책정
4. 훈용-훈춘 사이 4.8km 철도를 공동으로 설계·건설·사용  
 (①북한 국가비준: 1994.2.11, 중국은 빠른 기일 내에 국가비준 추진, 1994년 5월 말까지 공동으로 철다리 설계, ②라진-훈춘 간 철도운수에서 제3국 인원들과 화물은 국제관례대로 검사, ③라진항에 도항 부두를 건설해 1995년부터 라진-훈춘 간 밀폐된 국제여객열차 운영을 통해 니가타, 부산 등 제3국 항까지 래왕, ④중국이 여객열차의 차량과 견인기관차를 제공하며, 각자의 경내에서 자기 기관사가 견인차 운전을 책임지고 여객열차의 승무조는 중국 측이 담당, ⑤중조합작회사를 설립해 훈용-훈춘 간 철도운영과 관리 책임)
5. 중국 훈춘과 북한 라진 간 광케이블통신을 건설
6. 1995년 3월까지 중국 권하와 북한 원정리에 여객과 화물 세관을 설립
7. 중국 연길과 북한 선봉 간 비행 항로 개설
8. 중국에 등록된 한중합영기업이 라진-선봉시 건설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 등

셋째, 한국의 선택이었다. 중국은 출해구의 확보에 있어서 한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철호는 청진루트를, 류백송은 훈춘-자루비노, 훈춘-라진루트를, 그리고 전룡만은 라진루트를 들고 한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같은 조선족인 이철호와 전룡만

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당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림태덕은 연변항운공사(延邊航運公司) 전룡만 총경리에게 청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철호와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점차 대세가 라진항으로 흐르면서 전룡만은 한국특수선주식회사 박종규 회장과 손을 잡고 라진-부산항로를 개척하게 된다. 즉, 1994년 3월 5일 연변항운공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항, 호텔, 관광 등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전룡만 총경리의 행보는 ①연변항운공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투자계약서 체결(1994.5.7.), ②북한 경제실무대표단의 중국 북경 방문과 연변항운공사와의 투자문제 토의(1994.5.28.), ③연변항운공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항투자, 현금기금, 농업투자에 대한 토의와 합의서 체결(1995.2.15.), ④연변항운공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라진항 투자문제 협의(1995.6.13.), ⑤연변항운공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라진항 투자문제 토의(1995.8.2.), ⑥연변항운공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라진항 투자계약서 체결(1995.8.19.)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sup>28)</sup>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시절 중국의 출해구 전략은 훈춘-라진-부산 컨테이너항선의 개통과 훈춘-자루비노-속초 카페리항선의 협상진행으로<sup>29)</sup> 순항하는 듯 했으나 북한항만에 대한 직접적

28) 연변-라진-부산 간 해륙연대수송항로의 정식개통식은 1995년 11월 10일 라진항에서 개최되었다. 동 항로는 중국 연변해운과 한국 한국특수선주식회사가 50:50으로 출자한 동룡해운이 담당하며, 라진-부산 중개화물컨테이너정기운항 직항로 개설계약에는 조선 라진항, 조선해양무역회사,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참여했다(“라진-부산 직항로 개설” 『연변일보』, 1995.6.20.; “3개국 연대수송코스 정식 개통” 『길림신문』, 1995.11.16.).

29) 한·중해운회담에서 당국자간 속초-훈춘항로가 합의된 것은 1992년 2월이었고, 한·러 해운회담에서 자루비노(포시에트)항 통과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은 1999년 4월 20일이었으며, 러시아 중앙정부 및 연해주 지방정부가 항로개설에 동의한 것은 1999년 6월 3일이었다(동춘항운주식회사, 백두산항로 소개책자, 2006).

접근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활력을 잃으면서<sup>30)</sup> 외국투자자의 관심영역으로부터도 점차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는 1996년 8월까지 22개 대상 4,000만 달러가 실제 투자되었다고 밝혔다.<sup>31)</sup> 당시 투자항목 중 출해구와 관련되는 투자를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그런데 길림성의 출해구 확보전략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된 것은 2002년 북한의 7·1조치 이후였다. 중국정부의 두 가지 조치가 결정적이었다. 하나는 2003년 10월 중국 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도로-항만-구역일체화 건설이 언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5년 3월 중국 교통부와 세관총서 [2005] 100호 문건이 중국 국적선을 투입할 경우 길림성-라진항-중국 동남연해항로(浙江 嘉興)를 중국 내항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표 III-3> 참조).

도로-항만-구역(路港區)일체화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북한 함경북도와 라선지역에 대한 길림성을 비롯한 중국의 투자는 중국 훈춘(도문)-북한 라진항(청진항)-상해 포동항을 연결하는 물류체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민간기업은 항만의 사용권 획득에 주력하고 중국정부는 대북협상지원, 법제도 정비, 인프라 투자 등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렇지만, 로항구일체화의 중핵인 항만에

30) 북한은 평양으로 예정되었던 TRADP 제3차 정부간회의(Commission/Committee: 1997.11.17.~18.)의 개최를 포기했고, 1998년에는 김정우 위원장의 공식활동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었으며,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남한기업의 접근도 불허되었다.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 북한경제』, 겨울호 (2005), p. 32 참조.

31)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투자편람』 (평양: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8), p. 69.

표 III-2 출해구 관련 주요 외국인투자 동향(1996년 8월 말 기준)

국적	투자모회사	투자내용	투자액	투자부문
중국	선호기업집단	청진-회령 간 도로 확장공사	89만 달러	하부구조
중국	길림성정부	훈융-훈춘 간 철도다리 건설	-	하부구조
중국	연변항운공사	라진항을 통한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1995.10), 110톤급 컨테이너 기중기 설치	260만 달러	중계무역
중국	목제품유한공사	라진항을 통한 중계수송 추진	-	중계무역
러시아	달뼌회사	라진항에 대표사무소 설치, 비료, 빙정석 등 중계수송 추진	500만 달러	중계무역
러시아	러시아 콘쓰씨움	라진-두만강 간 철도보수 및 라진항 부두 설비 조립	-	하부구조
홍콩	타이슨회사	라진-홍의-원정도로 신설공사	400만 달러	하부구조
홍콩	타이슨회사	라진항 시멘트저장고 건설(10톤 규모)	250만 달러	하부구조
일본 (조총련)	조선산업 주식회사	라진항에 7,800m <sup>2</sup> 의 비료중계장 건설과 비료중계	200만 달러	하부구조

출처: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편람』, pp. 69~70.

대한 접근은 쉽지 않았다. 절강성의 자프그룹, 호남성의 동림그룹 등 여러 기업들의 불발 이후 대련 창력그룹에 의해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었는데 중국의 북한 항만에 대한 접근은 크게 ①‘동림’시대(2003.10.~2008.4.), ②‘창력’시대(2008.4.~2010.3.), ③두 경제지대 건설시대(2010.3.~현재까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I  
II  
III  
IV

## 가. 국제물류합영회사 사례: 로항구일체화 동림시대

### (1) 투자와 실패 과정

‘동림’이 활동했던 시기는 2003년 10월 로항구일체화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러시아의 개입으로 라진항 3호 부두 이용권과 4호 부두 신설권의 확보에 실패한 2008년 4월까지였다(<표 III-3> 참조). 중국의 훈춘시가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에게 로항구일체화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2003년 11월, 협상을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기본합의를 달성한 것은 2004년 9월이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21일 중국 교통부와 세관총서는 [2005] 100호 문건<關於吉林省過境朝鮮至我國東南沿海港口陸海聯運有關問題的批復: 길림성 변경 조선을 경유해 중국 동남연해항구까지 이르는 육해복합운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신>에서 중국 국적선 투입 시 길림성-라진항-중국 동남연해 항로(浙江 嘉興)의 중국 내항 취급을 언급하여 동 프로젝트 추진을 지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20일에는 중국 국무원 판공청(國務院 辦公廳) [2005] 36호 문건<關於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 동북 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을 통해 동북지역 기업의 해외중점개발항목에 대한 금융제공 등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10일 중국의 훈춘시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琿春市東林經貿有限公司)·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琿春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와 북한의 라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조회사(羅先市人民委員會經濟合作會社) 간에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중국어명: 朝鮮羅鮮國際物流合營公司, The Rason Joint Venture

Company of International Logistics) 설립과 관련된 합영계약서(合資公司合同書)가 체결<sup>32)</sup>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오의(吳儀, 우이) 부총리는 2005년 9월 장춘포럼에서 로항구일체화전략을 가시화했으며, 훈춘시장 김상진과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수열이 동 합영계약서에 부가서명(2005.7.10.)하면서 ‘동림’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했다.

표 III-3 로항구일체화 동림그룹시대(2003.10.~2008.4.)

연도	내용
2003.10.	국무원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도로·항만·구역일체화’ 건설을 언급
2003.11.	훈춘시 라선시인민위원회에게 ‘도로·항만·구역일체화’ 프로젝트 제안
2003.12.	중국 훈춘시와 북한 라선시 협상시작
2004.9.	中·北간 프로젝트 기본합의 달성
2005.3.	중국 교통부와 세관총서 [2005] 100호 문건에서 중국 국적선 투입시 길림성-라진항-중국 동남연해 항로(浙江 嘉興)의 중국내항 취급을 언급
2005.6.	중국 국무원 판공청(辦公廳) [2005] 36호 문건을 통해 동북지역 기업의 해외중점개발항목에 대한 금융제공 등 정부지원을 약속
2005.7.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설립과 관련된 합영계약서 체결(중국측: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훈춘합작구보세유한공사, 북한측: 라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조회사)
2005.7.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북한 경제협조관리국으로부터 기업창설승인서 취득
2005.8.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라선시인민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 취득
2005.9.	중국 오의(吳儀)부총리 장춘포럼에서 ‘도로·항만·구역일체화’전략을 가시화
2005.11.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도로 및 공업지구 건설에 필요한 토지리용증 취득과 토지임대 등록
2005.11.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국으로부터 라진-원정도로 도로세 수금권 취득

32)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p. 58 참조.

연도	내용
2006.1.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라진항 사용과 관련 조선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담보증 취득
2006.2.	장춘세관 [2006] 2호 문건을 통해 길림성-라진항-중국 동남연해항구 간 육해복합운송화물 통관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
2006.2.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임시이사회결정을 통해 중국측 지분의 제3자 일부 양도에 대해 북한과 합의
2006.3.	중국 호남대학설계연구원 및 호남중기공정항목관리유한책임공사 관계자 4차례 방북을 통해 <라진-원정 2급도로 대상시공도면설계>의 확정
2006.6.	길림성정부 북한 원정-중국 권하 국경 간 새 다리 건설을 제안하고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이에 동의
2006.7.	북한 미사일 발사
2006.8.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북한 경제협조관리국으로부터 도로건설시공권 획득
2006.9.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자금부족 등으로 도로착공 연기
2006.10.	북한 핵실험
2007.2.	길림성정부 '두만강유역 개방개발가속화방안' 마련(라진항개발자금 지원, 세금징수 우대정책부여)
2007.5.	중교제2항무공정감찰설계유한공사 '中·朝 도로·항만·구역일체화 항목 프로젝트 1기공사 타당성 연구보고' 완성
2007.9.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도로·항만·구역일체화'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계 화교 마더리그룹(馬得利集團)과 투자협의를 체결하고 30억 위안 투자 유치 합의
2008.4.	북한-러시아 라진-하산 철도현대화 사업 및 라진항 개건사업 합의

출처: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pp. 57~58의 <표 10>을 수정 및 가공.

합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북한이 50:50 절반씩 투자하여 ①원정-라진항 간 도로건설과 경영, 도로구획 봉사시설 건설 및 경영, ②연 100만 톤 규모의 중계화물조직 및 수송대리업무, ③5km<sup>2</sup> 규모의 보세가공구와 공업구개발 및 경영, ④연간 100만 톤 규모의 HEC고결제(도로포장용 시멘트관련 특허품) 생산, 판매 및 수출 등

을 목적으로 등록자본금 60,904,000유로(약 74,907,000달러)인 ‘라선 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되 북한 측은 항만, 도로, 부지 등의 이용권을, 중국 측은 30,452,000유로(약 37,453,500달러)의 자금, 설비, 건축자재 등을 투자(현금투자분 10,000,000유로/약 12,300,000달러) 하는데, 라진항 제3호 부두와 제4호 부두(신규건설 예정)의 50년 이용권 및 경영권, 원정-라진항 간 도로의 50년 운영권 등은 합영회사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 7월 22일 북한 경제협조관리국이 발급한 기업창설승인서(라선 94-0001)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이 50:50으로 합영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는 ①경영기간이 50년이고,<sup>33)</sup> ②총 투자액과 등록자본금은 6,090.4만 유로이며, ③업종과 경영범위는 도로 건설과 경영·도로구획봉사시설 건설 및 경영, 중계화물조직 및 수송대리업무, 보세가공구와 공업구개발 및 경영, HEC고결제 생산·판매 및 수출이고, ④투자기간은 1995년 12월 30일까지이나 항만 사용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기업창설승인 후 ‘동림’은 합영회사규약을 마련(2005.7.27.)하고 라선시인민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을 취득(2-2-097: 2005.8.23.)했으며 법정대표로 중국 국적의 범응생(范應生, 판잉성)을 선임했다. ‘동림’은 우선 ①원정-라진항 67km 도로에 대한 개조와 50km 도로의 경영관리, ②웅상항과 라진항 3호 부두 관련 설비개조 및 경영관리, ③원정-라진항 도로휴게소 건설 및 경영을 제1차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관련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제2차 사업계획은 ①라진항 4호 부두 신규건설, ②라선시 해변 5km<sup>2</sup> 부동산

33) 합영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기간은 2005년 7월 10일에서 2055년 7월 9일까지였다.

개발, 보세원구와 공업원구의 건설 및 경영이었다.

‘동림’의 사업진행은 이후 ①도로 및 공업지구 건설에 필요한 토지리용증 취득<sup>34)</sup>과 토지임대 등록(2005.11.3.), ②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국으로부터 라진-원정도로 도로세 수금권 취득(2005.11.5.), ③라진항 사용과 관련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담보증 취득(2006.1.10.), ④합영회사 중국 측 지분의 제3자 일부양도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2006.2.), ⑤‘라진-원정 2급도로 대상시공도면설계’의 확정(북한 측 동의: 2006.3.28.) 등을 통해 순항하는 듯했다. 특히, ‘라진-원정 2급도로 대상시공도면설계’는 왕창충(王昌衝) 교수, 왕평약(王平躍) 교수 등 중국 호남대학설계연구원 및 호남중기공정항목관리유한책임공사(湖南中基工程項目管理有限責任公司) 관계자들의 4차례 방북(2005.8.3., 2005.9.29., 2006.1.3., 2006.3.12.)을 토대로 완성된 것으로, 그 예산규모는 인민폐 2억 4천만 위안(약 3,100만 달러)이었고, 코스는 저술령에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라진항-관곡령-저술령-원정교의 총연장 48km가 공사구간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지원도 계속되었다. 2006년 2월 20일 장춘세관은 [2006] 2호 문건<長春海關關於對過境朝鮮至我國東南沿海陸海聯運內貿貨物監管有關問題的函: 변경 조선을 경유해 중국 동남연해항구까지 이르는 육해복합운송에 대한 국내화물 감독관리문제에 관한 장춘세관서신>에서 길림성-라진항-중국 동남연해항구 간 육해복합운송화물 통관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2006년 6월에는 길림성정부가 원정(북한)-권하(중국) 국경 간 새 다리

34) 토지리용증번호는 1217-13-144(도로 건설)과 1217-13-145(공업지구 개발)이었다.

건설을 제안했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였다.

분수령은 2006년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였다. 비록 ‘동림’이 북한의 경제협조관리국으로부터 도로건설시공권을 획득(2006.8.29.) 했지만,<sup>35)</sup> 2006년 9월에는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도로착공 시기를 연기하게 된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동림’은 미국계 화교인 마더리그룹(馬得利集團)과 투자협의를 체결하고 30억 위안 투자유치 합의(2007.9.)에 성공하는 등 라진항 3호 부두에 대한 접근력을 높여갔으나 이번에는 러시아가 결정타를 날렸다. 2008년 4월 24일 북한-러시아 간 라진-하산 철도현대화 사업 및 라진항 개건사업 합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 (2) 접근전략에 대한 평가

‘동림’의 실패는 러시아의 라진-하산 프로젝트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다음 네 가지 요소도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동림’의 사업추진능력이었다. 2004년 훈춘시동림경무유한공사(2.24.)와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8.6.)를 설립하고 북한의 라진으로 진출한 범응생 사장은 과거 TRADP사업과 관련이 없던 인물로 부동산개발로 돈을 번 중국 호남성 출신의 미국 영주권자(부인은 미국 국적)로 알려졌다. 훈춘시동림경무유한공사는 납입자본금 3,174만 위안으로 취급품목은 건축자재, 해산물, 기술수출입 등이었고,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는 납입자본금

35)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는 2006년 8월 18일 경제협조관리국 승인 제2-1-1264호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가 라선시 안의 현존도로도 개건·현대화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시공권 등과 관련 훈춘시 정부가 밝힌 내용은 “훈춘 라진의 부두 도로건설권 취득,” 『흑룡강신문』, 2006.9.22.를 참조.

1,500만 위안으로 취급품목은 물류였다. 달리 말해 범응생 사장이 훈춘에 설립한 2개사는 원정-라진항 도로건설과 항만개발을 추진할 자금력이 없어 제3의 투자자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예를 들어, ①라진-원정 간 도로공사 예산규모는 약 3,100만 달러였고, ②권하(중국)-원정(북한)간 신규 다리건설에 있어서 북측구간(200m) 건설자금도 약 1,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다. 결국 소요자금은 길림성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길림성정부의 지원으로 ‘동림’이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거나, 제3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조달이 되는 구조였다. 아래 임시이사회는 이와 같은 ‘동림’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리사회는 2006년 2월 22일 라선시에서 범응생리사장의 제의에 의하여 채송학부리사장이 립시리사회 확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중국측투자자인 훈춘동림경제무역공사,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가 합영회사의 일부 주권을 독립적인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략적인 투자가로 조선 라선과 중국 훈춘의 <도로, 항, 공업구>일체화 대상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다.”<sup>36)</sup>

둘째는 사업의 경제성이었다. ‘동림’은 라진항 개발시 화물이동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동북삼성의 물동량(석유, 석탄, 목재, 곡물 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3국 투자선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①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투자라는 성격,

36) 이는 2006년 2월 20일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립시이사회확대회의 결정>의 내용이다.

②경제성 있는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 ③중국 및 북한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흑룡강성(하얼빈)-절강성(상해 이남) 화물이동 소요시간에 대해 내륙철도 이용 시 약 15일, 대련항 이용 시 약 7일, 라진항 이용 시 약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sup>37)</sup> 동 전망에 따른다면 라진항 투자는 매력적이나 문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동량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동림’이 투자하던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길림성의 물동량은 동룡해운의 훈춘-라진-부산 컨테이너항로(연 4,000TEU)와 동춘항운의 훈춘-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속초 카페리항로를 통해 주로 소화되고 있었는데, 동춘항운 백성호 사장은 카페리항로가 2006년부터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 전환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물동량 증가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셋째는 사업구조와 협상방식이었다. 중국은 라진항 개발과 관련 ①권하(중국)-원정(북한) 간 교량보수 및 확장공사, ②원정-라진항 간 48km 보수 및 확장공사, ③라진항 3호 부두 보수 및 설비제공, 그리고 라진항 4호 부두의 개발, ④5km<sup>2</sup> 규모의 보세가공구 및 공업구 개발의 4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①번 사업은 중국 정부가, ②, ③, ④번 사업은 훈춘시 지원하에 범응생 사장이 담당하는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 즉, 중국은 도로와 다리 건설, 항만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기화했고, 북한은 항만사용권을 협상

37) 훈춘 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 자료(2014.10.24.)에 따르면 하얼빈에서 상해까지 육로는 15일, 대련항은 8~10일, 라진항은 6~8일 정도이고 TEU당 물류비용은 육로 29,500위안, 대련항 12,100위안, 라진항 9,000위안으로 예측되었다. 이창주·김범중, “中外中 물류환경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물류리포트 제14-12호, 2014.11.24.), p. 3에서 재인용.

도구로 활용했다. 그 결과 ‘동림’의 사업은 정부 간의 협상풍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 달리 말해 ‘동림’의 사업은 중국정부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처음부터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는 구조였다.

넷째는 북한의 조업예정일 조항이었다. 기업창설승인서상의 투자이행기간은 2006년 12월 30일이었고, 조업예정일은 2007년 2월 10일이었다. 그리고 토지리용증상 건설완공기일은 2006년 12월이었다. 문제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게 발행한 다음과 같은 담보서의 내용이였다. 즉, 협상과정에서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조업예정일이 ‘동림’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가 쌍방이 계약한 조업예정일안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는 조건에서 라진항의 3호 부두 리용권, 4호 부두 신설과 그 경영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담보합니다.”<sup>38)</sup>

## 나.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 사례: 명과 암

### (1) 로항구일체화 창력시대

‘창력’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었다. 먼저 1단계는 로항구일체화 창력시대인데, 2008년 4월 라진항 3호 부두 리용권과 4호 부두 신설과 그 경영권 확보의 실패에서 2010년 3월 천안함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다(<표 III-4> 참조).

이 시기 특징적인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이 라진항

38)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앞으로 보낸 2006년 1월 10일자 담보서.

1호 부두 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림그룹과는 달리 창력그룹의 움직임이 신의주, 라진항 북중 공동개발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온가보 총리의 방북 시(2009.10.)까지 언론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였다.<sup>39)</sup> 즉, ①요녕성 대련 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力經濟貿易有限公司: 이하, 대련창력)가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이하, 훈춘창력)의 이름으로 북한 라선강성무역회사(羅先強盛貿易會社)와 라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에 관한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라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은 2008년 7월이었고, ②대련창력이 초기자본금 3,000만 위안으로 훈춘에 훈춘창력을 설립한 것은 2008년 12월이며,<sup>40)</sup> ③훈춘창력이 2008년 12월 12일부터 2,600만 위안을 투입, 석탄운송을 위한 라진항 1호 부두 현대화사업(1만 5천 톤급 선박의 접·이안이 가능한 수심 9m 준설, 석탄의 원활한 선적을 위한 컨베이어 자동설비 등)과 인접 비료중계장(8.100m<sup>2</sup>)을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은 2009년 7월이였다.<sup>41)</sup>

39) 배중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10), pp. 9~10.

40) 琿春市航務局,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概況,” 2012.3.28., <[http://hwj.hunchun.gov.cn/user/index.xhtml?menu\\_id=18&mode=view\\_content&news\\_content\\_id=176&page=4&is\\_top=0](http://hwj.hunchun.gov.cn/user/index.xhtml?menu_id=18&mode=view_content&news_content_id=176&page=4&is_top=0)>. (검색일: 2015.9.24.).

41) 琿春市人民政府, “琿春市人民政府關於口岸通道環境建設情況的報告,” 2010.11.10., <<http://www.hcrd.gov.cn/xiangzhenreda/Showarticle.asp?articleID=524>>. (검색일: 2014.6.21.); 백성호, “두만강유역 개발현황과 발전전망,” 『최근 두만강유역 개발 현황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 2009.12.9.), p. 30.

표 III-4 로항구일체화 창력그룹시대(2008.4.~2010.3.)

연도	내용
2008.7.	요녕성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 북한 라선강성무역회사와 라진항 1호 부두 및 관련사업 현대화를 위한 합영계약 체결(라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 확보)
2008.10.	러시아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착공식 진행
2008.11.	대련창력 훈춘에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 설립(초기자본금 3천만 위안)
2009.5.	북한 2차 핵실험
2009.6.	훈춘창력 석탄운송을 위한 라진항 1호 부두 현대화사업(1만 5천 톤급 선박의 접·이안이 가능한 수심 9m 준설, 석탄의 원활한 선적을 위한 컨베이어 자동 설비 등)과 인근 비료중계장(8,100㎡)을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 완료
2009.7.	중국 국무원 '료령연해경제대발전규획' 국가전략으로 정식비준
2009.8.	중국 권하-원정간 신규다리 <공정가행성연구보고> 완성
2009.8.	중국 국무원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 합작개발 규획요강' 국가전략으로 정식비준
2009.10.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 북한 방문(신의주, 라진항 中·北 공동개발 협의)
2009.11.	북한정부 원정-라진항간 도로개조항목 비준
2009.12.	김정일국방위원장 라선대흥무역회사와 라선시 현지지도
2009.12.	중국 훈춘시 북한 라선시와 두만강다리(원정-권하) 보수공사 합의
2010.1.	북한 라선시를 라선특별시로 지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2010.1.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규정(정령 583호로 수정보충)
2010.3.	중국 국가관광국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실현에 관한 량해문」에 따라 4월 12일부터 북한관광 허용
2010.3.	중국 훈춘시 중국 권하-북한 원정 간 두만강다리 보수공사 착공(보수공사비 360만 위안 훈춘시 전액부담)
2010.3.	천안함사건 발생

출처: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pp. 60~61의 <표 11>를 수정 및 가공.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동림그룹시대와는 다른 북중 양국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었다. 중국정부는 ‘료령연해경제대발전규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2009.7.1.)’ 및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를 위

한 중국의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2009.8.30.)<sup>42)</sup>의 국무원 정식비준과 함께 온가보 총리의 방북(2009.10.)을 실현시켰다. 길림성과 훈춘시 정부는 권하-원정 간 신규다리 <공사타당성연구보고(工程加行性研究報告)>를 완성(2009.8.)하는 한편, 북한 라선시와의 협의를 통해 권하-원정 간 기존 두만강다리 보수공사를 합의(2009.12.29.)하고 보수공사비 전액(360만 위안)을 훈춘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공사를 착공(2010.3.15.)해 3개월 만에 개통(2010.6.14.)하였다.<sup>43)</sup> 그리고 북한정부는 ①김정일의 라선시 현지지도(2009.12.) 이후 ②라선시를 라선특별시로 승격(2010.1.4.)시키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2010.1.27.).

## (2)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와 창력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이후에서 현재까지 2단계인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는 ‘창력’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발생했다(<표 III-5> 참조). 우선 ①중국 훈춘-북한 라진-중국 상해를 잇는 석탄항로의 개설에 대한 중국세관의 승인과 두만강다리보수공사의 완료(2010.5.), ②길림성세관의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의 공고(2010.8.), ③길림성의 북한 원정-라진항간 도로보수공사의 시작(2011.4.)과 개통(2012.10.), ④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 30년 확보(2011.7.)<sup>44)</sup> 등 로항구일체화 프로젝트의 심화는 분명 ‘창력’에

42) 11월 18일 북경에서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선도구전망계획요강> 18일 북경에서 정식공개,” 『길림신문』, 2009.11.18., <[http://www.jlcnwb.com.cn/dby/content/2009-11/18/content\\_30258.htm](http://www.jlcnwb.com.cn/dby/content/2009-11/18/content_30258.htm)>. (검색일: 2015.11.16.).

43) 琿春市人民政府, “琿春市人民政府關於口岸通道環境建設情況的報告.”

44) 훈춘시 항무국과 『延邊年鑒 2014』에 따르면 ‘훈춘창력’이 라진항 개조 30년 사용

게 긍정적 요소였다. 그러나 천안함사건 이후 ①5·24대북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남북항로의 운행중단(2010.5.), ②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담화를 통한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2011.4.8.)와 기존 금강산관광특구법제를 무력화시킨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제정(2012.5.31.) 등은 북중 간에 탄생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공동운영 구조와는 달리 ‘창력’의 대북투자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다.

표 Ⅲ-5-1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와 창력(2010.3.~현재)

연도	내용
2010.4.	북한 조선관광무역회사의 연길대표처에 조선관광비자의 직접취급을 허용
2010.5.	김정일 방중(대련, 천진, 심양 등 요녕성 집중 시찰)
2010.5.	남한정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경제협력을 중단하는 5·24조치 발표
2010.5.	중국 국가해관총서 중국 훈춘-북한 라진-중국 상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항로의 개설승인과 중국 원정-북한 권하 간 두만강다리 보수공사 완료
2010.8.	길림성해관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 공고(길림성 해관공고 2010년 제49호)
2010.8.	김정일 방중(길림, 장춘, 하얼빈 등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지역 집중 시찰)
2010.11.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1차 회의(평양)
2010.12.	중국 북한과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라진항 50년 사용권과 중국 국내무역화물선의 라진항 입항과 연해항로 통과)’ 합의
2011.1.	훈춘창력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에 따라 훈춘석탄 상해로 시험수송 시작(1만 7천 톤)

권을 확보한 것은 2011년 7월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琿春市航務局,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概況,” 2012.3.28.;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 소개와 관련된 사이트 <<http://lib.cnki.net/cyfd/N2015030016001280.html>>. (검색일: 2015.9.25.) 참조.

연도	내용
2011.4.	중국 길림성 북한 원정-라진항 간 도로보수공사 시작
2011.4.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담화를 통해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2011.5.	김정일 방중(북경, 상해 등 방문)
2011.6.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 및 중국 진덕명 상무부장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라선 경제무역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대상착공식과 중국 중계화물의 수송 출항식 개최
2011.7.	훈춘창력 북한 라선강성무역회사와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서 서명
2011.7.	라선경제지대 중조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장춘)와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계획 기본구조에 관한 협의' 체결
2011.8.	러시아 김정일 초청 북·러 정상회담 개최(5만 톤 식량 무상제공, 가스, 철도 연결문제를 의제로 상정)
2011.8.	길림성 '조선 라선-금강산국제시범관광시찰단'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 라선 특별시와 금강산 방문(일본운항이 금지된 만경봉호 활용)
2011.10.	러시아 북한과 조로친선각에서 하산-라진항 간의 철도 시범열차운행행사 개최
2011.11.	외국인투자법 수정보충(1991호)을 통해 특수경제지대규정 명문화
2011.12.	황금평·위화도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정령 2006호)
2011.12.	김정일 사망

출처: 배종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3), p. 22의 <표 7>를 수정보완 및 가공.

그런데 결정적 약재는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HS2701)의 급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투자강화였다. 훈춘창력은 2011년 1월 11일 북한 항만을 수출입항이 아니라 중국 내항화시키는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에 따라 훈춘광업집단(琿春鑛業集團)이 생산한 1.7만 톤의

I  
II  
III  
IV

훈춘석탄을 상해로 시험수송하고 2011년 6월 9일에는 중국 중계화물의 수송출항식을 라선시에서 개최하였다. 문제는 중국 훈춘석탄의 경쟁력이었다.

중국 길림성은 2005년 로항구일체화 프로젝트를 가시화할 때, 2010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석탄 1,000만 톤을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부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sup>45)</sup> 그러나 2008년 이후 중국의 석탄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2011년 1~10월 기간 북한지역의 석탄은 926.6만 톤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나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에 따라 중국 훈춘에서 중국 남부지역으로 수송된 석탄은 약 6만 톤에 불과하였다.<sup>46)</sup>

● 표 III-5-2 두 경제지대 건설시대와 창력(2010.3.~현재)

연도	내용
2012.4.	국무원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설립을 비준
2012.5.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5.31.: 정령 1673호)
2012.6.	연길-훈춘-라선시-금강산 배편항로 개통
2012.7.	연길-금강산 항공항로 개통
2012.8.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8.14.)

45) 2007년 5월 중교제2항무공정감찰설계원유한공사(中交第二航務工程監察設計院有限公司)의 中·朝 도로·항만·구역일체화 항목프로젝트 1기공사 타당성 연구보고(中朝路港區項目一期工程預加行性研究報告)에 따르면 라진항을 통하여 2010년 1,000만 톤, 2020년 2,000만 톤의 석탄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현동일, “두만강 경제권 항만물류연구,” (창원대학교 무역·통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 115).

46) 북한 무연탄(HS2701)의 대중수출 급증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산동성, 하북성, 요녕성, 강소성 등에서 발생한 월 수요는 100만 톤대(약 1억 달러)였다(이에 대해서는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pp. 39~68 참조).

연도	내용
2012.9.	중국 해화(海華)집단 청진항진출을 위한 합영계약서 체결 (9.1.: 943만 7,840유로의 하역설비, 운수장비, 항만건설자재 제공)
2012.10.	라진-원정도로 개통식과 북중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현판식 진행 (10.26.)
2013.2.	북한 3차 핵실험
2013.5.	황성호(싱가포르관광선)에 의한 라선-금강산관광 시작
2013.5.	경제개발구법 채택
2013.9.	러시아와 북한 라진-하산철도 개통
2013.11.	한-러정상회담 양국기업의 라진-하산사업 장려를 발표
2013.11.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 설치를 위한 정령 발표
2013.12.	당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숙청
2014.5.	중국 해관총서공고(2014년 42호) 발표: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 품목(석탄에서 식량, 목재, 동 추가)과 항만(상해·영파에서 황포·천주·산둥·양포항 추가) 확대
2014.7.	러시아와 북한 라진항 3호 부두 준공식 개최
2014.8.	중국 북한과 <라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협약서> 체결(1호 부두 개조공사 기간 동안 2호 부두 4, 5선석 이용)
2014.11.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석탄 45,000톤 라진항 반입
2015.6.	중국 훈춘-라진항-상해간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 컨테이너항로 정식개통

출처: 배종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p. 22의 <표 7>를 수정보완 및 가공.

러시아의 라진항 진출도 이전과는 달랐다. 2008년 4월 24일<sup>47)</sup> 중국과 동림그룹의 라진항진출에 제동을 걸 때, 러시아의 그 근거는 조로모스크바선언(2001.8.4.)이었고, 철도사업에 라진항 건설을 연

47)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로씨야철도>주식회사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과 라진항과 <로씨야철도무역>주식회사 사이의 합영기업창설에 관한 계약서가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조선신보』, 2008.5.2.).

계시키는 전략이었다. 즉, 러시아와 북한 간의 철도부문 협력사업의 첫 단계조치가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사업이었다.<sup>48)</sup> 그렇지만, 라선시 두만강역 조로친선각에서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2008.10.4.)이 진행된 이후 사업의 진척은 빠르지 않았다. 상황의 반전은 중국의 북한과의 두 경제시대 건설사업의 추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①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집중적으로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 관련 설비들을 북한에 수출하면서,<sup>49)</sup> ②러·북 정상회담을 개최(2011.8.)해 가스·철도연결문제를 의제화하고 라진-하산철도를 개통(2013.9.22.)했으며, ③한·러 정상회담(2013.11.13.)을 통해 ‘양국 기업의 라진-하산 물류사업의 추진장려’를 발표하고 라진항 3호 부두 준공식(2014.7.18.) 이후에는 러시아 석탄이 라진항을 거쳐 포항항으로 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러시아 유연탄 45,000톤의 라진항 반입은 2014년 11월 24일이었다.

결국 훈춘창력은 2011년 1월 11일에서 2012년 5월 8일까지 라진항을 통해 상해(上海), 영파(宁波), 상주(常州) 등으로 운송한 훈춘

48) 북한과 러시아간에 합의된 라진-하산구간 철도의 개건거리는 54km로 연간 400만 톤의 수송능력에 연간 10만 개의 집합(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며, 라진항의 개건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는데 ①노후화된 기존설비의 제거, ②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한 새 설비들의 반입, ③부두시설의 건설과 도크의 확장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사업은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한다는 것이었다(리상영, “조로 대규모협조사업의 첫 단계,” 『조선신보』, 2008.10.10.; 리상영, “조로국경지대, 대륙간의 수송기지로: 전길수 철도상 인터뷰,” 『조선신보』, 2008.10.17. 참조).

49) 한국무역협회의 러시아통계(KITA.NET)에 의하면 ①케도용침목(HS440690): 2011년 317만 달러, 2013년 203만 달러, ②케조(HS440690): 2012년 720만 달러, ③철도케도용기기(HS853010): 2012년 222만 달러, ④비계-차단기-지주(HS 730840): 2012년 166만 달러, ⑤철강제구조물(HS730890): 2012년 194만 달러, ⑥지브크레인(HS842630): 2013년 2,113만 달러 등이 북한으로 수출되었다.

석탄은 104,531톤에 불과했고,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는 석탄운송이 중지되었다.<sup>50)</sup> 북한 석탄의 중국수출에 이어 러시아 석탄이 라진항으로 반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창력그룹과 중국정부는 라진항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경제지대 건설의 북한 측 책임자였던 장성택의 숙청(2013.12.8.)도 일조하였다.

두 가지 방향에서 훈춘창력의 사업이 재정립되었다. 첫째는 운송화물과 항구의 확대였다. 2014년 5월 30일 해관총서공고(海關總署公告) 2014년 제42호에서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에 따른 품목과 항만을 조정하였는데, 기존 석탄에 식량·동의 컨테이너화물과 목재벌크화물을 추가하고 항만도 기존 상해(上海), 절강성 영파(寧波: 닝보) 항에서 광둥성 황포(黃埔: 황푸), 복건성 천주(泉州: 취안저우), 광둥성 산두(汕頭: 산터우), 해남도 양포(洋埔: 양푸) 항을 추가하였다.<sup>51)</sup> 둘째는 라진항 1호 부두의 개조였다. 2014년 8월 18일 중국은 <라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협약서>를 체결하고 개조기간 동안에는 라진항 2호 부두 4, 5선석을 사용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훈춘시항무국(琿春市航務局)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향후 라진항 1호 부두의 개발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1기 공정에는 3,000만 위안이 투자(기계설비 2,000만 위안, 야적장평지 강화공사 1,000만 위안)되고, 2기 공정에는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경교량, 통관능력, 도로, 전기현황 개선 등 총 1.14억 위안이 투자된다.<sup>52)</sup>

50) 延邊網, “琿春創力總經理王琦: 爭奪海運領航人,” 2015.6.19., <<http://www.hybrb.com/show/?idx=85432>>. (검색일: 2015.9.25.).

51) 海關總署公告2014年第42號, 2014.5.30.,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9/info708828.htm>>. (검색일: 2015.9.25.).

### (3) 잠정결론

중국 정부는 ‘동림’의 실패 이후 ‘창력’을 통해 라진항 진출에 성공했으나 중국 석탄의 국제경쟁력 부족과 러시아의 남하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북한 항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일보하였다. 하나는 ‘창력’의 사용권 확보가 10년에서 30년으로, 그리고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된 것이었고<sup>53)</sup>, 다른 하나는 ‘창력’이 고전하는 동안 중국 도문(圖們)의 해화집단(海華集團)이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항합영회사(海港合營會社)의 설립을 통한 북한 청진항으로의 정식접근이 성사된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북한의 라진항과 청진항은 TRADP/GTI체제하에서 동해로의 출해구 확보를 위해 중국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2015년 6월 11일 <훈춘-라진항-상해간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 컨테이너항로 정식개통: 琿春經羅津港至上海內貿貨物跨境運輸集裝航線正式啓動>과 관련된 의식이 라진항에서 개최된 것<sup>54)</sup>도 이를 반영하는 한 단면일 것으로 분석된다.

52) 琿春市航務局, “工作動態 琿春市航務局2014年工作總結及2015年工作計劃” 2014.11.7., <<http://hwj.hunchun.gov.cn/article/gzdt/201411/1185.html>>. (검색일: 2015.9.24.)

53)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簡介,” <<http://vip.sol.com.cn/SOL04110475>>. (검색일: 2015.12.20.)

54) 延邊廣播電視台, “琿春經羅津港至上海內貿貨物跨境運輸集裝航線正式啓動,” 2015. 6.12., <<http://cn.iybtv.com/Html/xwzx/sh/94926.html>>. (검색일: 2015.9.24.)

표 III-6 주요 출해구확보형 투자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05.8.*	훈춘시: 훈춘시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琿春市東林經貿有限公司)·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琿春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羅先國際物流合營公司)	라진항 3호와 4호 부두(50년 이용권과 경영권): 실패
2012.11.	훈춘시: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朝鮮羅先創力國際物流有限公司)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 10년→30년→40년으로 연장)
2013.12.	도문시: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해항합영회사(海港合營會社)	청진항 3, 4호 부두

출처: 저자 작성(\*기업등록일 기준).

## 2.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천안함사건(2010.3.) 이후 김정일의 3차례 방중과 호금도(胡錦濤, 후진타오)와 김정일 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운영체제가 구축되었는데, 그 메커니즘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의사결정체계였다. 중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합의한 구조 아래 중국 상무부장 진덕명(陳德銘, 천더밍)과 북한 장성택 행정부장이 총괄 조정하고 실무는 지방정부, 즉 길림성과 라선특별시, 요녕성과 평안북도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 성차원의 라선경제지대 중조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위원회 → 라선시 차원의 중조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I  
II  
III  
IV

우선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1차 회의(2010.11.19.: 평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관련 협의>가 체결되고, 이 협의에 따라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해 중조공동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의 중조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회의에서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 작성되었다. 동 요강은 중국에서 <중조 합작개발 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2011~2015년과 2025년 장기목표계획요강>으로 완성되었다.<sup>55)</sup>

다음 길림성과 라선시는 라선경제지대 중조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위원회 1차 회의(2011.7.28.)에서 중조 중앙정부의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총체적 계획: 中朝羅先經貿區總體規劃>에서 규정한 도로, 교량, 항만, 에너지, 농업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의향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계획의 기본구조에 관한 협의: 關於中朝羅先經貿區(2011~2020)規劃框架的協議>를 체결했다.<sup>56)</sup> 그 결과 중조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중국기업의 진출기반이 구축되었다.

둘째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운영체제였다. 두 가지 방식이 등장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라선시인민위원회 관할이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은 북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법적 근거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12.3. 개정)

55) 經濟網, “中朝黃金坪經濟區探秘,” 『中國經濟周刊』, 第46期 (2012), <<http://www.ceweekly.cn/html/Article/201211262417861.html>>. (검색일: 2015.9.26.)

56) 吉安實業集團, “中朝羅先經貿區,” 2014.11.8., <<http://hcjian.com/sever/xiangguanyuawen/32.html>>. (검색일: 2015.9.26.)

의 제8조(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와 제10조(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였다. 따라서 북중 합의사항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셋째는 경제특구 안에 여러 산업구, 즉 경제무역구를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이 ①정부인도, ②기업위주, ③시장원리, ④상호이익의 4원칙에 따라 북한과 합의한 라선지역 공동개발면적은 470km<sup>2</sup>이고, 1차 개발면적은 30km<sup>2</sup>였다. 라선경제무역구 개발목표는 중국, 러시아와 육로 및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에 중점을 두며 ①원유화학, 야금, 건재 등 원자재공업, ②조선업, 배수리, 자동차 등 장비공업, ③컴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 등 첨단 기술산업, ④농수산물 가공 및 일용소비품, 피복 등 경공업, ⑤창고 보관,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 ⑥농업새품종, 새기술, 새장비시범 도입, 농업생산체계 창조 등 현대고효율농업의 6대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sup>57)</sup>

중국의 로항구일체화 프로젝트의 점(항만)과 선(도로)이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운영, 즉 면(구역)으로 발전하면서 중국 대기

57)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최용환 편, 『경기도의 북한 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13), pp. 66~67.

업들의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기간(2011.6.9.) 원정리-라진항 간의 도로보수, 라선지역 자가용 관광, 고효율농업시범구,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 아태집단(亞泰集團) 100톤 시멘트생산 등 5개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 1차 개발면적 30km<sup>2</sup>와 관련 중국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주요 프로젝트는 ①전력송전, ②훈춘-권하 국경대교건설(中國橋梁集團 투자), ③도문(남양)-라진간 철도보수, ④무산철광 개발(라선지역 공동개발대상에 포함), ⑤라진항 4호, 5호, 6호 부두개발(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 획득), ⑥고효율농업시범구건설(北大荒集團 농장프로젝트) 등이었다.<sup>58)</sup>

그러나 두 경제지대의 건설은 쉽지 않았다. 김정일의 사망(2011.12.17.)도 악재였다. 전기는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3차 회의(2012.8.13.: 북경)였다. 중국 온가보 총리는 북경을 방문한 장성택 행정부장에게 중조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①법률·법규 개선, ②지방정부 간 협조 강화, ③토지·세금에 시장 시스템 적용, ④기업 애로 사항 해결, ⑤세관·품질관리 서비스 개선 등 5개항의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59)</sup>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추진단계로 전환되면서 두 경제지대 관리위원회 설립(2012.8.), 두 경제지대 북경 투자설명회 개최(2012.9.) 등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제3차 핵

58) 이종림, “동북아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한글판』 (한국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학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2014.7.2.), pp. 9~10 참조.

59) 新華網, “溫家宝會見中朝兩個經濟區開發合作聯合指導委員會朝方代表團,” 2012.8.17.,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08/17/c\\_112764315.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08/17/c_112764315.htm)>. (검색일: 2015.9.26.).

실험(2013.2.)과 장성택 숙청(2013.12.)의 여파로 두 경제지대 건설의 주요 사업들이 모두 잠정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두 경제지대의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중국기업들이 라선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중 정부의 비준을 득한 주요 투자사업은 ①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의 비파도관광지개발, ②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의 시멘트생산 등 건재산업단지 건설, ③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의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 ④길림성 공기업인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의 라선경제무역구 개발 등 4개였다 (<표 III-7> 참조).

표 III-7 주요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비준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10.3.	훈춘시: 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	라선시관광종합개발회사(羅先市旅遊(觀光)綜合開發會社)	비파도관광지 개발
2012.11.	장춘시: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라선아태건재유한공사(羅先亞泰建材有限公司)	시멘트생산(100만 톤)
2013.1.	훈춘시: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	라선북대황친선(우호)농업회사(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고효율농업시범구
2013.3.	장춘시: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羅先經濟貿易區貿易開發投資有限公司)	라선경제무역구 개발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 가. 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사례

### (1) 투자과정

흑룡강성 간척지의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 黑龍江省農墾總局, 베이다황그룹)은 중국 최대의 현대농업기업그룹으로 ① 113개 농(목)장, 536개 국영기업 및 국영지분기업, 593개 비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② 중국기업 500강 순위에서 제96위를 차지했고, ③ 산하의 북대황농업주식유한회사는 2002년 주식시장에 진출했으며, ④ 경작지 4,000만 묘, 삼림 1,343만 묘, 초원 533만 묘, 수면 402만 묘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녹색유기식품생산기지(녹색·유기농산품 연 생산량 1000만 톤)로 본사는 하얼빈시(哈爾濱市)에 있다.<sup>60)</sup>

북대황집단이 라선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기간 고효율농업시범구의 착공이었다(2011.6.9.). 그런데 그 근원은 2010년 8월 29일 김정일의 하얼빈 방문으로 판단된다. 당시 김정일은 황무지를 개척해 아시아 최대의 곡물산지로 거듭난 북대황집단을 시찰했다.<sup>61)</sup> 그 이후 중국과 북한 간에 작성된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에서 현대고효율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0) 북대황집단, “집단소개(베이따황 녹색으로 꿈을 이룬다: 헤이룽장간척지·베이따황 그룹),” <<http://www.chinabd.com/bdhgk/bdhjs.htm>>. (검색일: 2015.9.27.).

61) “김일성이 첫사랑과 도피한 혁명성지: 김정일이 귀국 예상 깨고 찾은 하얼빈은...,” 『문화일보』, 2010.8.3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3001070632060004>>. (검색일: 2015.9.27.).

“굴포지구에 현대농업시범구를 창설하여 기지화양식을 발전시키며 현존하는 기슭, 비탈, 분산적인 농경지들을 충분히 리용하고 구릉지대를 적극 개간하여 남새, 립업, 과수업을 발전시킨다. 축산품을 개발연구하고 축산품의 종류를 늘이며, 수산양식단지를 꾸리고 표준화된 수산양식을 진행하면서 그 규모와 질을 부단히 높인다. 새 품종, 새 기술, 새 장비를 도입, 응용하고 시범을 창조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적극 확대 보급한다. 시범구 내에서 선진적인 농업생산체계를 창조하고 농가와 시장의 효과적 련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투자, 경영관리, 리익분배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다.”

2012년 9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북대황집단과 라선시 해당단위 간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가 고효율농업시범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①560여 정보의 면적에 조성되어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②6.7정보의 논 면적에 꾸러진 벼모육성온실(개당 400m<sup>2</sup>)들은 일조율과 실내온도조절, 물주기를 비롯한 모든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③벼 이외에 토마토, 오이, 가지 등의 채소도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sup>62)</sup> 그리고 고효율 농업시범지구 앞에는 『조중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벼모집집중육성기지』라는 팻말을 세우고, 중국어와 조선어로 다음과 같이 벼모육성온실을 설명했다.<sup>63)</sup>

62) 中華人民共和國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使館, “中國北大荒集團在朝羅先經貿運營高效農業示範區,” 2012.9.10., <<http://kp.china-embassy.org/chn/zt/cxdt/t967665.htm>>. (검색일: 2015.9.27.).

63)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p. 76에서 재인용.

“조중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벼모집집중육성기지의 면적은 6.7 정보이다. 벼종자집중집전싹튀우기 온실 1개의 면적은 400m<sup>2</sup>이고 종자침전싹튀우기통은 25개, 발전기 2조가 설치되어있다. 100개의 표준화된 벼모육성온실을 건설하였으며 규격은 60×6.8m이고 도로연장길이는 2,000m이며 변두리에 연장길이 10,000m의 도랑을 했다. 온실은 333정보에 한한 벼종자 침전싹튀우기 육성 사명을 지니고 있다.

벼모육성기지건설: 토질이 비옥한 밭에 해비치는 방향으로 뒤쪽에서 바람이 통하게 설치하고 고정하였으며 벼모육성기지의 우물, 못, 모판, 도로, 수로, 산림의 종합적인 조화를 실현하고 가을토지정리, 가을모판건설, 일상적인 모판비료치기, 일상적인 모판유기질 비료 치기, 모판흡보강을 보장하며 벼모육성을 전 부 온실에서 분무기술을 도입하며 진행한다.

모판관리: 밭에서의 벼모육성을 위주로 하고 튼튼한 모를 표준으로 하며 온도조절 및 물조절을 수단으로 4단계의 중요시기를 틀어잡으로써 튼튼한 모를 육성해낸다.

항목책임자: 웬칭웨이(원경위), 순수지에(손서걸)

기술책임자: 장위권(장의군)”

이는 북대황집단의 대북투자가 2012년 9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종림은 “2013년 봄에 북대황집단이 라선시 두만강리의 2개 협동농장에 2,000만 위안을 투자하고 벼와 야채를 재배했다.”고 밝혔다.<sup>64)</sup> 그런데 북대황집단의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가 라선시에 투자한 독자기업인 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의 설립에 관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득한 것은 2013년 1월이었다.

64) 이종림, “동북아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p. 9.

## (2) 접근전략에 대한 평가

대기업인 북대황집단의 대북투자는 두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협상력 제고였다. 훈춘시 농업국은 북중 농업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라선지역에 식용버섯 시범구와 벼 시범구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했지만<sup>65)</sup> 북한의 농업상황과 농정체제가 여의치 못했다. 대기업인 북대황집단의 우산이 필요했다. 이것이 고효율농업시범구 프로젝트에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와 훈춘시북대황경무유한공사(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가 참여한 실질적 이유로 판단된다. 즉, 북대황집단 같은 중국의 대형국유기업이 북한에 진출한다면 북한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에 대해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정세였다. 2012년은 김정일 사망(2011.12.17.) 이후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기였고, 북한은 6·28조치 등 농업부문의 개선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업부문의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라 규모가 크고 자금동원력이 있으며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필요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는 고효율농업시범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농업기술이 중국 내 다른 성보다 월등하며, 농민들의 수입이 중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들어가는 흑룡강성의 북대황집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북대황집단의 참여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12월 중국은 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두만강 농장에 벼농사 1무당<sup>66)</sup> 천근

65)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p. 79 참조.

(斤) 생산 실험구 프로젝트 실시를 확정하고 라선시에 4회에 걸쳐 20여명의 시찰단을 파견하여 벼재배, 토양, 수원, 기후 등 기초농업 상황을 파악했다. 국유농장에 가정농장 경영방식(國有農場套家庭農場)<sup>67)</sup>을 채택하고 벼재배 시험지구로 560여 정보(555만 m<sup>2</sup>)의 면적을 확정했다. 그리고 ①목단강(牧丹江: 무단장) 해림(海林, 하이림)농장 → 훈춘 권하세관 → 라선시의 경로로 농업용 물자를 수송(2012.4.1.)했고, ②종자를 물에 불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2012.4.4.)했으며, ③모내기 전부를 완수한 것은 2012년 6월 15일이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6일 수확을 시작했는데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무당 평균 생산량은 400kg에 달했으며 벼 생산량은 라선지역의 현지 생산량보다 2배가 많았다.<sup>68)</sup>

## 나.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 사례

### (1) 투자과정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는 중조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인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을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장길도전략계획(國家長吉圖戰略規劃)에 의거 중국 상무부의 요청과 길림성정부의 지지하에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와 장춘시건설투자공사(長春市建

66) 1무(畝)는 중국식 토지면적의 단위로, 1무=666.6666667m<sup>2</sup>이다.

67) 국유농장에 가정농장을 결합(國有農場套家庭農場)한 것으로 자체경영, 독립재산, 자체관리형태의 토지임대방식을 북한 농업개발에 응용했는데, 농장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지원, 농장 부조, 직공(가정농장 성원)의 자금 등을 결합하고 300무(20ha)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하여 경영관리, 파종, 정지, 모내기, 경작지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농업생산 기계설비를 구비하는 방식이었다.

68)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p. 81에서 재인용.

設投資公司)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인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설립자본금은 1억 위안이었다. 공사의 주요 임무는 라선경제무역구와 장길도개발 계획과 관련 기초인프라, 통로 건설, 국제경제기술합작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투자업무범위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초건설영역으로 ①항구, 철로, 공로 등의 기초시설, ②용수, 전력, 난방 공급 등의 공용시설, ③전신, 우정, 금융 등 공공서비스시설, ④산업단지부대시설 등이며, 둘째는 에너지, 자연자원개발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와 용자이고, 셋째는 전망성과 파급성이 있는 중대산업에 대한 투자와 용자였다.<sup>69)</sup> 요약하면,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중국두만강국제합작시범구(中國圖們江國際合作示範區),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가 주요 업무지역이며, 그중에서 중조 양국정부간 합작항목이 주요 업무였다.

그리고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모회사인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는 길림성정부가 출자한 국영독자기업인데, ①설립자본금은 36.0235억 위안으로 2007년 5월에 설립되어 2014년 말 기준 총자산은 224.28억 위안이고, ②산하에 100% 투자기업(全資企業) 9개사, 지배기업(控股企業) 5개사, 지분참여기업 20개사<sup>70)</sup>를 보유하고 있으며(<표 III-8> 참조), ③공익사업, 신재생에너지, 교통운수, 지방금융, 현대농업, 전략신흥사업, 부동산 및 산업단지 건설 등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69) 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 “投資企業,” <<http://www.jlic.net.cn/sion/website/portal/investment.html?times=5&categoryId=54f585cad4e6f35f40d8d9db&company=55078971e4b0fbd713249cff-c>>. (검색일: 2015.9.29.).

70)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 홈페이지에는 13개사만 소개되었다.

표 III-8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의 투자기업(2015년 6월 기준)

구분	100% 투자기업 (全資企業)	지배기업 (控股企業)	지분참여기업 (參股企業)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신에너지투자유한공사(吉林省新能源投資有限公司)</li> <li>- 길림성현대농업투자유한공사(吉林省現代農業投資有限公司)</li> <li>- 길림성과기문화중심유한공사(吉林省科技文化中心有限公司)</li> <li>- 길림성창업투자인도기금유한공사(吉林省創業投資引導基金有限公司)</li> <li>- 길림성창업투자인도기금관리유한공사(吉林省創業投資引導基金管理有限公司)</li> <li>- 길림성과기투자기금유한공사(吉林省科技投資基金有限公司)</li> <li>- 길림성보장성주방건설투자유한공사(吉林省保障性住房建設投資有限公司)</li> <li>- 길림성수출입신용담보유한공사(吉林省進出口信用擔保有限公司)</li> <li>- 길림성투자물업복무유한공사(吉林省投資物業服務有限公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천연기유한공사(吉林省天然氣有限公司)</li> <li>- 동북중소기업신용재담보주식유한공사(東北中小企業信用再担保股份有限公司)</li> <li>-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li> <li>- 요원동북말업대학생창업인도고권투자기금유한공사(遼源東北林業大學生創業引導股權投資基金有限公司)</li> <li>- 길림성경제발전투자유한공사(吉林省經濟發展投資有限公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증권주식유한공사(東北證券股份有限公司)</li> <li>- 길림은행주식유한공사(吉林銀行股份有限公司)</li> <li>- 안화농업보험주식유한공사(安華農業保險股份有限公司)</li> <li>- 도방재산보험공사(都邦財產保險公司)</li> <li>- 길림성현대농업화신흥산업투자기금(吉林省現代農業和新興產業投資基金)</li> <li>- 길림성교통투자집단유한공사(吉林省交通投資集團有限公司)</li> <li>- 장쌍연철로유한책임공사(長雙煙鐵路有限責任公司)</li> <li>- 길림성출판집단지주식유한공사(吉林出版集團股份有限公司)</li> <li>- 길림형평승재기술유한공사(吉林衡平承載技術有限公司)</li> <li>- 해남남국지업유한공사(海南南國置業有限公司)</li> <li>- 길림성차기국제기차무역원유한공사(吉林省車家國際汽車貿易園有限公司)</li> <li>- 해통길화고권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海通吉禾股權投資基金管理有限公司)</li> <li>- 길림성생물질에너지유한공사(吉林省生物質能源公司)</li> </ul>
총계	9	5	13

출처: 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 <<http://www.jlic.net.cn>>. (검색일: 2015.11.16.).

2007년 5월에 설립된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라선시에서 확인된 것은 2012년 10월 26일에 열렸던 중조 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청사착공식(<그림 Ⅲ-1> 참조) 이후였는데, 중국 상무부는 2013년 3월 14일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독자기업인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羅先經濟貿易區貿易開發投資有限公司)의 북한진출을 비준하였다. 상무부가 비준한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의 업무범위는 ①시정공용 등 기반시설, ②전력 및 부대시설 공사, ③항구, 도로, 철도 등 공공서비스시설 건설투자, ④1급 토지 개발, ⑤무역산업합작, ⑥기술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경제무역구 개발 관련 업무였다.

● 그림 Ⅲ-1 중조 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출처: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67844.html>>. (검색일: 2015.11.16).

## (2) 잠정평가

중조 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설립이 중국과 북한 간에 합의된 것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중조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2011.7.)였고, 관리위원회준비단으로 활동하다가 정식으로 관리위원회 설립협정이 체결된 것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중조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위원회 제3차 회의(2012.8.)였다.<sup>71)</sup> 그리고 관리위원회 청사의 착공식은 2012년 10월 26일이었고,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의 상무부 비준은 2013년 3월이었다. 달리 말해 2013년은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대북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연도였다.

## 다. 라선아태건재유한공사 사례

### (1) 투자과정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이하, 아태 집단)는 1986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집단을 건설했고, 1995년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sup>72)</sup> 30여 년의 발전과정 속에 경영수익

71) 그 골자는 “길림성과 라선시에서 공동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사무국, 재정국, 항무사무관리국, 경제발전국, 세무국, 계획건설국 등 기구를 설치하여 라선경제무역구 470평방킬로미터 구역내의 개발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정하고 기초시설을 개발건설하며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동박회]중조합작 라선무역구 관리위원회 설립,” 『길림신문』, 2012.9.7., <[http://kr.chinajilin.com.cn/dby/content/2012-09/07/content\\_94824.htm](http://kr.chinajilin.com.cn/dby/content/2012-09/07/content_94824.htm)>. (검색일: 2015.9.29.); “중조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현판 운영,” 『인민넷』, 2012.10.29.,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67844.html>>. (검색일: 2015.9.29.) 참조.

72) 아태 집단의 역사는 1979년부터 추적해 볼 수 있다. 아태집단 창시자인 송상용(宋尙龍)은 장춘시 이도하자(二道河子)구역 건설국 주택 유지보수팀에서 일을

은 500억 위안에 도달했고 2014년에는 중국 500강 기업에서 281위를 기록했다. <표 Ⅲ-9>에서 보듯이 현재 아태집단은 건재, 부동산, 금융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석탄, 의약, 상업무역 등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대형기업집단으로, 특히 건재산업은 동북지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73)</sup>

아태집단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등장한 것은 2011년 6월 9일,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기간이었다. 이때, 아태집단의 연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 건설 착공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1년 3월이었다. 당시 길림성은 우선 진행할 8개의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여기에 아태집단의 시멘트공장 건설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아태집단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수차례의 담판을 하였고 착공식 전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sup>74)</sup>

표 Ⅲ-9-1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건재분야)

지역	자회사 이름
길림성 (15)	- 길림아태집단건재투자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建材投資有限公司) - 길림아태집단(요녕)건재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遼寧)建材有限公司) - 길림아태집단심양건재기술연발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沈陽建材技術研發有限公司) - 길림아태집단시멘트판매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水泥銷售有限公司)

시작 한 후, 개혁·개방의 역사적 기회를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잡게 된다. 1986년 4월 장춘시 이도하자구역에서 용달건축실업공사(龍達建築實業公司)을 설립, 장춘시 첫 번째 판자촌개조 프로젝트 진행으로 원시적 자본 축적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개발회사로 발전하게 된다. 1993년부터 1995년 기간, 자본운영을 통하여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회사를 건립하게 된다. 1995년 11월 15일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서 집단공사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73) 亞泰集團 集團簡介, <<http://www.yatai.com/gyyt/jtjj/>>. (검색일: 2015.10.7.); 歷史沿革, <<http://www.yatai.com/gyyt/lsyg/>>. (검색일: 2015.10.7.).

74) 亞泰集團, “集團新聞,” <[http://www.yatai.com/html/news\\_12\\_7045\\_1.html](http://www.yatai.com/html/news_12_7045_1.html)>. (검색일: 2015.10.7.).

지역	자회사 이름
<p>길림성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아태집단(요녕)건재유한공사판매분공사(吉林亞泰集團(遼寧)建材有限公司銷售分公司)</li> <li>- 길림아태시멘트유한공사(吉林亞泰水泥有限公司)</li> <li>- 길림아태시멘트유한공사해룬분공사(吉林亞泰水泥有限公司海倫分公司)</li> <li>- 길림아태명성시멘트유한공사(吉林亞泰明城水泥有限公司)</li> <li>- 길림아태정록시멘트유한공사(吉林亞泰鼎鹿水泥有限公司): 길림아태정록시멘트유한공사농안분공사(吉林亞泰鼎鹿水泥有限公司農安分公司)포함</li> <li>- 길림아태용담시멘트유한공사(吉林亞泰龍潭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통화시멘트주식유한공사(亞泰集團通化水泥股份有限公司): 통화시위용신형건축재료유한공사(通化市威龍新型建築材料有限公司)포함</li> <li>- 아태집단안달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安達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이통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伊通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도문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圖們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장춘건재유한공사(亞泰集團長春建材有限公司): 아태집단장춘건재유한공사길림시분공사(亞泰集團長春建材有限公司吉林市分公司), 아태집단장춘건재유한공사조양분공사(亞泰集團長春建材有限公司朝陽分公司)포함</li> </ul>
<p>흑룡강 성(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집단하얼빈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哈爾濱水泥有限公司): 아태집단하얼빈시멘트유한공사광산분공사(亞泰集團哈爾濱水泥有限公司曠山分公司) 포함</li> <li>- 아태집단하얼빈시멘트(아성)유한공사(亞泰集團哈爾濱水泥(阿城)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조병산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調兵山水泥有限公司)</li> <li>- 하얼빈삼령시멘트유한공사(哈爾濱三嶺水泥有限公司)</li> <li>- 길림아태집단(요녕)건재유한공사침북분공사(吉林亞泰集團(遼寧)建材有限公司沈北分公司)</li> <li>- 아태집단하얼빈건재유한공사(亞泰集團哈爾濱建材有限公司): 아태집단하얼빈시멘트유한공사건재제품공사(亞泰集團哈爾濱水泥有限公司建材制品分公司)</li> <li>- 아태집단하얼빈현대건축공업유한공사(亞泰集團哈爾濱現代建築工業有限公司)</li> <li>- 길림아태삼천소편책임공사(吉林亞泰三川塑編有限責任公司)</li> <li>- 아태집단하얼빈골료공사(亞泰集團哈爾濱骨料公司): 등록명칭은 아태집단하얼빈건재유한공사홍성채석분공사(亞泰集團哈爾濱建材有限公司紅星采石分公司)</li> </ul>

지역	자회사 이름
요녕성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집단철령시멘트유한공사(亞泰集團鐵嶺水泥有限公司)</li> <li>- 요녕교통시멘트유한책임공사(遼寧交通水泥有限責任公司)</li> <li>- 요녕부산시멘트유한공사(遼寧富山水泥有限公司)</li> <li>- 길림아태집단양시멘트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遼寧陽水泥有限公司)</li> <li>- 단동교통시멘트유한공사(丹東交通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심양건재유한공사(亞泰集團沈陽建材有限公司):</li> <li>아태집단심양(亞泰에반콘크리트유한공사(集團沈陽預拌混凝土有限公司) 포함</li> <li>- 아태집단심양현대건축공업유한공사(亞泰集團沈陽現代建築工業有限公司):</li> <li>아태집단심양현대건축공업세하유한공사(亞泰集團沈陽現代建築工業細河有限公司), 아태집단심양현대건축공업유한공사대련분공사(亞泰集團沈陽現代建築工業有限公司大連分公司) 포함</li> <li>- 단동교통시멘트유한공사(丹東交通水泥有限公司)</li> <li>- 아태집단심양골료공사(亞泰集團沈陽骨料公司):</li> <li>아태집단심양광업유한공사(亞泰集團沈陽礦業有限公司), 무순시성구마전석재유한공사(撫順市順城區馬前石材有限公司), 아태집단철령석료유한공사(亞泰集團鐵嶺石料有限公司), 철령현신동산쇄석유한공사(鐵嶺縣新東山碎石有限公司)</li> </ul>

출처: 亞泰集團, <<http://www.yatai.com/zyyw>>. (검색일: 2015.11.16.).

표 Ⅲ-9-2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건재 이외 분야)

분야	지역	자회사 이름
부동산 (9)	길림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아태방지산개발유한공사(吉林亞泰房地產開發有限公司)</li> <li>- 아태지산장춘공사(亞泰地產長春公司)</li> <li>- 아태지산길림공사(亞泰地產吉林公司)</li> <li>- 아태지산송원공사(亞泰地產松原公司)</li> </ul>
	요녕성	- 아태지산심양공사(亞泰地產沈陽公司)
	산둥성	- 아태지산봉래공사(亞泰地產蓬萊公司)
	강소성	- 아태지산남경공사(亞泰地產南京公司)
	해남성	- 아태지산해남공사(亞泰地產海南公司)
금융 (2)	길림성 (2)	- 길림은행주식유한공사(吉林銀行股份有限公司)
		- 동북증권주식유한공사(東北證券股份有限公司)

I  
II  
III  
IV

분야	지역	자회사 이름
석탄 (4)	길림성	- 길림아태집단지탄투자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煤炭投資有限公司)
	흑룡강성 (2)	- 쌍압산아태매업유한공사(雙鴨山亞泰煤業有限公司) - 아태동북아에너지유한공사(亞泰東北亞能源有限公司)
	내몽고	- 과이심좌익중기옥룡산금전광업유한공사(科爾沁左翼中旗寶龍山金田礦業有限公司)
의학 (9)	길림성 (9)	- 길림아태집단지약투자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醫藥投資有限公司) - 길림대약방약업주식유한공사(吉林大藥房藥業股份有限公司) - 길림아태제약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製藥股份有限公司) - 길림아태명성제약유한공사(吉林亞泰明星製藥有限公司) - 길림아태생물약업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生物藥業股份有限公司) - 아태장백산의약보건과학기술유한공사(亞泰長白山醫藥保健科技開發有限公司) - 옹흥약업(龍興藥業) - 길림아태의약산업원관리유한공사(吉林亞泰醫藥產業園管理有限公司) - 길림아태(집단지)주식유한공사약물연구개발중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藥物研究與開發中心)
상업 무역 (11)	북경	- 북경아태반점유한공사(北京亞泰飯店有限公司)
	길림성 (7)	- 길림아태집단지상업투자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商業投資有限公司) - 길림아태초시유한공사(吉林亞泰超市有限公司) - 길림아태부원구몰중심유한공사(吉林亞泰富苑購物中心有限公司) - 길림아태반점유한공사(吉林亞泰飯店有限公司) - 길림아태반점유한공사국제구락부(吉林亞泰飯店有限公司國際俱樂部) - 아태반점분공사(亞泰飯店分公司) - 장춘옹달빈관유한공사(長春龍達賓館有限公司)
	해남성 (3)	- 해남아태온천주점유한공사(海南亞泰溫泉酒店有限公司) - 오지산아태우림도기주점유한공사(五指山亞泰雨林度假酒店有限公司) - 아룡만아태상업중심(亞龍灣亞泰商業中心)

출처: 亞泰集團, <<http://www.yatai.com/zyyw>>. (검색일: 2015.11.16.).

아태집단의 100만 톤 시멘트공장, 건재공업구가 자리 잡은 곳은 라선시 웅상지역으로 건설 점유면적은 20ha였고 철도운송이 편리

할 수 있도록 제일 가까운 기차역에서 2km 이내에 위치해 라진항만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위치의 선정은 향후 생산품을 해상으로 해서 러시아 극동시장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조 공동지도위원회 2차 회의(2011.6.)에서 길림성의 8개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한 양국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중 5개 프로젝트가 2011년 6월 9일 착공식을 거행하였다(<그림 Ⅲ-2> 참조). 진행된 5개의 착공식(①훈춘의 권하세관에서 라선까지 50km 2급도로 개조 프로젝트, ②라진항의 중국 내수화물 초국경 운송 프로젝트, ③라선고효율 시범농업구 프로젝트, ④아태집단 라선 100만 톤 시멘트 프로젝트, ⑤중국 관광객의 라선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 중에서 아태집단의 프로젝트는 유일하게 공업 프로젝트로서 다른 공업 프로젝트에 건설 원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sup>75)</sup>

● 그림 Ⅲ-2 아태집단의 100만 톤 시멘트공장 건설공업구 착공식



출처: 亞泰集團 集團新聞, <[http://www.yatai.com/html/news\\_12\\_7045\\_1.html](http://www.yatai.com/html/news_12_7045_1.html)>. (검색일: 2015.11.16.).

75) 위의 글.

그런데 아태집단이 정식으로 북한과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착공식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2년 8월 14일이었다. 당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 진건재(陳健在)는 인민일보를 통해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사업이 실질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다.”며, “중국은 대형기업들의 북한투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sup>76)</sup>고 밝혔다. 이에 호응하듯이 15일 아태집단은 공고를 통해 “8월 14일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와 <중조라선경제무역구 아태(라선)건재공업원구 투자협력 기본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아태집단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아태(라선)건재공업원에 공동투자하기로 했다.”<sup>77)</sup>고 공식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sup>78)</sup>

“건재공업단지의 부지면적은 약 50만 평방미터이고, 위치는 웅상항 주변이며 합작기한은 50년이다. 건재공업단지에는 주요하게 시멘트분말 생산라인, 상품콘크리트가공 생산라인, 모르타르 분말가공 생산라인, 시정(市政) 부자재 생산라인, 건축공업화 부자재 생산라인 및 기타 건축자재제품이 포함된다. 시멘트분말 생산라인은 2012년 9월에 시공을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완공시켜 생산에 투입시키려고 한다. 기타 항목은 시장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건재공업단지의 개발은 아태집단에서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고, 공사와 라선시인민위원회는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토지사용권의 양도가격은 토지양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건설 철로전용선공장 이외의 부지와 공장건

76) 新浪博客, “亞泰集團600881擬在朝鮮羅先投建工業園,” 2012.8.16. <[http://blog.sina.com.cn/s/blog\\_687c82060102e3vc.html](http://blog.sina.com.cn/s/blog_687c82060102e3vc.html)>. (검색일: 2015.19.13.).

77) 위의 글.

78) 新浪財經, “亞泰集團將在朝鮮羅先市建工業園,” 2012.8.16., <<http://finance.sina.com.cn/stock/s/20120816/033912862791.shtml>>. (검색일: 2015.19.13.).

설 이외의 도로부지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공사의 웅상항 주변 아태(라선)건재공업단지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항목 건설 과정 중 그리고 생산 시작 후 전력보장, 교통운수, 급배수, 노동보장, 세수 등의 방면에서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약서 체결 후 공사는 적극적으로 대상항목의 각종 전기(前期)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공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것이다. 아태(라선)건재공업단지 항목은 장기 항목으로 단기 내에 공사의 업적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 (2) 잠정평가

<표 III-10>의 ‘아태집단 라선건재공업구 건설 동향’에서 보듯이 <중조라선경제무역구 아태(라선)건재공업원구 투자협력 기본협정>이 체결된 이후 라선시에서 아태집단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다. 즉, 북한 자강도인민위원회 대표단의 집안시 아태건재이통공사 참관(2012.9.),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 아태건재도문공사 방문(2013.5.),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의 장춘 아태집단 방문(2013.9.) 등의 소식이 아태집단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태집단 사례는 두 가지 주목되는 분석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I

II

III

IV

표 III-10 아태집단의 라선건재공업구 건설 동향

연도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건설 관련 아태집단 동향
2011.3.	길림성의 우선 진행 8개 프로젝트에 아태집단의 연 100만 톤 시멘트 생산 공장 건설을 포함함에 따라 아태집단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협상 시작
2011.6.9.	8개 중 5개 프로젝트 착공식 진행(훈춘의 권하세관에서 라선까지 50km 2급도로 개조, 라진항의 중국 내수화물 초국경 운송, 라선고효율시범 농업구, 아태집단 라선 100만 톤 시멘트 건재공업구, 중국 관광객의 라선 자가운전 관광)
2011.6.11.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에 따라 <특별제시> 정보공고: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 조선라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조국과 연 생산량 100만 톤 시멘트공장 건설 합작협약서 체결에 관한 공고
2012.8.14.	<중조라선경제무역구 아태(라선)건재공업원구 투자협력 기본협정> 정식체결
2012.9.4.	북한 자강도인민위원회 대표단(단장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덕훈) 아태집단 집안시 아태건재이통공사 참관
2013.5.14.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단장 라선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철남) 아태건재도문공사를 방문하여 기업생산경영과 원재료라인 현황 시찰
2013.9.8.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단장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장춘 아태집단을 방문하여 아태집단의 라선경제무역구 프로젝트 건설진행 현황을 청취

출처: 亞泰集團, <<http://www.yatai.com/zyyw>>. (검색일: 2015.11.16.).

첫째는 중국의 여타 북한 진출기업과는 달리 착공식(2011.6.9.) 직후 특별제시(2011.6.11.)를 통해 앞으로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에 따라 정보공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였다. 이는 공개적 절차에 따라 북한과 협상에 임하며 북한투자를 주주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동 관점을 수용할 경우 2012년 8월 이후 아태집단의 행보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장거리 미사일 실험(2012.12.), 3차 핵실험(2013.2.) 등으로 인해 북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2013.12.)까지

발생해 당분간 투자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태집단이 주식시장에 공고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sup>79)</sup>

증권약칭: 아태집단 증권번호: 600881 문서번호: 임 2011-019호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회사

조선라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조국과 연 생산량 100만 톤  
시멘트공장 건설 합작협약서 체결에 관한 공고

#### 특별제시

본 회사의 이사회 및 전체 이사들은 본 공고의 내용에 그 어떤 허위기록,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혹은 중대한 누락이 없는 것을 보증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개별 및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의 건축자재 산업을 더 확장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전략적 확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9일 회사는 조선라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조국(이하, 라선시경제협조국)과 연 생산량이 100만 톤 시멘트공장 합작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는 라선지역에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인 시멘트공장프로젝트 건설에 투자할 것이다. 프로젝트 건설에는 국제적으로 제일 선진적인 기술,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제품의 품질이 국제

79) 網易財經, “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關於与朝鮮羅先市人民委員會經濟‘合作局簽訂建設年產100万吨水泥粉磨站合,” <[http://quotes.money.163.com/f10/ggmx\\_600881\\_737347.html](http://quotes.money.163.com/f10/ggmx_600881_737347.html)>. (검색일: 2015.19.13.).

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라선개발구역 내 전체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수요량을 보장하도록 한다. 성수기에 공급이 부족하면 회사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보충할 것을 보장하여 라선개발구 내 프로젝트 건설 수요를 보장할 것이다. 회사는 수요에 따라 라선시에서 광산업, 상업무역서비스업, 물류업, 부동산업, 의약 등 기타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선시경제협조국은 회사가 라선시에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인 시멘트공장 프로젝트의 건설을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프로젝트 건설과정 중 및 생산에 투입된 후 여러 지원정책으로 지지할 것이다. 전기사용, 노동자 제공, 운수, 인원 및 시설물자의 출입경에 대해 여러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선시경제협조국에서는 기타 기업의 라선지역 시멘트 프로젝트 건설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본 협의서가 체결된 후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각항 전 단계 준비작업을 조직할 것이고 조건이 성숙되면 회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고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특별히 공고한다.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회사

이사회

2011년 6월 11일

둘째는 중국의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에 있어서 아태집단이 차지하는 위상이었다. 아태집단이 주식시장에 공고한 정보(특별제시)에 따르면 “라선개발구역 내 전체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수요량을 보장하도록 한다”,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선시경제협조국에서는 기타 기업의 라선지역 시멘트 프로젝트 건설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의되어 있다.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은 길림성정부의 공기업인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의 라선경제무역구개발공투자유한공사가 담당하는 체제임을 감안할 때, 아태집단의 움직임은 중국정부의 결정과 중복관계의 기상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아태집단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15.57%)가 장춘시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up>80)</sup>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원개발형 투자

2015년 8월 말 기준 정부의 비준을 득한 길림성 대북투자 중 자원개발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05%로 79건 중 19건이었다. 일반적으로 2002년 7·1조치 이후 중국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철광과 동광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분야로 대규모 교통시설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중국으로의 운송이 용이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에 집중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투자의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sup>81)</sup> 또

80) 新浪博客, “亞泰集團600881擬在朝鮮羅先投建工業園,” 2012.8.16., <[http://blog.sina.com.cn/s/blog\\_687c82060102e3vc.html](http://blog.sina.com.cn/s/blog_687c82060102e3vc.html)>. (검색일: 2015.9.13.).

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사업단, 『중국기업의 북한진출현황』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p. 3.

한 오픈소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지하자원분야 외 국기업진출 총 89개 사업 중 80개 사업을 중국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2)</sup> 길림성의 자원개발분야 대북투자의 비중이 중국의 여타지역보다 비록 높지 않지만, 길림성 대북투자의 1위 역시 자원개발분야였다.

길림성의 자원개발분야 대북투자는 <표 III-11>에서 보듯이 ①길림호용집단(吉林昊融集團)의 금광, ②천지집단(天池集團), 용정시두만강수전유한공사(龍井市豆滿江水電有限公司), 백산시조씨무역유한공사(白山市趙氏貿易有限公司), 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曙光凱旋鑛業有限公司),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의 철광, ③초금광업유한공사(招金鑛業有限公司)의 동광, ④연변해구동부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溝東部進出口貿易有限公司)의 몰리브덴, ⑤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변경무역진출구총공사(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邊境貿易進出口總公司)의 석탄, ⑥통화시의창경무공사(通化市懿昌經貿公司)의 중석, ⑦해화무역집단(海華貿易集團), 길림성북방공업규집단공사(吉林省北方工業珪集團公司)의 규소, ⑧돈화시봉해광업개발유한공사(敦化市峰海鑛業開發有限公司)의 폐고령토, ⑨용정시청옥무역유한공사(龍井市淸玉貿易有限公司)의 벽돌, ⑩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의 석재, ⑪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의 모래·자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중 주목되는 분야는 철광석(HS2601)과 동광(HS2603), 그리고 금광(HS261690)이었다.

82)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Report, March 1, 2012),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OSC-NorthKorea-ForeignJointVentures.pdf>>. (검색일 2015.11.16).

표 III-11 자원개발형 투자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 품목
2005.2.	백산시: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 초금 광업유한공사(招金鑛業有限公司)	혜산초금합영공사 (惠山招金合營公司)	동광
2005.12.	용정시: 용정시두만강수전유한공사 (龍井市豆滿江水電有限公司)	오룡합영공사(五龍合營公司)	자철 정광
2006.6.	집안시: 통화시의창경무공사 (通化市懿昌經貿公司)	락원금창합작회사 (樂園金昌合作會社)	중석
2006.7.	백산시: 백산시조씨무역유한공사 (白山市趙氏貿易有限公司)	장생조씨무역유한공사 (長生·趙氏貿易有限公司)	철·동 광
2006.7.	반석시: 길림호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호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	금광
2006.12.	요원시: 길림성북방공업집단공사 (吉林省北方工業硅集團公司)	위원군공업규창 (渭源郡工業硅厂)	공업 규소
2007.3.	도문시: 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공업 규소
2007.8.	용정시: 용정시청옥무역유한공사 (龍井市淸玉貿易有限公司)	조선보통강건재합영공사 (朝鮮普通江建材合營公司)	벽돌
2007.12.	연길시: 연변해구동부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海溝東部進出口貿易有限公司)	조선회령광업개채합작회사 (朝鮮會寧礦業開采合作會社)	몰리 브덴
2008.4.	반석시: 길림호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2008.7.	돈화시: 돈화시봉해광업개발유한공사 (敦化市峰海礦業開發有限公司)	금봉합영회사 (金峰合營會社)	폐 고령토
2009.7.	백산시: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변경무역 진출구총공사(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邊境貿易進出口總公司)	길평마안산합영회사 (吉平馬鞍山合營會社)	석탄
2012.3.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 유한공사(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 (凱旋曙光礦業合營會社)	철광
2012.6.	용정시: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 (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라선석재합영회사 (羅先石材合營會社)	석재

I  
II  
III  
IV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 품목
2013.5.	연길시: 천지집단유한공사 (天池集團有限公司)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 (平壤國際投資合營公司)	광산
2013.5.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조선은해합영회사 (朝鮮銀海合營會社)	철광분
2013.7.	용정시: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 (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모래· 자갈
2013.12.	도문시: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공업 규소
2014.4.	반석시: 길림호융집단유한공사 (吉林省昊融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출처: 저자 작성.

자원개발분야 길림성 대북투자는 여러 영향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했다. 첫째는 2002년 7·1 조치 시행 이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당시 길림신문의 한 기사가 이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기업들을 조직하고 도와 조선에 진입할 데 관한 보고서류 한 통이 일전 복건성 정부 해당지도자의 탁상하에 놓여 졌는데, 그 핵심내용은 복건성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조선정부와 기업계들과 교류하여 조선에 판사처를 세우는 등 합작기회를 창조함으로써 복건성이 기업들이 하루빨리 조선시장을 점령하도록 도왔으면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때, 2차의 조선시찰 경력을 지닌 복건성 대외경제무역청 북경주재 판사처 주임 왕위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83)</sup>

83) “조선에서 <금캐기> 그 전망은?,” 『길림신문』, 2004.11.9.

“조선의 현재상황은 중국의 지난세기 70년대 말 80년대 초와 비슷합니다. 지금 조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 할 수 있지요…조선은 집 문 앞에 위치한 개발을 기다리는 잠재력이 매우 큰 하나의 시장이지요. 목하 중국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가안전과 환경공해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거의 금지구역이 없습니다…조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고찰과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합작하기를 희망합니다…그곳은 자본의 마지막 하나의 처너지이고 중국기업이 출국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이기도 합니다…비록 조선이 아직까지 어딘가 종잡을 수 없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경제개혁의 보다 많은 세절들이 차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길림성 장백경제개발구와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간의 관계였다.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있는 장백경제개발구는 장백통상구의 우세를 바탕으로 1992년 성급 경제개발구로 비준되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장백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국내와 제3국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백경제개발구에 위탁한다.”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간에 체결된 경제협력의향서였다.<sup>84)</sup> 이에 따라 장백경제개발구가 중국의 대북한 광산투자의 전진기지로 부상했다.

셋째는 동변도철도의 착공소식이었다. 2004년 12월 30일 길림신문은 “동변도철도가 명년 착공하게 된다. 이는 길림성에서 조선에 가 투자할 기회가 많아짐을 말해준다. 조선에 가 투자할 경우 어떤

84) “장백경제개발구 조선열풍에 뜬다,” 『길림신문』, 2004.11.9.

점에 류의해야 할까?”라는 기사를 게재했다.<sup>85)</sup> 실제로 2005년 1월 중국철도부는 감측·설계 및 착공건설계획을 하달했고, 2005년 6월 부터는 이 구간의 선로방안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다.<sup>86)</sup>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인 동변도철도가 완공될 경우 북한 철도와의 연결과 국경지대 북한 광산 자원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북한광산의 국제경쟁력은 재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 가. 철광 개발사례: 천지집단과 통화강철집단

### (1) 투자과정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 이하, 통강)이 무산철광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담긴 보고서의 채택이었다. 향후 발생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길림성정부와 ‘통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길림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였기 때문이었다.

‘통강’과 길림성 상무청은 2003년부터 무산철광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에 돌입했으며,<sup>87)</sup> 2003년 8월 25일에는 중국 화룡(和龍)과 북한 무산(茂山)을 연결하는 남평(南坪)다리 개건사업을 정식으로 착공하고<sup>88)</sup> 2003년 10월에는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

85) “조선투자 중점은 자원개발,” 『길림신문』, 2004.12.30.

86) 원동욱,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철도수송 전략: ‘동변도철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통권 156호 (2005.12), p. 123.

87) 唱新(ちゃん),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p. 33.

88) 연변인터넷투자유치관, “연변주세관개요,” 2005.4.16, <<http://www.ybinvest.gov.cn>>.

(延邊天池工貿有限公司: 이하, 천지)를 통해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1,200만 달러) 규모의 채광설비를 투자하고 남평세관을 통해 철광분(원광석) 수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천지’를 통해 철광분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sup>89)</sup> 후반부터는 길림성 상무청이 북한과 정식교섭에 돌입하여 2004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대표단을 무산에 파견하였다.<sup>90)</sup> 이에 따라 길림성의 북한산 철광석(HS2601) 수입은 2002년 46만 달러, 2003년 161만 달러, 2004년 2,008만 달러, 2005년 2,799만 달러, 2006년 3,714만 달러로 2004년부터 급증하였다.

2005년 중반, 길림성은 무산 철광석 수입을 위한 선광공장의 완공에 이어<sup>91)</sup> 10월에는 북중 간에 기초적인 합의를 달성하고 11월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①‘통강’을 주제로 ‘천지’, 중강(中鋼)그룹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무산철광개발에 인민폐 70억 위안(약 8억 6,741만 달러)을 투자하며, ②70억 위안 중 50억 위안(6억 1,958만 달러)은 광산개발을 위한 기계·설비 및 기술 확보에, 20억 위안(2억 4,783만 달러)은 통화-무산간 교통(도로, 철도), 케이블 등 전기기반시설투자에 사용하고, ③그 대가로 중국은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해 연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강’은 그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24억 위안(2억 9,740만 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검색일: 2007.7.18).

89) ‘천지’는 2003년부터 북한 무산철광과의 합작교류를 진행했고 2004년 초에 국가로부터 대외무역수출입경영권, 변경무역경영권을 획득하여 철금속무역에서 국내 유일할 대조선무역회사가 되었다. 연변일보, “철광분생산규모확장에 1억위 투자,” 2005.4.18.

90) “70억원 투자해 조선무산철광 개발,” 『흑룡강신문』, 2005.11.4.

91)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p. 6.

하였다.<sup>92)</sup>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5년 12월 초 북한의 협상 중지요청이었다. 중국의 경제포털사이트인 헤충망(2005.12.8.)은 길림성 상무청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전했다,<sup>93)</sup> 협상결렬의 핵심이유는 이윤분배조건으로 북한은 채굴권을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무역형식의 투자를 제안한 반면, 중국 정부와 ‘통강’은 채굴권 보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데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북한이 무산철광개발권을 중국 철강회사에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 것도 협상중지 이유의 하나였고, 그동안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길림성 상무청에게 더 이상 협상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길림성 상무청의 일선후퇴를 요구한 이후 중국의 무산철광개발에 두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했다. 하나는 ‘통강’의 구조조정이었다. 2005년 12월 30일 통강은 구조조정을 통해 민영 철강사인 건룡강철집단(建龍鋼鐵集團)이 2대주주로 참여하고 ‘통강(국유)’, 길림철합금집단(吉林鐵合金集團/국유)의 3개 철강사의 연합을 통해 길림성 최대기업인 통화강철집단유한책임공사(通化鋼鐵集團有限責任公司)로 재출범했다.<sup>94)</sup> 이에 따라 향후 조강 1천만 톤과 합

92) 2005년 10월 오의(吳儀, 우이) 부총리 방북시 중국 정부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唱新(ちゃん),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p. 33; “70억원 투자해 조선무산철광 개발,” 『홍룡강신문』, 2005.11.4.; 배종렬, “北·中 間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p. 54 참조.

93) “북 무산철광 개발권 협상 중지 선언 중 철강 3사 투자계획 포기,” 『한국경제신문』, 2005.12.8.에서 재인용.

금철 200만 톤 능력을 지향하는 ‘통강’의 소유구조는 길림성 국유 자산관리위원회 46.64%, 화융자산관리공사(貨融資產管理公司/국유 CRV) 14.6%, 절강성건룡강철공사(浙江建龍鋼鐵公司) 36.19%, 통화강철관리총 2.57%로 국유, 민간, 금융사의 공동출자로 다원화되었다.<sup>95)</sup>

다른 하나는 ‘통강’이나 중강그룹에 비해 대북경험이 많은 ‘천지’의 역할 제고였고, ‘천지’가 무산철광개발의 일선에 나섰다. 그런데 길림성 대북 육로무역 1인자인 ‘천지(조장수 사장)’는 2003년 연변 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에서 출발해 남평(南坪)해관을 통해 대북 육로무역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북한에 공정기계, 화학비료, 식량, 전자제품, 술 등을 수출하는 중개무역 수준이었으나 무산광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권을 따내면서 매출이 급신장해 2005년 길림성 30대 중점기업이 되었는데, 2005년 대북 수출액은 3,000만 달러, 총 무역액은 약 5,000만 달러였다.<sup>96)</sup>

2006년 1월 ‘천지’ 등 중국 3사가 북한과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길림성의 무산철광석 수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sup>97)</sup> 이번

94) ‘통강’은 이 구조조정을 통해 2006년 중국인기업 500강에 진입했는데, 길림성기업 중 500강에 든 기업은 중국제1자동차그룹회사와 통화강철그룹유한책임회사 2개 기업뿐이었다(“<중국인기업500강>에 길림성기업은 두 개뿐,” 『길림신문』, 2006.7.3; 배종렬, “北·중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pp. 54~55.

95)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철강사 동향”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6.1., p. 15; 배종렬, “北·중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pp. 54~55.

96) “우리가 중국 대북사업 3대기업: 무산광산 독점권 연변천지공업무역회사 등 3곳,” 『데일리NK』, 2006.4.5.,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0692>>. (검색일: 2015.11.16.).

97) 길림성정부는 <개방으로 발전을 이끄는 전략에 관한 중공 길림성당위, 길림성 정부의 실시의견>에서 “기업들이 해외지원항목에 참여하고 해외 기초시설 건설 항목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특히 제1자동차그룹, 통화강철그룹 등 중점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건설을 지지한다. 해외에서 개발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길림성 중점항목 전단계 사업경비, 기업기술개조자금으로 밀어준다.”고 하였다. 『길림

I
II
III
IV

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2006.7.)를 계기로 또 다시 압초가 발생했다. 길림성발전위원회가 무산철광분의 ‘통강’수송을 위해 중조변경 덕화진(德化鎮)에서 시작하여 화룡역에서 끝나는 백산진-천양철도(44km, 투자액 6.6억 위안)를 2007년부터 착공·건설하여 중국과 북한이 공동경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으나,<sup>98)</sup> 2006년 3월 583만 달러, 4월 286만 달러, 5월 461만 달러, 6월 495만 달러, 7월 577만 달러로 상승세에 있던 중국의 북한 철광석 수입은 8월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2005년 수준을 하회하게 된다(<그림 III-3> 참조).

당시 무산철광개발의 한 관계자는 7월 이후 원광석의 대길림성 수출이 지속적으로 준 것에 대해 북한은 ‘차량부품(타이어 등)의 절도에 의한 트럭의 운행불가’라고 중국에 통보했으나 중국은 북한이 ‘트럭 도난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중국에 약속된 원광석을 김책제철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지’는 또 다시 북한과 협상에 돌입해 2007년 상반기에 ‘천지’가 북한 재정성과 무역성의 담보를 바탕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무산철광분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합작계약을 북한과 체결하게 된다.<sup>99)</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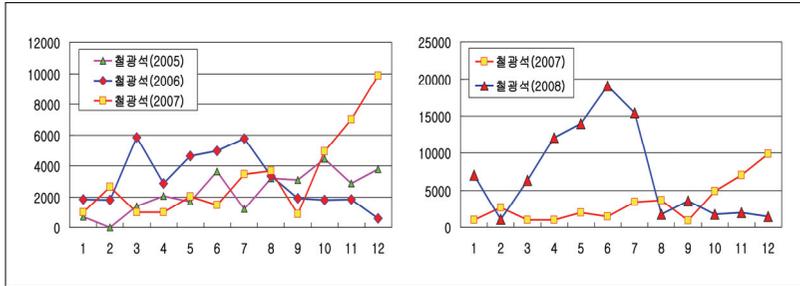
신문』, 2006.3.14.

98) “무산철광분 통강에 운수하기 위해 백산진-천양 철도 건설,” 『길림신문』, 2006.1.29.; “백산진-천양 철도 건설 중조쌍반 공동경영,” 『흑룡강신문』, 2006.1.20.

99) “천지공업 무산철광 합작 장기화,” 『연변일보』, 2007.7.12.

● 그림 III-3 중국의 북한 철광석 수입(2005~200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그 내용은 무산철광의 개발은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철광분 300만 톤, 2단계는 철광분 700만 톤, 그리고 3단계는 철광분 1,000만 톤을 개발할 계획이나, 북한의 철광분 수요를 만족시키는 전제에서 나머지 부분을 ‘천지’가 받기로 계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천지와 합작해 ①무산-남평철광분수송도관, ②무산-남평까지의 도로건설, ③무산-청진철도(100km) 보수공사, ④청진부두적재함수송설비개조 등 대상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양국의 철광분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무산철광 개발이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2007년 7월 17일 ‘천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하에 화룡시 팔가자진에 2006년 1월 초에 설립한 자회사인 길림천지광업유한회사의 선광공장(120만 톤, 투자규모 3억 위안) 건설식을 거행했는데, 길림성의 ‘통강’과 북한 ‘무산’의 대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다.<sup>100)</sup>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07년 8월 20일 발표된 동북진흥계획 세부추진계획에 중국 화룡 남평과 북한 무산 칠성리를 연결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을 포함시켰다.

100) “길림천지광업 120만 톤 구단항목 착공,” 『연변일보』, 2007.7.18.

I  
II  
III  
IV

길림성의 대북 철광수입은 2007년 9월 89만 달러를 최하점으로 10월 492만 달러, 11월 701만 달러, 12월 987만 달러, 2008년 1월 705만 달러, 2월 107만 달러, 3월 631만 달러로 제자리를 잡다가 4월 1,202만 달러, 5월 1,400만 달러, 6월 1,914만 달러, 7월 1,547만 달러 등 월 1,000만 달러 시대를 여는 듯했다. 그러나 8월 179만 달러, 9월 361만 달러, 10월 176만 달러, 11월 196만 달러, 12월 146만 달러 등 다시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8년 8월은 김정일의 와병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 (2) 무산광산의 실태

‘통강’과 협상이 진행되던 시절, 1937년 일본의 미쓰비시공업(三菱工業)에 의해 개발된 무산광산의 실태는 <표 III-12>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았다.<sup>101)</sup>

“무산광산은 가채매장량 17억 3천만 톤의 자철광( $Fe_3O$ )으로 규암 또는 편마암 중에 섞여있는 규산질 철광인데, 2004년 1월 1일 기준 탐사 확인매장량 20억 6천만 톤 중 기존 채굴량은 3억 3천만 톤이고 잔존매장량은 17억 3천만 톤이며, 자철광 추정매장량은 70억 5,500톤이다. 잔존매장량 17억 3천만 톤 중 노천채굴대상은 26%, 지하채굴대상은 74%로 정광환산율 2.68일 때 정광 700만 톤 생산을 가정할 경우 약 25~30년이면 노천채굴이 끝나 지하채굴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1, 3, 4광구에서 지표수준(해발 500미터)이상에서 노천채굴이 되고 있으며, 채굴작업공정은 천공, 발파, 굴착, 운반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천채굴장 주설비는 소련산 250 령회전

101) 이 부분의 기술은 내부자료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실태자료』, 2005.7.를 참조했다.

식 착정기(천공기: csw-250)와 굴착기(4m<sup>2</sup>와 8m<sup>2</sup>), 42톤 대형트럭, 광석 및 박토를 운반하기 위한 락광정, 파쇄장운반콘베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비·부품부족과 채굴연선길이(노천채굴 계단고 15m, 채굴연선길이 8,000m) 미확보로 2004년 현재 노천 채굴능력은 연 정광 200만 톤 수준이다.”

표 III-12 무산광산의 잔존광량과 철품위(2004년 1월 1일 기준)

구분	잔존광량(t)	철품위(Fe)	기타
1광구	6억 6천만	33.4	노천채굴 진행중
2광구	7천 9백만	33.0	-
3광구	5억 7천 6백만	38.8	노천채굴 진행중
4광구	7천 9백만	35.5	노천채굴 진행중
5광구	3천 8백만	30.0	-
6광구	1천 8백만	28.0	-
양영골	2억 6천 1백만	34.0	-
1광구세층	1천 9백만	24.6	-
합계	17억 3천만		

출처: 저자 작성.

그런데 연 정광 200만 톤을 <표 III-13>의 정광환산율 3.3에 적용하면 원광석 660만 톤을, 위의 2.68을 적용하면 536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어 2004년 무산철광의 생산능력은 1998년 이하수준으로 떨어져 무산철광의 가동률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무산철광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섰던 중국도 채굴량의 증대, 전력부족의 만성화, 설비의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무산철광의 전체가동률을 30% 이하로 추정하였다.<sup>102)</sup>

<sup>102)</sup> 배종렬, “北·中 間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2009년 신년 사설의 금속공업강조를 중심으로,” p. 55.

무산광산 채굴원광의 품위는 30~35%에 불과한 저품위 광석이  
 지만 간단한 분쇄, 그라인딩 및 자력선별을 통해 Fe65%의 정광으  
 로 가공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지만, 문제는 선광장 등이었다. 정광  
 능력은 설계능력의 31.4% 수준이고 정광수송관에 문제가 있는데,<sup>103)</sup>  
 그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sup>104)</sup>

표 III-13 무산광산의 철정광 생산실태(1996~2000)

(단위: 만 톤)

연도	원광석 (Fe24~30%)	폐석	철정광 (Fe64~65%)	광석/ 정광비율	폐재
1996	363	128	110	3.3	125
1997	396	136	120	3.3	140
1998	825	240	250	3.3	335
1999	891	266	270	3.3	355
2000	990	320	300	3.3	370

출처: “TumenNet Musan Iron Ore Mine Fact Finding Mission,” CLOUGH,  
 2002; 김정완,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철강수요 전망 및 북한 철광산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연구』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p. 44에서 저자 가공.

“현재 정광생산공정은 제1선광장공정과 제2선광장공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철정광 품위는 65%로 제1선광장의 설계능력은 정  
 광 350만 톤이고, 제2선광장의 설계능력은 정광 300만 톤이다. 설  
 비낙후로 대당생산성과 가동률은 심히 떨어져 월 정광 생산량  
 은 17만 톤이다. 때문에 Fe65% 철정광을 제1선광장에서 200만  
 톤, 제2선광장에서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건정비하고  
 250만 톤 능력의 제3선광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선광장  
 에서 생산된 정광의 일부는 기계적인 탈수와 자연침전을 통하

103) 무산철광에서 선광된 정광은 대부분 무산-청진간의 정광수송관(98km, 1977년 완성)을  
 통해 김책제철연합기업소로 수송되며 일부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공급된다.

104) 이 부분의 기술도 내부자료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실태자료』, 2005.7.를 참조했다.

여 철도와 자동차로 국내의 야금공장에 공급하고 대외에 수출도 하며, 일부는 정광수송관을 통하여 국내의 야금공장에 보내고 있다.”

### (3) 합작배경과 갈등요인

길림성정부와 ‘통강’이 무산철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중요했다. 하나는 전술한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와 관련된 구조조정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철광석 수요증가와 가격의 상승이었다.

우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길림성은 2005년 초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조강 424만 톤 규모의 현 철강업발전을 위해 자동차용강 중심의 철강업 11·5계획(2006~2010)을 확정했다. 그리고 2004년 기준 조강규모 223만 톤(시설노후화로 실제 생산능력은 100만 톤 수준)인 ‘통강’을 길림성 철강산업발전계획의 중심에 놓았다. ‘통강’은 국내철강수요의 급성장에 대비해 2007년 연간 550만 톤, 2010년 연간 1,000만 톤의 생산체제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 최대 자동차메이커인 중국일기(中國一氣)에 대한 공급력 제고차원에서 130만 톤급 열연 및 100만 톤급 냉연 프로젝트를 착공했다.<sup>105)</sup> 그럴 경우 2004년 160만 톤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철광석 수입량도 생산 확대에 병행하여 2007년에는 400만 톤, 2010년에는 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III-14> 참조).

<sup>105)</sup>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길림성 자동차공업 및 철강업 발전전망,”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2., pp. 1~6 참조.

표 III-14 '통강'의 조강생산 및 소요 철광석 수급계획

(단위: 만 톤)

연도/구분	2005	2007	2010
조강 생산능력	252	550(정부 기승인)	1,000
철광석 수입량	162	400	800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통화강철 북한 무산철광석 년 1천만 톤 50년 채굴권 획득,”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11., p. 13에서 재인용.

달리 말해 2004년 조강규모 223만 톤인 '통화강철집단'이 2010년 조강 1천만 톤급 철강사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무산'철광석의 안정적인 확보가 긴요했다. 당시 길림성정부 발전연구센터 대외개발연구처 처장 미덕장은 길림성과 '통강'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06)</sup>

“길림성은 여지껏 자원이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현상이 존재해 온 반면 조선은 광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통화철강그룹을 레로 든다면 연간 철강생산량은 200여만 톤 되지만 실지상 통강이 수요하는 철광석 자원은 극히 모자란다. 목전 통강은 매년 호주에서 철광석을 100여만 톤 수입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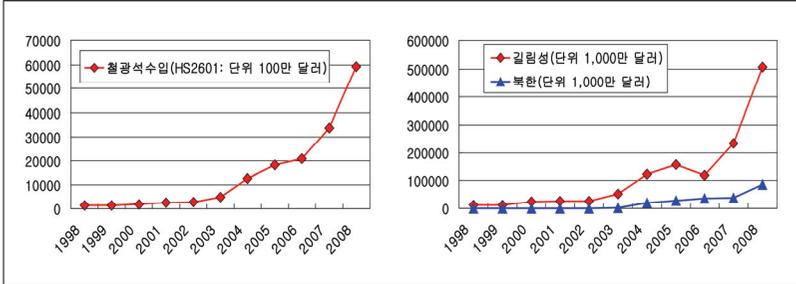
다음은 철광석 가격상승 문제였다. <그림 III-4>에서 보듯이 2002년 이후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급증했다. 전 세계적 공급부족에 의해 국제시장에서 철광석 가격도 상승추세로 돌입하면서(<표 III-15> 참조) 2000년대 중반은 신규 광산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시기였다. 그렇지만, 중국 국내광산의 Fe품위는 하락세에 있었고(<표 III-16> 참조) Fe품위 10% 등 자국 내 저품위 광산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통강'에서 270km떨어진 Fe품위 30~35%인

106) “조선투자 중점은 자원개발,” 『길림신문』, 2004.12.30.

무산철광은 경제성이 있었으며 ‘통강’의 입장에서 최대의 장점은 물류비 경쟁력이었다.

그림 Ⅲ-4 중국의 전체철광석 수입과 길림성과 북한

(단위: 백만과 천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표 Ⅲ-15 길림성의 철광석(HS2601) 국가별 수입액과 단가동향(2002~2006)

(단위: 천 달러, 괄호 안은 단가지수)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브라질	23,122(0.02)	39,414(0.03)	58,825(0.06)	84,153(0.07)	56,437(0.07)
호주	2922(0.03)	3,984(0.03)	23,195(0.04)	33,627(0.06)	25,915(0.06)
북한	457(0.02)	1,613(0.02)	20,084(0.04)	27,992(0.04)	37,144(0.04)
인도	0(-)	6,693(0.04)	21,069(0.12)	12,021(0.09)	0(-)
합계	26,500(0.02)	51,714(0.03)	123,174(0.05)	157,793(0.06)	119,497(0.06)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반면, 무산광산의 입장은 전술한 무산광산의 실태에서 바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문제는 2002년 7·1조치 이후 강화된 독립채산제였다. 따라서 무산광산의 1차적 관심은 생산 확대와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채광 및 운광과 관련된 설비의 확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노천채굴능력(2000년 990만 톤에서 2004년 660만 톤 수준으

- I
- II
- III
- IV

로 저하)을 확대할 수 있는 ①회전식 착정기, 굴착기 등 채광설비, ②대형트럭과 같은 운광설비, ③그리고 기름, 부품, 기타설비와 같은 채광·운광 관련설비의 가동수단의 확보가 시급했다.<sup>107)</sup>

표 Ⅲ-16 주요국별 철광석 매장량과 Fe품위 변화(1995~2003)

국가	구분	경제성 있는 매장량(억 톤)			Fe품위(%)		
		1995	2003	증감	1995	2003	증감
중국		90	210	120	39	33	-6
러시아		343	250	-93	37	56	19
호주		180	180	0	56	61	6
브라질		110	76	-34	59	63	4
인도		54	66	12	61	64	3
세계		1510	1500	-10	55	47	-8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소, 『POSRI CEO Report』, 2004.4.29.

그리고 무산광산의 2차적 관심은 김책제철소 등 북한 철강산업의 재가동에 대비, 정광생산능력과 운송능력을 재정비하는 한편, 북한 철강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하채굴설비 일식의 확보였다. 즉, ①월 정광 17만 톤 수준에 필요한 선광공장의 가동률 제고와 함께 제3선광공장의 신설, ②무산-김책제철소 간(98km) 기존 정광수송관을 보완할 수 있는 무산-남평 간(13.5km), 무산-청진항 간(102km) 정광수송관 건설을 통해 수출능력의 향상과 김책제철소 가동률 제고, ③기존 1, 3광구를 중심으로 지하 1,000m까지 채굴할 수 있는 건설시공 및 운영설비 마련을 통해 원광석 채굴능력 향상(약 3억 달러 소요)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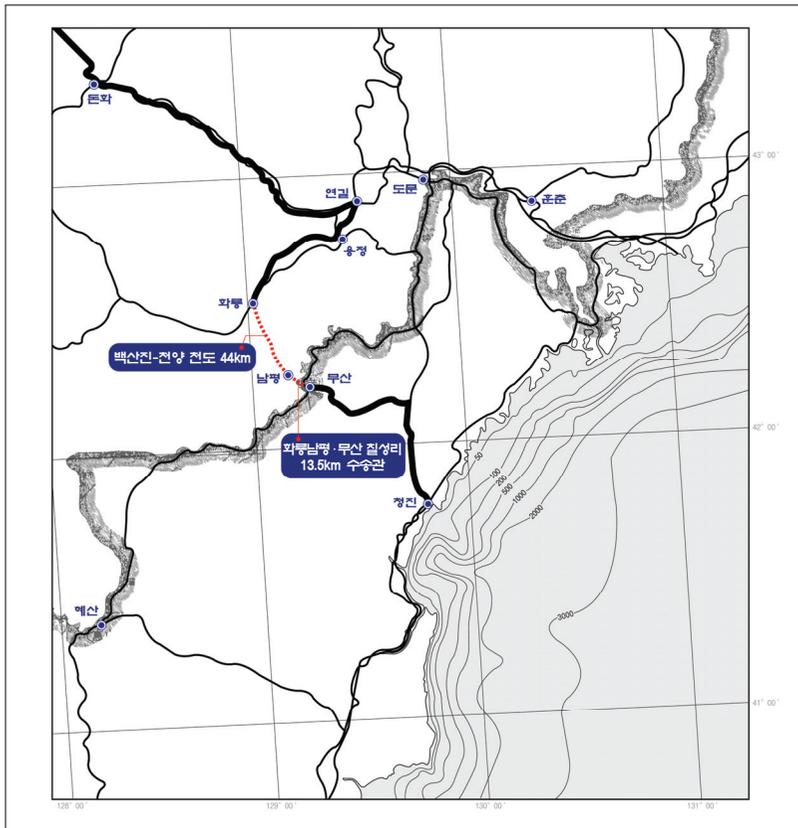
107) 배종렬, “北·中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pp. 55~56.

양측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과 북한은 무산광산에서 서로 이해가 일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갈등은 두 가지 영역에서 발생했다. 첫째는 투자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길림성과 ‘통강’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합영(joint venture)을 선호했으나 북한은 중국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는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의 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sup>108)</sup> 그런데, 북한식 합작은 일종의 계약채광권으로 ①채굴권은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투자자에게 투자액을 상환한 후 광산제품전매권(판매수수료)에 2:8 정도의 이윤분배조건을 제시하는 단기차관과 유사한 보상무역형식의 투자이며 (이자율 약 7% 정도), ③북한의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를 대신하여 투자유치에 나서며, ④합작회사의 생산·경영권은 북한의 합작법 제2조에 따라 북한회사가 소유한다는 것이었다.<sup>109)</sup>

108)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EU와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p. 57.

109) 채굴권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확산되자 북한정부는 기존의 ‘계약채광권’에 이어 2006년부터는 ‘공동채광권’이라는 새로운 외자유치수단을 강구했다. 여기서 ①‘계약채광권’이란 북한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주와 일정비례 이윤분배조건을 광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를 대신하여 중국의 기업과 투자유치상담을 한다는 것이고, ②‘공동채광권’이란 북한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와 함께 공동으로 광산을 소유하고 공동개발을 한후 일정비례로 이윤분배를 하는데 무역회사가 광산소유자를 대신하여 중국의 기업과 투자유치상담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향평(李向平), “중·한·북 3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전문가 세미나, 2007.4.3.), p. 8;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EU와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pp. 57~58 참조

그림 III-5 무산 철광석 수입을 위한 중국의 인프라정비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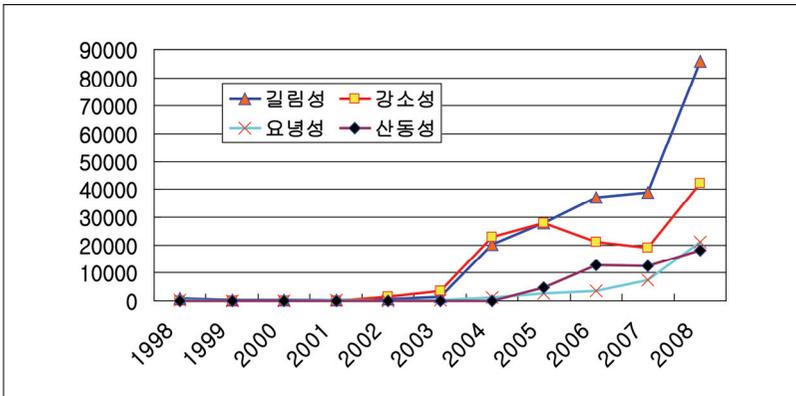
둘째는 가공도와 인프라 정비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중국은 ‘통강’에 필요한 철광석의 안정적 공급이 주목적이라 원광석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무산철광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계기로 정광 능력의 향상과 함께 김책제철소의 정상화 및 새로운 수출루트의 개척에 관심을 두었다. 무산광산의 채굴능력 향상은 북중의 1차 관심사였으나 중국은 철광석의 ‘통강’ 수송과 관련하여 ①선광공장 건설

(화룡시 팔가자진), ②13.5km 수송관 건설(화룡 남평-무산 칠성리), ③44km철도 신설(백산진-천양)에 초점(<그림 III-5> 참조)을 둔 반면, 북한은 ①무산-청진철도의 보수공사, ②청진항 수송설비의 개건도 요구하였다.

#### (4) 무산철광과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

중국의 무산광산 프로젝트는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림 III-6>의 의미였다. 1998년 이후 가동률이 극히 저조했던 무산철광이 중국의 투자로 정상화되면서 북한의 길림성수출뿐만 아니라 강소성, 요녕성, 산둥성 등 여타 성에 대한 수출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 그림 III-6 중국 주요 성(省)의 북한 철광석 수입(1998~200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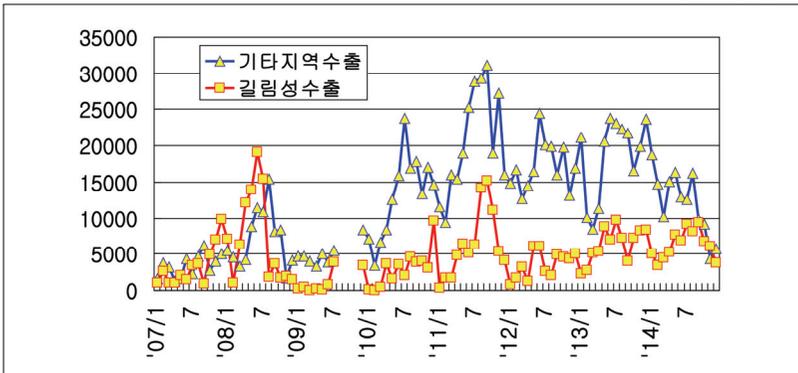
둘째는 <그림 III-7>의 시사점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정일 외병(2008.8.)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가 구축되면서 대중국 철광수출이

I  
II  
III  
IV

전반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이었다. 길림성의 월별수입은 2008년 7월 1,547만 달러에서 8월 179만 달러, 9월 361만 달러, 10월 176만 달러로, 길림성의 제외한 여타지역 전체의 월별수입은 8월 1,545만 달러에서 9월 811만 달러, 10월 837만 달러, 11월 177만 달러로 급락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 온가보 총리의 방북(2009.10.) 이후 북한의 철광석수출에 새로운 흐름이 조성된 것이었다. 그 시작은 2010년 5월부터였다. 즉, 길림성의 제외한 여타지역 전체의 월별수입이 4월 838만 달러에서 5월 1,263만 달러, 6월 1,591만 달러, 7월 2,379만 달러로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 급증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길림성의 월별수입은 4월 365만 달러에서 5월 158만 달러, 6월 353만 달러, 7월 210만 달러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①‘천지’의 대북투자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②북한의 수출선이 길림성 중심에서 강소성, 요녕성, 산둥성 등으로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그림 III-7 북한 철광석의 월별 길림성과 기타 성(省) 수출(2007.1.~2014.12.)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셋째는 <표 III-17>의 의미였다. 길림성의 대북 철광석 수입이 2010년 이후 회복세를 타다가 2014년에는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다. 즉, 2014년 길림성의 대북 철광석 수입은 중국의 대북 철광석 수입의 34.28%를 기록했지만, 거의 50%대를 육박했던 2006~2008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 천지의 무산철광 프로젝트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무산철광이 지리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라선시의 개발에서 자원의 뒷받침이 필요해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었다.<sup>110)</sup>

표 III-17 북한 철광석의 5대 수출 성(省)과 길림성 비중(2003~2014)  
(단위: 천 달러, %)

연도/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1	강소 3,671	강소 22,765	강소 28,069	<b>길림</b> <b>37,144</b>	<b>길림</b> <b>38,963</b>	<b>길림</b> <b>85,707</b>	강소 67,834	강소 109,392	요녕 76,857	강소 86,824	<b>길림</b> <b>76,063</b>
2	<b>길림</b> <b>1,613</b>	<b>길림</b> <b>20,084</b>	<b>길림</b> <b>27,992</b>	강소 21,224	강소 18,983	강소 42,160	요녕 38,139	요녕 78,125	강소 72,395	<b>길림</b> <b>76,088</b>	산둥 52,000
3	허북 810	요녕 1,104	산둥 4,865	산둥 12,824	산둥 12,580	요녕 21,047	<b>길림</b> <b>36,674</b>	<b>길림</b> <b>76,317</b>	<b>길림</b> <b>42,758</b>	산둥 61,637	강소 40,065
4	흑룡강 361	허북 473	요녕 2,593	요녕 3,560	요녕 7,418	산둥 18,243	산둥 30,511	산둥 41,624	산둥 32,757	요녕 49,311	요녕 32,130
5	광둥 333	산둥 22	허북 2,215	허북 1,743	허북 1,772	허북 3,488	허북 14,894	허북 15,683	허북 18,194	허북 19,361	허북 16,892
총계	6,942	44,521	66,521	76,594	79,952	172,259	194,316	324,454	248,576	298,653	221,889
길림성 비중(%)	23.24	45.11	42.08	48.49	48.73	49.75	18.87	23.52	17.20	25.48	34.28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110) 이종림, “동북아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p. 86.

다른 하나는 ‘천지’의 평양진출이었다. 연변천지공무유한공사 평양판사처(延邊天池工貿有限公司 平壤辦事處)가 상무부의 설치비준을 받은 것은 2007년 3월 9일(상합비 [2007] 123호)이었고, 천지집단유한공사(天池集團有限公司)가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平壤國際投資合營公司) 설립을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은 것은 2013년 5월 7일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합영회사가 성립했던 것은 2008년으로 길림성 경외투자기업 비준일은 2008년 7월 8일이었다.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는 ①연변천지공무유한공사가 600만 달러의 현금과 설비를, 북한 평양기술개발중심(平壤技術開發中心)이 400만 달러의 토지사용권과 현금을 출자해 중국이 60%의 지분을 가진 합영회사로, ②그 설립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 기여이며, ③광산개발, 광산장비 위탁판매, 철광분 회수 등이 주 업무이고, ④경영기간은 15년이었다. 그리고 2010년 평양국제투자합영회사 연결대표처를 길림성에 등록했다.

그런데 무산광산개발과 관련 ‘천지’의 북한 측 파트너는 흑색금속무역회사(黑色金屬貿易會社)이며, 현재 그를 통해 보상무역방식으로 무산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지’의 무산광산개발 프로젝트와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와의 상호관계였다. ‘천지’의 조장수(趙長壽) 총경리는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에서 자주 차질이 발생하자 그 문제해결을 위해 평양으로 진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나. 동광 개발사례: 초금집단, 난하집단, 그리고 만향집단

### (1) 투자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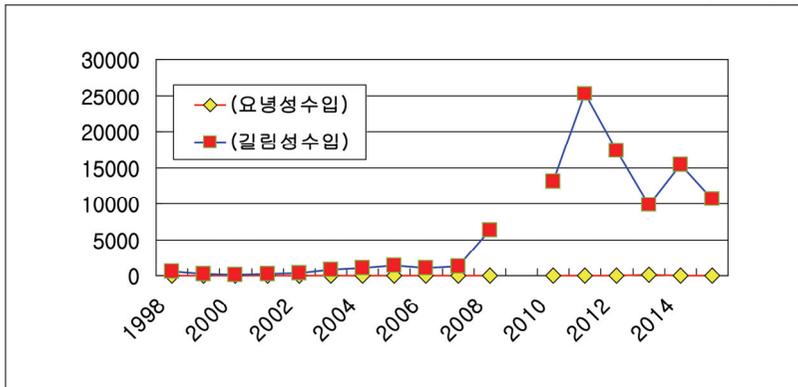
중국의 북한 동광수입은 거의 길림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길림성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북한 동광수입은 2009년 강서성 11만 달러와 절강성 11만 달러, 2011년 요녕성 3만 달러, 2013년 요녕성 17만 달러 정도에 불과해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다. 길림성의 동광수입은 2007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그림 III-8>에서 보듯이 길림성의 북한 동광수입은 2007년 131만 달러에서 2008년 630만 달러, 2010년 1,313만 달러, 2011년 2,534만 달러, 2012년 1,735만 달러, 2013년 990만 달러, 2014년 1,542만 달러, 그리고 2015년 1~8월 기간 1,065만 달러를 기록해 연 1,000만 달러 이상 수입시대를 열었다.

북한의 동광개발에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2004년 현재 약 5억 위안 등록자산규모를 가진 산둥성 산둥초금집단유한공사(山東招金集團有限公司: 이하, 초금집단)였다.<sup>111)</sup> 초금집단은 헤산 청년동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길림성 장백경제개발구가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광산개발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회투자를 위해 길림성 백산시 장백현 소형기업(등록자본 1,300만 위안)의 총경리 하검춘과 손을 잡고 장백경제개발구에 초금광업유한공사(招金礦業有限公司:

111) 산둥초금집단유한공사는 2002년 6월 조직개편으로 성립된 회사로 전신은 초원시황금공업집단총공사(招遠市黃金工業集團總公司)였다. 2014년 기준 산둥초금집단은 금광업, 비금광업, 금교역과 심층가공, 최신과학기술산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6대산업을 가진 대형종합그룹으로 공사 총자산은 400억 위안에 달하며 산하에 100%투자한 8개의 자회사, 13개의 지배기업, 8개의 지분참여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의 초금광업주식유한공사(招金礦業股份有限公司)는 2006년 12월 8일 홍콩증시에 상장되었다.

등록자본 1,000만 위안)를 설립했다. 그리고 동 회사와 함께 2004년 9월 4일 북한의 혜산청년동광 측과 “①총 투자액은 2억 2,000만 위안(2,680만 달러)이나 ②50% 지분에 합영기간은 25년이며, ③3기로 나누어 개발하는데, ④동정광과 함께 연(鉛), 아연 정광도 개발한다.”는 내용의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혜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를 설립했다. 그런데 장백경제개발구 초금광업 유한공사의 혜산초금합영공사는 2005년 2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획득했다.<sup>112)</sup>

● 그림 Ⅲ-8 중국의 북한 동광석(HS2603) 수입(1998~2015.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112) 이에 대해서는 ①“길림성기업 조선 동광 개발 간다,” 『흑룡강신문』, 2004.11.9.; ②“상무부 조선 혜산 동광 투자 비준,” 『길림신문』, 2005.1.1.; ③投資朝鮮, 2006.1.16., <<http://www.idprkorea.com>>. (검색일: 2015.11.16.); ④21世紀珠寶網, “招金集團十五發展紀實,” 2006.1.23., <<http://news.21gem.com/news/7772.html>>. (검색일: 2015.11.16.) 등을 참조.

당시 아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헤산동광은 자연재해와 에너지 결핍 등의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탐사결과 헤산청년광산은 동광 150만 톤, 금 60톤, 은 16,000톤 등 1,000억 위안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때, 하검춘 총경리의 헤산청년동광 투자가능성 보고의 골자는 아래와 같았다.<sup>113)</sup>

“동광석이 채굴원가는 1톤에 120위안이고 총이익은 톤당 8,000위안으로 연 채굴량을 66만 톤으로 계산하면 연 이윤은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동북 동광석의 평균 동 함유율은 0.8%에 불과하나 헤산청년동광의 동광석 품질은 최고 동 함유율이 20%, 평균 동 함유율이 1.6%로 동 함유율이 상당히 높다. 조선의 국내 기업 소득세 징수는 20%, 대극동공업무역 소득세 징수는 10%로 중국의 33%에 달하는 대극동공업무역 소득세 징수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아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헤산동광개발은 쉽지 않았다. 우선 중국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 2006년 9월 19일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는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 중국유색집단무순홍투산광업유한공사(中國有色集團撫順紅透山礦業有限公司), 조중국제광업공사(朝中國際礦業公司) 등<sup>114)</sup>과 함께 아래와 같이 헤산동광

113) “길림성기업 조선 동광 개발 간다,” 『홍룡강신문』, 2004.11.9.

114) 홍투산동광은 중국유색집단무순홍투산광업유한공사의 명칭으로 홍투산광업공사로 약칭해서 부른다. 전신은 무순홍투산동광으로 2006년 12월 18일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와 무순시 정부 국가자원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직했는데, 중국유색광업집단공사의 중국 동북지역 광업·제련기지이다. 그리고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는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가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다. 따라서 상호 출자한 회사들이 합쳐서 북한 헤산동광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개발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sup>115)</sup>

“최근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와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 흥투산동광, 조중국제광업공사는 북한해산동광을 공동 개발하기로 북경에서 정식 합작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유색집단 총경리 겸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 동사장 장라도(長羅濤)는 조중국제광업공사 동사장 안병기(安炳基),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원 한강(韓江)과 같이 공동협약에 정식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중국유색집단, 앞으로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가 북한 경내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산동광의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북한 해산동광은 중조 변경 통상구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동광매장량은 약 25만 톤(금속 함량)이다. 중국유색집단은 흥투산동광에 위탁하여 가까운 시기에 적절한 설비를 구성, 재료와 기술인원, 광산생산과 경영을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한다.

중국유색집단은 북한을 자원이 풍부하고 집중된 국가와 지역, 즉 해외개발의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 개발할 것이다. 이번 정식협약 전에 중국유색집단과 길림호융집단(吉林昊融集團), 북한금강총회사가 북한 금광개발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개발, 중국기업의 북한 유색금속자원 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중국유색집단은 앞으로 기술, 관리, 자금, 인재우세를 발휘하여 북한의 자원우세를 경영우세로 전환시킬 것이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시키고 중조 양국과 양국 인민 간 전통우의를 증진시킬 것이다.

중국유색집단 부총경리 장극리(張克利), 흥투산동광 총경리 기성림(祈成林),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 부총경리 당위력(唐偉力) 및 상관부문의 책임자가 조인식에 참석하였다.”

115)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 中國有色簽下朝鮮惠山銅礦開發經營協議,” 2006.9.19., <<http://www.sasac.gov.cn/n86114/n326638/c724198/content.html>>. (검색일: 2015.10.10.).

그러나 난하실업집단유한공사(灤河實業集團有限公司: 이하, 난하실업)가 한발 앞섰다. 자회사인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를 통해 혜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의 지분 51%를 매입해<sup>116)</sup> 합영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난하실업이 북한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조선채굴공업성 산하 혜산청년동광)와 평양에서 합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11월 27일이었다.<sup>117)</sup> 당시 철강을 위주로 시멘트, 프레임강철재, 부동산 개발, 무역 등의 사업을 했던 난하실업은 난하국제투자지주발전공사(灤河國際投資持株發展公司)의 자회사였지만, 그 산하에 다시 1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본사는 하북성 당산시(唐山市)에 있었고 2006년 말 현재 중국 100대 민영기업 75위, 100대 성장형기업 18위를 차지했다.<sup>118)</sup>

만향집단공사(萬向集團公司: 이하, 만향집단)가 혜산동광 개발 전선에 등장한 것은 만향집단의 자회사인 만향자원유한공사(萬向資源有限公司: 이하, 만향자원)가 2007년 6월 난하실업으로부터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이하, 중광국제)의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였다.<sup>119)</sup> 그리고 북중 양국정부로부터 북한 혜산동광항목의 승계를 동의받았는데, 2007년 8월 3일 상무부 비준의 내용은 ①중광국제투자유한책임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責任公司)와 조선량강도광업

116) 김찬희, “중국, 2000조대 북한 광물자원 눈독… 철·구리 광산 투자 ‘러시,’” 『국민일보』, 2007.4.23.

117) 中國黃金集團公司, “中國企業獲得朝鮮惠山青年銅礦管理控制權,” 2006.12.29., <<http://www.chinagoldgroup.com/n4/n64/c14309/content.html>>. (검색일 2015.10.10.).

118) “조선 혜산청년동광 중국 민영기업과 합자개발,” 『길림신문』, 2006.12.26.

119) 中國有色金屬工業協會, “中朝簽超級大單: 朝鮮全部銅精礦礦都買給中國,” 2011.9.26., <<http://www.chinania.org.cn/html/kuangchanziyuan/2011/0926/449.html>>. (검색일: 2015.10.10.).

련합기업소(朝鮮兩江道礦業聯合企業所) 간에 혜중광업합영공사(惠中礦業合營公司)가 설립되며, ②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은 4,490만 유로(6,122만 달러)이고, ③중국은 현금출자 169.5만 유로, 설비출자 2,120.4만 유로, 합계 2,289.9만 유로(3,122만 달러)로 51% 지분을, 북한은 광업권, 토지사용권, 생산설비 등 2,200.1만 유로(3,000만 달러) 출자로 49% 지분을 획득하고, ④합영기간은 15년, ⑤경영범위는 동정광 개발, 가공 및 판매였다.<sup>120)</sup>

이후 대사가기 <표 III-18>에서 보듯이 중광국제는 ①합영회사 설립식 진행(2007.10.31.), ②합영회사 기업등록증(등록지 량강도 혜산시청년광산) 취득(2007.11.1.), ③광산권리증(광산채취증) 정식취득(2008.6.), ④북한 설비시찰단 일행 6명 중국 방문 주선(2008.7.), ⑤북한 설비검수단 일행 6명 중국 방문 주선(2008.12.), ⑥중국수출입은행 상해지점 3명 평양·혜산 실사지원(2009.2.), ⑦만향집단의 중조우의탑 조명설비(태양에너지 경관등 총 26세트) 기증의식 진행(2009.10.26.), ⑧북한 무역성 투자국에 20대 데스크톱 컴퓨터 기증(2009.12.), ⑨만향집단 국방위원장 김정일에게 생일선물(2010.1.16.) 등을 통해 2011년 9월 19일 혜산시 청년광산에서 합영회사의 정식 개업에 성공하고 2012년 2월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는데, 중광국제 의 대사가기는 2010년 2월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로관구(魯冠球) 선생이 이사회 주석으로 있는 절강성 만향집단은 1969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규모는 중국기업 500강에서 127위, 제조업 58위, 중국공업기업 1000대 기업에서 60위, 기계업계 15위, 자동차업계 8위, 자동차부속품업계 1위였다. 1969년 설립

120)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惠中礦業合營公司的批復』, 商合批 618号, 2007.8.3.

된 이후 주업종인 자동차부속품을 끊임없이 발전시킴과 동시에 신 에너지, 자원, 금융 등 여러 산업으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해 현재 총자산 800.44억 위안, 2014년 집단 영업수입 1287.89억 위안, 수출액 31.69억 달러를 달성했다.<sup>121)</sup>

표 Ⅲ-18-1 중광국제외의 헤산동광개발 대사기(2007.6.~2008.12.)

연도	주요 특기사항
2007.6.	만항집단의 만항자원유한공사(萬向資源有限公司) 중광국제투자유한책임공사와 북한 헤산동광항목 전면 인수
2007.8.	- 상무부 중광국제외의 헤중광업합영회사 설립비준(3일) - 란주유색야금설계연구원유한공사(蘭州有色冶金設計研究院有限公司)와 헤산동광 마산(馬山)광구의 초보설계계약 체결
2007.10.	- 헤산항목 초보설계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심사회의 북경 개최(22~23일) - 중광국제외와 북한 채취공업성 직속 헤산청년동광이 공동으로 조직 건설한 '헤중광업합영회사' 성립대회 제1기 이사회 제1차 회의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31일): 회사규약 통과, 송일용(宋日龍)을 이사로 한우홍(韓又鴻)을 부이사로 선임
2007.11.	헤중광업합영회사 기업등록증 취득(1일): 등록지 량강도 헤산시청년광산
2007.12.	중광국제 신사옥으로 이사
2008.1.	- 헤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2차 회의 평양개최 - 중광국제 이사회 비준: 국내 채굴, 지질, 금융 등 분야 6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 중광국제외의 상임고문팀으로 초빙 - 중광국제 등록자본 5,0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으로 증자
2008.2.	- 중광국제외와 헤중광업합영회사 김정일 탄신 66주년기념 축전 전달(16일) - 중광국제 1기 2차 이사회 개최(21일): 기농(祁農)을 상무부총경리로, 비자문(費子文), 라개복(羅開富)를 독립이사로 선임
2008.3.	- 만항집단 로관구(魯冠球) 주석 일행 중광국제 시찰 및 참관(7일): 장건(張健) 동사장, 비자문(費子文) 고문과 헤산청년동광항목에 대한 토론과 교류 - 중광국제 상무부총경리 기농(祁農) 장백판사처 전체직원, 협력단위인 란주 설계원과 금성신공업건설공사(金誠信礦業建設公司) 인원들을 인솔하고 헤산에 위치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비를 참관하고 영웅기념비에 헌화(18일)

121) 萬向集團, “介紹,” <<http://www.wxresources.com/about/Group.aspx>>. (검색일: 2015.10.11.).

I  
II  
III  
IV

연도	주요 특기사항
20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투자지구대표 중광국제 류효명(劉曉明)대사의 인솔하에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과 함께 평양시 인민해방군지원군기념비 찾아 성묘와 헌화(4일)</li> <li>- 중광국제 총경리 한우홍 류효명대사 회견(24일): 류대사 한우홍총경리의 해산광업합영회사 업무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지원을 약속</li> <li>- 해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3차 회의 평양 개최(25~28일)</li> </ul>
20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중광업합영회사 중국측 이사 국가부주석 습근평(習近平)이 이끈 중국 정부대표단의 평양 송영식에 참가 중국자본투자지구 대표로 영도자들과 단체사진 촬영, 한우홍이사는 같이 방문한 상무부 고(高)부장에게 항목 상황을 보고(17~20일)</li> <li>- 해중광업합영회사 1기 이사회 제4차 회의가 평양 개최(17~20일)</li> <li>- 해중광업합영회사 북한정부가 발부한 광산권리증(광산채취증) 정식 취득</li> </ul>
2008.7.	<p>북한 설비시찰단 일행 6명 중국 방문(7월 19일~8월 1일):          심양에서부터 중국측의 주요 투자시설 입후보 공장들에 대해 시찰 시작</p>
200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광국제 이사장 장건, 총경리 한우홍 등 일행 5명 장백현정부의 요청에 따라 장백조선족자치현 성립 50주년 경축일에 참석(8일)</li> <li>- 비자문의 인솔하에 공사 상임고문들 북한 해산동광 방문(8~10일): 지하 500미터까지의 현장시찰을 하고 기초작업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li> <li>- 중광국제 북한 건국 60주년을 맞아 김정일에게 축전발송(9일)</li> </ul>
2008.10.	<p>해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5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13~22일)</p>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6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20~28일)</li> <li>- 북한측 이사 금천집단(金川集團)에 대해 시찰(25~27일)</li> </ul>
2008.12.	<p>북한 설비검수단 일행 4명 심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측 주요 투자설비 입후보 공장들을 시찰(13~17일)</p>

출처: 中礦國際投資有限責任公司, <<http://www.smii.com.cn>>. (검색일: 2015.11.16).

표 III-18-2 중광국제외의 헤산동광개발 대사기(2009.1.~2012.6.)

연도	주요 특기사항
2009.1.	- 금천집단 일행 4명 북한 헤산동광에서 기술시찰 진행(4~14일) - 중광국제 1기 3차 이사회의가 회사 대회의실에서 개최(13일): 각 이사, 감사 및 지정인원들 참가 - 상무부총경리 기봉, 총경리비서 구화(裘驊), 재무경리 손해연(孫海燕)이 중광국제외의 대표로 상해 만항자원유한공사 2009년도 업무회의에 참가(17~18일) - 중광국제 2009년도 업무회의 개최(19일): 회사 고위층과 북경인원들까지 모두 회의에 참가
2009.2.	- 중국수출입은행 상해지점 일행 3명 평양과 헤산 참관·시찰하고 북한 채취공업성, 무역성 등 관원들과 교류(10~19일) - 만항집단 이사국 주석 로관구 만항집단 및 그 가족을 대표해 김정일 67세 생일에 생일선물(16일)
2009.5.	헤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7차 회의 평양 개최(13일)
2009.10.	- 헤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8차 회의 평양 개최(6~7일) - 중국 만항집단 평양시 모란봉우의탑에 태양에너지 경관등 26세트 기증(26일 오전) - 헤중광업합영회사 제1기 이사회 제9차 회의 평양 개최(26일 오후)
2009.11.	중광국제 만항집단의 "따스함을 보내고 선행을 베푼다(送溫送暖獻愛心)."라는 호소에 호응 기부활동
2009.12.	- 중광국제 북한 무역성투자국에 20대 데스크톱 컴퓨터 기증 - 중광국제회사 1기 이사회 2009년 제1차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기봉 상무 부총경리의 직무를 해임하고 구화를 부총경리로 임용(28일)
2010.1.	중광국제 만항집단 명의로 국방위원장 김정일에게 생일선물(16일)
2010.2.	헤중광업합영회사 2기 1차 이사회가 평양에서 개최(1일):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1.4.	김정일 헤산청년광산 현지지도(26일)
2011.9.	헤중광업합영회사 개업식 진행(19일): 헤산시 청년광산
2012.2.	북한정부의 영업허가증 취득
2012.6.	- 헤중광업합영회사 6월 1일 아동절 청년광산유치원 방문(1일) - 헤중광업합영회사 운동회 진행(3일)

출처: 中礦國際投資有限責任公司, <<http://www.smii.com.cn>>. (검색일: 2015.11.16.)  
大記事에 일부 내용 추가.

I  
II  
III  
IV

## (2) 운영상태

만향집단의 헤산청년동광개발은 중광국제와 북한 헤산광산항목의 인수(2007.6.)에서 개업(2011.9.19.)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헤산동광의 개발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입장차이 때문이었다. 북한은 가동이 중단된 헤산동광의 생산정상화를, 중국은 대중수출체제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첫 번째 위기는 2009년 3월 북한 측의 계약파기였다.<sup>122)</sup>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sup>123)</sup>

“2009년 3월, 중국 측의 투자로 침수된 갱의 복구가 마무리되고 광산의 핵심시설인 ‘마산선광장’의 설비 교체공사가 마무리 되자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배급문제를 제기하면서 완상그룹(萬向集團)과 합의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당국은 헤산청년광산에 지원하던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이미 설치된 배수관 해체와 배수용 전동기 회수를 요구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동안 북중 간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존폐기로에 놓였던 헤산청년광산 합영문제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신압록강 대교’를 비롯한 경제기술합작협정에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

122) 2009년 북한은 갑자기 중광국제에 중국직원은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헤산을 떠나야 한다고 선포했고, 이미 광산으로 진입한 그 어떤 기계설비도 반출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중국직원은 철수한지 4개월 후에야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010년 7월 또 다시 중국직원이 철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陳青松, “中企赴朝投資前景可期,” 『新浪財經』, 2014.1.21., <<http://finance.sina.com.cn/roll/20140121/031618020691.shtml>>. (검색일: 2015.10.12.).

123) 자유아시아방송, “북 헤산청년광산 정상화 까마득,” 2011.11.4., <[http://www.rfa.org/korean/in\\_focus/mine-11042011113326.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mine-11042011113326.html)>. (검색일: 2015.11.16.).

그런데 위의 보도는 혜산동광개발과 관련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북중 이견의 근원이었다. 우선 계약내용으로 북한이 혜산동광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혜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정광을 전량 중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북한과 나누는 방식의 계약체결”을 받아들였지만, 일단 생산이 정상화되자 “국방공업과 경제재건에 필수인 구리를 확보하는 문제가 급했던 김정일 정권으로선 매우 불만이 많은 합영 조건”<sup>124)</sup>이었다는 점이였다. 다음은 구리정광 제련문제였다. 하루 2,400톤의 광석처리능력을 가진 마산선광장이 복구되자 구리정광 제련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았다. 즉, “마산선광장에서 나온 구리정광을 팔아 수익금을 나누자는 중국 측과 운흥군 일건제련소에서 구리정광을 제련해 현물로 나누자는 북한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sup>125)</sup>는 점이였다. 마지막으로 혜산청년광산의 광산특성이었다. 구리정광 제련문제가 중요한 것은 “혜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정광에는 금, 은, 아연을 비롯한 희귀금속들이 많이 섞여있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북한은 “일건제련소를 통해 제련을 거쳐 구리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입장 이였다.<sup>126)</sup> 예를 들어, 몰리브덴(HS2613)의 경우 중국의 수입창구는 요녕성과 길림성인데, 거의 대부분이 길림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III-9>에서 보듯이 2002년 7·1조치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몰리브덴 수입은 증가세에 있다가 2010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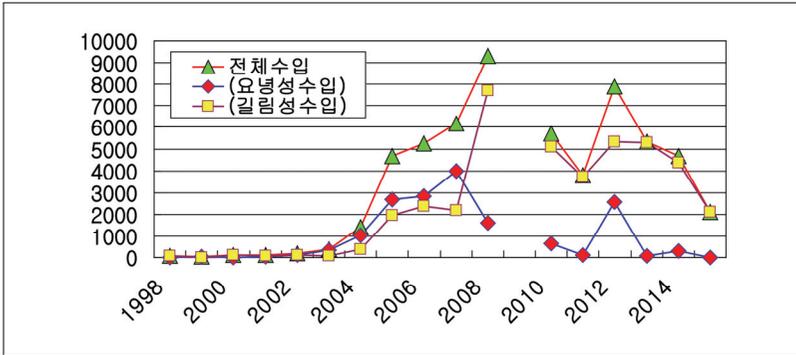
124) 자유아시아방송, “북-중 합작 혜산청년광산 정상가동,” 2014.10.17.,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10172014112247.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10172014112247.html)>. (검색일: 2015.11.16.).

125) 자유아시아방송, “혜산청년광산, 김정일 방문 앞두고 분주,” 2011.12.6., <[http://www.rfa.org/korean/in\\_focus/mine-12062011100707.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mine-12062011100707.html)>. (검색일: 2015.11.16.).

126) 자유아시아방송, “북-중, 혜산청년광산 두고 마찰,” 2014.1.14.,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1142014094059.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1142014094059.html)>. (검색일: 2015.11.16.).

터는 연 400~5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 그림 Ⅲ-9 중국의 북한 물리브덴(HS2613) 수입(1998~2015.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다른 하나는 중국과 북한 최고지도층의 개입이었다. 2009년 3월 북한의 합영계약 파기는 북중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고,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기했고 그 결과 초기 계약 조건대로 합영회사를 운영하기로 합의 되었다는 것이다. 만향집단의 로관구 회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해산동광과의 경험담을 아래와 같이 털어놓았다.<sup>127)</sup>

“당시 완상그룹은 북한의 해산청년광산의 지분 51%를 소유한 중국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폐광으로 방치된 광산을 2년에 걸친 투자 끝에 되살린 완상그룹은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없이 전체 지분을 내놓으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평

127) 자유아시아방송, “중 총리, 김정일에 항의해 광산지분 유지,” 2012.1.23., <<http://www.rfa.org>>. (검색일: 2015.11.16.)에서 재인용.

소 친분이 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끝에 완상그룹은 광산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향집단의 행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2009년 7월 북한 측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심양 북방중공업에 광산개발설비 제조중단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던 만향집단은 2009년 10월 온가보 총리의 방북 이후 혜산동광항목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온가보 총리의 방북 이후 만향집단은 몇 가지 정치적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①평양시 모란봉우의탑에 태양에너지 경관등 26세트 기증식을 거행(2009.10.26.)하고,<sup>128)</sup> ②중광국제를 통해 북한 무역성 투자국에 2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기증(2009.12.)했으며, ③그리고 중광국제는 만향집단 명의로 국방위원장 김정일에게 생일선물(2010.1.16.)을 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광국제기업 소개 기사였다.<sup>129)</sup> 이는 2009년 3월 북한의 합영계약 파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는 만향집단이 북경에 설립한 전 세계의 유색금속광산자원 투자·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회사이다. 업무범위에는 유색금속광산자원항목의 탐사와 채굴, 광제품의 가공 및 무역수출입 등이 포함된다. 중광국제는 유색금속업계에서도 경영관리와 자본운영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관리팀을 가지고 있고 국내외 유색금속광산자원의 중대항목 건설, 생산과 경영 영역의 전문가와 자질이 높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128) “중광기업 중조우의탑에 조명설비 기증,” 『흑룡강신문』, 2009.10.28.; 萬向資源有限公司, “中國萬向集團向朝鮮友誼塔捐贈太陽能景觀燈,” 2009.11.9., <<http://www.wxresources.com/news/show.aspx?id=19>>. (검색일: 2010.10.12.).

129) 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 “公司簡介,” 2012.5.18., <<http://www.smii.com.cn/news/?1.html>>. (검색일: 2015.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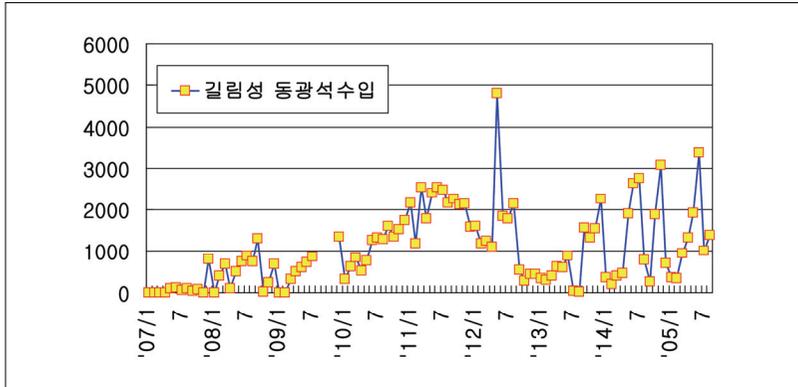
I
II
III
IV

중광국제는 국제광업발전의 방향에 따르고 국가광산자원 개발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과 결합하여 광산자원의 개발은 중국 주변국가를 위주로 한다. 현재 주요하게 중국과 북한 사이의 최대 광산합작항목인 혜산청년동광항목을 경영한다. 이 항목은 온가보 총리, 김정일 장군의 관심을 받았고 김정일 장군이 2번이나 광산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중북사이 광산자원합작의 시범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었다. 현재 이미 생산에 투입되었고 2012년 말에는 하루 처리 광석량이 2,000톤에 달할 것이다.

중광국제는 주주, 직원 및 고객과 국가에 책임지는 정신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실속 있게 경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점차 일류기술과 일류관리를 구비한 국제광업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김정일 사망(2011.12.17.)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2월 전후 시기였다. 동광의 월수입이 2012년 8월 215만 달러에서 2012년 9월 54만 달러로 급락한 이후 2012년 9월에서 2013년 8월까지 동광의 월수입 평균은 46만 달러에 불과했다(<그림 III-10> 참조). 2011년 9월 19일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정식으로 개업한 이후 한때 동광의 월수입이 500만 달러대에 근접한 적도 있었으나 월별수입량의 진폭이 심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의 숙청과정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헐값매각 이슈도 불거졌다.

●그림 III-10 길림성의 북한 동광석(HS2603) 월별수입(2007.1.~2015.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당시 시대주보(2013.3.)는 “현재 만향집단은 난처한 투자입지에 놓였다. 초기투자 1.5억 위안, 그 후 5.6억 위안을 동광항목에 추가 투자를 했는데, 단기간에 괄찬은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동광도 원 계획대로 순조롭게 중국으로 운송되어 판매될 수 없었다.”<sup>130)</sup>며 만향 집단의 미묘한 처지를 전했다. 그러나 2013년 9월경부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상황변화가 주목되었다. 하나는 김정은의 지시였다. 자유아시아방송(2013.8.29.)은 “최근 김정은 제1비서가 헤산청년광산을 비롯해 외국과 합영한 기업들이 약속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해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헤산광산의 구리정광들이 모두 중국에 실려 나간다.”<sup>131)</sup>고 보도했다.

130) 劉小童, “投建惠山青年銅礦已超5.6億元 萬向集團在朝處境微妙,” 『時代周報』, 223期, 2013.3.7., <<http://www.time-weekly.com/story/2013-03-07/129060.html>>. (검색일: 2015.10.12.).

131) 자유아시아방송, “북, 구리광산 살리기에 안간힘,” 2013.8.29.,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829201309444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8292013094442.html)>. (검색일: 2015.11.16.).

표 III-19 만항자원유한공사의 대사기(1996~2014)

연도	주요 특기사항
1996.2.	상해만항투자유한공사(上海萬向投資有限公司) 설립: 등록자본 1000만 위안
2004.4.	만항석유저장운송(주산)유한공사 설립: 에너지(유제품 저장운송)분야 진입
2004.5.	- 만항자원유한공사(萬向資源有限公司) 설립 - 중색주식(000758)의 주식매입을 통해 업계내 선두기업과 긴밀한 전략적 연맹결성: 국제광산자원개발 및 전문무역 추진의 든든한 기초마련
2005.3.	만항자원(싱가포르)유한공사 설립: 자원업무 확장과 회사 국제화를 위한 전진기지 확보
2007.4.	상해동전선운유한공사(上海東展船運有限公司) 매입: 화학품선운업계에 입성
2007.6.	<b>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 매입: 광산자원개발투자의 중요 전진기지 확보</b>
2007.7.	<b>중광국제와 북한 채취공업성이 합작하여 혜산청년동광을 개발하기로 합의: 회사의 업무형식 무역형에서 자원형으로 변화시작</b>
2009.2.	비준발고 ST란보정모 매입: 그 후 순발항업(000631)로 개명하고 6월 심천 거래소에서 상장 회복
2011.3.	홍하항호광업주식유한공사(紅河恒昊礦業股份有限公司)에 투자 주식보유
2012.5.	주요 화학품 생산 상인 절강항일집단과 절강영성지주집단이 전략적 투자자 신분으로 동전선운유한공사에 가입
2013.1.	만항석유저장운송(주산)유한공사 1기 항목 완공: 시운행단계 진입
2013.5.	<b>혜중광업합영회사 동정광 수출 실현</b>
2014.4.	<b>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공사(中礦國際[長白]貿易有限公司) 설립: 북한 동정광 수입 전문무역기지 마련</b>
2014.6.	만항자원(주산)유한공사 절강주산 대중상품거래소에서 설립

출처: 萬向資源有限公司, <<http://www.wxresources.com/about/GreatEvent.aspx>>. (검색일: 2015.11.16.).

다른 하나는 만항자원의 대사기였다(<표 III-19> 참조). 만항자원은 대사기에서 2013년 5월에 혜중광업합영회사가 동정광 수출을 실현했고, 2014년 4월에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공사(中礦國際[長白]貿易有限公司: 이하, 중광장백)를 설립해 북한 동정광 수입

전문무역기지를 마련했다고 기록했다. 만향자원이 밝힌 중광장백의 기업소개는 아래와 같다.<sup>132)</sup>

“2014년 4월 중광국제는 길림성 장백현에 독립채산을 하는 완전출자 자회사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회사를 등록·설립했는데 그 등록자본은 1,000만 위안이다. 그 직능은 북한 동정광 수입의 결산서비스 플랫폼으로 광업 및 관련 제품의 수입과 결산을 진행하고 합영회사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결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합영회사는 2007년 11월 1일에 북한에서 혜중광업합영회사 기업등록증을 취득하였고, 그 등록 주소지는 북한 량강도 혜산시 청년광산이다.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은 4,490만 유로이다. 북한은 광업권, 토지사용권 및 기존의 생산시설, 설비, 원자재 등 그리고 합영회사 생산경영에 관련된 유효 자산의 가치로 2200.1만 유로를 투자하여 합영회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중광국제는 현금, 설비 및 원자재를 합해 2289.9만 유로를 투자해 합영회사 51%의 지분을 확보했다.”

2013년 12월 임청천(林清泉)은 중국기업가망 로관구(中國企業家網 魯冠球)에서 “장성택 낙마, 로관구 5.6억 투자 수포로 돌아 갈수도”라는 기사<sup>133)</sup>를 남겼다. 그러나 만향자원의 중광장백 소개기사는 임청천의 전망과 다르게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만향집단이 혜중광업합영회사를 통해 이미 수익전망을 확보했거나 시대주보(2013.3.) 유소동의 아래 취재<sup>134)</sup>처럼 로관구가 장기적 포석으로 혜산동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2) 萬向資源有限公司, “中礦國際[長白]貿易有限公司,” 2014.12.11., <<http://www.wxresources.com/company/Detail.aspx?id=123>>. (검색일: 2015.10.12.).

133) 林清泉, “張成澤落馬, 魯冠球5.6億投資可能打水漂,” 『中國企業家網』, 2013.12.26., <<http://www.iceo.com.cn/con/2013/2013/1226/273960.shtml>>. (검색일: 2015. 10.12.).

134) 위의 글.

“중광국제와 가까운 인사가 기자에게 말하길, 로관구는 당초 혜산동광에 투자할 때 처음생각은 오랜 기간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상업 기회를 잡아채고 시장과 자원을 점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후의 북한을 보았다. 로관구는 장기적인 고려를 했기 때문에 만향집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광항목에 투자를 할 것이다. 당초 쌍방이 정식협정을 했을 시기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였고 현재는 이미 김정은 시대로 들어섰다. 만향집단의 고층인사가 기자에게 상술하기를, 만약 만향집단이 중광국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끝이 없는 동굴이 될 것이다. 브레이크를 걸던지 아니면 전부 후퇴를 해야만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본다.”

### (3) 개발구조

2015년 현재 만향집단의 북한 혜산동광개발사업 구조는 중광국제에서 혜중광업합영회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만향자원의 소개 기사<sup>135)</sup>가 시사하듯이 만향자원을 중심으로 그 산하에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리 말해 만향집단에서 만향자원으로, 만향자원에서 중광국제, 만향자원에서 중광장백, 만향자원에서 혜중광업합영회사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체계라는 점이다.

만향자원이 투자회사의 분류체계를 ①석유화공, ②석유저장, ③광산투자, ④화학품선박운송, ⑤흑색금속, ⑥기타공사 등 여섯 범주로 나누고 광산투자영역에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공사, 혜중광업합영회사, 중국유색금속건설주식유한공사, 홍화향호광업주식유한공사를 포함시킨 것, 그리고 중광장백의 직능을 “북한 동정광 수입의 결산서비스 플랫폼으로 광업 및

<sup>135)</sup> 萬向資源有限公司, “公司介紹,” <<http://www.wxresources.com/about/index.aspx>>. (검색일: 2015.10.13.).

관련 제품의 수입과 결산을 진행하고 합영회사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결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20> 참조).

“만향자원은 1996년 2월에 창립되었고 전신은 상해만향투자유한공사(上海萬向投資有限公司)이다. 한우홍(韓又鴻) 선생이 만향자원의 총수이다. 만향자원의 전망은 중국의 제일 우수한 상품 무역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유색금속, 흑색금속, 에너지 등 3대 업무영역에 입각하여 사업투자, 현물무역, 금융자산운용 및 서비스를 경영핵심으로 건설을 진행해 자원배치능력을 갖춘 업무체계를 형성하였고, 전통적인 무역형 회사에서 자원형 브랜드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공사는 대외합작과 사업실시, 지분투자 등을 적극 진행해 현재 만향자원(싱가포르)유한공사(萬向資源[新加坡]有限公司), 상해동전선운유한공사(上海東展船運有限公司),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 만향석유저장운송(주산)유한공사(萬向石油儲運[舟山]有限公司), 절강대정무역유한회사(浙江大鼎貿易有限公司) 등 다수의 투자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순발항업(順發恒業)의 지배주주, 중색주식(中色股份)의 제2주주, 운남항호(雲南恒昊)의 제3주주이며, 중광국제가 북한에 설립한 중북 합자기업인 혜중광업합영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사에서 경영하는 무역품목에는 ①전해구리, 동정광,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아연정 등 유색금속과 광산, ②강철, 생철 등 흑색금속, ③황금, 백은, 팔라듐 등 귀금속과 석탄, ④완제품기름과 화학공업제품 등이 포함된다. 공사업무는 이미 미국, 영국, 칠레, 호주, 동남아 등의 시장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국내외 유명 기업들과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합작관계를 형성하였다.

만향자원은 자신과 출자지분이 있는 공사의 자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공사의 전략적 목표를 점차 실현할 것이다. 유색금속, 흑색금속, 석유화학공업 업무를 주제로 하는 자원형 업무를

I
II
III
IV

위해 좋은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건설하여 회사를 최종 자원형 브랜드 회사로 만들 것이다.”

표 III-20 만항자원의 투자회사

사업영역	투자회사 이름
석유화학	만항자원(싱가포르)유한공사(萬向資源[新加坡]有限公司)
석유저장	중만항석유저장운송(주산)유한공사(萬向石油儲運[舟山]有限公司)
광산투자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공사(中礦國際[長白]貿易有限公司) 혜중광업합영공사(惠中礦業合營公司) 중국유색금속건설주식유한공사(中國有色金屬建設股份有限公司) 홍하항호광업주식유한공사(紅河恒昊礦業股份有限公司)
화학품선운	상해동전선운유한공사(上海東展船運有限公司)
흑색금속	절강대정무역유한회사(浙江大鼎貿易有限公司)
기타공사	순발항업주식공사(順發恒業股份公司)

출처: 萬向資源有限公司, <<http://www.wxresources.com>>. (검색일: 2015.11.16.)  
투자行業 참조.

## 다. 금광 개발사례: 길림호용집단

### (1) 투자과정

길림호용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昊融集團股份有限公司: 이하, 길림호용집단)의 북한 평안북도 선천금광개발은 2006년 4월 13일 북경협회가 분수령이었다. 당시 중국의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 이하, 중국유색집단)와 길림호용집단, 그리고 북한 조선금강총회사(朝鮮金剛總會社) 3사는 두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하나는 평양에 북한의 금, 동, 몰리브덴(鉬) 등 유색금속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합영회사를 설립하

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유색집단과 길림호용집단이 선천금 광개발에서 시작해서 북한과의 협작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었다.<sup>136)</sup>

여기서 중국유색집단은 1983년에 설립된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가 관리하는 대형 중앙 기업으로 주 업무는 유색금속광산자원개발, 건설공사, 관련무역·서비스 등이었다.<sup>137)</sup> 길림호용집단은 2006년 1월 25일 구조개편으로 설립되었는데, 전신은 1960년에 업무를 시작한 길림얼업집단유한책임공사(吉林鋁業集團有限責任公司)였다. 2015년 현재 금속생산품 가공, 과학기술신소재 개발, 금융자본비즈니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자산총액 483.4억 위안인 대형 다국적그룹인 길림호용집단의 본사는 길림성 반석시에 있다.<sup>138)</sup>

길림호용집단은 설비, 원재료부터 투입하기 시작했다. 우선 금광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신히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를 평안북도 선천에 설립했다. 자회사인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가 투자하는 형태로 ①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625만 달러, ②625만 달러 설비·원재료 투입, ③경영기간 20년, ④100% 투자 독자기업 설립을 2006년 7월 18일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sup>139)</sup>

136) 中國政府網, “中國有色集團等与朝鮮金剛總會社簽署合作協議,” 2006.4.18., <[http://www.gov.cn/jrzq/2006-04/18content\\_256778.htm](http://www.gov.cn/jrzq/2006-04/18content_256778.htm)>. (검색일: 2014.10.5.).

137) 중국유색집단은 2015년 세계 500강기업순위에서 390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산하에 261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그 중에서 해외투자기업은 79개사였다. 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 “企業簡介,” <[http://www.cnmc.com.cn/outline.jsp?column\\_no=0101](http://www.cnmc.com.cn/outline.jsp?column_no=0101)>. (검색일: 2015.10.5.).

138) 吉林昊融集團股份有限公司, “集團簡介,” <<http://www.horoc.com/about.aspx?id=10>>. (검색일: 2015.10.5.).

139)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的批复』, 商合批518号, 2006.7.18.

그리고 2007년 3월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중색국제 광업주식유한공사(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 이하, 중색국제), 조선금강총회사 간에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중색국제는 국내외 유색금속자원개발을 핵심 업무로 하여 투자, 운영, 지질탐사, 무역 및 기술자문 등의 업무영역을 가진 국제화된 기업으로 2002년 8월 26일에 성립되었는데, 중국유색집단의 발기로 ①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 ②동릉유색금속집단주식유한공사(銅陵有色金屬集團股份有限公司), ③대치유색금속집단공고유한공사(大冶有色金屬集團控股有限公司), ④강서동업집단공사(江西銅業集團公司), ⑤백은유색집단주식유한공사(白銀有色集團股份有限公司), ⑥운남유색자원집단유한공사(雲南有色資源集團有限公司), ⑦강서금원지광집단유공사(江西金源地礦集團有限公司), ⑧금천집단유한공사(金川集團有限公司), ⑨중국유색공정유한공사(中國有色工程有限公司), ⑩중조산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中條山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⑪청해서부자원유한공사(青海西部資源有限公司), ⑫북경광치연구총원(北京鑛冶研究總院), ⑬운남동업(집단)유한공사(雲南銅業[集團]有限公司), ⑭선장자산관리유한공사(善長資產管理有限公司), ⑮유색금속광산지질조사중심(有色金屬礦山地質調查中心), ⑯서북유색지질감사국과 강서유색지질감사국(西北有色地質勘查局以及江西有色地質勘查局) 등 16개 대형기업이 공동투자하였다.<sup>140)</sup>

140) 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 “公司簡介,” <[http://www.cnmm.com/outlinetem.jsp?outlinetype=2&column\\_no=090101](http://www.cnmm.com/outlinetem.jsp?outlinetype=2&column_no=090101)>. (검색일: 2015.10.6.).

2006년 4월 북경합의 이후 길림호용집단의 중국은 선천광산 공장건설을 시작했고 2009년 9월 21일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현판의식(<그림 Ⅲ-11>)을 진행했다.<sup>141)</sup> 북중 양국 정부의 비준을 받고 조업에 성공한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는 길림호용집단, 중색국제, 조선금강총회사(노동당 중앙소속 대성총국 산하회사) 3사의 합영으로 평양에 설립되었는데, ①금·은광개채, 광분의 선광과 판매를

● 그림 Ⅲ-11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현판식과 선광장



출처: 中國有色集團, <<http://www.cnmc.com.cn>>. (검색일: 2015.11.16.) 인물은 중색국제의 이유여(李有余) 부총경리.

141) 中國有色集團, “朝鮮宣川金鑛項目投產典禮及揭牌儀式隆重舉行,” 2009.9.22., <[http://www.cnmc.com.cn/detail.jsp?column\\_no=090301&article\\_millisecond=1000124](http://www.cnmc.com.cn/detail.jsp?column_no=090301&article_millisecond=1000124)>. (검색일: 2015.10.6.).

목적으로, ②투자총액 600만 유로, 등록자본 180만 유로이며, ③중국 이 50%의 지분을 보유(길림호용집단 40%)하고, ④경영기간은 20년 이고, ⑤일산(日産) 800톤 광석처리수준(연 황금 300~400kg)으로, ⑥생산량은 전부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 (2) 운영상태

길림호용집단의 선천금광사업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근거는 첫째, 선천금광사업의 중국 측 당사자들이 밝힌 두 가지 자료였다. 하나는 2009년 3월 길림호용집단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08년 말 기준 당사의 선천금광투자항목에 대한 설명이었다.<sup>142)</sup>

“공사와 중국유색집단, 북한금강총회사는 2007년 3월 20일 선천 광산항목을 합영으로 공동개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礦業會社)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했다. 현존 자료통계에 근거하면, 선천광산의 매장량은 황금 13톤, 백은 150톤이고 아직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월천광(月川礦), 인고광(仁古礦) 및 백선광(百旋礦)의 매장량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금광 매장량은 2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의 정상적 생산경영이 이루어지면 일산(日産) 800~1,000톤의 광석처리능력에 연산(年産) 600kg의 금정광과 3톤의 백은 생산이 가능해 연매출 수입 7,700만 위안 실현으로 2~3년 내에 투자원본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말 현재, 공사의 북한 선천금광 개발항목은 3,514.80만 위안이 투자되었다. 선천금광은 현재 3개의 갱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현광(百玄礦), 인곡광(仁谷礦)은 출광(出礦) 조건이 구비되

142)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2009年度第一期短期融資券募集說明書』, 2009.3, p. 30.

었고, 월천광(月川礦)은 전면적 회복 공정단계로 진입해 배수시설의 일부가 정비되었고 갱도의 관도목(罐道木)은 제작되어 안치공정이 진행 중이다. 선광장은 공장 프레임제작 완성 등 광산 설비 시스템 시운전 단계에 진입했다.

선천금광은 이미 건설공정이 후기 단계에 진입했으며, 2009년 5월이면 정식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앞으로 북한 선천금광개발에 의지하여 북한금강총회사와 더욱 폭넓게 경제 협력을 펼치도록 할 것이며, 금강총회사 산하의 기타 유색금속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공사의 북한 생산경영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호용집단의 브랜드 및 기업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0년 11월 30일 길림호용집단 본부에서 개최된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제2차 동사회였다. 그리고 그 동사회의 주요 사항은 길림호용기술개발유한공사(吉林昊融技術開發有限公司) 길림성야금연구원(吉林省冶金研究院)이 아래와 같이 밝혔는데,<sup>143)</sup> 그 내용의 골자는 선천광산개발항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었다.

“11월 30일,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제2회 동사회가 호용집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측 대표는 호용집단 동사장이며 당위원회 서기인 서광평(徐廣平), 호용집단 부총경리 조해(趙海), 북한금호광업합영회사 부사장 조학전(趙學全),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해방개발공사(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海邦開發公司) 경리 이유여(李有餘), 호용집단 법률고문실 주임 묘인외(苗仁義), 북한 측 대표는 조선금강총회사 부사장 김길철,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대리사장 마동현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143) 吉林省冶金研究院, “朝鮮金昊第二屆董事會在昊融集團本部召開,” 2010.12.2., <[http://jyyj1958.com/qyxw\\_xx.aspx?id=772](http://jyyj1958.com/qyxw_xx.aspx?id=772)>. (검색일:2015.10.9.)

동사회는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의 생산, 운수, 관리, 인사 등 분야의 구체적 내용을 토론했다.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부사장 조학전이 만든 <선천금광 2011년 공작 안배 및 최근 공작 중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의 보고가 표결을 통과하였다. 이는 쌍방 투자의 확인, 동사회, 감사위원회 및 합영회사의 인사 변화 등 7항의 의제였다.

조선금강총회사 부사장 김길철은 회의에서 호용집단의 열정적인 대접에 감사를 드리며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제2차 동사회가 호용집단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하였다.

호용집단 동사장, 당위원회 서기 서광평은 북한 손님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의는 우호적이고 융합적인 분위기에서 각 항에 대한 사항을 완성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동사회에서 생산, 경영, 건설 등 분야에서 공동의 인식을 달성한 것은 조선금강총회사, 중색국제, 호용집단 3방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천금광에서 보듯이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에는 아직까지 제약적인 생산 모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력, 철도운송,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순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동사회에서 생산, 경영, 관리에서 부단히 세분화하여 노동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2011년 공작회의가 좋게 호전되기를 믿고 있다.

서광평은 마지막 발언에서 우리 쌍방이 지속적으로 교류와 소통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토론으로 해결하여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가 중조 간 우호적인 시범공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길림호용집단의 대북투자 동향이었다(<표 III-21> 참조). 길림호용집단이 북한 금광개발을 위해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조선금강광업회사)의 설립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은 것은 2008년 4월이었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다시 받고 있다. 합영회사의 경영기간이 20년임을 감안할 때, 2014년

4월의 비준은 투자금액의 변경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단서는 요녕성 단동시에 설립된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丹東昊融貿易有限公司)<sup>144)</sup>의 북한 평안남도 비류강금광 투자였다.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가 북한의 조선금강총회사와 함께 금정광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각각 200만 달러를 출자한 비류강금산합작회사(飛流江金山合作會社)는 2013년 11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득했다.

표 Ⅲ-21 길림호용집단의 대북투자

비준 일자	투자가 지역	투자모기업	투자기업명	경영범위	비고(투자액, 유형, 기한 등)
2006.7.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 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훈용국제광업 유한책임공사(朝鮮昊融國際鑛業有限責任公司)	금광개채	독자(20년) 625만 달러
2008.4.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 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鑛業會社)	금광개채	합영(20년) 투자총액 600만 유로
2013.11.	요녕성 단동시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丹東昊融貿易有限公司)	비류강금산합작회사(飛流江金山合作會社)	금정광 생산·판매	합작 200만 달러
2014.4.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鑛業會社)	금광 개채·판매	합영 (투자변경)

출처: 저자 작성.

144) 동 회사의 취급품목은 ①방직제품, 의류신발, 광산품, 문화용품, 일용잡화, 철물공구, 전기기기, 가전제품, 화학제품, 건축재료, 공예미술품, 기계설비, 전자기기, 일용백화, 자동차부품 등의 도소매, ②농축산물 수매, ③화물과 기술 수출입 등이었다.

셋째는 중국의 금광(HS261690) 수입동향이였다. <표 III-22>에서 보듯이 중국의 북한 금광수입은 약 70%가 요녕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을 길림성과 산둥성이 차지하고 있다. 길림성은 2010년에, 산둥성은 2011년에 100만 달러대로 진입했다. 그런데 선천광산은 평안북도, 비류강광산은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수입창구가 요녕성 단동일 가능성이 높다. 길림호용집단이 선천광산에 설비·원재료를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선광장 등을 건설하고 현판식을 한 것은 2009년 9월 21일, 그리고 선천광산의 생산시작은 2009년 11월 12일이였다. 그런데 <표 III-22>의 통계는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금광수입은 2005년 279만 달러에서 2006년 626만 달러로, 2008년 306만 달러에서 2010년 1,126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2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로 약 2,500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I-22 중국의 북한 금광(HS261690)수입에서 요녕성과 길림성 비중

(단위: 천 달러, %)

연도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2,562	3,383	2,787	6,255	9,825	3,058	11,263	17,243	26,172	24,594	26,214
요녕	1,681	2,879	2,320	5,619	8,320	2,075	9,045	10,169	16,776	18,523	18,407
길림	142	388	467	611	702	838	1,420	2,157	6,115	3,220	4,364
산둥	739	116	0	25	285	143	761	4,875	3,132	1,074	1,323
요녕성 비중(%)	65.61	85.10	83.24	89.83	84.68	67.85	80.31	58.97	64.10	75.32	70.22
길림성 비중(%)	5.54	11.47	16.76	9.77	7.15	27.40	12.61	12.51	23.36	13.09	16.65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 4. 분업기지구축형 투자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제개발구는 1992년 성급 경제개발구로 길림성정부의 비준을 득한 장백조선족자치현의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 1992년 길림성정부의 비준으로 성급 경제개발구가 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도문경제개발구(圖們經濟開發區), 1992년 국무원의 비준으로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변경경제합작구(琿春邊境經濟合作區)<sup>145)</sup>로 대별된다. 이 중 ①북한의 해산지역과 근접한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는 중국기업들의 북한광산개발의 전진기지로, ②철도교통의 중심지인 도문경제개발구는, 특히 개발구 내에 위치한 조선공업원은 북한 노동력 확보의 거점으로, ③그리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프로그램(TRADP/GTI)의 중심축인 훈춘변경경제합작구는 물류,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여기서 분업기지구축형 투자란 투자와 관련된 중요생산공정을 모두 북한으로 가져가지 않고 일부공정을 접경지역 중국경제개발구 등지에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무산철광개발 사례를 보면 천지집단은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를 통해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1,200만 달러) 규모의 채광설비를 투자(2003.10.) 했지만, 선광공장(120만 톤, 투자규모 3억 위안)은 화룡시 팔가자진에 두는 전략을 채택했다. 즉, 선광장 건설을 위해 2006년 1월 길림천지광업유한공사를 설립했고, 그 착공식을 2007년 7월 17일 거행했다. 중국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는 광산과 수산업분야에서

145) 훈춘국경경제합작구는 2012년 5월 29일 훈춘국제합작시범구가 되었다.

일부 보이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광산분야의 장백조선족자치현과 수산분야의 훈춘변경경제합작구였다(<표 III-23>).

표 III-23 분업기지구축형 대북투자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특기사항)
2005.11.*	연길시: 천지집단유한공사(天池集團有限公司)	무산철광투자	철광 (선광공장은 중국)
2012.3.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凱旋曙光礦業合營會社)	철광 (선광공장은 중국)
2012.8.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리선후성기공무역회사(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	수산물 (양쪽에 가공공장)
2015.5.	훈춘시: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紅昊食品工貿有限公司)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社)	수산물 (양쪽에 가공공장)

출처: 저자 작성(\*합영계약서 체결 기준).

## 가. 장백조선족자치현 광산: 장백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 사례

### (1) 투자과정

2007년 5월 11일 오전 중국의 길림서광공무유한공사(吉林曙光工貿有限公司)와 북한 조선개선무역회사(朝鮮凱旋貿易會社) 간의 합영결과로 탄생한 장백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長白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의 철정분(철 정제가루) 선광공장 기공식(<그림 III-12>)이 장백조선족자치현 만보강촌에서 거행되었다. 선광장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sup>146)</sup>

<sup>146)</sup> 長白朝鮮族自治縣商務糧食經濟局, “投資億元 鐵精粉選礦場奠基儀式順利舉行,” 2007.5.14., <<http://changbai.mofcom.gov.cn/article/tupianxw/200705/20070504668578.shtml>>. (검색일: 2015.10.15.).

●그림 III-12 장백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의 철정광분 선광공장 기공식



출처: 長白朝鮮族自治縣商務糧食經濟局, <<http://changbai.mofcom.gov.cn>>. (검색일: 2015.11.16.).

“철정분 선광공장은 2단계 공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항목의 총투자는 1억 위안이며, 건설시 철정분 선광능력은 연 40만 톤이다. 1단계 공정에 4,000만 위안이 투자되며, 장백현에 3,000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설하고 기계설비를 구매해 2007년 9월 말 제품의 시험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정분 선광능력은 연 20만 톤이다. 2단계 공정은 2008년 9월 완공예정으로 공사완료 시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세전이익 4,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선광공장은 헤산시 갑산문락평(甲山文落坪)의 자철광 선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길림서광공무유한공사가 조선개선무역회사와 함께 갑산문락평 자철광 개발을 위해 합영기간 10년의 개선

I
II
III
IV

서광광업합영회사(凱旋曙光礦業有限公司)를 설립한 것은 2006년 6월 말이었다.<sup>147)</sup> 그리고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가 등록자본금 100만 위안으로 설립된 것은 2007년 6월 3일이었고, 동 공사의 이름으로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의 설립에 대해 상무부 비준을 획득한 것은 2012년 3월 8일이었다.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는 중국 측이 3,600만 위안 상당의 채광설비, 운송차량, 선광공장 출자를 통해 총 투자액의 60% 지분을 갖고 북한 측이 2,400만 위안 상당의 광산자원과 토지를 출자해 총 투자액의 40% 지분을 갖는데, 그 중 선광공장과 재무담당부서는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에 두기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합영회사의 연 자철광 채굴량은 60만 톤, 생산 철정분은 2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되어 톤당 철정분 시세를 500위안으로 가정할 경우 연 매출액은 1억 위안, 세전 이익은 2,000만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갑산문락평의 자철광산은 ①매장량이 약 1,300만 톤에 달하고, ②순수 자철 성분이 32% 이상이며, ③노천채굴이 가능했다. 또한 인근에는 매장량 4,300만 톤, 순수 철광품위가 52%에 달하는 능철광산(稜鐵礦山)이 있었다.<sup>148)</sup>

## (2) 잠정평가

2012년 3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 이후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의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

147) 이준호, “북-중, 철 정제가루 선광합자회사 설립,”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6.15.

148) 長白山日報, “我省, ‘曙光’与‘凱旋’合營開發鐵礦 年銷售收入可達1億元,” <<http://bs.jl.gov.cn/BsWebCms/site/bscms/news/n2380031981.html>>. (검색일: 2015.10.15.).

료는 개선서관광업합영회사가 2015년 5월 현재 조업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백산시 인민정부의 2014년 10월 31일자 자료였다.<sup>149)</sup> 장백현변경무역복무중심이 변경무역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서광개선관광업유한공사가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 금곤변경무역유한공사(金坤邊境貿易有限公司) 등의 기업과 함께 그 대상에 포함된 점이였다. 둘째는 2015년 5월 21일자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정부판공실(長白朝鮮族自治縣人民政府辦公室)의 자료였다.<sup>150)</sup>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정부판공실은 <해외무역의 안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견에 관해서(關於支持外貿穩定增長的工作意見)>에서 변경무역의 잠재력 발굴대상으로 북한과의 경제무역합작을 전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논했는데, 그 대상에 북한과의 자원분야 주요 합작기업으로 중광국제(장백)유한공사, 삼원상무유한공사(森源商貿有限公司), 서광개선관광업유한공사를 언급하였다.

## 나. 훈춘시 수산: 훈춘홍호식품과 훈춘동양식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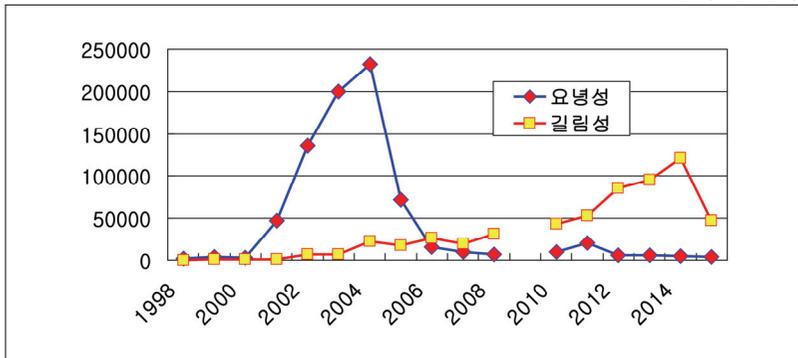
2002년 7·1조치 이후 어류(HS03)는 길림성의 대북수입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종목으로 부상했다. <그림 III-13>와 <표 II-4>에서 보듯이 길림성의 대북 어류수입은 급증했다가 급락세로 돌아가 침체상태에 있는 요녕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2000년 255만 달러에 불과했던 요녕성의 대북 어류수입은 2001년(4,690만

149) 白山市人民政府, “長白縣邊境貿易服務中心深入邊貿企業開展調研活動,” 2014. 10.31., <<http://www.cbs.gov.cn/xqdt/119423.jhtml>>. (검색일: 2015.10.15.).

150) 長白朝鮮族自治縣人民政府辦公室, “關於支持外貿穩定增長的工作意見,” 2015.5.21., <<http://www.changbai.gov.cn/zfwjcbzbf/136054.jhtml>>. (검색일: 2015.10.15.).

달러)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1억 3,619만 달러, 2003년 2억 24만 달러, 2004년 2억 3,231만 달러로 급증하다가 2005년 7,227만 달러, 2006년 1,561만 달러로 급락한 후부터는 연 1,000만 달러대도 시현하지 못했다.

●그림 Ⅲ-13 요녕성과 길림성의 대북 어류(HS03) 수입(1998~2015.8.)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반면, 길림성의 대북 어류수입은 2004년부터 약진하여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 2003년 663만 달러대에서 2004년 2,225만 달러로 2,000만 달러대를 돌파한 다음, 2008년 3,186만 달러, 2010년 4,356만 달러, 2011년 5,314만 달러, 2012년 8,534만 달러, 2013년 9,548만 달러, 2014년 1억 2,058만 달러로 1억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2006년부터 대북 어류수입 1위로 부상한 길림성은 2012년부터는 요녕성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2013년 1,202만 달러, 2014년 1,730만 달러, 2015년 1~8월 기간 1,331만 달러 등 최근 산동성의 약진이 돋보이나 길림성의 독보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24 수산분야의 대북투자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07.2.	도문시: 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 (延邊旺達貿易有限公司)	리진은행회사(羅津銀港會社)	어구공급, 수산물 가공양식
2010.5.	훈춘시: 훈춘시지강과기유한공사 (琿春市智強科技有限公司)	조선라선신흥분상사 (朝鮮羅先新興分商社)	수산물생산·가공
2010.12.	왕청현: 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공사 (延邊汪淸干菜加工有限公司)	라선태화회사 (羅先泰和會社)	수산물 등 판매
2012.8.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 (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	오징어, 대구 등 수산물 수출입
2013.2.	연길시: 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 (延邊美香民族食品加工有限公司)	연변미향<라선>식품회사 (延邊美香<羅先>食品會社)	식품, 수산물 가공·판매
2015.3.	훈춘시: 훈춘홍원공무유한공사 (琿春紅源工貿有限公司)	조선라선홍원무역회사 (朝鮮羅先紅源貿易會社)	오징어 등 수산물 판매
2015.5.	훈춘시: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	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 (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社)	수산물 매집, 가공 및 판매

출처: 저자 작성.

그런데 길림성의 대북 어류수입 증가는 길림성의 수산업에 두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길림성기업의 대북투자 증대였다. 길림성의 대북 수산분야투자(<표 III-24> 참조)는 ①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延邊旺達貿易有限公司)의 리진은행회사(羅津銀港會社), ②훈춘시지강과기유한공사(琿春市智強科技有限公司)의 조선라선신흥분상사(朝鮮羅先新興分商社), ③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공사(延邊汪淸干菜加工有限公司)의 라선태화회사(羅先泰和會社), ④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의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 ⑤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延邊美香民族食品加工有限公司)의 연변미향<라선>식품회사(延邊美香<羅先>食品會社), ⑥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洪

I  
II  
III  
IV

昊食品工貿有限公司)의 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社) 등이 있는데, 주목되는 회사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와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였다.

둘째는 훈춘시의 훈춘의약식품산업 산업단지건설정책이었다. 훈춘시는 수산물 가공산업을 훈춘의약식품산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생역량산업으로 지목하고 기업유치에 토지, 고용, 통신, 운송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역량을 총동원했다.<sup>151)</sup> 그 결과 여러 기업들이 훈춘국제합작시범구로 속속 입주하면서 대북투자의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표 III-25> 참조). 즉, 훈춘국제합작시범구가 북한의 라선시와 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해 중국 및 주변국으로 나아가는 물류·가공거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이였다.

표 III-25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입주한 주요 수산분야 기업

설립일	입주기업명	특기사항
2009.10.	연변성해공무유한공사 (延邊盛海工貿有限公司)	라선시에 합영회사 설립(투자액 43.225만 달러)
2010.10.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 요녕성 대련시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가 모회사(중외합자기업) - 라선시에 가공공장 투자(투자총액 900만 달러)
2011.8.	연태대신훈춘수산유한공사 (煙台大宸琿春水產有限公司)	산둥성 연태시 연태대신식품유한회사(煙台大宸食品有限公司)가 모회사(중외합자기업)
2012	훈춘동봉공무유한공사 (琿春東鵬工貿有限公司)	- 1기공사 투자액 1억 위안(건설면적 13,000m <sup>2</sup> ) - 2기공사 투자액은 3,300만 위안 예상
2013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	- 라선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와 합작 - 훈춘노희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라선시에 6개의 가공공장 보유

출처: 저자 작성.

151) 중국길림, “훈춘국제합작시범구, 8대 100억급 산업이 신속히 쫓기,” 2014.7.9., <[http://korean.jl.gov.cn/xw/201407/t20140709\\_1696880.html](http://korean.jl.gov.cn/xw/201407/t20140709_1696880.html)>. (검색일: 2015.10.15.).

## (1)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 사례

2012년 8월 14일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이하, 훈춘동양)는 오징어, 대구, 기타수산품의 가공·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의 설립을 중국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 그런데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의 모회사는 요녕성 대련시 금주구(金州區)에 있는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이하, 대련동양)였다. 대련동양은 미국 독자투자기업인 중외합자기업으로 주거래은행은 요녕성중행(遼寧省中行)인데, ① 1994년에 설립하여 20,000톤 영업냉장창고에 2개의 독립가공작업장을 운영해 오징어, 북태평양 연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② 2005년에는 해외 오징어수매기지를 구축해 규모 3,000톤의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③ 2010년에는 훈춘동양을 설립하였다.<sup>152)</sup> 훈춘동양, 훈춘시범구, 그리고 훈춘변경경제합작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훈춘동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153)</sup>

“훈춘동양실업유한회사는 길림성에서 제일 큰 해산물 가공기업으로 2010년 8월 20일 설립되었고 등록자본은 1,300만 위안(201만 달러)이다. 투자 1.1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8,700만 위안으로

152) 食品商務網, “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http://pagodasjq.21food.cn/company/cominfo302382.html>>. (검색일: 2014.10.16.);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公司介紹,” <<http://www.pagodaseafood.com/Content/index/catid/1.html>>. (검색일: 2015.10.17.); 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公司簡介,” <<http://www.dl.dy.ec.com.cn/F/06/CustomColumn/TopLarge.asp?fatherid=002001&menuid=002001>>. (검색일: 2015.10.17.).

153) 琿春示範區,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介紹,” <<http://www.hunchun.gov.cn/archives/922/>>. (검색일: 2015.10.17.); 琿春邊境經濟合作區管委會,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介紹,” <<http://www.hchzq.gov.cn/qyxl/ShowArticle.asp?ArticleID=474>>. (검색일: 2015.10.17.);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公司介紹,” <<http://www.pagodaseafood.com/Content/index/catid/1.html>>. (검색일: 2015.10.17.).

합작구 1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 9.6만 m<sup>2</sup>, 건설면적 1.35만 m<sup>2</sup>이다. 법인대표는 주계금(朱啓金), 주요 업무는 ①수산물 수출입가공, 도소매, 수산물 냉장보관 및 운수 등으로, ②오징어, 대구, 연어 등 해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며, ③주요 판매처는 일본, 한국, 유럽지역이다. 공사는 ①규모 10,000톤의 영업 냉장창고를, ②그리고 길림성에서 유일한 보세 냉장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③3개의 대형 냉동어류 가공 작업장과 1개의 대형 마른 오징어 가공 작업장을 보유해 오징어류, 어류(북태평양 연어, 대구, 명태, 고등어 등), 바다게류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련동양은 훈춘 가공공장건설을 2010년 10월에 시작하여 그 1기 공사를 2011년 6월에 마감하고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갔는데, 1기 공사에 투입된 자금은 1.3억 위안, 점유면적은 3만 m<sup>2</sup>였다.<sup>154)</sup> 그리고 2013년 10월 북한 라선시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155)</sup> 대련동양이 북한에 건설한 수산물가공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900만 달러에 달하며 매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무역액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156)</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련동양이 훈춘에 가공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 라선에 가공기지를 건설했는데, 본사를 훈춘으로 옮겼다는 점이었다.<sup>157)</sup> 이는 훈춘을 중심으로 황해 바다는 대련이, 동해바다는 라선이 담당하는 접근체제를 구축하겠

154) 琿春示範區網, “琿春海產品加工業向集群化發展,” 2014.6.19., <<http://www.hunchunnet.com/archives/4574/>>. (검색일: 2015.10.17.).

155) 강태호, “동북진흥계획10년 시리즈 3화: 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및 심화,” 『투코리아』, 2013.11.26., <<http://2korea.hani.co.kr/280049>>. (검색일: 2015.10.17.).

156) 중국길림, “길림성, 대외진출 진척 가속화,” 2013.10.16., <[http://korean.jl.gov.cn/xw/201310/t20131016\\_1540596.html](http://korean.jl.gov.cn/xw/201310/t20131016_1540596.html)>. (검색일: 2015.10.17.).

157) 延吉投資促進網, “琿春海產品加工業向集群化發展,” 2014.6.20., <[http://www.yjjhj.com/user/index.xhtml?menu\\_id=43&mode=view\\_content&page=17&is\\_top=0&news\\_content\\_id=1990&PHPSESSID=c467125f13d6c9d9f27427a4179bc765](http://www.yjjhj.com/user/index.xhtml?menu_id=43&mode=view_content&page=17&is_top=0&news_content_id=1990&PHPSESSID=c467125f13d6c9d9f27427a4179bc765)>. (검색일: 2015.10.17.).

다는 기업전략으로 판단된다(<그림 Ⅲ-14> 참조). 훈춘동양의 총 경리 장신민(張新民)은 대련동양이 훈춘에 투자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158)</sup>

●그림 Ⅲ-14 대련동양의 신규가공기지: 훈춘과 라선



출처: 珲春東揚實業有限公司, <<http://www.pagodaseafood.com/>>. (검색일: 2015. 11.16.).

“훈춘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한 주요한 이유는 이곳이 위치와 자원면에서 우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산물 가공기업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나오는 곳이 가깝고 품질이 좋으며 투자비가 저렴하다.”

158) 金農網, “吉林珲春國際合作示範區海產品出口加工業集聚擴張調查,” 2014.5.22., <<http://www.agri.com.cn/doc/2014/5/22/449626.htm>>. (검색일: 2015.10.18.).

## (2) 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 사례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 이하, 훈춘홍호)의 설립은 훈춘동양과 그 순서가 달랐다. 즉, 대련동양은 훈춘동양을 설립하고 북한 라선시에 독자기업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를 건설했지만, 훈춘홍호의 총경리 희운산(姬雲山)은 먼저 라선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와 수산물 가공 합작관계를 맺고 훈춘변경경제합작구에 대형수산물 가공기업인 훈춘홍호를 건설하는 수순을 채택했다.<sup>159)</sup>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사업에 종사해 독자적인 수산물 가공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희운산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훈춘홍호수출입무역공사(琿春洪昊進出口貿易公司), 2012년 훈춘노희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이하, 훈춘노희)를 설립했던 희운산의 대북 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sup>160)</sup>

“훈춘시 태생으로 1995년 라선에서 식량 장사를 하던 희운산(姬雲山)은 현지 어민들의 어획한 수산물 수량이나 질량이 좋고, 중국 상인들이 가공 냉동 후에 훈춘시로 운송해서 다시 전국 각 지역의 상인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희운산은 수산물 업종에 투신하여 북한에서 냉동한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을 훈춘에 운송해와 팔면서 단 3년 동안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159) 강태호, “동북진흥계획10년 시리즈 3화: 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및 심화,” 2013. 11.26 참조.

160) “훌륭한 제품과 봉사로 고객 유치: 훈춘홍호식품공업무역회사 희운산 리사장,” 『연변일보』, 2015.6.2., <[http://www.iybrb.com/gih\\_vew.aspx?id=3370](http://www.iybrb.com/gih_vew.aspx?id=3370)>. (검색일: 2015.11.16.); 延邊網, “琿春洪昊食品在進出口中找準企業發展突破,” 2015.6.11., <<http://www.hybrb.com/show/?idx=84810>>. (검색일: 2015.10.18.).

1998년, 희운산은 북한에서 저장량이 200톤이나 되는 냉장고를 세내고 신선한 해산물을 수매하기 시작했으며 라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한 후 그 수산물을 가공했다. 희운산이 가공해낸 수산물은 질이 좋아 고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판매량이 부단히 상승했다. 2000년, 희운산은 북한의 비래봉 냉동창고와 수채봉 냉동창고 2개의 냉장고를 구매하고 중국에서 냉각기, 보일러, 건조기 등 설비를 구입해 1,000만 위안이 넘는 2개의 생선가공공장을 건설했는데, 1,500만 톤의 저장능력에 급속냉동은 100톤에 달했다. 동시에 6개의 대형 어획선, 14개 북한회사 어획선을 합쳐 총 20대의 선단으로 장기간 심해어획을 하였다. 수년 동안 희운산은 2,000만 위안 이상을 북한에 투자하였고 7개의 가공공장을 건설해 북한직원 1,300명, 중국측 관리인원 30여명인 대형 오징어가공 판매기업으로 성장해 2009년 전체 생산량은 1.3만 톤을 달성했다.

다년간 조선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던 그는 고향인 훈춘시에 공장을 건설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9년 4월 그는 훈춘시변경경제협작구에 정식으로 훈춘홍호수출입무역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냉동수산물가공, 저장운수를 위주로 하는 회사의 부지면적은 1.8만 m<sup>2</sup>에 달하는데 그중 생산작업장 4,000m<sup>2</sup>, 냉장창고 4,500m<sup>2</sup>, 판공청사 2400m<sup>2</sup>, 공장녹화면적이 1,200m<sup>2</sup>에 달했다.

그렇지만 희운산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았다. 어획, 가공, 냉동, 저장, 운수, 판매의 원스톱산업구조를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했다. 2013년,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오징어산업의 초기 가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무역, 수산물가공판매, 냉동물류 등 종합성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생산품은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유럽, 브라질 등의 국가로 판매되었다. 현재 공사의 오징어계열 상품생산은 전국 3위를 차지했고, 전국 26개 성시에 중개상과 직영점이 있으며, 2014년에는 판매수입이 3억 위안을 초과했다.”

2015년 5월 26일 훈춘홍호는 북한 라선시에 있는 수채봉수출수산  
 합작회사(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會社: 이하, 수채봉)와 수산물 매집,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 ‘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의  
 설립을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훈춘홍호의 수산물 가공능력과 훈춘홍호가  
 북한지역에 구축한 수산물 가공능력이었다. 훈춘노희와 훈춘시범  
 구망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61)</sup>

“훈춘노희는 냉동수산물가공, 저장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  
 업으로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14호 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에 설립되었다. 현 공사의 주요 생산품은 수산물 가공과  
 그 제품의 판매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지로 판매되  
 고 있다.

훈춘홍호의 1기 공정에는 1.6억 위안이 투자되었다. 부지면적은  
 18,600m<sup>2</sup>, 그 중 생산작업장은 4,000m<sup>2</sup>, 냉동창고는 4,500m<sup>2</sup>,  
 사무실건물은 2,400m<sup>2</sup>, 공장녹화면적은 1,200m<sup>2</sup>였다. 독립된 제  
 빙창고, 냉장보관창고, 가공생산 라인에서 연간 수산제품의 생  
 산능력은 2만 톤, 연간 생산액은 1.5억 위안이다. 2014년 오징어  
 등 원재료의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지만, 원 냉동보관창고가 생  
 산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원래 공장에 냉동보관창고를 신규  
 로 건설했다. 냉동보관창고의 투자액은 800만 위안, 건설면적은  
 1,500m<sup>2</sup>, 그 규모는 3,000톤으로 매월 생산원가의 절약이 3만 위안  
 으로 예상되었다. 이로서 냉동창고의 면적은 6,000m<sup>2</sup>가 되었다.

2014년, 훈춘노희는 북한에 있는 기존의 3개 가공공장 이외에  
 또 3개의 가공공장을 더 건설했는데, 목전 북한의 연간 오징어  
 제품 생산량은 4만 톤, 즉각냉동저장능력은 2만 톤에 달한다.”

161) 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公司簡介,” 2008.2.14., <<http://hclaoji.com/Ch/About.asp>>. (검색일: 2015.10.18.); 琿春示範區網, “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新建冷 凍或11月中旬投入使用,” 2014.10.17.

다른 하나는 훈춘홍호와 수채봉의 합작이었다. 수채봉은 원래 싱가포르의 전목유한회사(Chonmok Co.)가 라선시 무역국인 황금 의삼각주무역회사와 합영을 한 외국투자기업(Suchaebong Fish Export Joint Venture Company)으로 1996년 12월 6일 합영기간 50년으로 라선시에 설립되었다.<sup>162)</sup>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중계무역 등을 목표로 전목유한회사가 냉동설비 등 126.8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동 회사의 한태호 사장은 “1997년 수출실적이 120만 달러이고, 라선시 대외수출의 70%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다.”라고 언급했다.<sup>163)</sup>

수채봉이 설립된 이후 <그림 III-15>와 <표 III-26>에서 보듯이 수산물의 대일수출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일 전체 수출이 하락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를 넘지 못했던 북한 전체 대일수출에서 차지하는 어류의 비중은 1998년 23.99%(5,266만 달러)로, 1999년 35.75%(7,242만 달러)로, 2001년 45.45%(1억 254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방북이 실현되었던 2002년에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29%(1억 1,319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어류의 대일수출은 2002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강세를 시현하다가 2007년부터는 수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2002년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과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 이후 납치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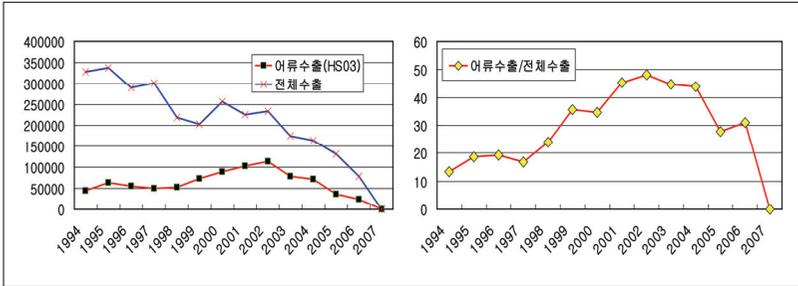
16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에 가동중인 외자기업 56개,” 『북한 뉴스레터』, 1997.6., p. 18; Peregrine-Daesong Development Bank, Meeting Report, 1996.

163) 조문성, “[조문성의 북한일기 19] 100kg 고집하며 80kg 돼지 마다하던 류 사장, 결국 70kg짜리 배당받아,” 『영남일보 위클리포유』, 2015.1.9., <<http://www.yeongnam.com/weekly/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109.010350844340001>>. (검색일 2015.8.12.).

대한 일본 내부여론의 악화가 결정적이었다. 점차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정책이 강화됨에<sup>164)</sup> 따라 수채봉도 새로운 판매시장을 확보해야 했다.

○그림 Ⅲ-15 북한의 대일수출에서 차지하는 어류(HS03)의 비중 (1994~2007)

(단위: 천 달러, %)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호로부터 가공.

○표 Ⅲ-26 북한의 어패류(HS03) 대일수출과 수입(2001~2014)

(단위: 천엔)

연도/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014
수출액	12,502,340	14,135,588	9,035,470	7,710,379	4,001,340	2,804,679	0	0	0	0
수입액	62,242	189,392	76,397	79,860	57,983	38,156	0	7,500	889	0
무역액	12,564,582	14,324,980	9,111,867	7,790,239	4,059,323	2,842,835	0	7,500	889	0

출처: 한국무역협회 일본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164) 수채봉은 과거 성계를 가공하여 운단을 만들어 일본에 많이 수출했던 회사로 1997년부터는 일본의 항해주식회사와도 합작을 했다. 오늘의 조선,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전망이 좋은 회사,” 『금수강산』, 1999년 4호(루게 제 116호), p. 37 참조.

수채봉은 2009년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11.~14.)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13년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8.19.~23.), 제9회 동북아박람회(9.6.~11.) 출품 등을 통해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희운산이 2000년에 이미 수채봉 냉동창고를 매입했고 2009년 4월에 훈춘홍호수출입무역유한공사를 설립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수채봉이 새로운 합작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 당시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6월 기준 수채봉은 약 700명의 직원을 두고 조개, 새우, 오징어, 문어, 송어 등 수산물을 매년 1만 톤가량 생산해 주로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수채봉의 동기명 사장은 2013년 6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과의 교역재개를 희망하기도 하였다.<sup>165)</sup>

2013년 10월 10일 북중 양국의 변경지역 주민들은 훈춘국제합작시범구수출가공구에서 훈춘홍호의 1기 공정 투자와 관련된 수산물가공대상 생산투입식을 성대히 거행했는데, 가공노력을 제공하기로 한 북한 라선시 수채봉 동기명 사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66)</sup>

“훈춘홍호식품공업무역유한회사는 실력이 옹후하고 성신도가 높아 우리 회사와의 합작에서 줄곧 매우 순조롭고 유쾌하였다. 우리는 이번 생산투입식을 계기로 일층 훈춘홍호식품공업무역회사와의 합작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호리의 원원을 실현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많은 수산가공류기업들

165) “북한수산물 가공업체, 일본과 교역재개 희망,” 『SBS 뉴스』, 2013.6.1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38739&plink=OLD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38739&plink=OLDURL)>. (검색일: 2015.11.16.).

166) 중국조선어인터넷방송, “훈춘 수산물가공대상 생산 투입,” 2013.10.14., <<http://korean.cntv.cn/20131014/100016.shtml>>. (검색일: 2015.10.18.).

이 라선지구에 진주하고 공동으로 합작하여 두 나라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해주는 것을 환영한다.”

### (3) 훈춘-라선 분업단지 구축 전망

동양수산과 훈춘홍호의 위 두 사례는 훈춘시와 라선시가 어떻게 수산물 가공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수산물의 품질유지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1차 가공이다. 1차 가공지는 북한의 첫 경제특구로 노임이 저렴한 라선시가 적격이었다. 근해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동해의 어업자원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한 것도 강점이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오징어링이 동양수산과 훈춘홍호의 생산작업장에서 오징어 한 마리가 어떻게 오징어링이 되는지를 참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67)</sup>

“오징어 원료는 보통 북한에서 들어온다. 이미 북한에서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 등을 가공하고 냉동하여 이곳으로 운송된다. 공인들은 분업을 통해 각자 맡은 자신의 일을 진행한다. 오징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일일이 손질을 한 후 여러 가공처리를 거쳐 흰색의 오징어 몸통만 남긴다. 오징어 몸통은 여러 과정 처리를 거친 후 공인들이 종류별로 포장한다. 한 명의 공인이 오징어 몸통을 손질한 후 기계에 올려놓으면, 같은 너비로 오징어링이 나온다. 가공을 마친 후 오징어 몸통과 오징어링은 냉동과 비닐 포장을 한 후 냉동 창고에 보관된다.”

167) 延吉投資促進網, “琿春海產品加工業向集群化發展,” 2014.6.20.

둘째는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운송의 경쟁력이었다. 훈춘에서 심층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1차 가공된 수산물의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 훈춘시와 북한 라선시 라진항까지의 거리는 48km에 불과해 라진의 수산물이 당일 저온으로 훈춘까지 운송하여 초저온 냉동창고에 진입할 수 있어 수산물의 품질유지가 가능했다. 그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여러 기업들이 북한 수산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①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단순교역적 경제협력, ②현대적 냉체인 물류시스템의 부족, ③심층 해산물가공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장개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길림성정부는 <훈춘시 수산물 냉체인 운송 및 가공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8)</sup>

“수산물 냉체인 수요시장발전상황 수산물은 물류과정에서 반드시 쾌속 유통되어야 한다. 신선성으로 하여 부분 수산물은 냉장과 냉동을 해야 하며, 상온품, 저온품과 냉동품의 부동한 속성에 따라 저장운송하고 활수차에 냉동산소주입 설비를 휴대하여 운송해야 한다. 예하면 냉동수산물은 일반적으로  $-18^{\circ}\text{C} \sim -25^{\circ}\text{C}$  하에서 유통해야 하고 신선한 고급 참치 신선보존 저장과 운송은  $-55^{\circ}\text{C}$  및 그 이하의 초저온 냉동고 및 관련설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냉체인 물류발전의 낙후함은 업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목하, 약 80% 수산물은 기본상 냉체인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운송 판매되고 있으며, 냉체인 수산물의 품질보장은 박약하다. 냉체인 수산물 소비의 계절성과 주기성, 제품 전달경로의 길이 등으로 하여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산업 저 원가경쟁은 냉장체인 저수준 중복건설을 가져온다. 수산물 소모는 주로 저장과 운송

<sup>168)</sup> 중국길림, “훈춘시 수산물 냉체인 운송 및 가공 프로젝트,” 2014.8.27., <[http://korean.jl.gov.cn/tz/tzjh/zdcy/ncp/jg/201408/t20140827\\_1731502.html](http://korean.jl.gov.cn/tz/tzjh/zdcy/ncp/jg/201408/t20140827_1731502.html)>. (검색일: 2015.10.19.).

온도가 보증되지 못하고 조작시간의 제어가 적절하지 못하며 중계운송 연결이 좋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변식 부식 등에서 오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유통 원가는 줄곤 고공세를 유지한다.”

그러나 외국자본계열의 수산물 전문기업인 요녕성 대련의 동양수산과 산동성 연태의 연태대신, 훈춘의 수산물 전문 토착기업인 훈춘홍호, 그리고 일본자본 계열이었던 라진의 수채봉 등이 참여하면서 훈춘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 27,810m<sup>2</sup>, 건설면적 17,104m<sup>2</sup>인 연태대신은 숙련되고 선진경영경험이 풍부한 중외합작기업으로 ①전사상거래 플랫폼, ②질량검사센터, ③호텔요식 및 휘트니스센터 등 공공서비스시설, ④국제콜드체인물류센터의 영하 25도/만 톤(보세) 창고, ⑤HACCP인증 가공작업장, ⑥GPS차량측정 냉장운수 차대로 결합 구성되어 해산품 가공, 냉장물류의 완전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sup>1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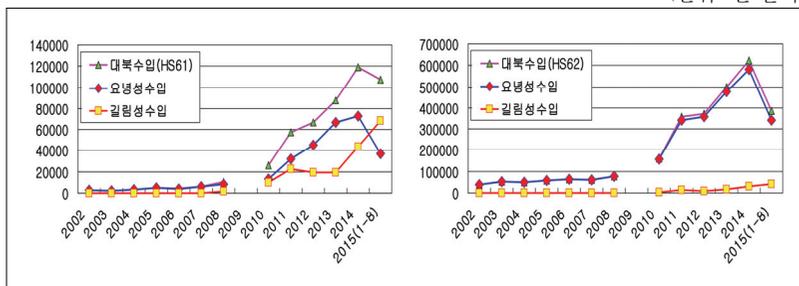
## 5. 노동력확보형 투자

길림성의 대북 10대 수출품에서 2007년 7위에 있던 의류(HS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가 2011년 2위, 2012년 2위, 2013년 1위, 2014년 1위로 부상했다(<표 II-5> 참조). 그리고 길림성의 대북 10대 수입품에서도 의류는 2007년 10위권 밖이었으나 2011년 4위(HS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와 6위(HS62: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 2012년 4위(HS61)와 7위(HS62), 2013년 6위(HS61)와 7위(HS62), 2014년 4위(HS61)와 5위(HS62)를 차지했다(<표 II-4> 참조).

<sup>169)</sup> 延吉投資促進網, “琿春海產品加工業向集群化發展,” 2014.6.20.

그런데 길림성의 대북 의류수입은 <그림 III-16>에서 보듯이 편물 외 의류(HS62)가 핵심인 요녕성과는 달리 편물의류(HS61)가 주종이었다. 편물의류에 있어서 길림성의 약진은 2010년부터였다. 길림성의 대북 편물의류수입이 월 100만 달러대로 진입한 것은 2010년 8월(119만 달러)이었다. 이후 9월 148만 달러, 10월 143만 달러, 11월 153만 달러, 12월 19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0년은 1,000만 달러대에, 2011년에는 2,000만 달러대에 올라섰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급증세로 바뀌면서 2014년 4,361만 달러로 4,000만 달러대를, 2015년 1~8월 기간에는 6,858만 달러로 6,000만 달러대를 돌파해 요녕성을 제치고 북한 편물의류 1위 수입 성으로 부상했다.

●그림 III-16 중국의 대북 편물의류(HS61)와 편물외의류(HS62)수입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이는 두 가지 연유에서 파생했다. 첫째는 훈춘기업들의 북한 라선 시 대북투자였다. 훈춘시의 ①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의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羅先市風華制衣有限公司), ②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의 조선 라진혜성회사(朝鮮羅津惠勝會社), ③훈춘시초월상무유한공사(琿春

市超越商貿有限公司)의 해양침직품가공회사(海洋針織品加工會社), ④훈춘원형경무유한공사(琿春遠馨經貿有限公司)의 라선영선합영회사(羅先領先合營會社), ⑤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琿春明旭實業有限公司)의 라선명옥무역회사(羅先明旭貿易會社) 등이 그들이었다 (<표 III-27> 참조).

● 표 III-27 노동력확보형 대북투자(2003~2015.8.)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03.11.	훈춘시: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 (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 (羅先市風華制衣有限公司)	복장가공
2007.6.	훈춘시: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 (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	조선라진혜성회사(朝鮮羅津惠勝會社)	복장가공 (침직)
2009.7.	훈춘시: 훈춘시초월상무유한공사 (琿春市超越商貿有限公司)	해양편직품가공회사(海洋針織品加工會社)	복장가공 (각종 침직품)
2012.7.	훈춘시: 훈춘원형경무유한공사 (琿春遠馨經貿有限公司)	라선영선합영회사(羅先領先合營會社)	복장제조
2012.8.	훈춘시: 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 (琿春明旭實業有限公司)	라선명옥무역회사(羅先明旭貿易會社)	유행복 생산

출처: 저자 작성.

둘째는 훈춘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었다. 2012년 12월 11일 중국 해관총서는 ‘장춘해관의 대조선위탁가공업무전개 시행동의를 대한 가공무역사의 회신 <加貿司關於允許長春海關開展對朝出境加工業務試點的復函(加貿函[2012]100号)>’에서 장춘해관에 대조선 위탁가공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장춘해관은 2013년 1월 6일 훈춘해관으로 위탁가공무역을 신청한 ①한국의 독자기업인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吉林特來紡織有限公司), ②일본의 독자기업인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小島

衣料[琿春]紡織有限公司), ③그리고 중국 국내기업인 훈춘운달편 직복장유한공사(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와 ④훈춘홍풍제의유한공사(琿春弘風制衣有限公司) 등 훈춘입주 4개사에게 2년간 시범적으로 허가하였다.<sup>170)</sup> 이에 따라 길림성의 대북위탁가공무역(이하, 출경가공)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 가. 훈춘시와 라선시의 협력: 대북투자사례

### (1)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 사례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이하, 라선풍화)는 2002년 이후 상무부 비준기준 길림성의 제1호, 의류분야 제1호 대북투자였다.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이하, 훈춘풍화)가 복장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상무부 비준을 받은 것은 2003년 11월 20일이었다. 중국 측의 투자액은 13.3만 달러였고, 합작방식은 독자기업진출이었다.<sup>171)</sup> 훈춘풍화의 공사홈페이지에 따르면 훈춘풍화는 1997년부터 라선시에 진출한 것으로 되어있다.<sup>172)</sup>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는 1989년에 건설, 의류가공을 위주로 하고 1997년에 국가대외경제무역부에서 발부한 자영수출입권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자체 통관 수출입업무를 시작하였다. 국가에서 국유공업기업에 대하여 체제개혁을 하면

170) 김홍화, “대조선 위탁가공무역 빚장 연다,” 『인민넷』, 2013.2.5.,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91361.html>>. (검색일: 2015.10.20.).

171) 吉林省政府發展研究中心, “琿春市邊境經濟合作調研報告,” 2013.1.24., <[http://fzxx.jl.gov.cn/jcck/2009jcck/201301/t20130124\\_1410400.html](http://fzxx.jl.gov.cn/jcck/2009jcck/201301/t20130124_1410400.html)>. (검색일: 2015.10.20.).

172) 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 “公司概況: 公司簡介,” <<http://www.hcfhzy.com/main/qy/qyinfo.asp?modid=011001>>. (검색일: 2015.10.20.).

서 2000년에는 민영기업으로 개편되었다. 2001년 공사를 확장 건설하기 위하여 훈춘시변경경제합작구로 확장 이전하였고, 그때부터 세계에서도 비교적 선진적인 봉제설비, 의류워싱시설, 다림방지설비 및 진의류 샌드 블라스팅 설비, 포켓오픈 설비 등 700여 세트를 보유하고 있고, 연 생산능력은 250만 장이며, 현재 직원은 600여 명이다. 공사의 등록자본은 550만 위안이고, 부지면적은 46,600m<sup>2</sup>, 건축면적이 23,000m<sup>2</sup>인 혼합벽돌 및 골조구조로 된 공업공장건물이 있다. 또한 통신, 전력, 급수, 배수, 열에너지가 모두 구비된 기초시설도 형성되었다. 공사는 1997년 북한 라선-선봉시와 합작하여 3개의 역외 가공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봉제시설 1,500여 세트와 직원 1,2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가공생산능력은 100만 장이다. 공사에서는 관리수준이 높은 인원들을 파견하여 장기간 북한에 있으면서 기술, 생산품질, 출하와 결제 등 업무의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공사의 주요 생산제품은 각종 캐주얼시리즈, 진시리즈와 작업복시리즈 등이고, 제품의 주요 수출지역은 홍콩, 일본, 한국 및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이며, 제품 수출비율이 100%인 길림성의 주요한 의류수출생산기업이다. 관리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공사는 2003년 5월에 ISO9001:2000 품질관리체계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고, 2005년 3월 10일에는 미국의 J. C. Penney Company(杰西潘尼公司)의 공장검사에 합격되어 J. C. Penney Company의 중국 지정 의류가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5월에는 미국 월마트 회사의 공장 검사를 통과하여 미국 주문 가공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유럽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공사에서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투입하여 재차 전 세계 판매 3위인 H&M회사, 전 세계 판매 5위인 C&A회사의 공장 검사를 거쳐 유럽 의류시장의 개척을 위한 기초도 닦았다.”

## (2) 조선라진혜성회사 사례

중국의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이하, 훈춘운달)의 조선라진혜성회사(이하, 라진혜성)는 2007년 6월 28일 상무부 비준을 받았다. 중국의 훈춘운달과 북한의 조선라진공업회사(朝鮮羅津工業會社) 간의 합작인 라진혜성은 ①편직복장의 가공, 수출입을 목적으로, ②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은 125만 달러이며, ③중국 측은 설비 및 무형자산의 형태로 75만 달러를 출자해 지분 60%를 차지했고, 북한 측은 공장 및 기초시설의 형태로 50만 달러를 출자해 지분 40%를 차지했다. 그리고 경영기간이 5년인데, 합작방식은 합영이 아닌 합작이었다. 훈춘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훈춘운달은 북한에 4개의 협력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73)</sup>

“훈춘시 운달편직공장은 중국 길림성 동남부의 두만강 하류지역, 중·러·북 3국의 인접지대에 위치하였다. 공장은 1998년에 건설, 부지면적은 1만 m<sup>2</sup> 정도이고 국가 수출입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가공 전문 사영기업이다. 현재 공인은 620명이 있는데, 그 중 전문 디자이너 5명, 숙련 봉제 A급 노동자 400명이 있다. 국내에 4개의 분공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4개의 협력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현대화된 가공작업라인을 가지고 있어, 이미 연간 의류 생산량 200만 세트, 내의 연간 생산량 800만 장의 생산규모를 형성하였다. 훈춘시 운달편직공장은 과학기술을 선도로 하고 제품 품질을 생명으로 보며 일본에서 제일 선진적인 생산설비를 수입하였다. 제품은 일본, 중동, 미국, 스페인, 러시아 등 10여 개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국내외 고객들의 신임과 호평을 받고 있다. 공장은 훈춘시 합작구에 있고 한국

173) 琿春信息網, “琿春市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 <<http://hc.jl.cn/a/20140810/3976.htm>>. (검색일: 2015.10.21.).

독자기업인 쌍방울회사(裳邦爾公司)의 장기 협력공장이기도 하며, 차례로 길림성 민영스타기업, 연변조선족자치주 창업선봉단위와 훈춘시 10강 민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3) 잠정평가

앞의 <그림 III-16>에서 보듯이 훈춘풍화와 훈춘운달이 대북투자자에 나섰던 시기는 길림성의 대북의류수입이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노동시장상황이었다. 노동력 부족의 심화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그 파고가 점차 길림성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말 당시 북한 라선시 합영기업의 노동자 노임은 월 75달러(150위안) 수준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보통수준 노동자 월 노임의 30% 수준에 불과했다.<sup>174)</sup> 훈춘운달의 경우 대북투자를 통해 이미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2012년의 상황은 심각했다. 현지 노동력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청부받은 가공주문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여 생산경영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고 심각한 결손을 보고 있었다.<sup>175)</sup>

## 나. 훈춘시와 라선시의 협력: 출경가공 사례

### (1) 진행경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길림성은 두 가지 처방책을 도입하였다.

174) 中國論文網, “吉林省琿春市与朝鮮羅先市經濟合作發展現狀及對策,” 2013.11.3., <<http://www.xzbu.com/9/view-4407516.htm>>. (검색일: 2015.10.22.).

175) 延邊州政府 琿春海關, “琿春海關支持吉林省對朝出境加工試點工作取得顯著成效,” 2015.1.13., <<http://www.yanbian.gov.cn/tpl/xl2012031611081743.jsp?infoId=35227>>. (검색일: 2015.10.22.).

하나는 북한 노동력의 수입정책이었다. 2011년 8월에 도문경제개발 구에 설립된 도문조선공업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주로 조선시장에서 수요하는 가전, 복장과 생활일용품을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며 조선 라선 개발인재 양성기지와 대조선 무역가공 산업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도문조선공업원은 2013년 말까지 북한 노무기술 일군 625명을 수입했는데, 그 노임은 한국 개성공단의 노동자 수준이었다.<sup>176)</sup>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실질적인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했다.

다른 하나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출경가공정책이었다. 훈춘해관의 허가를 득한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 훈춘홍풍제의유한공사 4개사 중에서 출경가공 1호는 훈춘운달이었다. 8,000벌 셔츠가공이 그 시작이었다.<sup>177)</sup> 시범적 허가기간 2년 동안의 성적도 긍정적이었다. 2012년 적자상태였던 훈춘운달이 2013년에 출경가공의류 27만 장에 순이익 111만 위안을, 2014년에는 출경가공의류 38만 장에 순이익 210만 위안을 달성했다.<sup>178)</sup> 즉, 훈춘시의 출경가공정책이 훈춘운달의 여러 해 동안의 결손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훈춘해관은 시범기간 2년간의 출경가공 성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179)</sup>

176) “도문시, 대조선 경제무역합작 전초기지로 각광,” 『길림신문』, 2014.11.6., <[http://kr.chinajilin.com.cn/dby/content/2014-11/06/content\\_145840.htm](http://kr.chinajilin.com.cn/dby/content/2014-11/06/content_145840.htm)>. (검색일: 2015.10.22.).

177) 중국조선어방송넷 “길림성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조선 출경가공,” 2014.1.6., <[http://www.krcnr.cn/jj/jjxw/201302/t20130222\\_451545.html](http://www.krcnr.cn/jj/jjxw/201302/t20130222_451545.html)>. (검색일: 2015.10.22.).

178) 延邊州政府 琿春海關, “琿春海關支持吉林省對朝出境加工試點工作取得顯著成效,” 2015.1.13.

179) 위의 글.

“2013년 훈춘해관에서는 모두 19부의 원료수출가공무역수첩을 서명하여 발급하였다. 등록된 출경가공 남자셔츠 등 완제품 302.20만 장, 그 중 북한에 수출된 원자재 가치는 5,094.96만 위안이었다. 등록된 재수입(북한에 원자재 수출 후 완성품으로 훈춘으로 다시 수입) 완제품 가치는 5,366.32만 위안, 경외가공비는 270.44만 위안이었다. 실제 수출입액은 2,297.27만 위안이고, 원자재 수출액은 1,090.51만 위안이며, 완제품 재수입액은 1,206.76만 위안이었다. 경외가공비는 64.82만 위안, 징수세금은 23.72만 위안(그 중 관세 11.07만 위안, 부가세 12.65만 위안)이었다. 2014년 훈춘세관에서는 원료수출가공무역수첩 33부를 서명하여 발부하였고, 등록된 출경가공 남자셔츠 등 완제품은 125.72만 장인데, 그 중 수출 원자재 가치는 2,664.75만 위안이고, 등록된 재수입 완제품 가치는 2,926.86만 위안, 경외가공비는 233.04만 위안이었다. 실제 수출입액은 3,249.5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41% 증가되었고, 그 중 수출액은 1,544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35% 증가하였다. 완제품 재수입액은 1,705.5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56% 증가하였고, 경외가공비는 121.57만 위안이고, 징수세금은 42.79만 위안(그 중 관세 18.86만 위안, 부가세 23.97만 위안)이었다.”

길림성의 출경가공정책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과 위탁가공을 할 수 없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와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시범기업, 즉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와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가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의 위탁으로 출경가공이 가능한 화주단위제도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위의 훈춘해관자료는 그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시범기업에게 ‘창구’ 역할을 부여해 경외가공업무의 규모가 끊임없이 커지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자본인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

사와 일본자본인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 2개의 외자기업이 한·일 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과 직접 경외가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무함(加貿函) [2012] 100호 문서의 취지와 대북 역외가공의 실제수요에 따라, 훈춘해관에서는 2013년 9월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에서 화주단위(貨主單位)의 위탁을 접수하여 경외가공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정하였다. 현재 의류, 카펫, 중국매듭, 십자수 등 8개의 품목에서 중소기업 위탁으로 경외가공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이 창구업무의 수출입액은 2,454만 위안이었고, 전체 경외가공업무의 75%를 차지하여 그 해의 업무 증가량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길림성의 출경가공정책은 훈춘방직산업단지의 대북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전술한 훈춘운달에서 보듯이 그 성과였다. 2012년 말 경외가공정책이 등장하기 이전, 훈춘의 방직기업들은 북한 라선시의 기업들과 이미 장기적인 합작관계를 맺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었다. 즉, 원료는 일반무역화물로 북한에 수출하고 완제품은 보세화물 방식으로 중국 훈춘에 수입한 이후 국내 판매 또는 수출의 형태로 이를 주문한 기업에게 중계하고 있었다. 출경가공정책이 등장한 이후 수출량과 국내 판매액이 동시에 증가되고 있음을 위의 훈춘해관자료는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2012년 훈춘해관을 통해 방직의류가 경외가공 후 다시 역내로 들어와 해외로 중계 수출된 판매량은 2,744만 달러였다. 2013년 중계 수출액은 3,322만 달러, 국내 판매액은 370만 달러로 국내 판매비율이 11.1%였다. 2014년 중계 수출액은 5,674만 달러, 국내 판매액은 528만 달러로 국내 판매비율은 9.3%였다.”

I

II

III

IV

다음은 해외투자의 증가였다. 2015년 현재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훈춘시범구에서 라선지역 의류가공업에 중점투자한 기업은 총 11개였다. 이 중에서 9개사가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라진혜성회사와 합작을 했는데, 합작방식은 북한 측이 토지, 공장건물, 노동력을 책임지고 제공하고 중국 측은 생산설비, 기술과 함께 주문(order)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대북 출경가공 의류상품은 내의, 남자 와이셔츠, T셔츠, 캐주얼, 조끼, 재킷, 점퍼, 운동복 등이고 주요 시장은 한국, 일본, 중동, 대만지역 등이었다. 반면, 2012년 상무부 비준을 득한 훈춘원형경무유한공사(7.17.)와 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8.6.)는 독립적으로 투자하여 가공사업을 진행했는데, 가공상품은 내의, 운동복, 점퍼, 숙녀복 등이고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 대만 등이었다.<sup>180)</sup>

## (2) 잠정평가

훈춘시는 방직산업단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선택했다. 첫째는 대북투자, 둘째는 노동력 수입, 셋째는 출경가공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이었다. 훈춘시는 출경가공정책을 무기로 2014년 9월 29일 영파(寧波)의 아과이그룹(雅戈爾集團股份有限公司)과 계약체결에 성공해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기업을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유치했다. 아과이(훈춘)국제복장성공사(雅戈爾[琿春]服裝城公司)는 총투자가 10억 위안이고 부지면적은 13만 m<sup>2</sup>이며, 1기 투자는 5억 위안이었다. 1기 공사는 2015년 4월에 착공했으며 2015년 9월 현재 65%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국제투자, 국제무역, 전자상거

180) 李佳欣, “示范區論文致謝頁, 琿春示范區國際合作發展: 現狀, 問題, 對策研究,” 『行政与法』, 9期 (2015), <<http://www.lunwendaquan.com/falvbiyelunwen/37711.html>>. (검색일: 2015.10.23.).

래, 현대물류, 의류생산 및 판매 등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아과이(훈춘)국제복장성공사는 연간 각종 의류 600만 장(셔츠 500만 벌, 바지 100만 벌) 생산, 판매액 6억 위안, 납세액 6,000만 위안을 지향하고 있다. 1979년에 설립된 아과이집단은 부동산개발,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영역에 5만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500강 기업 및 민영 100강 기업에 속하는 대형기업으로 공사의 주력상품인 셔츠는 20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 양복은 14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sup>181)</sup>

문제는 노동력확보 여부였다. 훈춘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방직 등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다소비형으로 인력의 상당부분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구조이다. 달리 말해 훈춘의 대북투자와 출경가공의 성장속도는 북한 인력의 숙련도와 공급능력에 달려 있는데, 현재 라선지역에서 훈춘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자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가흔(李佳欣)은 <훈춘시범구 국제합작 발전: 현상, 문제, 대책연구(琿春示範區國際合作發展: 現狀, 問題, 對策研究)>라는 글에서 라선지역 인력조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82)</sup>

“북한과의 무역합작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의 하나는 라선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합작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출경가공의 목적지인 라

181) 延邊州政府 琿春海關, “琿春海關支持吉林省對朝出境加工試點工作取得顯著成效,” 2015.1.13.; “훈춘 ‘야거얼’ 국제복장성 공사, 순조롭게 진행,” 『연변일보』, 2015.10.19.

182) 李佳欣, “示范區論文致謝頁, 琿春示範區國際合作發展: 現狀, 問題, 對策研究(3),” 『行政与法』, 9期 (2015), <[http://www.lunwendaquan.com/falvbiyelunwen/37711\\_3.html](http://www.lunwendaquan.com/falvbiyelunwen/37711_3.html)>. (검색일: 2015.10.23.).

선지역의 인구총량은 12만 명으로 노동력 수량이 비교적 유한하다. 즉, 라선지역에 진출한 훈춘 의류기업의 부족인력은 2,000명이고, 출경가공 후 다시 경내로 들어오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100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지역의 수산물 포획 등 여타 노동집약형 산업과 한계에 달한 인력자원을 서로 분할하고 있어 노동력을 더 발굴할 잠재력도 없다. 현재 노동력의 자질은 높지 못한 편이고 업무의 숙련도도 비교적 낮아 북한에 있는 훈춘 의류기업의 생산규모 확대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측의 일방적 비용인상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측 이익의 손해는 다음과 같았다. 2014년 초 북한 측이 원래의 계약을 위반해 북한에 있는 중국 측 의류기업의 가공비용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매일 북한 노동자 1인당 70달러의 가공비용에 100근의 쌀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수도료, 전력료, 난방비, 관리비 등 일련의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을 기업에게 지불하도록 해 북한에 있는 중국 측 기업의 이익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출경가공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훈춘시 정부는 북한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의 하나로 현재 유다도(柳多島) 자유경제무역협작구 건설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 경원군 유다섬리에 북한 노동력을 모아 출경가공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 중국 경외에 산업원구를 건설하겠다는 이 구상은 길림성의 2015년 경외산업원구 중점추진대상으로 조선 유다도가공구항목이 선정되면서부터 탄력을 받게 되었다.<sup>183)</sup> 2015년 10월 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원군 유다섬리 일부지역을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해<sup>184)</sup> 그 귀추가 주목된다.

183) 吉林省商務廳, “叢紅霞廳長談全省商務貿易發展工作,” 2014.11.28., <[http://www.jldofcom.gov.cn/zxft/201411/t20141128\\_1808677.html](http://www.jldofcom.gov.cn/zxft/201411/t20141128_1808677.html)>. (검색일: 2015.10.23.).

184) “조선, 경원경제개발구 설립,” 『인민넷』, 2015.10.9., <<http://korean.people.com.cn/84966/98347/15541654.html>>. (검색일: 2015.10.23.).

## 6. 내수시장진출형 투자

2002년 7·1조치 이전 북한 내수시장은 중국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일부 선구적인 중국기업만이 경제특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시장 개척을 위해 대북투자에 나섰을 뿐이었다. 그러나 7·1조치로 일부 시장경제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중국기업들 사이에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이미 개혁·개방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북한의 수입대체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대북무역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품목의 경우 북한당국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대북투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길림성의 기업들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대북투자를 전개했다(<표 III-28-1>, <표 III-28-2>, <표 III-28-3> 참조).

첫째는 플라스틱분야였다. 식탁주방용품, 건축용품, 물품운반·포장용기, 바닥 깔개, 관·파이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북한은 경공업생산의 부족으로 상당규모의 플라스틱을 이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의 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공사(圖們市誼達民族塑料制品有限公司)의 나도수지합영회사(羅圖樹脂合營會社), 훈춘승진무역유한공사(琿春承珍貿易有限公司)의 라선승진회사(羅先承珍會社) 등이 북한 플라스틱시장으로 진출했는데, 주목되는 회사는 라도수지합영회사였다.

● 표 III-28-1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플라스틱·건축자재 분야 (2003~2015.8.)

분야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플라 스틱	2005.9.	도문시: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13.12.	도문시: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05.11.	도문시: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공사(圖們市誼達民族塑料制品有限公司)	라도수지합영회사 (羅圖樹脂合營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11.10.	훈춘시: 훈춘승진무역유한공사(琿春承珍貿易有限公司)	라선승진회사 (羅先承珍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건축 자재	2006.12.	도문시: 도문흙배물자무역공사(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청흥합작회사 (淸興合作會社)	각종 페인트 생산·판매
	2011.11.	훈춘시: 연변선춘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先春國際貿易有限公司)	조선국제선춘회사 (朝鮮國際先春會社)	건축재료 기공 위탁판매
	2012.11.	연길시: 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연변성신[라선]건재창 (延邊成信[羅先]建材倉)	콘크리트 생산·판매
	2012.11.	장춘시: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라선아태건재유한공사 (羅先亞泰建材有限公司)	시멘트 생산·판매
	2013.5.	연길시: 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평양북방건재합영공사 (平壤北方建材合營公司)	시멘트 생산·판매
	2014.3.	연길시: 연변창신방지산개발유한공사(延邊創新房地產開發有限公司)	라선삼봉건재공사 (羅先三峰建材公司)	건재 생산·판매
	2014.7.	연길시: 연길흥원지난공정유한공사(延吉歡元地暖工程有限公司)	라선흥원회사 (羅先歡元會社)	난방설비 생산·판매

출처: 저자 작성.

둘째는 건축자재분야였다. 북한의 대부분 건물들은 이미 낡고 지나치게 장식이 없는 상태라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내외장재를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이 건축자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능력은 있지만 기술과 설비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sup>185)</sup>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이 확대되고,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전시성 건설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였다. 예를 들어, ①도문흥배물자무역공사(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의 각종 페인트, ②연변선춘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先春國際貿易有限公司)와 연변창신방지산개발유한공사(延邊創新房地產開發有限公司)의 건축재료, ③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의 콘크리트, ④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와 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의 시멘트, ⑤연길흙원지난공정유한공사(延吉歆元地暖工程有限公司)의 난방설비 등의 대북투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185)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p. 260.

● 표 III-28-2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물자유통·숙박 분야 (2003~2015.8.)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품목
2005.9.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 (平壤出口物資運輸合作會社)	물자운송
2006.4.	연길시: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 (延邊虹達工貿有限公司)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 (朝鮮羅先美延商業會社)	상업 (술, 음료)
2006.12.	도문시: 도문홍배물자무역공사 (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삼복운수기술합작회사 (三福運輸技術合作會社)	상업 (선상용품등)
2011.7.	용정시: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 (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라선봉정회사 (羅先峰程會社)	상업 (기름, 연료)
2011.9.	훈춘시: 연변위봉국제경무유한공사 (延邊衛峰國際經貿有限公司)	조선라선위봉경무회사 (朝鮮羅先衛峰經貿會社)	기계설비 임대
2011.12.	연길시: 연길시이마내리무역유한공사 (延吉市以馬內利貿易有限公司)	라선이림유한공사 (羅先以林有限公司)	숙박·상업
2012.6.*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길림우벌이운수집단유한공사(吉林宇別宇爾運輸集團有限公司)	라선시동우운수합작유한공사(羅先市東宇運輸合作有限公司)	여객운송
2012.8.	연길시: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 (延邊康德網絡科技有限公司)	라선강덕산업회사 (羅先康德產業會社)	대형 슈퍼마켓
2012.10.	훈춘시: 연변원통국제과공무유한공사 (延邊遠通國際科工貿有限公司)	선봉연유가공합영회사 (先鋒燃油加工合營會社)	중계무역 (연유가공)
2012.12.	장춘시: 장춘신대석유집단농안석유화공유한공사(長春新大石油集團農安石油化工有限公司)	라선신대국제상무중심회사 (羅先新大國際商貿中心會社)	비즈니스 센터
2013.7.	연길시: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라진시장합영회사 (羅津市場合營會社)	시장운영 (도소매)
2014.3.	훈춘시: 훈춘금도대지무역유한공사 (琿春金道大地貿易有限公司)	라선관광대지합작회사 (羅先觀光大地合作會社)	호텔
2014.4.	연길시: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王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 (羅先王福特貿易有限公司)	대형 상업단지
2014.5.	훈춘시: 훈춘시남양구물유한공사 (琿春市南洋購物有限公司)	라선남양회사(羅先南洋會社)	호텔

출처: 저자 작성(\*설립일 기준).

셋째는 물자유통과 숙박 분야였다.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게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용품점, 백화점, 일반상점 등의 도소매업, 여객 및 물자 운송시스템, 호텔 등 물류숙박시설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은 전망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①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의 물자수송, ②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吉林宇別宇爾運輸集團有限公司)의 여객운송, ③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延邊虹達工貿有限公司), 도문흠배물자무역공사(圖門鑫環物資貿易公司),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연길시이마내리무역유한공사(延吉市以馬內利貿易有限公司),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등의 상점경영, ④연변위봉국제경무유한공사(延邊衛峰國際經貿有限公司)의 기계설비 임대, ⑤연변원통국제과공무유한공사(延邊遠通國際科工貿有限公司)의 중계무역, ⑥장춘신대석유집단농안석유화학공유한공사(長春新大石油集團農安石油化工有限公司)의 비즈니스센터, ⑦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延邊康德網絡科技有限公司)의 대형슈퍼마켓, ⑧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旺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의 대형상업단지, ⑨훈춘금도대지무역유한공사(琿春金道大地貿易有限公司)와 훈춘시남양구물유한공사(琿春市南洋購物有限公司)의 호텔 등인데, 주목되는 회사는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와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旺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였다.

넷째는 소비재 분야였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오랫동안 경공업생산이 부족했고, 제품의 질도 높지 못했다.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소득수준이 증가될 경우 일용 소비재뿐만 아니라 내구소비

재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를 들어, ①길림성우의 수출입유한공사(吉林省友誼進出口有限公司)의 가구, ②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의 담배, ③요원시가익침방유한공사(遼源市嘉益針紡有限公司)의 양말, ④길림성중금광업유한공사(吉林省中金礦業有限公司)와 길림성성세광산품유한공사(吉林省盛世礦產品有限公司)의 자동차조립, ⑤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의 소화기, ⑥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의 맥주 등인데, 눈에 띄는 회사는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의 영광가구합영회사였다.

● 표 III-28-3 내수시장진출형 대북투자: 소비재 분야(2003~2015.8.)

비준 일자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투자 품목
2007.4.	장춘시: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 (吉林省友誼進出口有限公司)	조선영광가구합영회사 (朝鮮榮光家具合營會社)	가구
2008.1.	연길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담배
2009.3.	요원시: 요원시가익침방유한공사 (遼源市嘉益針紡有限公司)	선원말업가공창 (先源絲業加工倉)	양말
2010.1.	백산시: 길림성중금광업유한공사 (吉林省中金礦業有限公司)	금강기차합영회사 (金剛汽車合營會社)	자동차 조립
2010.12.	장춘시: 길림성성세광산품유한공사 (吉林省盛世礦產品有限公司)	삼대성합영회사 (三大星合營會社)	자동차 조립
2011.7.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 (平壤消防器材合營會社)	소화기
2014.7.	부여시: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	라선시길성동아회사 (羅先市吉盛東亞會社)	맥주

출처: 저자 작성.

## 가. 플라스틱: 라도수지합영회사 사례

### (1) 투자경과

플라스틱제품(HS39)은 대북수입보다는 대북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중국의 플라스틱 대북수출은 1995년 1,000만 달러대에서 2001년 2,000만 달러대로, 2004년 3,000만 달러대로, 2005년 5,000만 달러대로, 2008년 8,000만 달러대로, 2011년 1억 달러대로,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9,000만 달러대로 급증하였다(<그림 III-17> 참조).

플라스틱의 대북수출에서 길림성은 요녕성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표 III-29> 참조), 2008년부터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HS 4단위 기준, 길림성이 1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수출한 품목은 2003년 1개 품목에서 2014년 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그 주요한 품목은 <표 III-30>에서 보듯이 건축용품(HS3925), 식탁·주방용품(HS3924), 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바닥갈개(HS3918), 접착성 판·쉬트(HS3920), 관·파이프(HS3917) 등이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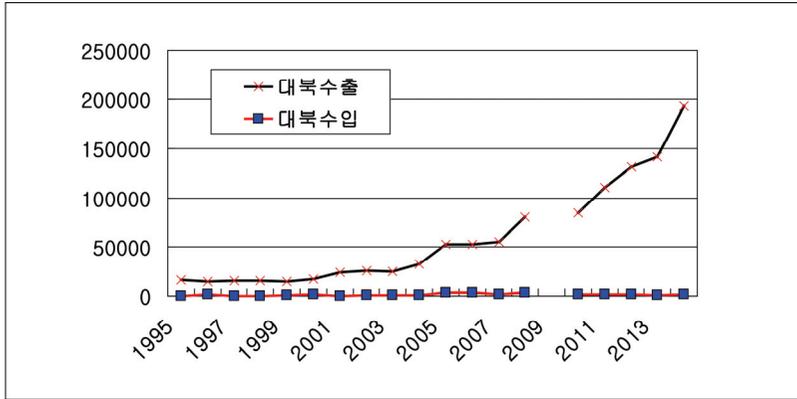
II

III

IV

●그림 III-17 플라스틱(HS39)의 대북수출입(1995~2014)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표 III-29 플라스틱(HS39)의 대북수출에서 길림성의 비중(2003~2014)

(단위: 천 달러, %)

연도/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1	요녕 14,619	요녕 21,371	요녕 29,726	요녕 31,235	요녕 37,633	요녕 43,852	요녕 52,675	요녕 71,515	요녕 83,667	요녕 91,158	요녕 111,955
2	<b>길림</b> <b>4,363</b>	<b>길림</b> <b>5,041</b>	하남 7,758	<b>길림</b> <b>6,307</b>	<b>길림</b> <b>6,293</b>	<b>길림</b> <b>25,816</b>	<b>길림</b> <b>10,974</b>	<b>길림</b> <b>11,949</b>	<b>길림</b> <b>14,879</b>	<b>길림</b> <b>17,783</b>	<b>길림</b> <b>36,963</b>
3	하남 2,069	하남 2,396	<b>길림</b> <b>6,452</b>	하남 5,860	산둥 2,630	산둥 2,785	하북 6,446	하북 8,775	하북 10,701	하북 12,812	하북 18,464
4	강소 926	강소 568	북경 1,678	산둥 2,720	하남 2,615	상해 1,293	산둥 3,700	산둥 4,770	산둥 4,537	산둥 5,366	강소 6,934
5	산둥 566	천진 479	산둥 1,179	강소 1,208	하북 1,470	천진 1,096	북경 3,380	북경 4,401	북경 4,324	강소 3,201	산둥 4,618
총계	24,578	31,978	52,158	51,975	54,590	80,045	84,422	110,894	131,448	142,063	193,431
길림성 비중	17.75	15.76	12.37	12.13	11.53	<b>32.25</b>	13.00	10.78	11.32	12.52	19.11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표 III-30 HS 4단위 기준 길림성의 대북 플라스틱수출(2003~2014)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수	순위
2003	1	식탁·주방용품(HS3924) 179만 달러
2004	1	식탁·주방용품(HS3924) 238만 달러
2005	3	①식탁·주방용품(HS3924) 262만 달러, ②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120만 달러, ③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01만 달러
2006	2	①식탁·주방용품(HS3924) 240만 달러, ②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14만 달러
2007	3	①식탁·주방용품(HS3924) 194만 달러, ②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135만 달러, ③바닥 깔개(HS3918) 106만 달러
2008	8	①520만 달러, ②건축용품(HS3925) 499만 달러, ③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346만 달러, ④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326만 달러, ⑤기타제품(HS3926) 280만 달러, ⑥접착성 판·쉬트(HS3919) 156만 달러, ⑦위생용품(HS3922) 153만 달러, ⑧식탁·주방용품(HS3924) 149만 달러
2010	3	①바닥 깔개(HS3918) 341만 달러, ②식탁·주방용품(HS3924) 152만 달러, ③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41만 달러
2011	5	①식탁·주방용품(HS3924) 220만 달러, ②바닥 깔개(HS3918) 218만 달러, ③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84만 달러, ④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159만 달러, ⑤건축용품(HS3925) 128만 달러
2012	7	①바닥 깔개(HS3918) 337만 달러, ②식탁·주방용품(HS3924) 251만 달러, ③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188만 달러, ④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80만 달러, ⑤건축용품(HS3925) 128만 달러, ⑥기타제품(HS3926) 127만 달러, ⑦접착성 판·쉬트(HS3919) 114만 달러
2013	8	①바닥 깔개(HS3918) 306만 달러, ②식탁·주방용품(HS3924) 306만 달러, ③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254만 달러, ④건축용품(HS3925) 205만 달러, ⑤기타제품(HS3926) 174만 달러, ⑥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174만 달러, ⑦접착성 판·쉬트(HS3919) 117만 달러, ⑧관·파이프(HS3917) 101만 달러
2014	8	①건축용품(HS3925) 1,361만 달러, ②식탁·주방용품(HS3924) 486만 달러, ③물품운반·포장용기(HS3923) 475만 달러, ④기타제품(HS3926) 340만 달러, ⑤바닥 깔개(HS3918) 266만 달러, ⑥기타접착성 판·쉬트(HS3920) 239만 달러, ⑦접착성 판·쉬트(HS3919) 163만 달러, ⑧관·파이프(HS3917) 126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I

II

III

IV

길림성의 기업으로 북한의 플라스틱 시장에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인 기업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의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공사(이하, 도문화인)였다. 중국 길림성 도문민족비닐집단공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라진선봉지대에 대한 기업설립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1994년 6월 6일이었다.<sup>186)</sup> 그리고 1999년 8월 6일, 한국의 투자기업인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내쇼날프라스틱유한회사와 북한의 조선라진직조공장 간에 설립된 합영회사 조중합자라도수지유한회사가 가동되었다. 중국 측이 기계설비, 원재료, 기술을 책임지는 형태였는데, 중국 측의 투자지분은 48%였고 북한 측의 투자지분은 52%였다. 합영회사는 가동이 된 후 바로 흑자경영으로 전환되었고, 월평균 판매액이 12만 위안에 달했다. 당시 상황을 연변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sup>187)</sup>

“이 몇 년래 도문내쇼날프라스틱유한회사에서는 라진상업도매소, 라진백화원, 라진시장관리소 등 조선 측과 손잡고 당사 제품 무역을 벌였는데, 이 회사의 플라스틱일용제품이 예견보다도 더 잘 팔려 한 달 판매액이 30만 위안을 넘길 때도 있었다. 몇 해 간의 무역에서 조선의 플라스틱 잠재시장을 추산해 낸 이 회사에서는…합영회사를 설립해…라진-선봉지구의 유일무이 플라스틱 생산회사로 가동을 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이 회사에 푸른 등을 켜주었다. 원정리 해관에서는 이 회사의 공무원과 물류 출입을 투자기업 1번에 놓고 시간적으로 앞당겨주고 수속도 간소화해줬다. 조선경제가 계획경제상황에서도 이 회사제품을 계획국에서 가격만 정해준 후 자체로 판매 경영할 수 있게끔 허락

186)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투자편람』, p. 81.

187) 오기환, “조선 라진-선봉서 조중합자라도수지유한회사에 푸른 등을,” 『연변일보』, 2000.9.6.

해줬고 수입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 제품만을 청진, 평양 등 내지에 판매하는데 푸른 등을 켜줬다.”

라도수지합영회사는 2005년 11월 1일 중국 상무부 비준을 획득했는데, 투자모기업은 도문내쇼날프라스틱유한회사가 아니라 도문화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도문화인의 기업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문화인의 전신은 도문시민족비닐공장으로, 소형국유기업이었던 도문시민족비닐공장이 체제개편으로 도문화인으로 된 것은 1998년이였다. 그리고 한국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가 중국 도문시민족비닐공장과 합자하여 도문내쇼날프라스틱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1993년 4월이였다.

## (2) 잠정평가

2010년 6월, 연변인터넷방송<sup>188)</sup>은 도문화인의 박미화(朴美花) 총경리에 대해 “박미화 조선진출 5년만에 조선비닐제품시장점유율 85%석권”이라는 보도를, 그리고 길림신문<sup>189)</sup>은 “여기, 파산에 직면한 작은 비닐공장을 영도하여 그 제품을 조선에 수출함으로써 10년 후 연 수입 1억 5,000만 위안을 올려 창업신화를 엮어가는 여성기업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도문시화인플라스틱제품유한회사 이사장겸 총경리인 박미화이다.”라는 기사를 타전하고 있다. 그리

188) 연변인터넷방송, “박미화 조선진출 5년만에 조선비닐제품시장점유율의 85% 석권” 2010.6.30., <[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17607&page=49&search\\_mode=all&search\\_word=%B9%E9%BB%EA&cid=1&html=&item=&contents=](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17607&page=49&search_mode=all&search_word=%B9%E9%BB%EA&cid=1&html=&item=&contents=)>. (검색일: 2015.10.26.).

189) 벽계수, “조선시장 개척해 <<플라스틱거두>>로 된 녀강자 박미화;” 『길림신문』, 2010.6.30., <[http://kr.chinajilin.com.cn/area/content/2010-06/30/content\\_13862.htm](http://kr.chinajilin.com.cn/area/content/2010-06/30/content_13862.htm)>. (검색일 2015.10.26.).

고 2011년 3월 연변일보<sup>190</sup>)는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회사는 종업원 90명 중 여성이 72명이다. 지난해 판매수입 5,874만 위안, 외화수입 700만 달러 실현했으며 이윤 494만 위안을 내고 세금 300만 위안을 바쳐 도문시의 공업기업 외화별이 대호로 되었다.”고 도문화인을 소개하였다. 또한 도문화인의 나도수지합영회사는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라선시에서 조업 중임이 확인되고 있어 길림성 대북투자의 성공사례임을 보여준다.

## 나. 여객운송: 동우운송합작유한회사 사례

### (1) 투자경과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이하, 연변동북)는 연변에서 라선으로 통하는 국제여객버스노선을 뚫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드디어 북한과 국제여객버스노선을 개설하는데 성공했다. 연변동북과 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이하, 길림우별)가 북한의 조선라선시륙해운총회사(朝鮮羅先市陸海運總公司), 라선시관광총회사(羅先市觀光總公司)와 합작으로 국제여객버스노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연변동북은 4자 공동운영의 합의사항에 따라 2012년 6월에 라선시동우운수합작유한공사(羅先市東宇運輸合作有限公司)를 설립했으며 2012년 8월 17일부터 시운행에 들어가 2012년 11월에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변동북과 길림우별은 연길-훈춘-라선으로 연결되는 국제여객버스노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만 위

<sup>190</sup>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회사,” 『연변일보』, 2011.3.7.,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809](http://www.iybrb.com/news_vew.aspx?id=809)>. (검색일: 2015.10.26.).

안을 투자하여 호화버스 11대를 구입해 동 노선에 투입하였다.<sup>191)</sup>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는 동 노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sup>192)</sup>

“연길-라선시 총거리는 200km로 그중 중국경내 노정이 150km, 북한경내 노정이 50km로 4시간이면 라선시에 도착할 수 있다. 연길-라선행 국제버스는 연길버스역 북역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해 훈춘국제버스역을 거쳐 9시 20분에 훈춘 권하통상구에 도착해 출국수속을 밟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는 북경시간으로 당일 오후 2시에 라선시 남산호텔 문 앞에서 출발해 권하통상구를 거쳐 연길로 귀환한다. 라선에서 연길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북경시간으로 6시 30분에 라선시 남산호텔 문 앞에서 출발해 정오 12시에 연길에 도착하며 12시 30분에 연길에서 출발해 3시 30분에 권하통상구를 경과해 오후 5시에 종점인 라선시에 도착하게 된다. 표값은 연길-라선 편도 100원, 단체 80원이며 훈춘-라선 편도 70원, 단체 50원이다. 시은행단계에서는 연길-라선 편도 80원, 단체 50원을 받는다.”

그런데 연길-라선 국제여객버스노선을 개설한 연길시의 연변동북은 1946년 8월에 설립, 7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회사로 2001년 직제개편으로 민영기업이 되었다. 현재 기업 총자산 5.4억 위안, 등록자본 1억 247.6만 위안, 연 영업수익 1억 5,200만 위안, 10개의 분공사, 3개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2012년 6월 교통운수분야

191) 리철수, “이젠 국제버스 타고 조선 라선으로 갑시다,” 『길림신문』, 2012.11.12., <[http://www.jlxcwb.com.cn/econ/content/2012-11/12/content\\_98086.htm](http://www.jlxcwb.com.cn/econ/content/2012-11/12/content_98086.htm)>. (검색일: 2015.10.27.); 延邊州政府, “延吉至羅先客運班線即將試運營,” 2012.8.15., <<http://www.yanbian.gov.cn/tplt/xl2012031611081743.jsp?infolid=20804>>. (검색일: 2015.10.27.); 新華網, “中俄朝邊境多條跨境游線路熱潮涌動,” 2012.8.17., <[http://news.xinhuanet.com/fortune/2112-08/17/c\\_112760560.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112-08/17/c_112760560.htm)>. (검색일: 2015.10.27.).

192) 延邊州政府, “延吉至羅先客運班線即將試運營,” 2012.8.15., <<http://www.yanbian.gov.cn/tplt/xl2012031611081743.jsp?infolid=20804>>. (검색일: 2015.10.27.).

100강 기업 68위를 기록하였다.<sup>193)</sup> 그리고 연변동북은 2012년 8월에 연길-라선 국제여객노선을 개설한 여세를 몰아 2014년 4월에는 연길-회령국제여객노선을, 2014년 6월에는 연길-삼지연 국제여객노선을 개통하였다.<sup>194)</sup> 국제버스여객노선을 개설한 또하나의 당사자인 길림우별은 지분이 다원화된 기업집단으로 전신은 1952년에 설립된 훈춘유일의 공기업인 훈춘시운수총공사(琿春市運輸總公司)였다. 1999년 직제개편으로 민영주식회사인 훈춘우통공사(琿春宇通公司)로, 그리고 2005년 3월에 길림우별이 되었다.<sup>195)</sup>

## (2) 잠정평가

연변동북의 사례는 북중 여객노선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여객노선의 안정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가지 사항이 주목되었다. 첫째는 2014년 4월에 개통된 연길-회령 국제여객노선과 관련된 협상이었다. 2014년 4월 9일 용정시 정부는 북한 청진시와 함경북도관광국과 중국 삼합-북한 회령 직행관광버스 개통 합의를 체결했다. 그리고 5월 13일 북한 평양관광총국의 허가를 받고, 5월 27일 합의의 첫 사업으로 회령 1일 관광 운행식을 용정시 삼합통상구에서 거행했다.<sup>196)</sup> 이는 2013년 이래 용정시 정부가 함경북도관

193) 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 “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簡介,” 2015.9.26., <<http://www.ybdongbeiya.com/about.asp?AboutID=1>>. (검색일: 2015.10.27.).

194) 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 “東北亞客運集團大事記,” 2015.9.26., <<http://www.ybdongbeiya.com/about.asp?AboutID=10>>. (검색일: 2015.10.27.).

195) 琿春信息網, “吉林宇別宇爾運輸集團有限公司,” 2014.4.23., <<http://hc.jl.cn/a/20140416/2543.htm>>. (검색일: 2015.10.27.).

196) 김군, “룡정-회령 1일관광 국제직행버스 운행,” 『연변일보』, 2014.5.28., <[http://www.ybrb.com/news\\_vew.aspx?id=27971](http://www.ybrb.com/news_vew.aspx?id=27971)>. (검색일: 2015.10.28.).

광국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인데, 그 핵심은 직행버스가 삼합통상구에서 통관수속을 밟은 후 차량환승 없이 직접 회령시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sup>197)</sup> 용정-회령 1일 관광코스의 출발역은 용정시와 연길시의 연변동북이었다.

둘째는 연길-훈춘-라선 국제버스노선의 전향적 변화였다. 연변동북이 2012년 8월에 개통한 연길-라선 국제여행객노선은 훈춘 권하통상구에 도착한 후 북한버스로 갈아타고 라선시까지 가야함에 따라 연길, 권하통상구, 라선통상구에서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연길시 관광국과 연변동북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라선특별시와 2년여간의 협상을 거쳐<sup>198)</sup> 2014년 8월 2일 연길-라선 직행관광버스노선을 개통했다. 연변동북은 동관광상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199)</sup>

“직통빠스를 리용하면 통상구에서 조선빠스를 갈아타지 않고 직접 라선시까지 갈수 있다. 이 국제관광직통빠스는 하루에 한차 운행할 계획이다. 연길-라선행 국제관광 직통빠스는 매일 아침 6시 동북아러객운수소에서 발차해 당일 라선시에 도착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선후로 라진항, 미술전람관, 외국도서전문서

197) 이전에는 회령에서 북한 측 관광버스로 환승했다. 김영화, “룡정-회령 1일 관광코스 곧 개통,” 『길림신문』, 2014.5.19., <[http://kr.chinajilin.com.cn/travel/content/2014-05/19/content\\_135634.htm](http://kr.chinajilin.com.cn/travel/content/2014-05/19/content_135634.htm)>. (검색일: 2015.10.28.); 연변인터넷방송, “룡정-조선 회령 1일 국제관광직통차 선로 27일 개통,” 2014.5.19., <[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37169&page=91&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yb&act=view&no=37169&page=91&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 (검색일: 2015.10.28.).

198) 강화, “연길-조선 라선 직행관광코스 개통,” 『연변일보』, 2014.7.28., <[http://www.iybrb.com/news\\_vew.aspx?id=29347](http://www.iybrb.com/news_vew.aspx?id=29347)>. (검색일: 2015.10.28.).

199) 연변생태문화예술협회, “연길-조선 라선 국제관광 직통빠스 8월 2일 개통,” 2014. 7.28., <<http://www.ybstwy.com/News/View.asp?newstype=1&num=12679&page=35>>. (검색일: 2015.10.30.).

점 등 여러 곳을 돌아보고 조선어린이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1박 2일로 설계된 관광직통버스 코스는 이튿날 해변가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오후 3시 연길로 돌아오게 된다. 관광객들은 3일 전 동북아려객운수집단 려행사에 와서 등록해야 한다. 려권이 있으면 려권과 2층 증명사진 두 장을 갖고와 수속하고 려권이 없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공안국에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과되면 유효기간이 30일인 통행증을 발급한다.”

셋째는 북한 백두산 삼지연 직행버스노선의 개통이었다. 연변동북이 연변모란봉관광투자자유한공사와 손잡고 2015년 7월 13일 개통식을 가졌는데, 연길-삼지연버스노선도 삼합-회령, 연길-라선노선과 같이 환승이 불필요했다. 연변동북의 박봉학 부총경리는 동노선의 특성을 “관광직통차가 개통된 후 전체 로정을 같은 빠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도중에 짐을 이동하고 환승할 필요가 없이 호텔에 도착한 후에 짐을 풀면 됩니다. 돌아올 때도 전체 과정을 우리 빠스로 오기에 매우 편리합니다.”라고 설명했다.<sup>200)</sup>

넷째는 길림성과 라선시 간의 국제관광비망록의 체결이었다. 2015년 6월 30일 중국 길림성 관광국은 북한 라선특별시 관광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국제관광항목의 개척과 관련된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중국 길림성 관광국 조효군 국장과 북한 라선특별시 관광국 조광선 국장 간에 체결된 이 비망록의 핵심은 다국관광 등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와 관련된 항목과 새로운 중-북 두만강 일일 관광 항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sup>201)</sup>

200) 연변라디오TV, “연길-조선백두산(장백산 동쪽비탈) 관광직통차 개통,” 2015.7.14., <<http://news.ybvtv.com/2015/0714/152417.shtml>>. (검색일: 2015.10.28.).

201) 홍옥, “길림성, 조선 라선시와 국제관광 비망록 체결,” 『길림신문』, 2015.7.8., <[http://www.jlxxwb.com.cn/travel/content/2015-07/08/content\\_159106.htm](http://www.jlxxwb.com.cn/travel/content/2015-07/08/content_159106.htm)>. (검색일: 2015.10.28.).

## 다. 대형슈퍼마켓: 라선강덕산업회사 사례

### (1) 투자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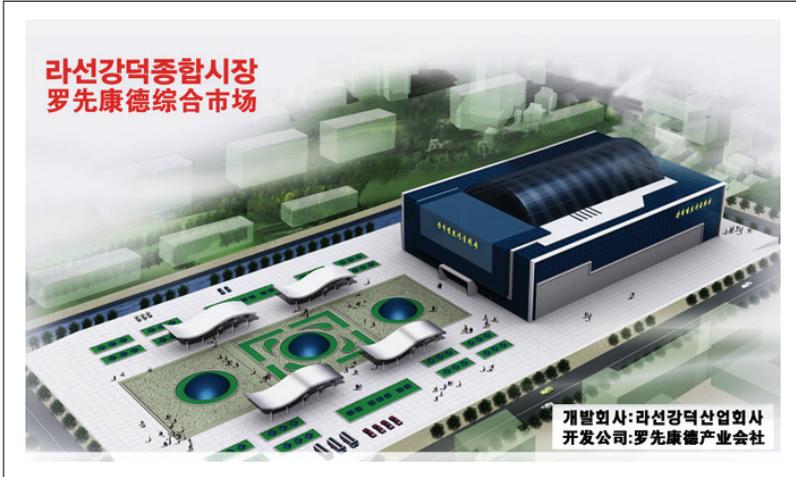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이하, 연변강덕)는 라선시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할 목적으로 라선강덕산업회사(이하, 라선강덕)를 설립했다. 연변강덕의 전신은 2004년에 설립된 컴퓨터회사인 연길강덕연건개발유한공사(延吉康德軟件開發有限公司)였다. 2009년 9월 등록자본 1,000만 위안으로 설립된 연변강덕은 2010년 대북투자업무 시작해 2011년 라진종합시장항목을 개진·확장하는 형태로 라선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총액은 8,000만 위안이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21일 ①상품판매, ②호텔, ③부동산 임대, ④화물 수출입 등의 업무영역을 가진 라선강덕의 설립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획득했다.<sup>202)</sup>

원래 연변조선족자치주 천우집단(天宇集團)의 투자였던 라진시장을 개진·확장하는 항목인 라선강덕종합시장은 그 조감도(<그림 III-18> 참조)에 따르면 총 건축면적 21,600m<sup>2</sup>,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매층의 건축면적은 평균 3,600m<sup>2</sup>였으며, ①1층에는 남새, 육류, 해산물, 과일, 마른 과일, 부식품, 익은 음식, 떡류, 특산품, 약재, 식당 등의 매장을, ②2층에는 복장, 신모자, 가방 등의 매장을, ③3층에는 복장, 이불, 베개, 옷감, 침구류 등의 매장을, ④4층에는 화장품, 일용백화, 문구, 장난감, 체육용품, 문화용품 등의 매장을, ⑤5층은 오락성으로 전자유희, 컴퓨터 방, 당구실 등의 시설

202) 羅先港, “康德簡介,” 2012.11.16., <[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5%85%B3%E4%BA%8E%E6%88%91%E4%BB%AC&wr\\_id=258](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5%85%B3%E4%BA%8E%E6%88%91%E4%BB%AC&wr_id=258)>. (검색일: 2015.10.27.).

을 두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다.<sup>203)</sup>

● 그림 III-18 라선강덕산업회사의 대형슈퍼마켓 조감도



출처: 羅先港, “羅先康德綜合市場商鋪租賃/銷售,” 2013.5.21.

(2) 잠정평가

2012년 8월 5일 라선강덕종합시장 건설이 착공된 이후 중국 북경의 라선항(羅先港: [www.luoxiangang.com](http://www.luoxiangang.com))은 2012년 9월 10일부터 건설공정의 진행상황 사진을 인터넷에 계속 올렸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신보(2012.8.30.)는 “중국의 연변네트워크과학기술센터가 투자해 이달 5일에 착공한 대형슈퍼마켓인 라선강덕산업회사백화점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 120명이 하루 7달러의 임금을 받고 24시간

203) 羅先港, “羅先康德綜合市場商鋪租賃/銷售,” 2013.5.21., <[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7%BD%97%E5%85%88%E6%96%B0%E9%97%BB&wr\\_id=383](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7%BD%97%E5%85%88%E6%96%B0%E9%97%BB&wr_id=383)>. (검색일: 2015.10.27.).

교대로 작업하고 있다.”<sup>204)</sup>고 설명했다. 그런데 ‘라선항’은 2013년 11월 21일 라선강덕종합시장공정이 준공되어 완성되었다는 사진을 끝으로 더 이상 라선강덕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sup>205)</sup>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2013년 외벽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내부공사로, 그리고 분양단계로 들어가는 수순의 진행이 예상되는데, 투자선 또는 북한 측과의 내부조정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장성택 숙청 이후 중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분양대상인 중국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거나 기존 라진시장과 신설되는 강덕종합시장과의 조정문제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다.

## 라. 대형상업단지: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 사례

### (1) 투자경과

연길의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이하, 연변왕복)는 대형 상업단지인 라선왕복특상업원(羅先旺福特商業園)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년 4월 1일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이하, 라선왕복)의 설립을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 연변왕복은 2014년 1월 등록자본 200만 위안으로 설립된 외상독자기업으로 대표는 초춘휘(招春暉)이며, 업종은 ①일용백화, 오금건재 등 다양한 상품의 판매, ②수출입 무역, ③부동산 투자 등인데, 그 모회사는 홍콩의 홍콩왕복특유한

204) 안윤석, “평양보다 생활 수준 높은 북한의 도시?”, 『노컷뉴스』, 2012.8.31., <<http://m.nocutnews.co.kr/news/963464>>. (검색일: 2015.11.16.)에서 재인용.

205) 羅先港, “2013年羅先康德綜合市場工程竣工完成,” 2013.11.21., <[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5%85%B3%E4%BA%8E%E6%88%91%E4%BB%AC&wr\\_id=396](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5%85%B3%E4%BA%8E%E6%88%91%E4%BB%AC&wr_id=396)>. (검색일: 2015.10.27.).

공사(香港旺福特有限公司)였다.<sup>206)</sup>

홍콩왕복특유한공사 또한 외상독자기업으로 그 주주는 이탈리아, 도미니카, 미국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산하에 연길시에 투자한 연변왕복과 북한에 투자한 ①라선왕복, ②대동은행, ③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가 소속되어 있었다. 이중 동대은행(東大銀行)은 북한 조선중앙은행의 영업허가증을 받고 영업 중이었고, 라선왕복의 라선왕복특상업원은 <그림 III-19>의 조감도에서 보듯이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가 이미 임차한 라선시 안화동 20,000m<sup>2</sup>의 토지(<표 III-31> 참조)에 건축면적 50,000m<sup>2</sup>로 현재 건설 중에 있었다.<sup>207)</sup>

●그림 III-19 라선왕복특상업원 조감도



출처: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1.16.)

206) 琿春招聘網, “延邊旺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 <<http://zp.hc433.com/company.php?id=797>>. (검색일: 2015.10.31.);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0.31.).

207)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0.31.)

표 III-31 라선시인민위원회의 토지리용증 주요 내용

구분	소제목	내용
1. 임차자 이름	기업회사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
	국적	도미니카
	법정주소	라선시 안화동
2. 임차토지내용	위치	라선시 안화동
	면적	20,000m <sup>2</sup>
3. 용도		보석세공품 생산·판매
4. 임차기간		2013. 5. 20.~2063. 5. 7.
5. 건설완공기일		2020. 5. 20.
6. 리용증등록란	등록날짜	2013. 5. 20.
	토지등록번호	20-233
	면적	20,000m <sup>2</sup>
	등록내용	임대
7. 변경란		-
8. 토지등록기관		An Organization of Land Registration

출처: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1.16.).

## (2) 금광개발과 라선왕복특상업원

여기서 주목되는 사업은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의 금광개발사업이었다. 즉, 라선왕복특상업원이 자리 잡은 위치는 이탈리아 우나포르떼유한회사가 확보한 토지 위였다는 점이였다. 도미니카 국적의 이탈리아 우나포르떼유한회사는 <표 III-32>에서 보듯이 금, 은 보석세공품의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라선시 안화동에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를 설립했고, 그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는 보석세공품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라선시 안화동 토지를 북한으로부터 임대받았고, 연변왕복은 그 토지 위에 라선왕복특상업원을 건설하고 있다. 이는 라선왕복 상업단지의 중심이 보석세공품 판

I

II

III

IV

매이고, 연변왕복은 그 라선왕복특상업원의 분양과 함께 홍콩왕복 특유한공사의 북한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초춘휘(招春暉)가 연변왕복과 라선우나포르떼유한 회사의 책임자이며,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 기업등록증 취득(2012.12.) → 연변왕복 설립(2014.1.) → 라선왕복 중국 상무부 비준(2014.4.)으로 연결되는 업무흐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표 Ⅲ-32 라선시인민위원회의 기업등록증 주요 내용

구분	내용
01. 등록증 번호	3-2-222
02. 기업명칭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
03. 기업소재지	라선시 안화동
04. 법정대표	초춘휘(招春暉)
05. 국적	도미니카
06. 등록자본	4,500,000유로
07. 기업형식	외국인기업
08. 당사자	우리측: 상대측: 이탈리아 우나포르떼유한회사
09. 업종	금, 은 보석세공품 생산 및 수출
10. 경영기간	50년
11. 일자	2012. 11. 28.

출처: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1.16.).

그런데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광은 훈춘자 금광업유한공사(琿春紫金礦業有限公司)가 채굴하고 있는 광맥과 동일선상에 있는 금맥으로 라선우나포르떼유한회사는 70% 채굴 권<sup>208)</sup>을 50년 동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표 Ⅲ-33>

에서 보듯이 자원개발리용허가증과 국토개발승인서상에서 라선시 선봉지구 하회동에 소재한 저품위금정광노천채굴장을 운영하는 기관은 라선모란무역회사였고, 국토개발승인내용은 “2014년 2월 20일에서 2015년 2월 20일까지” 등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에 이탈리아 우나포르테유한회사 사장 윌리암 조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sup>209)</sup>

● 표 III-33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국토개발 승인서 내용

구분	내용
01. 승인번호	17
02. 일자	2012. 5. 21.
03. 대상명	저품위 금정광 노천채굴장
04. 대상부류	2부류
05. 대상특성	신설
06. 대상위치	라선시 선봉지구 하회동
07. 신청기관	라선모란무역회사
08. 상급기관	지대 기업국
09. 운영기관	라선모란무역회사

출처: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11.16.).

208) "羅先旺福特: 朝鮮唯一建材商業園區, 輻射朝鮮全境," <<http://tw.jiapujidi.com/content-591862.html>>. (검색일: 2015.10.31.).

209)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 참가자들의 반향," 『조선신보』, 2014.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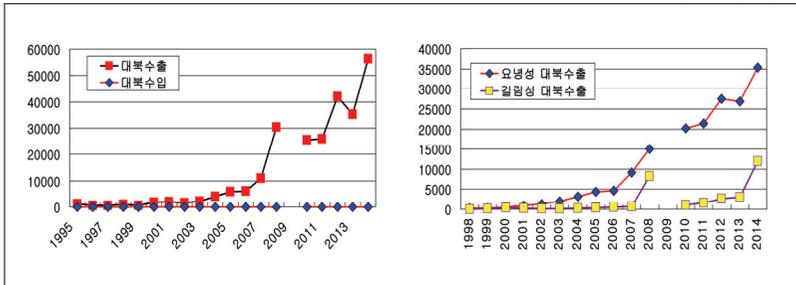
## 마. 가구: 조선영광가구합영회사 사례

### (1) 투자경과

가구(HS94)는 거의 대북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수출이 1,000만 달러대에 이른 것은 2007년이였다. 그리고 2008년 3,000만 달러대를, 2012년 4,000만 달러대를, 그리고 2014년 5,000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중국의 대북 가구수출은 요녕성이 독보적 위치를 고수하고 길림성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녕성은 2008년에 1,000만 달러대의 대북수출을, 길림성은 2014년에 1,000만 달러대의 대북수출을 기록했다(<그림 III-20> 참조).

●그림 III-20 가구(HS94)의 대북수출입과 길림성(1995~2014)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HS 4단위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길림성의 가구 품목은 기타가구(HS9403), 매트리스·침구(HS9404), 램프·조명기구(HS9405) 등인데, 이중 주목되는 길림성 가구품목은 2008년 처음으로 100만 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하고 2014년 700만 달러대를 돌파

한 기타가구(HS9403)였다(<표 III-34> 참조). 기타가구(HS9403)를 HS 6단위로 세분해 보면, 2014년 길림성은 ①가구부분품(HS940390) 418만 달러, ②플라스틱제가구(HS940370) 53만 달러, ③기타목제 가구(HS940360) 76만 달러, ④침실용목제가구(HS940350) 79만 달러, ⑤기타금속제가구(HS940320) 47만 달러, ⑥주방용목제가구(HS940340) 12만 달러 등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춘시의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이하, 길림우의)는 2007년 4월 29일 가구와 건재생산을 목적으로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 경제협조국과의 합영인 조선영광가구합영회사의 설립에 대해 상무부 비준을 획득했다. 합영회사의 ①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은 218.68만 달러로, ②지분은 50:50으로 중국 측은 설비, 원재료 109.34만 달러를, 북한 측은 토지, 설비, 건물 등 109.34만 달러를 출자했는데, ③경영기간은 10년이였다.<sup>210)</sup> 길림우의는 평양주재 길림성무역종합대표처(吉林省駐平壤貿易綜合代表處)가 중국에 설립한 무역공사로 2005년 중국 길림성 공상행정관리국(吉林省工商行政管理局)이 비준하였다.<sup>211)</sup>

그리고 평양주재 길림성무역종합대표처는 1994년 중국대외경제 무역부와 조선정부의 비준으로 설립된 중국 길림성정부의 무역대표부로, 주요 업무는 시장개척, 정보수집, 연락알선, 경제무역협작 촉진 등이었다. 동 무역대표부에는 길림성 상무청을 대신하여 국유기업인 길림성천화대외경제무역집단유한공사(吉林省天和對外經

210)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朝韓樂光家具合營會社的批复』, 商合批 321号, 2007.4.29.

211) 58同城, “吉林省友誼進出口有限公司 紹介,” <<http://qy.58.com/19194148566022/>>. (검색일: 2015.10.30.).

표 III-34 길림성의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가구품목(2003~2014)  
(단위: 천 달러)

연도	품목수	순위
2003~2007	0	-
2008	1	①기타가구(HS9403) 150만 달러
2010	0	-
2011	0	-
2012	1	①기타가구(HS9403) 108만 달러
2013	1	①기타가구(HS9403) 141만 달러
2014	3	①기타가구(HS9403) 710만 달러 ②매트리스·침구(HS9404) 239만 달러 ③램프·조명기구(HS9405) 193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濟貿易集團有限公司), 대형기업인 길림양유식품수출입(집단)유한공사(吉林糧油食品進出口[集團]有限公司), 대형기업인 중국제일자동차집단수출입공사(中國第一汽車集團進出口公司), 국유기업인 길림성구태시외무총공사(吉林省九台市外貿總公司)의 4개 기업<sup>212)</sup>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가구산업 진출은 쉽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 간의 가구 합영이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1993년 6월이었다. 중국 요녕성 심양국가기계설치판매공사(Shenyang Nation Machine Installation Sell Corporation)가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

212) 동 기업들에 대해서는 b2b98企業網, “吉林省天和對外經濟貿易集團有限公司,” <<http://www.b2b98.net/qiye/shengshi/jilin/1381.htm>>. (검색일: 2015.10.30.); 林糧油食品進出口[集團]有限公司, “集團簡介,” <<http://www.jlcofco.com/index.php?id=101>>. (검색일: 2015.10.30.); 中國第一汽車集團進出口公司, “關於集團,” <[http://www.faw.com.cn/gyjt\\_index.jsp?needle=jtgl](http://www.faw.com.cn/gyjt_index.jsp?needle=jtgl)>. (검색일: 2015.10.30.); b2b98企業網, “吉林省九台市外貿總公司,” <<http://www.b2b98.net/qiye/shengshi/jilin/117.htm>>. (검색일: 2015.10.30.) 등의 홈페이지와 사이트 참조.

협조국과 합영계약을 체결하고<sup>213)</sup> 9월에 합영회사를 설립하였으나 1차 핵위기의 여파로 합영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외국과의 합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자 1997년부터 중국 길림성중상대외무역수출입공사와 거래를 시작했다.<sup>214)</sup> 2004년 4월, 길림성중상대외무역수출입공사(China National Foreign Trade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가 북한의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과 합영계약을 체결<sup>215)</sup>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길림신문이 전하는 당시 합영회사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sup>216)</sup> 그런데 중국 측 합영당사자가 중상대외무역수출입공사에서 길림우의로 변경된 연유는 그것이 인수인지,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합영무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간 2동에 위치한 영광가구 합영회사는 조선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과 길림성 중상대외무역수출입총회사와의 공동의 노력과 투자로 설립된 합영회사로서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회사는 3만 2,000여 m<sup>2</sup>의 부지면적에 각종 고급 가구제품들과 외장재, 수지창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마감 건재 생산기지로서 생산과 상업봉사망을 그쁘히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인 가구발전추세와 마감 건재류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영광가구연구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수요자들의 요구와 제품의 질을 과학

213)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Yonggwang Furniture Joint Company,” (Foreign Trade of the DPRK, January 1995), pp. 26~27.

214) “<운전기사 출신이 이끄는 북 최고 가구회사>영광가구, 북 가구시장 장악...2012년 세계시장진출목표,” 『연합뉴스』, 2008.2.7.

215)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Attractive Furniture,” (Foreign Trade of the DPRK, April 2004), pp. 28~29.

216) “영광가구 합영회사 소개,” 『길림신문』, 2006.5.20., <[http://www.jlxcwb.com.cn/econ/content/2006-05/20/content\\_62577.htm](http://www.jlxcwb.com.cn/econ/content/2006-05/20/content_62577.htm)>. (검색일: 2015.10.31.).

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비품과 살림집 고급가구는 물론 호텔 및 급양 사업 봉사망들에 대한 현대적인 건축장식을 비롯하여 한해에 1만 8,000여 점의 가구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3,000여 톤의 외장재와 2만여 m<sup>2</sup>의 수지창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주문 봉사해 드리고 있다.”

## (2) 잠정평가

1993년 9월 합영회사가 된 이후 영광가구합영회사는 북한의 무역(Foreign Trade of DPRK)이라는 월간지에 자주 소개되는 회사로 등장했다(<표 III-35> 참조). 이는 합영회사 사장인 신남철이 북한의 건설건재공업성 운수부문 운전수였으며, 재일동포 출신이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으로 발탁된 그의 이력이 한몫하였다.<sup>217)</sup> 또한 합영회사가 평양주재 길림성무역종합대표처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07년 후반에서 2008년 초반 무렵 합영회사는 이미 “동평대극장, 평양체육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단위들에 쓰이는 가구, 실내장식품 등을 보장”<sup>218)</sup>하는 회사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무역지에 대한 소개는 2009년을 끝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17) 자유아시아방송, “북 최대 가구회사 재일동포 출신이 운영,” 2014.6.16.,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furniture-06162014164101.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furniture-06162014164101.html)>. (검색일: 2015.10.30.).

218) 안윤석의 평양통신, “북한의 최고 가구 영광가구 이야기,” 2008.2.8., <<http://blog.naver.com/ysan777/70027357793>>. (검색일: 2008.6.4.).

표 III-35 Foreign Trade(貿易)와 영광가구합영회사(1995~2014)

연도	페이지	제목
1995.1.	26~27	Yonggwang Furniture Joint Venture Company
1999.2.	18~19	Attractive Furniture
2001.2.	16~17	家具類
2002.1.	-	いっそろ潤いのある生活を
2003.1.	16~17	家具
2004.4.	28~29	Attractive Furniture
2005.4.	14~15	Superior Quality Competitive Price
2008.4.	30~31	Promising Furniture Producer
2009.4.	19~20	A Full Range of Furniture

출처: Foreign Trade of DPRK와 貿易(일어판), 2002.1.

그 이후 합영회사에 대한 주요 보도는 2012년 3월 14일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들의 영광가구합영회사 방문건과 2014년 6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의 영광가구합영회사 납품건이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의 방문 시 “1993년에 설립된 영광가구합영회사는 현재 350명의 직원에 1개 공장과 2개의 직영판매점을 운영해 연 매출액 2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sup>219)</sup>라는 내용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4년 5월 재개장한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구들이 모두 영광가구합영회사 제품이며, 마식령스키장호텔, 평양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에도 납품했다.”<sup>220)</sup>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등을 종합할 때, 영광가구합영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9)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駐朝鮮使館外交官參觀中朝合營業光家具會社,” 2012. 3.16., <[http://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1206x2\\_676424/t915141.shtml](http://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1206x2_676424/t915141.shtml)>. (검색일: 2015.10.31.).

220) “北 건설붐에 가구업체 급성장... “대외시장에도 진출,” 『연합뉴스』, 2014.6.12.,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2/0511000000AKR20140612164200014.HTML>>. (검색일: 2015.10.31.).



## 7. 전문지식활용형 투자

투자는 무역과 달리 현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풍부한 현장경험이 중요해 해당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투자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개혁·개방이 부족한 폐쇄사회이고 경제난이 심한 국가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게도 상대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 길림성의 경우 대북투자의 상당부분이 처음 진출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표사무소나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을 보유한 회사도 적지 않았다. 달리 말해 북한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전문지식활용형 투자의 조작적 정의는 ‘대표사무소를 포함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을 보유한 길림성 기업’으로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 비준으로 북한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①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②천지집단유한공사(天池集團有限公司), ③길림성양천가제대외경제합작유한공사(吉林省朗天嘉際對外經濟合作有限公司), ④길림성장풍공무유한공사(吉林省長風工貿有限公司) 등이며(<표 III-36> 참조),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을 보유한 회사는 ①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②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③길림호융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④도문흄배물자무역공사(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⑤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⑥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⑦천지집단유한공사(天池集團有限公司), ⑧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⑨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⑩송원시길성중앙

수출입유한공사(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 등인데(<표 III-37> 참조) 주목되는 회사는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였다.

표 III-36 북한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길림성기업(2003~2015.8.)

비준 일자	투자 지역	대표사무소명	설립목적
2006.1.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평양판사처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平壤辦事處)	무역·왕래
2012.9.	장춘시	길림성양천가제대외경제합작유한공사 조선 라선판사처(吉林省朗天嘉際對外經濟合作 有限公司駐朝鮮羅先辦事處)	중소공동관리위원회와의 연계강화
2013.7.	화룡시	천지집단유한공사평양판사처 (天池集團有限公司平壤辦事處)	공사 조선수출입무역 지원
2014.3.	장춘시	길림성장풍공무유한공사조선판사처 (吉林省長風工貿有限公司駐朝鮮辦事處)	시장개척

출처: 저자 작성.

표 III-37-1 전문지식활용형 대북투자: 해화무역집단  
(2003~2015.8.)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비준 일자	투자 품목
도문시: 해화 무역 집단 유한 공사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 (平壤出口物資運輸合作會社)	2005.9.	물자 운송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평양 판사처(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平壤辦事處)	2006.1.	사무소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 (平壤消防器材合營會社)	2011.7.	소화기
	조선은해합영회사(朝鮮銀海合營會社)	2013.5.	철광석

I  
II  
III  
IV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비준 일자	투자 품목
도문시: 해화 무역 집단 유한 공사	도문시: 연변해화수출 입무역유한공사(延邊 海華進出口貿易有限 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	2005.9.	플라 스틱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2007.3.	공업 규소
	도문시: 해화무역집단 유한공사(海華貿易集 團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2013.12.	공업 규소
		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	2013.12.	플라 스틱
		해항합영회사(海港合營會社)	2013.12.	청진항 부두

출처: 저자 작성.

표 Ⅲ-37-2 전문지식활용형 대북투자: 기타기업(2003~2015.8.)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비준 일자	투자 품목
반석시: 길림 호용 집단 유한 공사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 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 集團有限公司)	조선훙국제광업유한책임 공사(朝鮮昊融國際鑛業有 限責任公司)	2006.7.	금광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鑛業會社)	2008.4.	금광
	반석시: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鑛業會社)	2014.4.	금광
도문시: 도문흙배물자무역공사 (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청흙합작회사(淸鑫合作會社)	2006.12.	페인트
		삼복운수기술합작회사 (三福運輸技術合作會社)	2006.12.	상업
용정시: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 (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라선봉정회사(羅先峰程會社)	2011.7.	기름· 연료
		라선석재합영회사 (羅先石材合營會社)	2012.6.	석재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투자기업명	비준일자	투자품목
연길시: 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 (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연변성신[라선]건재창 (延邊誠信[羅先]建材倉)	2012.11.	콘크리트
		평양북방건재합영공사 (平壤北方建材合營公司)	2013.5.	시멘트
화룡시: 천지집단유한공사 (天池集團有限公司)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 (平壤國際投合營公司)	2013.5.	광산설비
		천지집단유한공사평양판사처 (天池集團有限公司平壤辦事處)	2013.7.	사무소
연길시: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	연길시: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 (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2013.7.	모래자갈
	연길시: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 (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라진시장합영회사(羅津市場合營會社)	2013.7.	종합시장
연길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연길시: 연길권연공장(延吉捲煙倉)	대동강연초유한공사(大同江煙草有限公司)	2000.4.*	권연생산
	연길시: 연길권연공장(延吉捲煙倉)	라선신흥연초공사(羅先新興煙草會社)	2001.10.*	담배
	연길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2008.1.	담배
부여시: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		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羅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	2013.6.	농산품
		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羅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	2014.1.	농산품
		라선시길성동아회사 (羅先市吉盛東亞會社)	2014.7.	맥주

출처: 저자 작성(\*2002년 7·1조치 이전에 투자한 기업이라 조업일을 기준).

I

II

III

IV

## 가.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투자사례

### (1) 투자경과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이하, 길림송화)와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연변해화)의 법정대표는 주의명(朱毅明)인데, 주의명 이사장은 길림송화 또는 연변해화의 이름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했다. 주의명이 제일 먼저 상무부 비준을 득한 것은 2005년 9월 12일로 연변해화의 청진금속합작회사와 길림송화의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였다. 이후 길림송화의 평양판사처(2006.1.6.), 연변해화의 청진수성천합작회사(2007.3.8.), 길림송화의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2011.7.4.), 길림송화의 조선은해합영회사(2013.5.15.)를, 그리고 2013년 12월에는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청진수성천합작회사(12일), 청진금속합작회사(12일), 해향합영회사(13일)를 비준받았다.

### (2) 연변해화: 청진금속합작회사와 청진수성천합작회사 사례

2005년 9월 중국 정부의 비준을 획득한 청진금속합작회사는 연변해화가 북한 청진시인민위원회와 합작한 회사로 중국 측이 98.7만 달러를, 북한 측이 51.3만 달러를 투자했다. 청진금속합작회사의 설립은 중국 도문중소기업신식망<sup>221)</sup>에 따르면 2002년이고 생산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연결재료, 생철 등으로 목표시장은 중국과 북한이었다. 그런데 북한 측 노동신문<sup>222)</sup>에 따르면 청진금속합

221) 中國中小企業圖們信息網, “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2008.5.28., <<http://www.tmsme.gov.cn/ReadNews.asp?NewsID=706>>. (검색일: 2014.10.10.).

222) “청진금속합작회사 조업식 진행,” 『로동신문』, 1998.4.29.

작회사가 조업한 것은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1998년 4월 16일이 었다. 2007년 9월 15~16일 기간 조선주재 유효명(劉曉明) 중국 대사가 청진금속합작회사를 시찰한 적이 있었고,<sup>223)</sup> 2013년 12월 12일에는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다시 받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청진금속합작회사가 조업하였다. 원료공급 계통으로부터 모든 생산공정들이 훌륭히 꾸러진 이 회사가 조업함으로써 질 좋은 금속가공품과 주물품들을 다량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6일 현지에서 조업식이 있었다. 청진시행 정경제위원회 박춘만 위원장 등 관계부서 일군들과 회사종업원들, 중국손님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2007년 3월 중국 정부의 비준을 획득한 청진수성천합작회사는 공업규소를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연변해화가 북한 청진시민인위원회와 합작한 회사로 ①등록자본은 103.5만 달러, ②투자총액은 156.6만 달러이며, ③중국 측은 78.3만 달러의 설비를, 북한 측은 78.3만 달러의 토지 등 실물을 50:50으로 투자했고, ④경영기간은 10년이였다.<sup>224)</sup> 청진수성천합작회사는 2009년 10월 26~27일 기간 함경북도를 방문한 길림성 한장부(韓長賦) 성장이<sup>225)</sup> 시찰한 적이 있었고, 2013년 12월 12일에는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223) 中國新聞網, “中國駐朝大使: 貫徹‘外交爲民’宗旨維護僑胞權益,” 2007.9.19., <<http://www.chinanews.com/yzhrxw/news/2007/09-19/1030511.shtml>>. (검색일: 2014.10.10.).

224)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清津水成川合作會社的批復』, 商合批 182号, 2007.3.12.

225) 연변인터넷방송, “길림성정부대표단 조선 친선방문,” 2009.10.29., <[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gn&act=view&no=16061&page=17&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http://www.ybrt.cn/board.php?board=news_gn&act=view&no=16061&page=17&search_mode=&search_word=&cid=1&html=&item=&contents=)>. (검색일: 2015.11.3.).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다시 받았다. 그리고 2014년 7월 2~4일 기간에는 유홍재(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청진수성천합작회사를 참관하였다.<sup>226)</sup>

### (3) 길림송화의 대북투자 사례

길림송화의 대북투자는 다음 세 가지가 확인되었다. 첫째는 2005년 물자운송을 위해 조선전진무역회사(朝鮮前進貿易會社) 간의 합작으로 평양에 설립된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로 중국 측이 120만 달러를 투자했고, 둘째는 2011년 소화기 생산을 목적으로 북한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산하 조선유호연합회사(朝鮮有好聯合會社) 간의 합영으로 평양에 설립된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로 중국 측이 215.9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셋째는 철광개발과 함께 철정광분 판매를 목적으로 2012년에 북한정부의 비준으로 북한에 설립하여 2013년 5월에 중국 상무부 비준을 득한 조선은해합영회사로 중국 측이 365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그런데 해화무역집단 홈페이지가 전하는 길림송화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sup>227)</sup>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는 해화무역집단 소속회사로 국외 무역, 국내무역, 관광, 물류 등을 통합·일체화한 기업집단으로 국가 상무부 및 길림성정부의 중점 외무기업이며 2005년에 ISO9001인증시스템을 통과하였다. 러시아, 북한, 일본, 필리핀

226) 中華人民共和國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使館, “劉洪才大使赴朝鮮羅先特別市和咸境北道考察,” 2014.7.5., <<http://kp.china-embassy.org/chn/sgxx/sghd/t1171809.htm>>. (검색일: 2015.11.3.).

227) 海華集團, “企業簡介,” <<http://nacec.cn/excec/spu/004515?page=about>>. (검색일: 2014.10.10.).

등의 국가와 무역거래를 진행하며, 주요 수입상품은 생철, 강재, 무연탄,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출상품은 코크스제련용 석탄, 코크스, 농업부산물, 오금화공, 기계설비 등이며 연 수출입액은 2억 달러를 능가한다. 집단공사는 길림성 장춘, 도문, 훈춘, 요녕성 단둥과 동향에 자회사가 있으며, 북경과 북한 평양에 판사처를 가지고 있다. 도문공사는 유연탄, 목재, 식량을 취급하며, 4갈래의 철로전용선, 4개의 저장기지, 1개의 공용해관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훈춘공사는 석탄광, 동향공사는 50,000m<sup>2</sup>의 항만부지에 화물, 선광, 선탄설비와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연 화물처리 능력은 100만 톤 이상이다.”

#### (4) 해화무역집단: 해항합영회사 사례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이하, 해화무역집단)는 2013년 12월 13일 청진항 3·4호 연접선 부두 공동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해항합영회사의 설립을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 해항합영회사는 ①중국 해화무역집단과 북한 조선항만총회사와의 합영으로, ②투자총액은 1,556만 유로로, ③북한 측은 3,180m<sup>2</sup> 부두와 4,000m<sup>2</sup> 노천화물화차장에 대한 30년간의 임대비 612만 2,160유로를 출자하여 자본금의 39.54%를 차지하고, ④중국 측은 하역설비, 운수도구, 항구건설기재 등 943만 7,840유로를 출자해 자본금의 60.46%를 차지하며, ⑤경영기간은 30년으로 규정해 중국 측이 청진항 3·4호 부두 잠정 30년 사용권을 획득했다.<sup>228)</sup>

그런데 중국의 청진항 진출협상은 2007년 12월 도문시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어 2008년 6월 25일 도문시 정부와 북한 청진철도국

228) “연변해화집단 조선항만총회사해항합작경영회사 설립,” 『연변일보』, 2012.9.6.,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55959.html>>. (검색일: 2015.11.16.).

간에 청진항이용에 관한 <중국 도문-북한청진-중국 장삼각지역 내수무역 초국경 철도운수협약(中國圖們-朝鮮淸津-中國長三角地區內貿跨境鐵路運輸協議)>가 서명되었다. 그리고 ①2009년 10월에는 연변해화무역유한공사(해화집단 전신)와 조선영흥무역회사(朝鮮永興貿易會社) 간에 북한 남양-청진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철도운송 계약서가, ②2009년 12월에는 조선험만총회사(朝鮮港灣總會社)와의 화물조직 협의서 및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朝鮮外國船舶代理會社)와의 북한 경내 및 항구 화물대리운송 협의서가, ③2010년 5월에는 조선영흥회사와의 남양-청진철도 투자계약서 및 청진항 3·4호 부두 개조(항구 임대기간 15년) 계약서가, ④북한 합영법의 개정 이후인 2012년 9월 1일에는 평양에서 해화무역집단과 조선험만총회사 간에 해항합영회사 설립에 관한 정식계약서가 서명되었다. 중국 측 경영주체인 해화무역집단은 2014년 9월 23일 조선험영투자위원회로부터 정식 영업허가증을 발부받았는데, 2014년 12월 기준 이미 6,000만 위안을 투입해 청진항에 필요한 3.6만 m<sup>2</sup> 부두지면 안정화작업, 195량의 통도전용객차 배정, 항구기중기궤도 및 케이블 부설, 컨테이너와 잡화겸용 40톤 급 기중기제작 등을 마무리했다.<sup>229)</sup>

## (5) 잠정평가

때로는 길림송화로 활동하는 해화무역집단은 길림성기업 중 가

229) 延邊信息港, “海華集團與朝港灣總會社合營淸津港,” 2012.9.5., <<http://www.hitteson.com/xinwen/1589-cn.html>>. (검색일: 2015.11.3.); 吉林省政府網, “關於綜合利用淸津港開展陸海聯運的建議(133号),” 2014.12.1., <[http://old.jl.gov.cn/zwgk/yatabl/rddbgy/2011\\_44711/201412/t20141201\\_1809149.html](http://old.jl.gov.cn/zwgk/yatabl/rddbgy/2011_44711/201412/t20141201_1809149.html)>. (검색일: 2015.11.10.).

장 많은 대북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그 배경은 북중 물류 거점인 도문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대북수출입 노하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해화무역집단에 대해 도문월궁가당건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230)</sup>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부지면적은 12만 m<sup>2</sup>, 건축면적은 2.8만 m<sup>2</sup>이다. 4개의 철도전용선과 완전한 하역설비를 가지고 있다. 연 저장운반화물은 40만 톤 이상에 달하고 있다. 총 등록자본은 1억 위안이고 공사의 주요 사업은 북한, 러시아 무역을 위주로 강재, 석탄, 코크스, 식량, 디젤자동차 등이다. 자동차 수출경영권, 유탄유 등 각종 상품 수출입 전문경영권(專營權), 변경소액 무역권을 가지고 있다. 성 내에서 대북무역을 크게 하고 있는 수출입기업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 석탄수출 최대기업으로 연 석탄수출은 30여 만 톤에 달한다. 연 수출입무역 총액은 1.1억 달러이며, 연 납입 각종세금은 8,000여 만 위안이다. 공사는 차례로 도문시 납세선진단위, 연변주 수출외화선진단위, 길림성 중점대북무역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나.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투자사례

### (1) 연길권연공장과 장춘권연공장의 합병

공사 홈페이지에 의하면<sup>231)</sup>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이하, 길림연초)는 2006년 12월 1일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의 정

230) 圖們月宮街黨建(도문월궁가당건설), “圖們市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http://yg.tmdj.gov.cn/user/index.shtml?menu\\_id=11&mode=view\\_content&page=1&is\\_top=0&news\\_content\\_id=573](http://yg.tmdj.gov.cn/user/index.shtml?menu_id=11&mode=view_content&page=1&is_top=0&news_content_id=573)>. (검색일: 2015.11.10.).

231)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公司簡介,” <<http://www.jilintobacco.com.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12>>. (검색일: 2015.11.4.).

식비준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연길권연공장(延吉卷煙廠)과 장춘권연공장(長春卷煙廠)이 연합재편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길림연초는 연길권연공장, 장춘권연공장, 연길권연공장이 북한에 투자한 대동강연초유한공사와 라선신흥연초회사, 그리고 길림연초가 투자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등 5개의 기업을 산하에 두게 되었다. 공사의 설립식은 2007년 3월 1일 연길에서 거행되었다.<sup>232)</sup> 길림연초의 대표브랜드는 장백산이며, 2014년 상반기에는 장백산(금향괴), 장백산(황인삼), 장백산(호운)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공사의 생산경영상황은 아래와 같다.

“연길권연공장은 이전을 위한 기술개조 공사는 2006년 4월에 시작해서 2008년 8월에 전체적인 이전을 완성했으며, 항목 총 투자액은 13억 위안이 소요되었다. 장춘권연공장은 이전을 위한 기술개조 공사는 2008년 4월에 시공하여 2010년 8월에 전체적인 이전을 완성했으며, 항목 총 투자액은 13억 위안이 소요되었다. 개선 이후의 길림연초공업 생산능력은 150만 상자에 달한다. 2013년 국내 권연생산량은 97만 상자로 동기대비 4만 상자 증가되고 4.3% 상승하였다. 권연판매량은 95.9만 상자로 동기대비 4.2만 상자 증가되고 4.6% 상승하였다. 판매수입 143.9억 위안을 달성하여 동기대비 7.2억 위안 증가되었고, 5.3% 상승하여 세금과 이윤 85.7억 위안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5.7억 위안 증가하고 7.1% 상승되었다. 그 중 세금 69.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3억 위안 증가되고 3.4% 상승되었다. 2011년 회사는 국가로부터 ‘국제시장확장선진단위(拓展國際市場先進單位)’ 칭호를 수여받았다. 2013년 경외에 장백산권연 18.1만 상자를 수출, 동기대비 2만 상자 증가하고 12.4% 상승되어 중국 연초 최대의 역외 판매 브랜드로 되었다. 2013년도에 업계의 국제시장 확장 업무회의

232)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 연길서 설립,” 『길림신문』, 2007.3.6.

에서 4명의 직원이 ‘업계국제시장확장상(行業國際市場拓展獎)’을 받았다.”

## (2) 연길권연공장의 투자사례

대동강연초유한회사(이하, 대동강연초)는 1998년에 합영회사를 설립했으며,<sup>233)</sup> 2000년 4월 27일 조업하였다. 합영회사는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으며 연길권연공장과 조선해양무역회사(朝鮮海洋貿易會社)가 합자하여 건설한 권연생산기업으로 투자총액은 120만 달러, 중국 측은 61.2만 달러 생산설비투자로 지분 51%를 획득했다. 경영기간은 10년인데, 2008년 다시 10년을 연장하였다. 회사의 부지면적은 5,100m<sup>2</sup>, 직원은 120명(중국 측 직원 9명), 연간 권연생산능력은 15억 개였다. 2013년 권연생산판매량은 3만 상자(한 상자 50보루)로 전년대비 50% 증대되었다. 그리고 고급담배 대동강(경)과 호랑이(경), 중급담배 일출(경), 저급담배 번개(연)와 설경(연) 등이 공사의 주요 권연브랜드였다.<sup>234)</sup>

라선신흥연초회사(이하, 라선신흥)는 1999년부터 기획·건설을 시작, 2001년 6월 7일에 시공대가 정식으로 북한에 투입되어 공장 건물 건설 및 기초업무를 시작하였다. 공장의 제1기 공정은 2001년 10월 1일에 준공되었고 10월 18일부터 정식 개업했는데 모두 134일이 걸렸다.<sup>235)</sup> 회사는 북한 라선특별시에 있으며 길림연초의 전신

233) “옌지(延吉)담배공장 북한진출 본격화,” 『한국경제신문』, 2001.11.20.

234)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吉林烟草工業有限責任公司境外卷烟生產企業簡介,” <<http://www.jilintobacco.com.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48>>. (검색일: 2015.11.4.); 煙草網, “大同江煙草有限公司,”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4>>. (검색일: 2015.11.4.).

235) 延吉卷煙廠, “延吉卷煙廠在朝獨資企業隆重開業,” 『期刊平台』, 2001.10., <<http://qikan.tobaccochina.net/qkzz/prime/page.aspx?id=3316>>. (검색일: 2015.11.6.);

인 연길권연공장이 독자기업의 형태로 건설한 권연생산기업으로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은 305만 달러(2009년경 250만 달러)였다. 회사의 부지면적은 8,400m<sup>2</sup>, 직원은 54명(중국 측 직원 17명), 연간 권연생산능력은 15억 개였다. 고급담배 출구, 중급담배 라진(경), 저급담배 풍수(경) 등이 공사의 주요 권연브랜드였다.<sup>236)</sup>

### (3)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투자사례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이하, 평양백산)는 2007년 1월 합병 의향서를 체결했고, 중국 연초전매국(2007.11.6.)과 상무부(2008.1.2.)의 비준을 받아 2008년 4월 23일 조업하였다.<sup>237)</sup> 합병회사는 북한 평양시 용성구에 있으며, 길림연초가 조선연초수출입상사(朝鮮煙草進出口商社)와 합자하여 건설한 권연생산기업으로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은 400만 유로(639만 달러, 2008.4.23. 환율 기준), 중국 측은 생산설비 투자를 가치로 환산해 지분 51%(204만 유로)를 획득했고, 북한 측은 토지, 공장 등 부대시설 투자를 가치로 환산해 지분 49%(196만 유로)를 차지했다. 경영기간은 10년이며,<sup>238)</sup> 회사의

城市晚報, “吉林煙草工業公司成立(圖文),” 2007.3.2., <<http://news.sina.com.cn/c/2007-03-02/065611320199s.shtml>>. (검색일: 2015.11.6.); 品品網, “我是天使沒翅膀 發表于,” 2012.11.11., <<http://bbs.pinpinku.com/archiver/?tid-20622.html>>. (검색일: 2015.11.6.).

236)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吉林烟草工業有限責任公司境外卷煙生產企業簡介,” <<http://www.jilintobacco.com.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48>>. (검색일: 2015.11.16.); 煙草網, “羅先新興煙草會社,”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5>>. (검색일: 2015.11.6.).

237) “길림연초공업회사 조선에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설립,” 『길림신문』, 2007.11.1., <[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07-11/15/content\\_10293.htm](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07-11/15/content_10293.htm)>. (검색일: 2015.11.16.); 유예진, “북-중 합자 담배공장 설립(대련무역관 이준호 보고: 2007.12.10.),”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12.26.

238) “백산시 조선과 평양백산담배회사 설립,” 『길림신문』, 2008.5.15.

부지면적은 4,940m<sup>2</sup>, 직원은 409명(중국 측 직원 37명), 연간 권연 생산능력은 100억 개였다. 2013년 권연생산판매량은 12.6만 상자(한 상자 50보루)였고, ①고급담배 동해(경), 금수강산(경), 평양(경), 아리랑(경), ②중급담배 보통강(경), ③저급담배 칠보산(경), 백산(연) 등이 공사의 주요 권연브랜드였다.<sup>239)</sup>

#### (4) 길림연초의 접근전략

대동강연초와 평양백산은 51%, 라선신흥은 100% 등 길림연초의 3개 회사는 모두 투자기업의 영도기구인 이사회를 장악하는 형태로 북한에 진출했다(<표 III-38> 참조). 제일 먼저 진출한 대동강연초는 중, 저급 권연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하는 전략을, 라선 경제특구에 진출한 라선신흥은 북한의 북부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자체수출, 또는 OEM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한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평양백산은 제품개발과 원자재 공급능력 등을 활용, 북한에 중국식 권연사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고급, 중급, 저급 권연시장을 모두 공략하였다.<sup>240)</sup>

239)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吉林烟草工業有限責任公司境外卷煙生產企業簡介,” <<http://www.jilintobacco.com.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48>>. (검색일: 2015.11.16.); 煙草網,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3>>. (검색일: 2015.11.6.).

240) 煙草網,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3>>. (검색일: 2015.11.6.); 煙草網, “大同江煙草有限公司,”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4>>. (검색일: 2015.11.6.); 煙草網, “羅先新興煙草會社,” <<http://wiki.ctt.cn/wiki/index.php?doc-view-865>>. (검색일: 2015.11.6.).

표 III-38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대북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구분	평양백산	대동강연초	라선신흥
경영 기구	이사장	김홍천(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김홍천(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부 이사장	최용철(~2010.7., 조선연초수출입상사의 위임, 파견) 함철남(2010.7.~, 조선연초수출입상사의 위임, 파견)	오영철(조선해양무역회사의 위임, 파견)
	이사	박광석(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동명철(조선연초수출입상사의 위임, 파견) 동수길(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박광석(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남상림(길림연초의 위임, 파견) 김순옥(조선해양무역회사의 위임, 파견)
	이사수	5명(중국 3, 북한 2)	5명(중국 3, 북한 2)
경영관리	사장 동명철(북한) 부사장 동수길(중국)	사장 오영철(북한)	사장 김영손(중국)

출처: 煙草網, <<http://wiki.ctt.cn>>. (검색일: 2015.11.16.), 羅先新興煙草會社, 大同江煙草有限公司,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담배망(<http://wiki.ctt.cn>)에 따르면 2010년, ①백산연초는 40.2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42.1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2,651만 달러에 이윤 106.8만 달러를 창출했고, ②라선신흥은 10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11.5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777.07만 달러에 이윤 60.91만 달러를 달성했고, ③대동강연초는 6.5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6.9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359.88만 달러에 이윤 2.11만 달러를 실현했다. 품품망(<http://bbs.pinpinku.com>)에 따르면 2011년, ①백산연초

는 57.4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54.4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3,824.8만 달러에 이윤 90.1만 달러를 창출했고, ②라선신흥은 8.8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8.6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549.4만 달러에 이윤 11.6만 달러를 달성했고, ③대동강연초는 8.1억 개의 권연을 생산했고 7.6억 개를 판매해 판매수입 409.1만 달러에 이윤 0.3만 달러를 실현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3개 회사의 생산량은 56.7억 개에서 74.3억 개로, 판매량은 60.5억 개에서 70.6억 개로, 판매수입은 3,787.95만 달러에서 4,783.3만 달러로 모두 증가했지만, 이윤은 169.82만 달러에서 102만 달러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해답은 2012년 6월 19일 연길시 백산호텔 3층에서 개최된 길림연초와 평양백산의 제사(製絲)라인 투자항목논증회에 있었는데, 당시 길림연초의 김홍천(金洪天) 부총경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241)</sup>

“북한 회사의 권연 생산 및 판매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원가가 해마다 점차 증가되어 원가 압력이 비교적 높아지면서 이윤이 동기대비 감소되었다. 이런 불리한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사슬을 더욱 확장해 평양백산연초회사를 제사(製絲), 권포(卷包)의 연간 권연생산능력이 20만 상자인 경제 실체로 반드시 건설할 것이며, 이 항목을 통해 주요 원자재의 현지화 가공생산을 실현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수익이 현저할 것이다. 동시에 현지 담뱃잎 재배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현지 직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북한 연초업체의 도약식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241) TobaccoChina, “吉林烟草工業堅持‘走出去’加強中朝經貿合作(圖): 吉林烟草工業召開平壤白山烟草公司投資項目論證會,” 2012.6.29., <[http://www.tobaccochina.com/news/China/industry/20126/201262815314\\_522972.shtml](http://www.tobaccochina.com/news/China/industry/20126/201262815314_522972.shtml)>. 검색일: 2015. 11.6.).

이므로 중북 양국의 신형 경제무역협작관계를 수립하는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정치환경 방면에서 중북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쌍방 기업의 협작을 위해 조건을 창조한다. 경제환경 방면에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는 발전태세가 양호한 평양 백산연초회사를 전력 지지하여 기술개조를 진행한다. 이번 기술개조 항목 건설투자 추산액은 6,104.7만 위안인데, 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 항목을 건설할 능력을 완전히 갖출 것이므로 항목건설에 필요한 자금에도 보장이 있다. 지역환경 방면에서 북한은 길림성과 육로로 인접한 이웃국가로 길림성 변경선은 1,206km에 달하고 16개의 대북통상구와 통로가 있으며 선천적인 언어적 우세도 구비되어 있다. 원자재보장 방면에서 2010년부터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회사는 북한농업성과 합작하였고 중국에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이미 북한에 담뱃잎 시험재배를 시작하였다. 2012년 담뱃잎 재배면적은 이미 300ha에 달하였고 1ha당 담뱃잎 산출량은 2,000kg로 담뱃잎을 모두 약 600톤을 생산해 낼 수 있다. 회사에서는 계속하여 담뱃잎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고 북한 담뱃잎의 가격적 우세가 비교적 현저하다. 시장환경 방면에서 북한의 인구는 2008년의 통계에 의하면 약 2,400만 명으로 현재 북한의 실제 권연소비량은 약 40만 상자이다. 북한경제가 점차 발전하면서 권연소비량은 곧 빠른 성장을 할 것이고 판매시장에도 보장이 있다. 인재 방면에서 회사에서는 몇 년 간의 기술개조를 거쳐 전문기술력이 튼튼하고 항목관리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재들을 양성하여 인재 관리에도 보장이 있다.”

2012년 6월 길림연초와 평양백산의 제사(製絲)라인 투자항목논증회에서 길림연초의 김홍천 부총경리는 “2011년 3개 투자기업은 생산 및 판매 14.1만 상자를 실현하여 북한 권연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에 이르렀고, 중국 연초 최대의 국외 권연생산기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표 III-39>에서 보듯이 평양백산이 조업을 시작

했던 2008년부터 길림성은 부동의 대북담배수출 1위 성으로 부상하였고, 연간 수출이 1,000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00만 달러대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3,000만 달러대에 육박했는데, 그 주 품목은 HS6단위 기준 흡연용담배(HS240310)와 파이프담배(HS240319) 등이었다(<표 III-40> 참조). 북한 담배시장에서 이와 같은 길림성의 강세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242)</sup>

표 III-39 담배(HS24)의 대북수출에서 길림성의 비중(2003~2014)  
(단위: 천 달러, %)

연도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1	길림 3,752	운남 3,843	길림 4,514	운남 5,765	운남 8,226	길림 11,179	길림 15,312	길림 21,744	길림 28,068	길림 28,907	길림 29,119
2	운남 2,654	길림 3,116	운남 4,484	길림 2,961	길림 3,192	운남 3,427	하남 1,699	하남 1,155	하남 893	하남 456	강소 401
3	하남 1,768	하남 1,839	요녕 1,826	하남 2,745	하남 1,462	하남 2,346	운남 685	강소 275	요녕 451	강소 401	하남 319
4	호북 556	요녕 658	하남 1,691	요녕 2,316	요녕 66	요녕 0	요녕 444	요녕 171	강소 401	요녕 176	요녕 162
5	요녕 276	중경 565	호북 548	호북 245	흑룡강 5	흑룡강 0	광둥 4	-	-	-	-
총계	9,171	10,481	13,492	14,118	12,950	16,952	18,145	23,345	29,814	29,940	30,001
길림성 비중(%)	40.91	29.73	33.71	20.97	24.65	65.95	84.39	93.14	94.14	96.55	97.06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242) 陳玉秋·黃英華, “中國煙草開拓朝鮮市場的思考,” 『中國煙草』, 第7期 (2009), <<http://www.echinatobacco.com/101588/101728/101936/27347.html>>. (검색일: 2015.11.7.).

표 III-40 HS 6단위 기준 길림성의 대북 담배수출(2003~2014)

(단위: 천 달러)

연도/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흡연용담배 (HS240310)	3,584	3,116	4,491	2,961	3,150	11,179	15,312	21,744	0	0	0
파이프담배 (HS240319)	0	0	0	0	0	0	0	0	28,068	28,907	29,119
총계 (HS24)	3,752	3,116	4,514	2,961	3,192	11,179	15,312	21,744	28,068	28,907	29,119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저자 가공.

첫째, 연초전매체제의 미정비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담배통제법이 등장한 것은 2007년 7월 21일이였다. 이에 따라 연초생산, 공급 및 수출입업무의 통일적 관리와 지도를 위해 북한연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하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담배통제법의 제정 이후 동법률을 실시할 수 있는 세칙과 관련 법령들이 미비하였다. 다른 하나는 북한연초협회가 비상설기구라 연초사업을 전체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완전한 연초사업 전매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부재했다. 북한이 군수공업발전을 우선시하면서 담배산업이 제대로 건립되지 못했는데, 담배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었고 2002년 7·1조치로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는 북한 연초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이 합영, 합작의 형태로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북한 담배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 북한의 담배생산량은 200만 개였는데, 그 절반이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셋째, 북한기업의 경쟁력 미비였다. 북한 담배시장의 특징은 생

산량의 분산, 기업규모의 영세, 유통경로의 미발달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기준 북한은 조선연초수출입상사의 산하 9개 권련 공장에 또 9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규모들이 모두 영세했다.

넷째, 관련 원부자재와 설비의 해외의존성이었다. 원부자재의 부족은 북한의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담배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담배기계, 부속품, 부대재료 등이 부족하여 곤란한 상황이었다. 1990년대부터 만연한 북한의 식량난도 문제였다. 식량작물의 경작 면적을 확대하면서 담배잎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담배잎 생산량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 다. 길림천우건설집단유한공사 투자사례

### (1) 길림천우건설집단과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이하, 천우집단)는 2002년 5월 22일 길림천우건설주식유한공사(吉林天宇建設股份有限公司)의 개명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산하에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천우국제)가 있고, 천우국제 산하에 대북투자사업인 조선무산선광장, 조선청진선광장, 조선라진시장,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등이 있는 구조였다.<sup>243)</sup> 공사 홈페이지는 천우집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sup>244)</sup>

243) 天宇建設集團書冊, <<http://tianyucc.com/book/index.html>>. (검색일: 2015.11.15.).

244) 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天宇簡介,” <<http://tianyucc.com/about.asp?AboutID=1>>. (검색일: 2015.11.15.).

“길림천우집단의 전신은 1952년에 성립된 연변건설총공사(정식 명칭은 길림성제7건축공사/이하, 성7건)로서 총부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도인 연길시에 소재하며 건설부분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건설공정 시공의 총체적인 청부를 맡는 1급 기업이다. 현재 중국건설업협회 이사, 중국시공관리협회 회원이며 국가상무부에서 대외경영자격을 허가받은 기업이다. 길림천우집단은 충청부 경영을 위주로 발전한 기업으로서 부동산건설공정, 대형기계설비 설치, 철강구조공정, 도로교량공정, 시정(市政)공용공정, 장식, 국제무역투자, 경제기술합작, 상업운업을 위주로 하는 일체형의 민영기업집단이다. 길림천우집단은 지주회사로서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하부기업으로 12개의 분공사를 가지고 있다. 집단은 현재 전문기술인원이 500여 명, 이 중에서 중고급 기술인원은 320여 명이다. 길림천우집단은 중국소수민족자치주에서 처음으로 중국건설업 최고영예의 ‘노반장(魯班獎)’을 획득한 건설시공기업이다. 길림천우집단은 선후로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및 이스라엘, 캐나다, 몽고 등 국가의 기업과 경제기술협력과 노무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연변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조건 우세로 주변국가와 국제공정, 자원개발, 상무투자 등 영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자부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2) 천우집단의 대북투자

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 농업신식망<sup>245)</sup> 등의 자료를 종합할 때, 천우집단의 대북사업은 네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첫째, 국제공사로 ① 1997~2002년 기간 홍콩엠펜퍼그룹이 투자한 5성급 호텔인 북한 라선시 엠펜퍼호텔 1기와 2기 공사, 그리고 태국 록슬리

245) 延邊朝鮮族自治州 農業信息網,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2012.5.8., <[http://yanbian.jlagri.gov.cn/Html/2012\\_05\\_08/85147\\_85261\\_2012\\_05\\_08\\_123353.html](http://yanbian.jlagri.gov.cn/Html/2012_05_08/85147_85261_2012_05_08_123353.html)>. (검색일: 2015.11.15.).

(Loxley) 그룹이 투자한 조선라진국제통신중심청사 공사의 도급·시공, ②2003~2006년 기간 미국천사그룹이 투자한 라선시 빵공장과 라선시진료소의 도급·시공, ③2007년 미국천사그룹이 투자한 라선시인민병원공사의 도급·시공, ④2015년 중국건재그룹이 투자한 라선성신건재회사(羅先誠信建材會社)의 60만 톤 시멘트분말공장의 건설시공인데, 천우집단이 북한에서 시공·건설한 항목은 10여 건에 이르렀다.

둘째, 시장운영으로 1997년 천우국제는 라선시 상업국과 50:50으로 합영하여 무역시장인 라진시장을 설립하였는데, ①건축면적은 6,000m<sup>2</sup>고 ②경영품목은 각종 공업, 농업상품들이며, ③2004년 말 기준 투자액은 119.8만 유로였다. 최초 900개 매장으로 시작하여 2015년 5월 기준 5,600여 개 매장으로 발전함에 따라 라진시장을 확장·건설하여 라진시장을 종합적인 백화점 및 북한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종합적인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술한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의 라선강덕종합시장과의 관계였다. 라선강덕종합시장은 천우집단의 투자였던 라진시장을 개건·확장하는 형태라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라선강덕종합시장을 설립하는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가 천우집단의 산하회사이거나, 다른 하나는 천우집단과 공동투자하였는데 상무부 비준을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가 받은 경우이다. 그런데 천우집단이 천우국제의 이름이 아니라 천우집단의 이름으로 라진시장합영회사의 상무부 비준을 받은 것은 2013년 7월 11일이었다.

셋째, 자원개발사업으로 2005년 6월 이후 천우집단은 4,000여 만 달러를 투자, 조선동양무역회사, 조선삼각주무역회사, 류경105회사,

백두산실업회사(조선백두산련합상사) 등과 합작투자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개발광산은 북한의 무산, 청진, 남포 등지에 소재하였다. 즉, ①조선동양무역회사와는 970만 달러를 투자, 북한 무산군에 위치한 자철광산 미광사업을 진행해 2010년 10월 기준 매년 1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②조선삼각주무역회사와는 600만 달러를 투자, 북한 청진시의 자철정광 미광사업을 개발 및 운영했으며, ③2007년 12월 조선백두산련합상사와는 400만 달러를 투자, 청진 슬라크사업을 합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 7월 11일에는 연 60만 톤 모래자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의 설립을 상무부로부터 비준받았다. 합영회사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는 라선지대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천우집단이 추진한 무산과 청진의 미광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무산미광사업:** 사업장소는 북한 무산군에 위치하여 있다.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술과 공예문제로 하여 북한 측에서 자체로 채광할 때 대량의 재처리 가공할 수 있는 미광이 생기게 되었는데 배출된 철광분이 약 3미터 두께로 강바닥에 깔렸으며 그 수량은 약 1,300만 톤이고 철함량은 약 10~15%이며 지금도 날마다 재처리 가공할 수 있는 미광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2005년 11월부터 생산을 가동한 아래 천우 국제회사는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설비와 물자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도합 92만 톤의 자철정광을 수출, 판매하였다.

**청진미광사업:** 사업장소는 청진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관할구역 내에 있으며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일 큰 제철소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도 기술과 공예문제로 공장 구

역 앞으로 흘러 지나는 직두천 강가에 대량의 미광을 배출하였으며 채굴구역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관할 내의 직두천 서북교부터 상류 1,130미터까지 전 구간이며 깊이는 약 6~7미터이고 매광의 총 매장량은 600만 톤 이상이며 미광의 평균 철 품위는 20%를 초과한다. 2007년 11월까지 선광장 건설을 마쳤으며, 2008년 봄부터 정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넷째, 관광사업으로 천우국제 산하에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가 설립된 것은 2011년 7월, 조선대풍그룹과 손잡고 북한 관광사업에 뛰어든 것은 2011년 8월 29일이었다. 우선 북한 라선-금강산 관광을 위해 30만 달러를 투자, 만경봉호를 리모델링했고, 2012년에는 라선시에 연변천우사무소를 설립했으며, 라선시 비파 3호각(원 김일성 휴양호텔) 호텔을 리모델링해 천우여행사의 관광숙소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년 동안 북한정부와 접촉하여 2012년 7월 12일에는 연길-평양 고려항공 전세기 관광도 개시했다. 2013년 1월에는 싱가포르 크루즈 ‘황성호’를 성공적으로 북한 라진항에 입항시켰으며, 2014년 초에는 함경북도 관광을 개발, 연길-용정-북한의 회령-청진-칠보산 관광을 개시했는데 2011년 8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천우집단이 북한으로 송출한 관광객은 7,500명이었다.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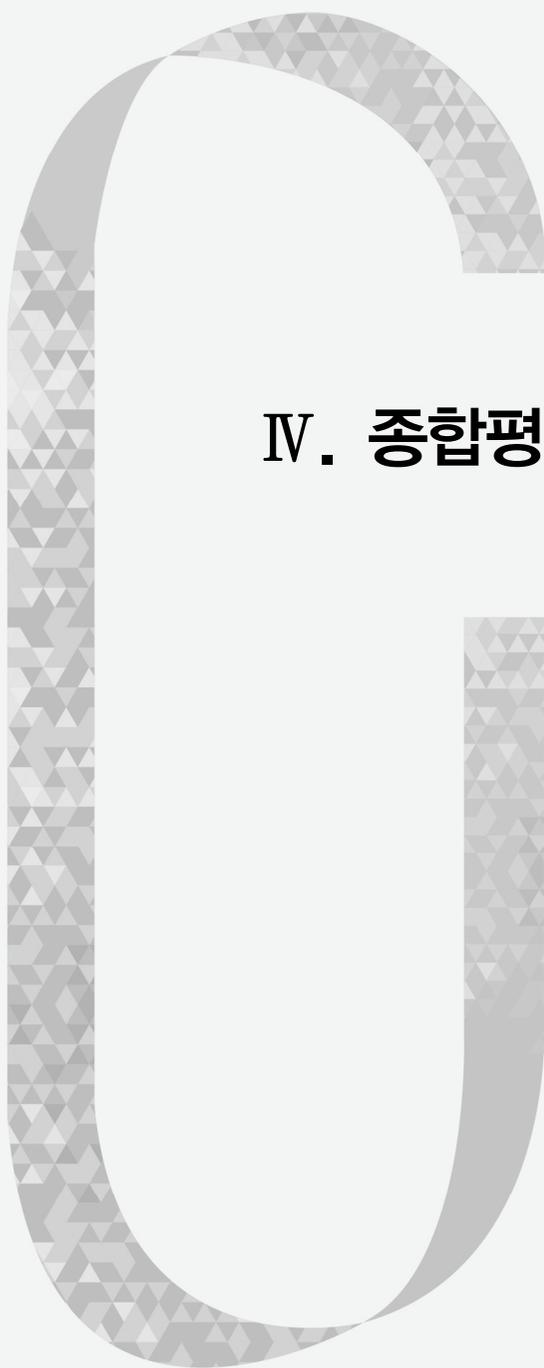
II

III

IV

---





## IV. 종합평가와 시사점



## 1. 종합평가

북한의 정치상황이 3차 핵실험(2013.2.)에 이어 장성택 처형(2013.12.)으로 연결되면서 그 여파로 두 경제지대 인프라 건설 등 북중 정부 간 경제협력은 잠정 중단되어 있었으나<sup>246)</sup> 최근 습근평(習近平,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2015.7.16.) 및 유운산(劉雲山, 류윈산)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과 함께 김정은과의 면담성사(2015.10.9.)<sup>247)</sup>로 2015년 10월을 기점으로 북중 정부 간 경제협력은 그 재개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경제협력 중단시절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되었다.

첫째,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준계속이었다. 2013년 12월에서 2015년 8월 기간 동안 약 17개의 중국기업이 정부의 비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①청진수성천합작회사(淸津水成川合作會社)의 공업규모, ②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의 플라스틱, ③해항합영회사(海港合營會社)의 청진항 부두, ④천마산합영공사(天馬山合營公司)의 제강관련제품, ⑤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羅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의 농작물 재배, ⑥라선삼봉건설공사(羅先三峰建材公司)의 건설생산, ⑦라선관광대지합작회사(羅先觀光大地合作會社)의 호텔, ⑧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羅先旺福特貿易有限公司)의 대형 상업단지, ⑨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礦業會社)의 금광, ⑩라선남양회사

246) 이종림, “동북아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p. 73.

247) 홍계성, “北관영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류윈산 회동 사진 못찍었다.” 『연합뉴스』, 2015.1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_KR20151102177600083.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_KR20151102177600083.HTML?input=1195m)>. (검색일: 2015.11.7.)

(羅先南洋會社)의 호텔, ⑪라선시길성동아회사(羅先市吉盛東亞會社)의 맥주, ⑫라선흥원회사(羅先淸元會社)의 난방제품, ⑬길림성장풍공무유한공사조선판사처(吉林省長風工貿有限公司駐朝鮮辦事處), ⑭조선라선홍원무역회사(朝鮮羅先紅源貿易會社)의 수산물, ⑮두만강목재가공창(豆滿江木材加工廠)의 나무제품, ⑯라선흥강회사(羅先興隆會社)의 연유, ⑰수채봉수출입수산합작회사(水彩峰出口水產合作社)의 수산물 등의 대북투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둘째, 중국 건재집단 산하 북방시멘트집단 연변구역공사(北方水泥集團 延邊區域公司)의 행보였다.<sup>248)</sup> 전신이 길림덕전시멘트집단(吉林德全水泥集團)인 연변구역공사 박송춘(朴松春) 총경리는 2개의 대북투자사업을 진행했다. 하나는 강동군 고비구 대동강 동부지역 석회석광산 산자락에 건설된 평양강동군건재합영회사(平壤江東郡建材合營會社)였다. 투자총액 5.12억 위안으로 연 생산량 120만 톤인 제1기 투자대상인 시멘트분말공장은 2015년 4월에 완공되었고, 2기 투자대상인 2,500t/d 시멘트클링커 생산공장은 2016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라선특별시 웅상항 부근에 진출한 독자기업 라선성신건재회사(羅先誠信建材會社)였다. 연 생산량이 60만 톤인 시멘트분말공장으로 투자액이 2,000만 달러인 라선성신건재회사는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논점은 북방시멘트집단과 아태집단과의 관계였다. 2013년 9월 8일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단장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이 장춘 아태집단을 방문할 무렵 북중 간의 합의사항은 아

248) 延邊投資促進網, “北方水泥延邊公司化解產能過剩赴朝建廠,” 2015.8.17., <<http://www.investyanbian.gov.cn/zjyb/zxxw/2015-08-17/393.html>>. (검색일: 2015.11.7.)

태집단사례분석에서 전술했듯이 “중복건설 방지를 위해 라선시경제협조국은 기타 기업의 라선지역 시멘트 프로젝트 건설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는 중국 시멘트산업의 생산과잉과 경기하락으로 중국시멘트 기업 간의 북한진출 경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시멘트기업 간의 조정 등을 통해 아태집단이 북한사업을 포기했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로 후자가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모회사 연결구조였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중국건축재료집단유한공사(中國建築材料集團有限公司) → 중국건재주식유한공사(中國建材股份有限公司) → 북방시멘트유한공사(北方水泥有限公司) → 연변구역공사(德全水泥)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 그 최상층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직접감독을 받는 중앙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건재산업이고 세계 500강 기업인 중국건축재료집단유한공사였다.<sup>249)</sup>

둘째는 중국건축재료집단유한공사의 핵심기업인 중국건재주식유한공사의 북방시멘트에 대한 증자였다.<sup>250)</sup> 2009년 3월 23일 자본금 10억 위안으로 설립된 북방시멘트<sup>251)</sup>는 2012년 7월에 자본금 40억 위안으로 증자되었는데, 이는 중국건재주식유한공사의 동북거점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박송춘 총경리가 북한사업을 준비하기

249) 中國建築材料集團有限公司, “集團簡介,” <[http://www.cnbm.com.cn/wwwroot/c\\_000000010008/](http://www.cnbm.com.cn/wwwroot/c_000000010008/)>. (검색일: 2015.11.7.).

250) 차이나윈도우, “중국건재, 북방시멘트에 28억 위안 증자,” 2012.7.3., <[http://www.chinawindow.co.kr/new/news\\_view.html?code=293263&page=1&category=news1&pt=&ps=>](http://www.chinawindow.co.kr/new/news_view.html?code=293263&page=1&category=news1&pt=&ps=>)>. (검색일: 2015.11.7.).

251) 中國建材股份有限公司, “北方水泥有限公司,” <<http://www.cnbm.com/ywbk/bfsn.jsp>>. (검색일: 2015.11.7.).

시작한 것은 2012년이며, 1년여의 논쟁을 거쳐 북한에 현대화된 중형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것에 대한 실행가능성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해 북방시멘트집단의 총수인 장전군(張傳軍)의 결재를 득한 것은 2013년이였다.<sup>252)</sup>

셋째는 아태집단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15.57%)가 장춘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라 아태집단과 북방시멘트 간의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아태집단의 공장부지와 북방시멘트의 공장부지가 모두 웅상항 부근이며, 라선경제특구의 초기 시멘트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좌로 보인다.

제Ⅲ장에서 분석한 중국기업들의 움직임 특성,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상황전개를 종합해 볼 때, 중국정부와 중국기업들의 대북진출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달리 말해 2002년 7·1조치 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차원의 소규모 대북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7·1조치 이후 로항구일체화에서 두 경제지대 건설로, 두 경제지대 건설에서 일대일로로 길림성의 정책중점이 확대·심화되면서 길림성, 나아가서 길림성 이외의 중국 주력 자본들도 북한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대북투자 1위 성으로 부상한 길림성의 북한경제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252) 延邊投資促進網, “北方水泥延邊公司化解產能過剩赴朝建廠,” 2015.8.17., <<http://www.investyanbian.gov.cn/zjyb/zxxw/2015-08-17/393.html>>. (검색일: 2015.11.7.).

## 2.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천안함사건(2010.3.) 이후 5·24조치의 시행으로 개성지역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민간 기업을 앞세운 북중 경제협력 강화정책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제Ⅲ장에서 전술했듯이 ①라진항, 청진항, 자루비노항 진출 등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과 중국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출해구확보형 투자의 심화, ②철광, 금광, 동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개발투자의 확대, ③라선경제무역지대에 중국 정부차원의 경제개발구 조성 및 관련투자의 확대, ④백산, 화룡 등 접경지대와 훈춘지역에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생산 분업기지 구축형 투자의 진행, ⑤의류 임가공단지의 조성 및 출경가공정책의 시행, ⑥플라스틱, 건축자재, 물자유통,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내수시장 공략, ⑦대북전문노하우를 활용해 대북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의 등장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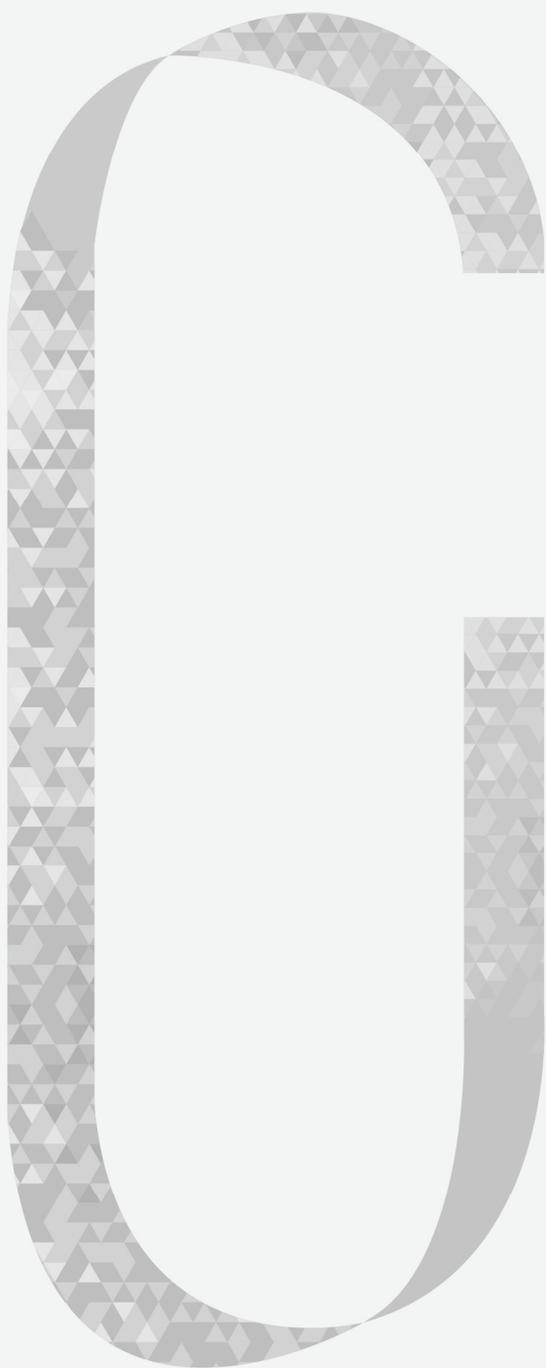
무역, 투자의 양방면에서 대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이와 같은 전략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 바, 그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 접경지역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남·북·러, 남·북·중 구도 속에 남북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북중, 북러의 쌍무적 협력 틀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모습이라 비즈니스협상 구조의 구축이 쉽지 않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제3국에서 북한과 사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검토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개성지역에 한정된 대북경협 전선을 평양·남포방향으로 북상시키는 방안이다. 사실 김정은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확대와 관련하여 중국의 접경지역개발 핵심동

기 중의 하나는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고, 그 준거모델은 개성공업 특구였다. 중국 길림성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야 기업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한 국제 비교우위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평양사업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가들을 활용하여<sup>253)</sup> 가장 노동력이 풍부하고 경공업기반을 갖춘 평양·남포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된다.

---

253) 조영서, “남포 평화자동차 합영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북한의 지역개발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 (연합인포맥스 주최 제2회 통일금융컨퍼런스, 2015.11.5.), pp. 55~63; 정주권, “평양 엘칸토 구두공장 성공사례 및 시사점,” 『북한의 지역개발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 (연합인포맥스 주최 제2회 통일금융컨퍼런스, 2015.11.5.), pp. 65~75 등 참조.



# 부 록



## 부록 1. 길림성 대북투자기업리스트

회사명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 (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고신구 위산로 2559호 길림투자빌딩 (長春市高新區蔚山路2559號吉林投資大廈)		
자본금	1억 위안	기업유형	국유독자공사
TEL	0431-88788908	FAX	0431-88788900
E-mail		홈페이지	http://www.jlic.net.cn
대표	이자신(李子臣)	설립년도	2012.6.
품목	기초시설건설, 통로 건설, 국제경제기술협력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북 양국 정부 간 사업과 중국 두만강지역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길림성정부에서 지원하여 길림성투자 집단유한공사(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와 장춘시건설투자공사(長春市建設投資公司)가 공동 출자하여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를 설립</li> <li>•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羅先經濟貿易區貿易開發投資有限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3.3.)</li> <li>- 라선경제무역구 개발</li> <li>- 전력·항구·도로·철도 하부구조 건설, 토지개발, 무역산업협력</li> </ul> </li> </ul>		

회사명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 · 훈춘시 북대황경무유한공사(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정화가(琿春市靖和街) 훈춘시 신안가 노검찰원 2층(琿春市新安街老檢察院二樓)*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국유공사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왕련하(王連河)	설립년도	2012.7, 2012.6.*
품목	벼, 옥수수, 야채 재배 및 판매, 농업기술지원, 생산자료판매 농산품, 비료, 건축재료, 기계설비, 침상용품 수출입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춘시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와 훈춘시북대황경무유한공사(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의 모회사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li> <li>•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3.1.)</li> <li>- 벼, 옥수수, 채소, 종자, 가축, 식용버섯 등 재배</li> <li>-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li> <li>- 2013년 초 봄에 북대황집단이 라선시 두만강리의 2개 협동농장에 2,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벼와 채소 재배</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성북방공업규집단공사(吉林省北方工業硅集團公司)		
주소	요원시 용산구 신흥가 흥경로 2호(遼源市龍山區新興街興慶路2號)		
자본금	215만 위안	기업유형	집체공사
TEL	0437-3312801	FAX	0437-3318998
E-mail	lsqz001@163.com	홈페이지	http://www.bfgyg.com.cn
대표	송덕충(宋德忠)	설립년도	1994.5.
품목	제조업, 유색금속제련·압연가공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규소, 금속마그네슘제품을 생산하는 최대 규모와 실력을 구비한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 18,600만 위안, 직원 660명(공정기술인원 226명), 부지면적 78,000m<sup>2</sup>, AA급 신용기업</li> <li>- 산하에 6개의 분공장: 요원시금룡규소공장(遼源市金龍矽廠), 요원시 용산구복리주강기계공장(遼源市龍山區福利鑄鋼機械廠), 요원시 석탄제련분공장(遼源市冶煤分廠), 요원시길동마그네슘공장(遼源市吉東鎂長), 길림성북방공업규소집단회사섬서성한중시성고분회사(吉林省北方工業矽集團公司陝西省漢中市城固分公司), 길림성북방공업규소집단조선위원군공업규소공장(吉林省北方工業矽集團朝鮮渭源郡工業矽廠)</li> <li>- 기업 연 규모생산량 30,000톤, 우량등급 화학공업규소 연 생산량 13,000톤, 수출입경영권 획득(1994), ISO9002품질체계인증(1998)</li> </ul> </li> <li>• 위원군공업규창(渭源郡工業硅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6.12.)</li> <li>- 공업규소 제조, 가공 및 판매</li> </ul> </li> </ul>		

회사명	길림성성세광산품유한공사(吉林省盛世礦產品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하관구 해방대로 65호(長春市南關區解放大路65號)		
자본금	2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주식유한공사
TEL	0431-88686636	FAX	
E-mail	Jlshengshi@163.com	홈페이지	
대표	성학식(盛學識)	설립년도	2008.7.
품목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대성합영회사(三大星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0.12.)</li> <li>- 자동차조립</li> <li>- 투자총액 650만 유로, 부지면적 2.5만 m<sup>2</sup>, 공장면적 1,200m<sup>2</sup></li> <li>- 정식생산개시(2010.7.)</li> <li>- 중북합작생산 5대 자동차가 북한 라선시 제품전시회에 처음 참가(2010.8.20.)</li> </ul> </li> </ul>		

회사명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조양구 용례로 1105호(長春市朝陽區隆禮路1105號)		
자본금	50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1-85676880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주의명(朱毅明)	설립년도	2003.9.
품목	석탄, 기계, 장비, 무연탄, 스크랩, 산업용 실리콘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는 해화무역 집단유한공사의 산하회사</li> <li>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平壤出口物資運輸合作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전진무역회사와 합작(2005): 중방 120만 달러 투자, 물자운송</li> <li>- 상무부 비준(2005.9.)</li> </ul> </li> <li>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평양판사처(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平壤辦事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6.1.)</li> <li>- 사무소(무역·왕래)</li> </ul> </li> <li>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平壤消防器材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유호연합회사와 합영(2011): 중방 215.9만 달러 투자, 소화기 생산</li> <li>- 상무부 비준(2011.7.)</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은해합영회사(朝鮮銀海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부 비준(2012): 중방 365만 유로 투자</li> <li>- 상무부 비준(2013.5.)</li> <li>- 철광석 생산 및 수출</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성양천가제대외경제합작유한공사(吉林省朝天嘉際對外經濟合作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남관구 통화로 1171호(吉林省長春市南關區通化路1171號)		
자본금	308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1-88959128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장력강(張力剛)	설립년도	2006.11.
품목	전자제품, 오금, 견재, 건축자재, 방직품, 농업증자, 비료 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라선판사처(朝鮮羅先辦事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2.9.)</li> <li>- 중조공동관리위원회와의 연계강화</li> <li>- 토지임대차 협의: 호텔 건립지 임대차, 무역시장 건설기획준비, 호텔 내 상업 등</li> </ul> </li> </ul>		

회사명	길림성우의진출구유한공사(吉林省友誼進出口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조양구 서안대로 616호(長春市朝陽區西安大路616號)		
자본금	26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13514304621	FAX	
E-mail	ccjfsds@126.com	홈페이지	
대표	석강(石剛)	설립년도	2005.6.
품목	식량, 화공원료, 오금견재, 광산품, 가전제품, 윤활유, 부동산 수출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우의진출구유한공사는 평양주재 길림성무역종합대표처(吉林省駐平壤貿易綜合代表處)가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로 길림성공상행정관리국이 비준(2005)</li> <li>• 조선영광가구합영회사(朝鮮榮光家具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7.4.):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218.68만 달러, 50:50 합영, 중방 설비·원자재 109.34만 달러 투자, 북한 토지·설비·건축물 등 실물 109.34만 달러 투자, 경영기한 10년, 가구·플라스틱 등 건축</li> </ul> </li> </ul>		

	자재 생산 및 판매 -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마식령스키장호텔, 교육자살림집,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등에 납품(2014)
--	---

회사명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변경무역진출구총공사 (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邊境貿易進出口總公司)		
주소	백산진 압록강대로 138호(長白鎮鴨綠江大街138號)		
자본금	1,500만 위안	기업유형	국유공사
TEL	0439-8229996	FAX	043-98229996
E-mail		홈페이지	
대표	최동성(崔東星)	설립년도	1997.3.
품목	목재 도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평마안산합영회사(吉平馬鞍山合營會社) - 상무부 비준(2009.7.) - 석탄</li> <li>• 헤산시 상업국과 합영 백화상점 설립(1994): 중국이 조선에 설립한 첫 백화상점</li> <li>• 조선신진회사와 공동 합작 량강도 김정숙군 석영광 항목을 개발하기로 협의(2011): 예상 연 개채량 4~5만 톤</li> </ul>		

회사명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초금광업유한공사 (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招金鑛業有限公司)		
주소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진 녹강대가 136호 (白山市長白朝鮮族自治縣長白鎮綠江大街136號)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9-8227647	FAX	
E-mail		홈페이지	<a href="http://www.zhaojin.com.cn">http://www.zhaojin.com.cn</a>
대표	서원군(徐元君)	설립년도	
품목	금광 개발, 광산 개발 및 채굴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초금광업유한공사의 모회사는 산동초금집단유한공사(山東招金集團有限公司) - 산동초금집단유한공사 주식유한공사로 성립(2004.4.) - 홍콩에서 상장(2006.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 개채, 선광, 제련 일체의 황금산업 종합적 대형기업</li> <li>- 중국 최대 황금생산 및 제련기업 중 하나</li> <li>- 뉴욕 증권거래소 NYSE Arca Gold Miners Index -「GDM」진입 (2013.9.)</li> <li>• 헤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영계약서 체결(2004.9.4.): 총 투자액 2,680만 달러, 50% 지분, 합영기간 25년, 동정광 등 개발</li> <li>- 상무부 비준(2005.2.)</li> <li>- 난하실업집단유한공사(灤河實業集團有限公司) 산하의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가 헤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 지분 51%를 매입하고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와 합영계약서 체결(2006.11.27.)</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성장풍공무유한공사(吉林省長風工貿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녹원구 동풍대가 남가 1864호(長春市綠園區東風大街南街1864年號)		
자본금	2,0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18943192168, 13944899340	FAX	
E-mail		홈페이지	http://www.cfgm.com.cn
대표	장복단(章卜丹)	설립년도	2004.10.
품목	강재보철, 기계부속품가공, 조립, 대리수출업무(자동차, 화물차류, 농기계류)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판사처(朝鮮辦事處)</li> <li>- 상무부 비준(2014.3.)</li> <li>- 시장개척</li> </ul>		

회사명	길림성중금광업유한공사(吉林省中金礦業有限公司)		
주소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진 성동위 3조부 11호 (白山市長白朝鮮族自治縣長白鎮城東委3組副11號)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9-8227266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하검춘(何劍春)	설립년도	2008.12.
품목	금, 은, 동, 아연, 납광석, 자동차부속품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기차합영회사(金剛汽車合營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0.1.)</li> <li>- 자동차조립</li> <li>- 현재 북한의 유일한 상업용 차량 생산 자격이 있는 기업</li> </ul>
------	--

회사명	길림야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길림대로 1801호(長春市吉林大路1801號)		
자본금	500억 위안	기업유형	주식유한회사
TEL	0431-84956688	FAX	0431-84951400
E-mail	tkw@yatai.com	홈페이지	http://www.yatai.com
대표	송상용(宋尙龍)	설립년도	1993.11.
품목	건재, 부동산개발, 석탄도매경영, 약품생산·경영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야태(집단)주식유한공사는 2014년 중국 500강 기업에서 281위 기록</li> <li>- 1993년 집단건설, 1995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li> <li>- 건축자재, 부동산, 금융을 주업으로 석탄, 의약, 상업무역 등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대형 기업집단</li> <li>- 특히, 건재산업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주도적 위치 차지</li> <li>• 라선야태건재유한공사(羅先亞泰建材有限公司)</li> <li>- 100만 톤 시멘트 항목 길림성의 우선진행 8개 프로젝트로 선정 (2011.3.)</li> <li>- 북한 라선에 연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 건설착공식 거행(2011.6.9.)</li> <li>- 건재공업단지 설립을 위한 정식 투자협력협정 체결(2012.8.14.): 웅상항 주변, 부지면적 50만 m<sup>2</sup>, 합작기한 50년</li> <li>- 상무부 비준(2012.11.): 시멘트생산 및 판매(100만 톤)</li> <li>- 2013년 말 이후 사업진행 중단</li> </ul>		

회사명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주소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 795호(延吉市河南街天池路795號)		
자본금	9억 위안	기업유형	국유공사
TEL	0433-2815961	FAX	0433-2831924
E-mail		홈페이지	http://www.jilintobacco.com.cn
대표	손국위(孫國偉)	설립년도	2006.12.
품목	담배산업 관련 제조, 수입,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의 정식 기준으로 설립(2006.12.1.): 연길권연공장과 장춘권연공장의 연합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하에 연길권연공장, 장춘권연공장, 연길권연공장이 북한에 투자한 대동강연초유한공사와 라선신흥연초회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북한에 투자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의 5개 기업 보유</li> <li>- 공사 설립식 연길에서 거행(2007.3.1.)</li> <li>- 대표브랜드는 장백산: 2014년 상반기에 장백산(금향괴), 장백산(황인삼), 장백산(호운)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li> </ul> </li> <li>•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연초수출입상사와 합영의향서 체결(2007.1.)</li> <li>- 중국 연초전매국 비준(2007.11.6.)</li> <li>- 상무부 비준(2008.1.):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400만 유로(639만 달러), 51:49 합영, 중방 생산설비 투자 204만 유로, 북한 토지·공장 등 부대시설 투자 196만 유로, 경영기간 15년</li> <li>- 조업(2008.4.23.): 공장은 평양시 용성구</li> <li>- 부지면적 4,940m<sup>2</sup>, 연간 권연생산능력 100억 개</li> <li>- 2013년 권연생산판매량 12.6만 상자(한 상자 50보루)</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신흥가 162호(延吉市新興街162號)		
자본금	5,0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주식유한공사
TEL	0433-2901551	FAX	0433-2512569
E-mail		홈페이지	ttp://www.tianyucon.com
대표	전규상(田奎相)	설립년도	1999.10.
품목	건설산업 분야 시공 청부, 수출입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는 길림천우건설주식유한공사의 개명으로 설립(2002.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신은 1952년에 성립된 연변건설총공사</li> <li>- 건설부분을 핵심으로 부동산 건설공정 시공의 총체적 청부를 맡는 1급 기업</li> <li>- 10개의 자회사, 12개의 분공사를 가진 지주회사</li> <li>-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산하에 조선무산선광장, 조선청진선광장, 조선라진시장,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등 대북투자사업 보유</li> </ul> </li> <li>• 국제공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앰페러그룹이 투자한 5성급 호텔인 북한 라선시 앰페러호텔 1기와 2기공사 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록슬리(Loxley) 그룹이 투자한 조선라진국제통신중심청사 공사의 도급·시공</li> <li>- 중국 건재그룹이 투자한 라선성신건재회사 60만 톤 시멘트분말공장 시공(2015) 등</li> <li>• 라진시장합영회사(羅津市場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시 상업국과 50:50 합영으로 무역시장인 라진시장 설립(1997): 건축면적 6,000m<sup>2</sup>, 119.8만 유로 투자, 종합시장운영(도소매)</li> <li>- 상무부 비준(2013.7.): 매장규모 확장</li> <li>- 최초 900개 매장으로 시작하여 2015년 5월 기준 5,600여 개 매장으로 발전</li> </ul> </li> <li>• 자원개발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동양무역회사와 무산 자철정광 미광사업 진행: 970만 달러 투자</li> <li>- 조선삼각주무역회사와 청진시 자철정광 미광사업 진행: 600만 달러 투자</li> <li>- 조선백두산련합상사와 청진 슬라크사업 합작(2007.12.): 400만 달러 투자</li> </ul> </li> <li>•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3.7.): 모래, 자갈 생산 및 판매</li> <li>-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진행</li> <li>- 라선지대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 공급</li> </ul> </li> <li>• 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설립(2011.7.)</li> <li>- 연길-평양 고려항공 전세기 관광 개시(2012.7.12.)</li> <li>- 싱가포르 크루즈 '황성호' 라진항 입항(2013.1.)</li> <li>- 함경북도 관광개발, 연길-용정-북한의 회령-청진-칠보산 관광 개시(2014)</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주소	반석시 홍기령진 홍기대가 54호(磐石市紅旗嶺鎮紅旗大街54號)		
자본금	3.2억 위안	기업유형	
TEL	0432-65610634	FAX	0432-65610634
E-mail	NIC@JLNICKEL.COM.CN	홈페이지	www.jljin.com
대표	서광평(徐廣平)	설립년도	2006.1.25.
품목	니켈류·구리제련 및 가공, 몰리브덴·금·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는 길림호용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호용집단주식유한공사,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 북한 조선금강총회사 간에 선천금광개발을 위한 북경합의(2006.4.13.)</li> <li>• 조선호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朝鮮昊融國際鑛業有限責任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금광개발 시작(2006.4.)</li> <li>- 상무부 비준(2006.7.):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625만 달러, 100% 투자 독자기업, 625만 달러의 설비 원재료 투입, 경영기한 20년</li> </ul> </li> <li>• 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鑛業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 조선금강총회사 간에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조선금강광업회사) 설립 계약서 체결(2007.3.)</li> <li>- 상무부 비준(2008.4.)</li> <li>- 선천금광공장 개업(2009.9.21.): 투자총액 600만 유로, 등록자본 180만 유로, 50:50합영(길림호용집단 40%), 경영기한 20년, 생산전량 중국 수출</li> <li>-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상무부 비준(2014.4.)</li> </ul> </li> </ul>
--	--

회사명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주소	반석시 흥기령진 흥기대가 54호(磐石市紅旗鎮紅旗大街54號)		
자본금	483.4억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회사
TEL	0432-65610580	FAX	0432-65614580
E-mail	mhx@jlnickel.com.cn	홈페이지	http://www.horoc.com/
대표	徐广平	설립년도	2006.1.25.
품목	니켈, 구리제련 가공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현재 금속생산품 가공, 과학기술신소재 개발, 금융자본비즈니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자산총액 483.4억 위안인 대형 다국적그룹</li> <li>- 전신은 1960년 업무를 시작한 길림얼업집단유한책임공사(吉林鍊業集團有限責任公司)</li> <li>• 조선금강광업회사(朝鮮金剛鑛業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일(2014.4.): 금광 개채·판매</li> </ul> </li> </ul>		

회사명	도문시의달민족비닐제품유한공사(圖們市誼達民族塑料制品有限公司)		
주소	도문시 회막로 22호(圖們市灰幕路22號)		
자본금	1,52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3-3622320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왕려평(王麗萍)	설립년도	2002.12.
품목	비닐제품도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시민족비닐공장 도문시화인비닐제품유한공사로 체제개편(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시민족비닐공장 한국 내소날프라스틱주식회사와 합자 도문내소날프라스틱유한회사 설립(1993.4.)</li> <li>- 2006년 이래 국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북한 20여 무역기구와 합작관계 형성</li> <li>- 수출품인 플라스틱제품과 남녀장화는 북한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 성장 시장점유율이 85%를 능가</li> </ul> </li> <li>• 나도수지합영회사(羅圖樹脂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시민족비닐집단공사 대표단 라선을 방문하여 기업설립협의서 체결(1994.6.6.)</li> <li>- 도문내소날프라스틱유한회사와 조선라진직조공장 조중합자라도수지유한회사 설립(1999.8.6.)</li> <li>- 상무부 비준(2005.11.): 플라스틱 제품생산·판매</li> <li>- 2012년 이후에도 라선시에서 조업 중</li> </ul> </li> </ul>		
회사명	도문흥배물자무역공사(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주소	도문시 광명가 12호(圖們市光明街12號)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국유공사
TEL	13844721199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김동률(金東律)	설립년도	1992.9.
품목	도소매 수출입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흥배물자무역공사 경영범위: 각종 제품의 자체경영 및 대리, 기술수출입업무, 수출입, 소액변경무역, 화물운송대리, 소하물택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품목: 석탄, 코크스, 윤활유, 시멘트, 석탄, 역청 등</li> <li>- 수입품목: 강편, 강판, 광분말, 목재, 폐강철, 생철 등</li> </ul> </li> <li>- 도문철도 소속 옛 국영단위로 1992년 회사 창립초기의 연 수출입액은 모두 1억 위안 이상 달성</li> <li>- 1994년 북한의 화물이 끊기면서 잠깐 난관에 봉착했으나 2007년 수출입무역액은 800만 달러로 다시 회복</li> <li>- 2008년 철광분 가격이 작년의 700위안/톤에서 1,600위안/톤으로 올라 상반기에만 수출무역 900만 달러 달성</li> <li>• 삼복운수기술합작회사(三福運輸技術合作會社)</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6.12.): 상업(선상용품 등)</li> <li>• 청흥합작회사(淸興合作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06.12.): 각종 페인트 생산·판매</li> </ul>
--	--

회사명	돈화시강북상래특어유용품유한공사(敦化市江北桑萊特旅遊用品有限公司)		
주소	돈화시 경제개발구 판공빌딩 4층(敦化市經濟開發區辦公樓四樓)		
자본금	3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3-6248298	FAX	
E-mail	dh_sunlight@yahoo.com.cn	홈페이지	
대표	고봉군(高鳳軍)	설립년도	2005.8.
품목	목재가공, 체육관마루, 집성판재, 곡식·석유, 석유산품, 수산물, 여행용품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송합작회사(靑松合作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06.3.)</li> <li>- 마루재 가공</li> </ul>		

회사명	돈화시봉해광업개발유한공사(敦化市峰海礦業開發有限公司)		
주소	돈화시 단강가 56-2호(敦化市丹江街56-2號)		
자본금	3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3-6368586	FAX	
E-mail	Dhsmyyj@163.com	홈페이지	
대표	류호참(劉浩參)	설립년도	2006.4.
품목	광사, 화학원료 등 구매, 수출입업무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봉합영회사(金峰合營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08.7.)</li> <li>- 폐고령토</li> </ul>		

회사명	백산시조씨무역유한공사(白山市趙氏貿易有限公司)		
주소	백산시 백산구 백산대가 1호(白山市白山區白山大街1號)		
자본금	13만 위안	기업유형	중외합작경영공사
TEL	0433-2948420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조녕(趙寧)	설립년도	2006.2.
품목	자철광개채, 철 정제분말 정밀가공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생조씨무역유한공사(長生·趙氏貿易有限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06.7.):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100만 달러, 50:50 합영, 중방 실물투자 50만 달러, 북한 실물투자 50만 달러, 경영기한 10년, 철, 동광 개채</li> </ul>		
회사명	송원시길성중앙수출입유한공사(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		
주소	부여시 증성진(扶餘市增盛鎭)		
자본금	2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8-5680001	FAX	0438 5680002
E-mail	merita@ddgs.net.cn	홈페이지	
대표	장충효(張忠孝)	설립년도	2006.4.
품목	동북지역 잡곡(땅콩류, 콩류, 대두, 녹두 등) 수매, 가공, 생산, 수출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羅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13.6.): 농산품</li> <li>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羅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14.1.): 농산품</li> <li>라선시길성동아회사(羅先市吉盛東亞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4.7.): 맥주, 양돈, 사료, 주정공장</li> </ul>		

회사명	연길권연공장(延吉捲煙倉)		
주소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 795호(延吉市河南街天池路795號)		
자본금	10,000만 위안	기업유형	국유공사
TEL	0433-2857769	FAX	0433-2812817
E-mail	info@yjcf.com	홈페이지	
대표	손국위(孫國偉)	설립년도	1975.9.
품목	권연 생산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길권연공장(延吉捲煙倉)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의 자회사</li> <li>대동강연초유한공사(大同江煙草有限公司)</li> <li>- 조선해양무역회사와 합영(1998): 투자총액 120만 달러, 51:49 합영, 중방 61.2만 달러 생산설비투자, 경영기간 10년, 권연생산</li> <li>- 평양시 낙랑구역 공장조업(2000.4.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다시 10년 연장</li> <li>- 2013년 권연생산판매량 3만 상자(한 상자 50보루)</li> <li>• 라선신흥연초공사(羅先新興煙草會社)</li> <li>- 기획건설 시작(1999)</li> <li>- 공장건물 건설 및 기초업무 시작(2001.6.7.)</li> <li>- 라선특별시 제1기 공정 준공(2001.10.1.)</li> <li>- 정식개업(2010.10.18.):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305만 달러(2009년경 250만 달러), 100% 투자기업, 권연생산 부지면적 8,400m<sup>2</sup>, 연간 권연생산능력 15억 개</li> </ul>		
회사명	연길선량혁업유한공사(延吉宣良鞋業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광명가 876-105호 중관빌딩 A좌 1102호 (延吉市光明街876-105號中關大廈A座1102號)		
자본금	36.10만 달러	기업유형	외자기업
TEL	0433-2898818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윤성수(尹聖洙)	설립년도	2008.6.
품목	겨울부츠, 아동신발 등 전문 생산가공 소매 및 수출입 및 기타 관련 서비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독자투자한 외자기업</li> <li>• 라선혁업합영공사(羅先鞋業合營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11.1.)</li> <li>- 각종 신발류 위탁가공수출</li> </ul>		

회사명	연길흡원지난공정유한공사(延吉歆元地暖工程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왕성로 1399-1호(延吉市旺盛路1399-1號)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FAX	
E-mail		홈페이지	www.cptn.net.cn
대표	박송걸(朴松傑)	설립년도	2012.6.
품목	바닥보일러, 난방 및 배수공사 시공·설계·자문, 화물 밍 기술수출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흡원회사(羅先歆元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4.7.)</li> <li>- 난방설비(플라스틱배관 및 파이프연결자재, 보일러 등) 생산·판매</li> </ul>		

회사명	연길시이마내리무역유한공사(延吉市以馬內利貿易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의란진 대성촌(延吉市依蘭鎮大成村)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한호(韓虎)	설립년도	2011.5.
품목	화물 수출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이림유한공사(羅先以林有限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11.12.)</li> <li>- 숙박·상업</li> </ul>		

회사명	연길시조흥림수출입무역유한책임공사(延吉市朝興林進出口貿易有限責任公司)		
주소	연길시 국자가 4080B-2-10(延吉市局子街4080B-2-10)		
자본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13843391338	FAX	
E-mail	13843391338@163.com	홈페이지	
대표	趙昌基	설립년도	
품목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흥륭회사(羅先興隆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5.5.)</li> <li>- 폐유, 원유 가공·판매·수출</li> </ul>		

회사명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延邊康德網絡科技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하남가 광화로 831-4호(延吉市河南街光華路831-4號)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0433-2809998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최걸(崔傑)	설립년도	2009.9.
품목	길림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 전신은 2004년에 설립된 컴퓨터회사 연길강덕연개발유한공사(延吉康德軟件開發有限公司)</li> <li>라선강덕산업회사(羅先康德產業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의 투자였던 라진종합시장항목을 개건·확장하는 형태로 라선시 정부와 계약체결(2011): 투자총액은 8,000만 위안</li> <li>- 상무부 비준(2012.8.): 대형슈퍼마켓 건설</li> <li>- 업무영역: 상품판매, 호텔, 부동산 임대, 화물수출입 등</li> <li>- 라선강덕종합시장 착공(2012.8.5.)</li> <li>- 라선강덕종합시장 준공(2013.11.21.)</li> </ul> </li> </ul>
------	--

회사명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 · 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吉林宇別宇爾運輸集團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애단로 734호(延吉市愛丹路743號) 훈춘시 하남가(琿春市河南街)*		
자본금	10,007.60만 위안, 4,104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2514003, 0433-7513751*	FAX	0433-7533681*
E-mail	kjdgrifoo@163.com jlyuber@126.com*	홈페이지	http://www.ybdongbeiya.com
대표	허록춘(許錄春), 적립지(翟立志)*	설립년도	1946.8, 1999.2.*
품목	운송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 교통운수분야 100강 기업 68위 기록(2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8월 설립, 2001년 직제개편으로 민영화</li> <li>- 연길-회령(2014.4.)과 연길-삼지연국제여객노선 개설(2014.6.)</li> </ul> </li> <li>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의 전신은 1952년에 설립된 훈춘유일의 공기업 훈춘시운수총공사(琿春市運輸總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직제개편으로 민영주식회사인 훈춘우통공사(琿春宇通公司)로, 2005년 3월 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로 변화</li> </ul> </li> <li>라선시동우운수합작유한공사(羅先市東宇運輸合作有限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와 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가 북한의 조선라선시륙해운총회사, 라선시관광총회사와 합작으로 국제여객버스노선 개설합의(2011.11.)</li> <li>- 라선시동우운수합작유한공사 설립(2012.6.)</li> <li>- 시운행(2012.8.17.)과 정식운행(2012.11.)</li> <li>-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와 길림우별이운수집단유한공사는 연길-훈춘-라선으로 연결되는 국제여객버스노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만 위안을 투자 호화버스 11대를 구입해 동 노선에 투입</li> </ul> </li> </ul>		

회사명	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延邊美香民族食品加工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용연촌 1대(延吉市龍淵村一隊)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유한책임공사
TEL	0433-2595077	FAX	
E-mail	cangy.gouwu@yahoo.com.cn	홈페이지	
대표	한미향(韓美香)	설립년도	2008.11.
품목	누룽지 생산, 판매, 수출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는 2003년 3월 ISO9001통과</li> <li>- '한향' 브랜드 계열의 누룽지는 2002년부터 미국 사이판으로 수출</li> <li>연변미향&lt;라선&gt;식품회사(延邊美香&lt;羅先&gt;食品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3.02.)</li> <li>- 식품, 수산물 가공·판매</li> </ul>		

회사명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延邊虹達工貿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이란진 용연 4조(延吉市依蘭鎮龍淵4組)		
자본금	15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0433-2595266	FAX	
E-mail	Qinglanxu66@Hotmail.Com	홈페이지	
대표	송성군(宋成君)	설립년도	2003.11.
품목	식품, 수산물, 음료, 냉동창고, 건재 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朝鮮羅先美延商業會社)</li> <li>- 상무부 비준일(2006.4.)</li> <li>- 상업(술, 음료, 식품가공 판매)</li> </ul>		

회사명	연변선춘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先春國際貿易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창업대가(琿春邊境經濟合作區創業大街)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기업공사
TEL	13844319229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김흥철(金興哲)	설립년도	2011.3.
품목	복장, 전자제품, 가정용전기기구, 기계설비, 수출입무역, 변경소액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시 중심에 고신기술구, 상업구, 물류구를 설립 - 기획 부지면적 61.4477ha로 토지 등 관련 수속완성</li> <li>• 조선국제선춘회사(朝鮮國際先春會社) - 상무부 비준일(2011.11.) - 건축재료, 가공·위탁판매</li> </ul>
------	---

회사명	연변성신혼응토유한공사(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소영진 하용촌(延吉市小營鎮河龍村)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0433-2838197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장전군(張傳軍)	설립년도	2007.6.
품목	콘크리트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성신[라선]건재창(延邊誠信[羅先]建材倉) - 상무부 비준(2012.11.) - 콘크리트 생산·판매</li> <li>• 평양북방건재합영공사(平壤北方建材合營公司) - 상무부 비준(2013.5.) - 시멘트</li> </ul>		

회사명	연변성해상무유한공사(延邊盛海商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연변경제합작구 5호 소구(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5號小區)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3-7521908	FAX	0433-7521908
E-mail	baixinglife@163.com	홈페이지	
대표	어치해(於治海)	설립년도	2005.9.
품목	농부산물, 수산물, 일용백화, 토특산물, 방직제품, 건재, 강재, 변경소액 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합영회사(會元合營會社) - 상무부 비준(2007.10.): 등록자본 66.5만 달러, 투자총액 86.45만 달러, 50:50 합영, 중방 설비 43.225만 달러 투자, 북한 공장·설비 등 실물 43.225만 달러 투자, 경영기한 7년 - 비닐포장지 생산판매, 수산물 양식가공판매</li> </ul>		

회사명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旺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하남가 참전로 13호 북측(延吉市河南街站前路13號北側)		
자본금	20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18843394333	FAX	
E-mail	willam0710@163.com	홈페이지	http://www.unaforte.net
대표	초춘휘(招春暉)	설립년도	2014.1.
품목	일용백화, 오금건재, 복장·신발·모자, 주얼리,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등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는 2014년 1월에 설립된 외상독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일용백화, 오금건재, 수출입무역, 부동산투자 등</li> <li>- 홍콩의 홍콩왕복특유한공사(香港旺福特有限公司)가 모회사</li> </ul> </li> <li>홍콩왕복특유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독자기업으로 그 주주는 이탈리아, 도미니카, 미국의 3국으로 구성</li> <li>- 산하에 연길시에 투자한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와 북한에 투자한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 동대은행(東大銀行), 라선우나포르테유한회사 보유</li> </ul> </li> <li>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羅先旺福特貿易有限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4.4.): 대형상업단지</li> <li>- 라선왕복특상업원은 라선우나포르테유한회사가 이미 임차한 라선시 안화동 20,000㎡의 토지에 건축면적 50,000㎡로 현재 건설 중</li> </ul> </li> </ul>		

회사명	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延邊旺達貿易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백산서로3000-2호(延吉市長白山西路3000-2號)		
자본금	120만 위안	기업유형	주식합작경영공사
TEL	0433-2837117	FAX	0433-2838974
E-mail	yjwangda@163.com	홈페이지	http://ybwamy.ybqh.cn/
대표	김봉운(金鳳雲)	설립년도	2002.1.
품목	오징어, 연어, 대구 등 수산품 가공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는 부지면적 23000㎡, 공장면적 6000㎡, 급속 냉동창고 1000㎡, 총투자 3,000만 위안, 국가 QS인증, ISO22000식품 안전체계인증을 받은 가공무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영 수산품 품종은 오징어, 연어, 대구, 문어, 고등어, 성게, 소라, 새꼬막 등 패류이며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왕달식품유한회사는 1998년 설립, 도문시와 라진지역에 수산물 생산 가공기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문공장: 명태, 오징어 생산·가공</li> <li>- 라진공장: 성게, 게류, 패류의 생산·가공</li> </ul> </li> <li>• 라진은행회사(羅津銀港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7.2.)</li> <li>- 어구공급, 수산물 가공양식</li> </ul> </li> </ul>
--	--

회사명	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공사(延邊汪淸干菜加工有限公司)		
주소	왕청현 동진로 27호(汪淸縣東振路27號)		
자본금	50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8814055	FAX	0433-8814260
E-mail	ybwqgcjgc@yahoo.com.cn	홈페이지	
대표	허춘희(許春姬)	설립년도	2007.10.
품목	수산물, 채소냉장, 잣, 식용버섯, 토특산품 등 생산 가공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청현공급수매합작사 하급기업으로 2007년 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 공사로 개명, 현재는 민영기업으로 농부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를 하는 수출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자산 700만 위안, 부지면적 20,000m<sup>2</sup>, 건축 사무청사 3,000m<sup>2</sup>, 창고면적 5,000m<sup>2</sup>, 과일용지하실 1,400m<sup>2</sup></li> <li>- 생산제품은 말린 채소, 중약재, 절임산나물, 잡곡 등 4대 특색계열의 농부특산물로 50여 개 품종: 주요 제품은 오미자, 고사리, 목이버섯, 표고버섯, 백출, 둥글레 등</li> <li>- 2012년 판매액 4,000여만 위안, 수출액 600만 달러</li> </ul> </li> <li>• 라선태화회사(羅先泰和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0.12.)</li> <li>- 수산물 등 판매</li> </ul> </li> </ul>		

회사명	연변원통국제과공무유한공사(延邊遠通國際科工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변경경제합작구 5구 소구(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5號小區)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주식제 공사
TEL	0433-7622727	FAX	0433-7622323
E-mail		홈페이지	
대표	범응생(範應生)	설립년도	2009.1.

품목	광산품, 자원류 생산품 위주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봉연유가공합영회사(先鋒燃油加工合營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2.10.)</li> <li>- 중계무역, 연유가공</li> </ul>

회사명	연변위봉국제경무유한공사(延邊衛峰國際經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신안가 태달물류빌딩 2층(琿春市新安街泰達物流大廈2樓)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독립법인 유한책임공사
TEL	0433-7552973, 7506368	FAX	0433-7506358, 7506338
E-mail	ybtgdjismwl@sina.com	홈페이지	
대표	로봉방(盧鵬方)	설립년도	2009.1.
품목	양식·성품유·목제품·식품 등 수출과 강철·수산물·화학비료·목재 등 수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북한·일본·러시아 등의 국가와 무역, 연평균 수출입액 5,000만 달러</li> <li>- 2009년 ISO9001인증체계 통과, 러시아·북한·장춘·북경·대련 등에 사무소 운영</li> <li>• 러시아 스피드하이터 개체농장(俄羅斯彼得海伊特個體農場)과 공동으로 양식, 재배에 투자</li> <li>- 러시아 극동 하산지역에 3,000ha의 농업항목에 총 3,000만 달러 투자</li> <li>• 조선라선위봉경무회사(朝鮮羅先衛峰經貿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1.9.)</li> <li>- 기계설비 임대</li> </ul>		

회사명	연변중덕경무유한책임공사(延邊重德經貿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하남가 18-6-4호(延吉市河南街18-6-4號)		
자본금	3,000.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유한공사
TEL	0433-3634048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기경신(冀更新)	설립년도	2010.10.
품목	금속광산, 전기기계 제품, 화공제품, 오금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중덕경무유한책임공사의 모기업은 2006년에 설립된 무한중덕 환경보호공정유한회사(武漢重德環保工程有限公司)</li> <li>- 제강부산물(아금 폐기물) 종합이용에 종사하는 환경보호형 민영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마산합영공사(天馬山合營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일(2013.12.)</li> <li>- 고로재활용, 전로재 등 고체폐기물</li> <li>- 분말연탄재 아급, 철분생산(제강부산물), 강재시멘트, 건자재 등</li> </ul> </li> </ul>
--	--

회사명	연변창신방지산개발유한공사(延邊創新房地產開發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연집가 28(延吉市煙集街28)		
자본금	1,00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현철봉(玄哲峰)	설립년도	2011.9.
품목	부동산개발경영, 건재·사석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삼봉건재공사(羅先三峰建材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4.3.)</li> <li>- 건재 생산·판매</li> </ul> </li> </ul>		

회사명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주소	용정시 신민가(龍井市安民街)		
자본금	2,000.00만 위안	기업유형	주식공사
TEL	0433-2091589	FAX	0433-2902569
E-mail	chlwlghd@vip.163.com	홈페이지	www.tianyucc.com
대표	정철희(鄭哲熙)	설립년도	2010.3.
품목	광산물, 무역, 공사총도급, 노무합작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는 길림천우 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산하에 조선무산선광장, 조선청진선광장, 조선라진시장,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등 대북투자사업 보류</li> </ul> </li> <li>•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3.7.)</li> <li>- 모래자갈</li> </ul> </li> </ul> ☞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 참조		

회사명	연변해구동부진출구무역유한공사(延邊海溝東部進出口貿易有限公司)		
주소	연길시 애단로 63-16-3호(延吉市愛丹路63-16-3號)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국유주식공사
TEL	0433-2528905	FAX	0433-2538905
E-mail	ybhaigou@sina.com	홈페이지	
대표	장수학(張樹學)	설립년도	2007.4.
품목	광산품, 건설자재, 기계설비, 자동차 부속품, 오금 기자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희령광업개채합작회사(朝鮮會寧礦業開采合作會社) - 상무부 비준(2007.12.): 등록자본 100만 달러, 투자총액 260만 달러, 50:50 합영, 중방 설비, 기술 등 실물형식으로 130만 달러 투자, 북한 자원과 노동력 등 실물형식으로 130만 달러 투자, 경영기한 10년</li> <li>- 몰리브덴 생산</li> </ul>		

회사명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주소	도문시 금수가 24호(圖們市錦水街24號)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0433) 6126396	FAX	
E-mail	Tumenjiang@hotmail.com	홈페이지	
대표	주의명(朱毅明)	설립년도	2004.4.
품목	오금, 교통·전자 기자재, 강철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는 해화 무역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li> <li>• 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 - 상무부 비준(2005.9.):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 북한 청진시인민위원회와 합작: 중방 98.7만 달러, 북한 51.3만 달러 투자 - 상무부 비준(2013.12.):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비준</li> <li>• 청진수성천합작회사(淸津水成川合作會社) - 상무부 비준(2007.3.): 공업규소 - 북한 청진시인민위원회와 합작: 등록자본 103.5만 달러, 투자총액 156.6만 달러, 50:50 합영, 중방 설비 78.3만 달러, 북한 토지 등 실물 78.3만 달러, 경영기간 10년 - 상무부 비준(2013.12.):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이름으로 비준</li> </ul>		

회사명	요원시가익침방유한공사(遼源市嘉益針紡有限公司)		
주소	요원시 용산구 복수로 121호(遼源市龍山區福壽路121號)		
자본금	58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13843785500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견장순(甄長順)	설립년도	2004.1.
품목	방직사 생산가공, 면합성 방직사, 폴리에스테르 방직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말업가공창(先源裨業加工倉)</li> <li>- 상무부 비준(2009.3.)</li> <li>- 양말</li> </ul>		

회사명	용정시두만강수전유한공사(龍井市豆滿江水電有限公司)		
주소	용정시 백금향 안가동(龍井市白金鄉安家洞)		
자본금	111.5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3-3224756	FAX	0433-3222682
E-mail	Yianbian@hotmail.com	홈페이지	
대표	이춘선(李春善)	설립년도	1980.10.
품목	수력발전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룡합영공사(五龍合營公司)</li> <li>- 상무부 비준일(2005.12.)</li> <li>- 자철정광</li> </ul>		

회사명	용정시청옥무역유한공사(龍井市淸玉貿易有限公司)		
주소	용정시 길승가 육도하로 116호(龍井市吉勝街六道河路116號)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이도문(李道文)	설립년도	1996.3.
품목	방직품, 오금, 교통·전자 기자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보통강건재합영공사(朝鮮普通江建材合營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07.8.): 등록자본 765만 달러, 총 투자액은 1166.67만 달러, 60:40 합영, 중방 설비·기술 등 실물투자 700만 달러, 북한 토지 등 실물투자 466.67만 달러, 경영기한 10년</li> <li>- 벽돌과 각종 도로 생산 판매</li> <li>- 건재공업성 보통강대외경제협조총회사와 합영</li> </ul>
------	--

회사명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주소	용정시 용성로 44호(龍井市龍盛路44号)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2557621	FAX	2557621
E-mail		홈페이지	
대표	이봉희(李峰熙)	설립년도	2008.1.
품목	복장, 백화, 자동차부속품, 기계유, 광석, 식량 등 교통, 운수, 물류, 운송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석재합영회사(羅先石材合營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2.6.)</li> <li>- 석재·라선봉정회사(羅先峰程會社)</li> <li>- 2010년 2,000만 위안 투자</li> <li>- 상무부 비준(2011.7.)</li> <li>- 상업: 무역, 주유소운영(기름, 연료), 주점 등</li> </ul>		

회사명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평광업유한공사 (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		
주소	백산시 장백현 탑삭사구 3조 복루 소구 7호루 1단원 151실 (長白鎮塔山社區三組福樓小區7號樓1單元151室)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9-6168937	FAX	0439-3225948
E-mail	cbygm@tom.com	홈페이지	
대표	왕홍가(王洪佳)	설립년도	2007.6.
품목	코크스,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금, 몰리브덴 광석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평광광업합영회사(凱旋曙光礦業合營會社)</li> <li>- 길림서광공무유한공사(吉林曙光公貿有限公司) 갑산문락평(甲山文落坪) 자철광 개발을 위해 조선개선평무역회사와 개선평광광업합영</li> </ul>		

	<p>회사 설립(2006.6.): 60:40 합영, 중방 3,600만 위안 상당의 채광 설비·운송차량·선광공장 출자, 북한 2,400만 위안 상당의 광산자원과 토지 출자, 선광공장과 재무담당부서는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에 두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 선광공장 기공식을 장백조선족자치현 만보강촌에서 거행(2007.5.11.)</li> <li>- 길림서광공무유한공사 등록자본금 100만 위안으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 설립(2007.6.3.)</li> <li>- 상무부 비준(2012.3.):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의 이름으로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 설립</li> </ul>
--	---

회사명	장춘신대석유집단농안석유화공유한공사 (長春新大石油集團農安石油化工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농안현 공업집중구 내(長春市農安縣工業集中區內)		
자본금	18,366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1-89931666	FAX	
E-mail	ccxdsy@163.com	홈페이지	http://www.jlxdsy.com
대표	장학무(張學武)	설립년도	2006.10.
품목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춘신대석유집단농안석유화공유한공사는 장춘신대석유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춘신대석유집단의 전신은 장춘시물자협력유한회사(長春市物資協作有限公司), 국유기업을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li> <li>- 2015년 현재 직원 1,530명, 총자산 244,045만 위안</li> <li>-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세금납부 누적액 21.26억 위안, 연속 3년 길림성 민영기업 2~3위 기록</li> </ul> </li> <li>• 라선신대국제상무중심회사(羅先新大國際商貿中心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2.12.)</li> <li>- 비즈니스센터</li> </ul> </li> </ul>		

회사명	천지집단유한공사(天池集團有限公司)		
주소	장춘시 동남호대로 1717호 새동빌딩 8층 (長春市東南湖大路1717號賽東大廈8樓)		
자본금	5,000만 위안	기업유형	주식유한공사
TEL	0431-81919663	FAX	0431-81919600

E-mail		홈페이지	<a href="http://www.jltcgroup.com.cn">http://www.jltcgroup.com.cn</a>
대표	조장수(趙長壽)	설립년도	2003.11.
품목	철광석 사업, 몰리브덴 광석 운영, 광물 자원 탐사 및 투자 사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에도 길림성 화룡시 동심동로 73호[5구](吉林省和龍市同心東路 73号[五區])에 적을 두고 있으나 천지집단의 실제적 모회사는 장춘에 있는 길림천지광업주식유한공사(吉林天池礦業股份有限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지집단총부를 장춘시로 이전(2010.10.)</li> <li>- 길림천지광업주식유한공사의 전신은 2006년 11월에 성립된 길림천지광업유한공사인데, 2012년 6월 이를 길림천지광업주식유한공사로 개명</li> </ul> </li> <li>• 무산철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과 길림성 상무청은 무산철광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시작(2003)</li> <li>-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延邊天池工貿有限公司)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1,200만 달러) 규모의 채광설비 투자(2003.10.)</li> <li>- 통화강철집단, 천지집단, 중강(中鋼)그룹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무산철광개발에 인민폐 70억 위안(약 8억 6,741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북한과 합의(2005.11.)</li> <li>- 천지집단 무산철광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합작계약 체결(2007년 상반기): 1억 5,000만 달러 투자</li> <li>- 천지집단의 자회사인 길림천지광업유한회사의 선광공장 건설식을 화룡시 팔가지진에서 거행(2007.7.17.)</li> </ul> </li> <li>• 평양판사처(平壤辦事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 평양판사처 설치 상무부 비준(2007.3.)</li> <li>- 천지집단유한공사 판사처 상무부 비준(2013.7.): 공사의 북한 수출입 무역 지원</li> </ul> </li> <li>•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平壤國際投資合營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에 대한 길림성 경외투자 비준(2008.7.)</li> <li>-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 연결 대표처 길림성 등록(2010)</li> <li>- 상무부 비준(2013.5.):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가 평양기술개발 중심과 합영, 60:40 합영, 중방 현금과 설비 600만 달러 투자, 북한 토지사용권과 현금 400만 달러 투자, 경영기간 15년, 설립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 기여, 주 업무는 광산개발, 광산장비위탁판매, 철광분 회수 등</li> </ul> </li> </ul>		

회사명	통화시의창경무공사(通化市懿昌經貿公司)		
주소	집안시 산성로 44호(集安市山城路44號)		
자본금	60만 위안	기업유형	집체공사
TEL	0439-8229978	FAX	0439-8229978
E-mail		홈페이지	
대표	진위(陳偉)	설립년도	1994.3.
품목	몰리브덴, 안티몬 광석, 탄탈, 규소, 니켈, 운모, 텅스텐, 카드뮴 희귀 금속광산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원금창합작회사(樂園金昌合作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06.6.)</li> <li>- 투자총액 144만 달러, 67:33 합영, 중방 실물형식으로 96만 달러 투자, 북한 실물형식으로 48만 달러 투자, 경영기한 10년</li> <li>- 중석, 몰리브덴, 안티몬 등 희귀금속광</li> </ul> </li> </ul>		

회사명	훈춘금도대지무역유한공사(琿春金道大地貿易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신안가 화부 아파트 601실(琿春市新安街華府公寓601室)		
자본금	30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13943356633	FAX	
E-mail	lxssmile@163.com	홈페이지	
대표	조현화(趙顯華)	설립년도	2013.9.
품목	일용백화, 오금제품, 교통/전기 기자재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관광대지합작회사(羅先觀光大地合作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4.3.)</li> <li>- 호텔</li> </ul> </li> </ul>		

회사명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변경경제합작구 13호(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13號)		
자본금	1,30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7885666	FAX	0433-7885999
E-mail	hc_pagoda@aliyun.com	홈페이지	http://www.pagodaseafood.com

대표	이숙영(李淑英)	설립년도	2010.8.
품목	해산물 수출입 및 가공과 판매, 보세물류, 수산물 냉동보관 및 운송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는 길림성에서 제일 큰 해산물 가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의 자회사</li> <li>- 투자 1.1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8,700만 위안, 토지 면적 9.6만 m<sup>2</sup>, 건설면적 1.35만 m<sup>2</sup></li> <li>- 주요 업무는 수산물 수출입가공, 도소매, 수산물 냉장보관 및 운수 등으로 오징어, 대구, 연어 등 해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며, 주요 판매처는 일본, 한국, 유럽지역</li> <li>- 규모 10,000톤의 영업 냉장창고, 길림성에서 유일한 보세 냉장창고, 3개의 대형 냉동어류 가공작업장과 1개의 대형 마른 오징어 가공 작업장 보유</li> </ul> </li> <li>•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독자투자기업인 중외합자기업</li> <li>- 1994년에 설립, 20,000톤 영업냉장창고에 2개의 독립가공작업장 운영</li> <li>- 오징어, 북태평양연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등의 상품을 생산</li> <li>- 2005년에는 해외 오징어 수매기지를 구축, 규모 3,000톤의 냉장창고 보유</li> </ul> </li> <li>•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朝鮮羅先啓盛加工貿易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2.8.)</li> <li>- 오징어, 대구 등 수산물 수출입</li> </ul> </li> </ul>		

회사명	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琿春明旭實業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변경경제합작구 8호 소구(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8號小區)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TEL	15834750676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한국화(韓國花)	설립년도	2012.5.
품목	복장 가공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명옥무역회사(羅先明旭貿易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2.8.)</li> <li>- 유행복 생산(내의, 운동복, 점퍼, 숙녀복 등)</li> </ul> </li> </ul>		

회사명	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용원서가 1467호(琿春市龍源西街1467號)		
자본금	1,50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7502768	FAX	0433-7532768
E-mail	las1@163.com	홈페이지	www.hcjian.com
대표	조학륜(趙學倫)	설립년도	2003.7.
품목	부동산 개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국내외 관광개발, 대출, 전당포, 경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 훈춘시 소재 민영기업으로 1992년 3월 설립, 2003년 훈춘시 길안실업집단공사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15개 자회사에 부동산개발을 시작으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국내외관광개발, 소액담보대출, 전당포, 경매, 자산평가, 대외무역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li> </ul> </li> <li>• 라선시관광종합개발회사(羅先市旅遊(觀光)綜合開發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라선 비파도해안 관광리조트지역 건설종합계획&gt; 연구 계획서 발표와 투자자 모집(2009.5.)</li> <li>- 상무부 비준(2010.3.): 비파도관광지 개발</li> <li>- 비파도 개발을 위한 라선시관광종합개발회사 개발계획 작성과 홍보 시작(2010.7.)</li> <li>- 이전 프로젝트 수정 및 재홍보 진행(2015년 현재)</li> </ul> </li> </ul>		

회사명	훈춘시남양구물유한공사(琿春市南洋購物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신안가(琿春市新安街)		
자본금	51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3-7568818	FAX	0433-7568818
E-mail	7568818@qq.com	홈페이지	
대표	전학염(戰學艷)	설립년도	2007.3.
품목	복장, 신발 및 모자, 방직품 등 판매, 판매대 임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남양회사(羅先南洋會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2014.5.)</li> <li>- 호텔, 백화점, 오피스빌딩 판매 및 임대</li> </ul> </li> </ul>		

회사명	훈춘시지강과기유한공사(琿春市智強科技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신안가(琿春市新安街)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FAX	
E-mail		홈페이지	<a href="http://www.hczhiqiang.com/">http://www.hczhiqiang.com/</a>
대표	고길려(高吉麗)	설립년도	2005.7.
품목	시스템통합배선연계 업무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라선신흥분상사(朝鮮羅先新興分商社)</li> <li>- 상무부 비준(2010.5.)</li> <li>- 수산품생산·가공</li> </ul>		

회사명	훈춘시초월상무유한공사(琿春市超越商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신안가(琿春市新安街)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7695135	FAX	0433-7695135
E-mail		홈페이지	
대표	박화춘(朴花春)	설립년도	1999.11.
품목	방직복장제조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편직품가공회사(海洋針織品加工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09.7.)</li> <li>- 복장가공(각종 침직품)</li> </ul>		

회사명	훈춘승진무역유한공사(琿春承珍貿易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춘경촌 장령공로 서측 (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春景村長嶺公路西側)		
자본금	5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숙동(宿東)	설립년도	2011.6.
품목	플라스틱 가방, 냉장 장비, 직물, 복장, 태양열 온수기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승진회사(羅先承珍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1.10.)</li> <li>-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li> </ul>		
------	--	--	--

회사명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하남가(琿春市河南街)		
자본금	245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FAX	0440-7521828
E-mail		홈페이지	
대표	기혜근(紀惠芹)	설립년도	2005.1.
품목	복장, 침상용품, 수출입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공장은 1998년에 건설, 부지면적은 1만 m<sup>2</sup> 정도</li> <li>- 현재 공인 620명(숙련 봉제 A급노동자 400명), 10개의 현대화된 가공 작업라인, 연간 의류 생산량 200만 세트, 내의 연간 생산량 800만장의 생산규모</li> <li>- 국내에 4개의 분공장, 북한에 4개의 협력공장 보유</li> <li>• 조선라진혜성회사(朝鮮羅津惠勝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07.6.): 조선라진공업회사와 합작, 60:40 합작, 등록 자본 및 투자총액 125만 달러, 중방 설비 및 무형자산의 형태로 75만 달러 투자, 북한 공장 및 기초시설 형태로 50만 달러 투자, 경영기간 5년</li> <li>- 복장가공(편직)</li> </ul>		

회사명	훈춘원형경무유한공사(琿春遠馨經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정화가 화하 3호(琿春市靖和街華廈3號)		
자본금	5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유한책임공사
TEL	0440-7692333	FAX	0440-7534567
E-mail		홈페이지	
대표	온덕원(溫德遠)	설립년도	2004.11.
품목	목재, 해삼, 폐 플라스틱, 폐 철강, 각종 어류·계류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선영선합영회사(羅先嶺先合營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2.7.)</li> <li>- 복장제조</li> </ul>		

회사명	훈춘정성공무유한공사(琿春精誠工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수출가공구 4호 소구(琿春市琿春出口加工區4號小區)		
자본금	500만 위안	기업유형	유한책임공사
TEL	0433-7611002	FAX	0433-7611001
E-mail		홈페이지	
대표	어윤겸(於潤謙)	설립년도	2006.8.
품목	강화마루, 젓가락, 이쑤시개, 나무방부제, 목재가구제조, 목재생산, 판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부지면적 12,000m<sup>2</sup>, 각종시설면적 5,000m<sup>2</sup>, 직공 100명, 총자산 5,000만 위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선진기계설비 구입, 연간 각종상품 11만 톤 생산</li> <li>- 러시아, 북한의 원목을 수입, 가공하여 한국, 일본, 기타국가 등으로 수출</li> <li>• 두만강목재가공창(豆滿江木材加工廠)</li> <li>- 상무부 비준(2015.3.)</li> <li>- 원목채벌, 판자재, 위생젓가락, 아이스크림막대, 이쑤시개</li> </ul>		

회사명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정화가 항무빌딩 4층(琿春市靖和街航務大廈4樓)		
자본금	3,000만 위안	기업유형	
TEL	0433-7501516	FAX	0433-7507373
E-mail	chuangli1212@126.com	홈페이지	http://vip.sol.com.cn/SOL04110475/
대표	어봉향(於鳳香)	설립년도	2008.12.
품목	석탄 운송 판매, 화물운송, 곡물·오일 판매, 어류 판매, 상품 수출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의 모회사는 요녕성 대련시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力經濟貿易有限公司)</li> <li>•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朝鮮羅先創力國際物流有限公司)</li> <li>- 북한 라선강성무역회사와 라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에 관한 합병 계약 체결(2008.7.): 라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 확보</li> <li>-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에 따라 훈춘광업집단(琿春鑛業集團)이 생산한 1.7만 톤의 훈춘석탄을 상해로 시험수송(2011.1.11.)</li> <li>-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 30년 확보(2011.7.)</li> <li>- 상무부 비준(2012.11.): 라진항 1호 부두 경영, 물류창고, 해상·도로 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라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협약서&gt; 체결(2014.8.18.)</li> <li>- 중국 훈춘-라진항-상해간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 컨테이너항로 정식개통(2015.6.11.)</li> <li>- 2015년 12월 현재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 40년 확보</li> </ul>
--	---

회사명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1호 소구(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1號小區)		
자본금	55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7612632	FAX	0433-7612637
E-mail	hcabc58@hotmail.com	홈페이지	www.hcfhzy.com
대표	림립화(林立華)	설립년도	2000.5.
품목	복장생산 및 기술 수출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설립, 2000년 민영기업으로 재편, 2001년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입주</li> <li>- 2002년 이후 상무부 비준기준 길림성의 제1호, 의류분야 제1호 대북 투자 업체</li> <li>- 1997년 북한 라선-선봉시와 합작 3개의 역외 가공기업 경영</li> <li>•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羅先市風華制衣有限公司)</li> <li>- 상무부 비준(2003.11.): 중방 투자액 13.3만 달러, 독자기업진출</li> <li>- 복장가공</li> </ul>		

회사명	훈춘홍원공무유한공사(琿春紅源工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수출가공구 5호 소구(琿春市琿春出口加工區5號小區)		
자본금	1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독자기업
TEL	0433-7596760	FAX	0433-7508150
E-mail	YUFENGHUA001@126.com	홈페이지	
대표	유봉화(俞峰華)	설립년도	2008.7.
품목	수산물가공 판매, 친환경봉투가공 판매, 수출입, 변경소액무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라선홍원무역회사(朝鮮羅先紅源貿易會社)</li> <li>- 상무부 비준(2015.3.)</li> <li>- 오징어 등 수산물 판매</li> </ul>		

회사명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紅昊食品工貿有限公司)		
주소	훈춘시 훈춘변경경제합작구 14호소구(琿春市琿春邊境經濟合作區14號小區)		
자본금	3,600만 위안	기업유형	민영공사
TEL	0433-7867666	FAX	0433-7509565
E-mail	hchonghao123@163.com	홈페이지	http://hchonghao.com
대표	희운산(姬雲山)	설립년도	2012.3.
품목	수산물 가공, 식품가공, 저장 및 물류, 수출입무역 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랜 북한사업 경험을 보유한 희운산은 2009년 훈춘홍호수출입무역공사(琿春洪昊進出口貿易公司), 2012년 훈춘노희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이하 훈춘노희)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춘노희(훈춘홍호)는 냉동수산물가공, 저장운수를 위주로 하는 회사: 부지면적 1.8만 m<sup>2</sup>, 생산작업장 4,000m<sup>2</sup>, 냉장창고 6,000m<sup>2</sup>, 판공청사 2400m<sup>2</sup>, 공장녹화면적 1,200m<sup>2</sup></li> <li>- 현재 공사의 오징어계열 상품생산은 전국 3위, 전국 26개 성시에 중개상과 직영점, 2014년 판매수입은 3억 위안 초과</li> <li>- 2014년 현재 기존 북한의 3개 가공공장 이외에 또 3개의 가공공장을 더 건설: 북한공장의 연간 오징어제품 생산량은 4만 톤, 즉각냉동 저장능력은 2만 톤</li> </ul> </li> <li>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비준일(2015.5.): 북한의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와 합작</li> <li>- 수산물 매집, 가공 및 판매</li> <li>- 북한의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는 2013년 6월 기준 약 700명의 직원을 두고 조개, 새우, 오징어, 문어, 송어 등 수산물을 매년 1만 톤가량 생산해 주로 중국시장에 판매</li> </ul> </li> </ul>		

회사명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주소	도문시 금수가 24호(圖們市錦水街24號)		
자본금	10,000만 위안	기업유형	사영공사
TEL		FAX	
E-mail		홈페이지	
대표	주의명(朱毅明)	설립년도	2004.4.
품목	오금, 강재, 방직품, 철강, 석탄, 화학제품, 농약, 수산물 가공		

-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의 전신은 연변해화무역유한공사
- 해항합영회사(海港合營會社)
  - 중국의 청진항 진출협상은 도문시 정부의 주도로 시작(2007.12.)
  - 도문시 정부와 북한 청진철도국간에 청진항이용에 관한 <중국 도문-북한청진-중국 장삼각지역 내수무역 초국경 철도운수협약>가 서명(2008.6.25.)
  - 연변해화무역유한공사와 조선영흥무역회사 간에 북한 남양-청진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화물 철도운송 계약서 서명(2009.10.)
  - 조선항만총회사와 화물조직 협의회,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朝鮮外國船舶代理會社)와의 북한 경내 및 항구 화물대리운송 협의회 서명(2009.12.)
  - 조선영흥회사와 남양-청진철도 투자계약서 및 청진항 3~4호 부두 개조(항구 임대기간 15년) 계약서 서명(2010.5.)
  - 해화무역집단과 조선항만총회사 간에 해항합영회사 설립에 관한 정식계약서 서명(2012.9.1.): 투자총액 1,556만 유로, 60.46:39.54 합영, 중방 하역설비·운수도구·항구건설기재 등 943만 7,840유로 투자, 북한 3,180m<sup>2</sup> 부두와 4,000m<sup>2</sup> 노천화물화차장에 대한 30년간의 임대비 612만 2,160유로 투자, 경영기간은 30년, 중방 청진항 3-4호 부두 잠정 30년 사용권 획득
  - 상무부 비준(2013.12.)
  - 해화무역집단 조선합영투자위원회로부터 정식 영업허가증 취득(2014.9.23.)
  - 2014년 12월 기준 이미 6,000만 위안을 투입해 청진항에 필요한 3.6만 m<sup>2</sup> 부두지면 안정화작업, 195량의 통도전용객차 배정, 항구기중기 궤도 및 케이블 부설, 컨테이너와 잡화겸용 40톤 급 기중기제작 등을 마무리
- 청진수성천합작회사(淸津水成川合作會社)
  - 상무부 비준(2013.12.), 공업규소 ⇨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참조
- 청진금속합작회사(淸津金屬合作會社)
  - 상무부 비준(2013.12.): 플라스틱 ⇨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참조

## 부록 2-1. 대북투자 상무부비준서 전문 예시: 청진수 성천합작회사

상무부에서 청진수성천합작회사 설립을 동의하는 것에 관한 비준회답 상합비 [2007] 제182호(商務部關於同意設立清津水成川合會社的批夏商合批[2007]第182号)

- 길림성상무청: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가 북한에 기업을 설립할 것에 관한 요청(길상합작자 [2007] 14호)>. 연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비준 회답한다.

1. 길림성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가 조선청진시인민위원회와 합작하여 북한에 “청진수성천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 경외기업의 등록자본은 103.5만 달러이고, 투자총액은 156.6만 달러이다. 그 중 중국측은 설비로 78.3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한다. 외국측은 토지 등 실물로 78.3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한다. 경영기한은 10년이다.
2. 이 경외기업의 경영범위는 공업규모의 생산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3. 이 회신문서를 받은 후 주최단위에 통지하여 길림성 상무청에 가서 <중국기업경외투자비준증서(中國企業境外投資批准證書)>를 수령 받도록 한다. 이 비준 증서로 1년 내에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4. 주최 단위를 독촉하여 이 비준증서를 수령한지 60일 내에 외환관리부문에 가서 관련 등기수속을 하도록 한다.
5. 주최 단위에서 정치적 소질이 좋고 업무에 익숙하고 외국어를 알고 개척정신이 있는 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책임지고 완성시켜야 한다. 중국측의 주요 책임자는 도착 후 비준 증서(복사본)을 가지고 주 북한영사관 경상처(經商處)에 도착을 알리고 등록해야 하며, 중국측의 파견인원은 반드시 우리 영사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경외기업은 안전, 품질, 지식재산권, 사회책임 등 방면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6. 기업이 경외에서 등록하여 설립된 후 등록문건을 길림성 상무청에 제출하여 등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또한 <경외투자연합연례검사잠정방법(境外投資聯合年檢暫行辦法)>의 규정에 따라 경외기업의 연례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7. 경외기업이 만약 북한에서의 등록지를 변경하거나 혹은 북한 경내의 기타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내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2007년 3월 12일

## 부록 2-2. 대북투자 상무부비준서 전문 예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상무부에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설립을 동의하는 것에 관한 비준회답 상합비 [2008] 제2호(商務部關於同意設立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的函商合批[2008]第2号)

- 국가연초전매국: <국가연초전매국에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북한에 관련생산기업을 합자설립할 것에 관한 심사비준 신청(국연계 [2007] 557호)> 연구를 거쳐, 현 아래와 같이 회답한다.

1. 국 소속의 길림성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북한에서 북한연초수출입상사와 합자하여 “평양백산연초책임유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 경외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은 모두 400만 유로이며, 이 중에서 중국측 설비의 환산 출자는 204만 유로로 51%를 차지한다. 외국측 토지, 공장건물 등 일체 설비의 환산 출자는 196만 유로로 49%를 차지한다. 경영기한은 10년이다.
2. 경외기업의 경영범위는 관련의 생산, 판매 및 원재료, 설비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3. 이 회신문서를 받은 후 주최단위에 통지하여 상무부에 가서 <중국기업경외투자비준증서(中國企業境外投資批准證書)>를 수령 받도록 한다. 비준증서를 수령한 60일 내에 외환관리부

분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비준 증서로 1년 내에 기타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4. 기업이 경외에서 등록하여 설립된 후 등록문건을 전매국에 제출하여 등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경외투자연합연례검사잠정방법(境外投資聯合年檢暫行辦法)> 규정에 따라 경외기업의 연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국측의 주요 책임자는 도착 후 <경외중자기업(기구)보도등기제도(境外中資企業(機構)報到登記制度)>의 관련 요구에 따라 주 북한영사관 경상처(經商處)에 도착을 알리고 등록해야 하며, 중국측의 파견 인원은 반드시 우리 영사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전매국에서는 경외기업이 북한의 관련 법률법규를 열심히 연구하고 준수하도록 감독·재촉해야한다. 현지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안전을 중시하며 품질, 지식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여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경외기업의 경영과정 중에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주 북한영사관 경상처와 우리 부(합작사)에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2008년 1월 2일

### 부록 3. 중외중(中外中)물류에 대한 세관총서 공고 예시

세관총서공고 2014년 제42호[국내무역화물의 다국적 운송 시행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것에 관한 공고(關於拓展內貿貨物跨境運輸試點業務範圍的公告)]

법률유형: 세관규범성문건	내용유형: 수출입화물감독관리별
문 건: 총서공고 [2014] 42호	발행기관: 해관총서
발부일시: 2014-5-30	발효일자: 2014-5-30
효 력: 유효	
효력설명:	

국가 동북노공업기지를 진흥시킬 것에 관한 전략적 배치를 실현하고, 국외 항구를 이용하여 국내무역화물의 다국적 운송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관총서에서는 국내무역화물의 다국적 운송시행의 업무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식량, 목재, 동 등 증서가 필요한 3가지 상품을 길림성 국내무역 화물의 다국적 운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한다. 식량, 동은 컨테이너로 운송, 목재는 산적방식으로 운송한다.
2. 길림성 국내무역 화물의 다국적 운송 입국통상항구를 상해와 영파 통상항구가 있는 현 상황에 황포, 천주, 산두와 양포 통상항구를 더 추가한다.
3. 흑룡강성, 길림성의 국내무역 화물의 다국적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귀로컨테이너(返程集裝箱)를 사용하여 수출허가증

관리류 관련 상품과 수출관세를 징수 받는 상품을 제외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허락한다. 내무화물 다국적 운송을 통하여 입국하는 통상구에서 세관이 귀로컨테이너에 자물쇠 잠금을 실시하여 국내무역 화물의 다국적 운송 노선을 거쳐 국내무역 화물의 다국적 운송 출국 통상구에 되돌아오도록 한다.

4. 나머지 사항은 여전히 세관총서 공고 2007년 제5호, 2010년 제49호, 2011년 제21호, 2013년 제61호에 따라 실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4년 5월 30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정완.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철강수요 전망 및 북한 철광산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연구』.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사업단. 『중국기업의 북한진출현황』.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 지대)투자편람』. 평양: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8.
- 윤승현. 『두만강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9.
-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延邊年鑒 2014』. 延邊: 延邊人民出版社出版, 2014.

### 2. 논문

-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3.
- \_\_\_\_\_.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5.
- \_\_\_\_\_.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6.

-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8.
- \_\_\_\_\_. “北·中간 광물성생산품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2009년 신년사설의 금속공업강조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09.
- \_\_\_\_\_.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10.
- \_\_\_\_\_.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1.
- \_\_\_\_\_.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3.
- 원동욱.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철도수송 전략: ‘동변도철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통권 156호, 2005.12.
-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최용환 편. 『경기도의 북한 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
-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현동일. “두만강경제권 항만물류연구.” 창원대학교 무역·통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3. 기타자료

『국민일보』.

『금수강산』.

『길림신문』.

『노컷뉴스』.

『데일리NK』.

『로동신문』.

『문화일보』.

『연변일보』.

『연합뉴스』.

『영남일보 위클리포유』.

『조선신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흑룡강신문』.

『SBS 뉴스』.

『長白山日報』.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남북교역통계.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 4성론을 중심으로.” 『최근 조·중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2006.4.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지대에 가동중인 외자기업 56개.” 『북한 뉴스레터』. 1997.6.

- 동춘향운주식회사. 백두산항로 소개책자. 2006.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실태자료. 2005.7.
- 박기원 외. “북한 비즈니스, 어떤 외국회사가 하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자료, 2012.
- 배중렬. “동북삼성의 대북투자.”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2014.7.2.
- 백성호. “두만강유역 개발현황과 발전전망.”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 2009.12.9.
- 북한법연구회·한국법제연구원.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제동향 학술세미나자료집, 2012.4.27.
- 서철준. “두만강(훈춘)지역의 북한인적자원 협력과 개발.” 『동북아 시대 북한기업경영조명』. 연세대학교·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공동주최 제1회 북한기업경영심포지엄, 2015. 11.2.
- 유예진. “북-중 합자 담배공장 설립(대련무역관 이준호 보고 2007.12.10).”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12.26.
- 이종립. “동북아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한글판』. 한국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학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2014.7.2.
- 이준호. “북-중, 철 정제가루 선광합자회사 설립.”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6.15.
- 이창주·김범중. “中外中 물류환경 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물류리포트 제14-12호, 2014.11.24.

- 이향평(李向平). “중·한·북 3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전문가 세미나, 2007.4.3.
- 정주권. “평양 엘칸토 구두공장 성공사례 및 시사점.” 『북한의 지역개발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 연합인포맥스 주최 제2회  
통일금융컨퍼런스, 2015.11.5.
- 조영서. “남포 평화자동차 합영기업 성공사례 및 시사점.” 『북한의  
지역개발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 연합인포맥스  
주최 제2회 통일금융컨퍼런스, 2015.11.5.
- 포스코경영연구소. “세계 철광석산업 분석.” 『POSRI CEO Report』.  
3호, 2004.4.29.
-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길림성 자동차공업 및 철강업 발전  
전망.”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2.
- \_\_\_\_\_. “통화강철 북한 무산철광석 년 1천만 톤 50년 채굴권 획득.”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11.
- \_\_\_\_\_. “철강사 동향.”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6.1.
- 훈춘 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 자료. 2014.10.24.
- CLOUGH. “TumenNET Musan Iron Ore Mine Fact Finding Mission.”  
2002.
-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Attractive Furniture.” Foreign  
Trade of the DPRK, April 2004.
- \_\_\_\_\_. “Yonggwang Furniture Joint Company.” Foreign Trade  
of the DPRK, January 1995.
-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Report, March 1, 2012.
- Peregrine-Daesong Development Bank. Meeting Report, 1996.

Thompson, Drew.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at SAIS Report, February 2011.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2009年度第一期短期融資券募集說明書』, 2009.3.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朝鮮昊融國際鑛業有限責任公司的批复』. 商合批 518号, 2006.7.18.

\_\_\_\_\_. 『商務部關於同意設立清津水成川合作會社的批复』. 商合批 182号, 2007.3.12.

\_\_\_\_\_. 『商務部關於同意設立朝鮮榮光家具合營會社的批复』. 商合批 321号, 2007.4.29.

\_\_\_\_\_. 『商務部關於同意設立惠中礦業合營公司的批复』. 商合批 618号, 2007.8.3.

\_\_\_\_\_. 『商務部關於同意設立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的函』. 商合批 2号, 2008.1.2.

唱新(ちゃん).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世界經濟研究協會, 2006.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안윤석의 평양통신. <<http://blog.naver.com/ysan777>>.

연변라지오TV. <<http://news.iybtv.com>>.

연변생태문화예술협회. <<http://www.ybstwy.com>>.

연변인터넷방송. <<http://www.ybrt.cn>>.

연변인터넷투자유치관. <<http://www.ybinvest.gov.cn>>.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  
중국길림. <<http://korean.jl.gov.cn>>.  
중국조선어방송넷. <<http://www.krcnr.cn>>.  
중국조선어인터넷방송. <<http://korean.cntv.cn>>.  
투코리아. <<http://2korea.hani.co.kr>>.  
차이나윈도우. <<http://www.chinawindow.c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Public Intelligence. <<http://publicintelligence.net>>.  
US·Korea Institute at SAIS. <<http://uskoreainstitute.org>>.

21世紀珠寶網. <<http://news.21gem.com>>.  
58同城. <<http://qy.58.com>>.  
B2B98企業網. <<http://www.b2b98.net>>.  
CNKI數字圖書館. <<http://lib.cnki.net>>.  
TobaccoChina. <<http://www.tobaccochina.com>>.  
家仆網. <<http://tw.jiapujidi.com>>.  
經濟網. <<http://www.ceweekly.cn>>.  
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http://www.sasac.gov.cn>>.  
期刊平台. <<http://qikan.tobaccochina.net>>.  
吉林省商務廳. <<http://www.jldofcom.gov.cn>>.  
吉林省冶金研究院. <<http://jyyj1958.com>>.  
吉林省人民政府. <<http://www.jl.gov.cn>>.

吉林省政府網. <<http://old.jl.gov.cn>>.  
吉林省政府發展研究中心. <<http://fzzx.jl.gov.cn>>.  
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 <<http://www.jlic.net.cn>>.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http://www.jilintobacco.com.cn>>.  
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http://tianyucc.com>>.  
吉林昊融集團股份有限公司. <<http://www.horoc.com>>.  
吉安實業集團. <<http://hcjian.com>>.  
金農網. <<http://www.agri.com.cn>>.  
論文大全網. <<http://www.lunwendaquan.com>>.  
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http://www.dl.dy.ec.com.cn>>.  
圖們月宮街黨建. <<http://yg.tmdj.gov.cn>>.  
圖們政府網. <<http://www.tumen.gov.cn>>.  
羅先港. <[www.luoxiangang.com](http://www.luoxiangang.com)>.  
林糧油食品進出口[集團]有限公司. <<http://www.jlcofco.com>>.  
萬向集團. <<http://www.wxresources.com>>.  
網易財經. <<http://quotes.money.163.com>>.  
白山市人民政府. <<http://www.cbs.gov.cn>>.  
北大荒集團. <<http://www.chinabdh.com>>.  
時代周報. <<http://www.time-weekly.com>>.  
食品商務網. <<http://pagodasjq.21food.cn>>.  
新浪 新聞中心. <<http://news.sina.com.cn>>.  
新浪博客. <<http://blog.sina.com.cn>>.  
新浪財經. <<http://finance.sina.com.cn>>.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

亞泰集團. <<http://www.yatai.com>>.  
延吉投資促進網. <<http://www.yjjhj.com>>.  
延邊廣播電視台. <<http://cn.iybtv.com>>.  
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 <<http://www.ybdongbeiya.com>>.  
延邊網. <<http://www.hybrb.com>>.  
延邊朝鮮族自治州 農業信息網. <<http://yanbian.jlagri.gov.cn>>.  
延邊州政府. <<http://www.yanbian.gov.cn>>.  
延邊投資促進網. <<http://www.investyanbian.gov.cn>>.  
煙草網. <<http://wiki.ctt.cn>>.  
長白朝鮮族自治縣商務糧食經濟局. <<http://changbai.mofcom.gov.cn>>.  
長白朝鮮族自治縣人民政府辦公室. <<http://www.changbai.gov.cn>>.  
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 <<http://www.smii.com.cn>>.  
中國建材股份有限公司. <<http://www.cnbm ltd.com>>.  
中國建筑材料集團有限公司. <<http://www.cnbm.com.cn>>.  
中國企業家網. <<http://www.iceo.com.cn>>.  
中國論文網. <<http://www.xzbu.com>>.  
中國新聞網. <<http://www.chinanews.com>>.  
中國煙草. <<http://www.echinatobacco.com>>.  
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 <<http://www.cnmc.com.cn>>.  
中國有色金屬工業協會. <<http://www.chinania.org.cn>>.  
中國電力建設集團有限公司. <<http://www.powerchina.cn>>.  
中國第一汽車集團進出口公司. <<http://www.faw.com.cn>>.  
中國中小企業圖們信息網. <<http://www.tmsme.gov.cn>>.  
中國黃金集團公司. <<http://www.chinagoldgroup.com>>.

中金在線網. <<http://money.cnfol.com>>.

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 <<http://www.cnmm.co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

中華人民共和國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使館. <<http://kp.china-embassy.org>>.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http://www.customs.gov.cn>>.

知企業. <[www.zhiqiye.com](http://www.zhiqiye.com)>.

青島海泰祥投資顧問有限公司. <<http://www.hitteson.com>>.

投資朝鮮. <<http://www.idprkorea.com>>.

品品網. <<http://bbs.pinpinku.com>>.

海華集團. <<http://nacec.cn>>.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 <<http://www.unaforte.net>>.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http://www.pagodaseafood.com>>.

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http://hclaoji.com>>.

琿春邊境經濟合作區管委會. <<http://www.hchzq.gov.cn>>.

琿春示範區. <<http://www.hunchun.gov.cn>>.

琿春示範區網. <<http://www.hunchunnet.com>>.

琿春市人民政府. <<http://www.hcrd.gov.cn>>.

琿春市航務局. <<http://hwj.hunchun.gov.cn>>.

琿春信息網. <<http://hc.jl.cn>>.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http://vip.sol.com.cn/SOL04110475>>.

琿春招請網. <<http://zp.hc433.com>>.

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 <<http://www.hcfhzy.com>>.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 연구보고서

### 2013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 학술회의총서

---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기 타

---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b>※도로명 주소 기입必</b>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한국  
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